

연구보고 2007-07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

김은영
이소현
유은영
송신영

발 간 사

장애 영유아에 대한 무상 교육 및 보육 정책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장애 영유아들이 일반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교육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프로그램 운영상의 지침이 거의 없어서 현장의 교사들이 장애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들의 어려움은 곧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적 저하로 연결됩니다.

현재 일반 기관에서 교육과 보육을 받고 있는 많은 장애 영유아들은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있을 뿐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교육적 통합이나 한 학급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역할을 다하는 사회적 통합 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준비 없이 행해진 물리적 통합만으로는 진정한 통합이 될 수가 없으며, 이러한 통합은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 및 보육의 질을 저하시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기존의 연구가 유아교육이나 보육 한 분야만 다루었던 반면, 본 연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비록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체계는 다르지만 장애 영유아들이 어떤 기관을 선택하건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 설문조사, 워크숍에 참여해 주신 수많은 현장의 원장님과 원감님, 선생님,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워크숍과 자문회의에 참석하셔서 귀한 의견을 주신 정부 부처의 담당 공무원 분들과 관련 전문가 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실화 방안들이 장애 영유아가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고 원만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수용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12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이 욱

연구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아에 대한 무상 교육 및 보육 정책에 따라 점점 많은 장애 영유아들이 일반기관에 통합되어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프로그램 운영상의 지침이 거의 없어서 교사들이 장애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 영유아 역시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있을 뿐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교육적 통합이나 한 학급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역할을 다하는 사회적 통합 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움.
- 유치원과 보육시설 중 기관 선택에 따라 장애 영유아가 받는 혜택과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의 질은 상당히 다를 수 있으므로 장애 영유아 입장에서 어떤 기관을 선택하건 동일한 지원을 받으며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방안 제시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관련 제도를 분석하며, 장애 영유아와 통합시설의 현황과 실태 및 요구 조사, 사례 분석을 통해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연구 내용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관련 제도 분석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관련된 현행 법령
 -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기관에 대한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의 성격과 운영 실태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현황 분석
 - 통계자료를 통한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의 수요와 공급 상황 분석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실태와 요구 조사 분석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실태 분석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만족도와 요구 분석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사례 제시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제안

다.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포커스그룹 인터뷰
 - 설문지 제작을 위해 서울 경기 지역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기관장, 교사, 장애 영유아 부모 등 통합교육 및 보육 관계자 41명을 대상으로, 기관과 대상별로 6차에 걸쳐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함.
- 설문조사
 -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기관장,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함.
- 사례조사
 -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시사점을 찾고자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비교적 잘 하고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각 한 기관씩을 대상으로 문서수집, 관찰,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조사 틀에 의거하여 분석함.
- 워크숍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정책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유치원과 보육시설 현장의 기관장, 교사, 학부모, 관련 전문가와 행정가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함.

□ 전문가 자문회의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2차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함.

2.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

가.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의 개념과 사회적 동향

□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의 개념

- 전문가들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은 장애 영유아들이 일반 교육 및 보육 환경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동일한 소속감을 느끼며 동등한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함(이소현, 2003).

□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의 사회적 동향

- 1960년대에 정상화 개념이 전파되면서 장애 영유아를 일반 영유아와 통합하여 교육하고 보육하는 것이 인도주의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분리 및 통합교육의 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됨.
- UN, UNESCO, UNICEF 등 여러 국제기구의 선언 및 국제협약, 정상회담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장애인의 권리 등이 언급되면서 직간접적으로 통합교육의 당위성이 부각됨.
- 미국, 유럽 국가들, 일본 등에서도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70 ~ 80년대에 통합교육의 개념이 싹트기 시작하여,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하고 통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아에 대한 통합교육의 법적, 사회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 유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3세 미만 장애 영아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장애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나.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인적 환경

-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담당교사들의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그들을 위한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식,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관련 교사들의 협력이 요구됨.
-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실시 기관 기관장의 통합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리더십은 전체적인 기관의 변화 및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성공을 위해 매우 필수적이며, 장애 영유아의 배치에 대한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침.
- 특수교육보조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의 보조인력 유무,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 등 인적 자원의 구성도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침.

□ 물리적 환경

- 장애 영유아가 필요로 하는 장비와 물리적 환경은 장애 영유아의 정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가능하게 함.
- 장애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출입문, 경사로, 책걸상, 화장실 등의 접근에 있어서 편의성과 시각 및 청각 장애 유아를 위한 경보, 피난 설비,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 설비, 지체 부자유 학생용 책걸상, 세면대, 계단용 휠체어 리프트, 손잡이 등이 필요함.
- 교실 내에서는 자리 배정, 물리적 공간 배치, 보조공학기기나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 등의 배려가 필요함.

□ 프로그램 운영

-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작성과 이에 근거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 영유아와 관련된 문제 행동의 관리 등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 재구성이 요구됨.
- 장애 영유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있어서 꼭 실행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임.

□ 가정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 가정과 기관의 연계와 협조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이나 보육의 계획에서부터 시작하여 교육 연계성이나 전이 측면에서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 장애 영유아는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가지므로, 교사와 관련 서비스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장애 영유아들이 과거 혹은 현재 받고 있는 다양한 교육과 치료지원과의 연계와 협력이 요구됨.

다.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에 대한 선행 연구

□ 장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실태 관련 선행 연구 분석

- 장애아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거나 연수 등의 훈련이 부족하여 장애아 지도나 통합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개별화 교육 계획은 전적으로 특수교사가 담당하거나 일부만 통합학급 교사와 협의하는 것이 대부분임.
- 통합학급 교사는 본인의 희망보다는 다른 외적 요인에 의해 장애아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효율적인 통합교육 실행을 위해 일반 학생 수 경감과 보조원 배치에 대한 지원을 바라고 있음.
- 학부모 대상 장애이해교육이 많이 부족하고, 교사들은 장애 영유아의 생활지도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나 학부모들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가장 원하며, 문제행동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에는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해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통학과 화장실 사용이 불편하다는 고충을 토로함.
- 가정과의 협력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사회와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지 않음.

□ 장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활성화·내실화 방안 관련 연구 분석

-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서는 장애 영유아의 적응능력, 충분히 교육받은 교사의 교수적 지원, 치료적 중재, 학습기회를 삼입할 수 있는 학급의 환경, 관계자들의 태도 및 부모, 교사, 전문가와의 협동적이고 신뢰적인 관계가 요구됨.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관련 정책연구 분석

-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이 보다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의 개념 재정립, 조기선별과 진단 및 배치 체계 구축, 통합교육 중심의 무상교육 기회 확대, 최상의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적 자원 배치와 연수 실시 및 인센티브 제공,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 통합학급 운영 프로그램과 교수자료의 개발과 보급,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체계 확립,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제고, 소요 예산 확보 및 융통성 있는 운영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

3.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관련 제도와 현황

가.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관련 제도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의 법적 근거

- 장애 영유아 관련법은 장애 영유아의 사회적인 위상을 알아볼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실제로 이들을 보호하는 방편이 됨.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관련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과 가장 최근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등이 있음.
- 학습권: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법의 일부 조항에서 국민의 학습권과 교육기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장애 영유아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차별 금지: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의 일부 조항에서 차별 금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장애 영유아들이 장애를 이유로 교육이나 보육을 받는 데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특수교육법은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장애 유아의 유치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만 3세 미만 장애 영아 교육은 무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장애아 보육 우선 실시: 영유아보육법은 일반 보육에 앞서 장애 영유아 보육을 우선적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통합교육 관련 정의: 특수교육법은 통합교육, 개별화 교육, 특수학급 등

특수교육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와 장애의 종류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장애 영유아 교육과 보육 지원: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영유아 교육과 보육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상의 규정들은 모든 교육기관이 장애인의 교육을 위해 물리적 환경을 구비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교원 자질: 특수교육법은 장애 영유아 교육을 맡고 있는 교원의 자질 향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통합교육 운영: 특수교육법의 많은 조항들이 통합교육의 운영, 개별화 교육의 실행, 특수교육지원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순회교육, 유치원 종일제 운영 담당 인력 배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음.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을 위한 재정지원 현황

- 국공립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중앙정부에서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 외에 교사의 인건비를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장애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교육비 외에 시설이나 교사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 2007년 현재 지방정부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16개 시도 중 8개의 시도와 232개의 시군구 중 10개의 시군구가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방정부별로 지원 사업명과 규모, 지원액이 다양해 장애 영유아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지원 혜택을 다르게 받고 있음. 한편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어, 같은 지역에서도 영유아가 다니고 있는 기관의 종류에 따라 그 혜택이 달라질 수 있음.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보육 지원 체제

- 특수교육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는 특수교육 대상학생 지원을 위해 지역교육청,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2007년 현재 182곳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영유아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보육정보센터는 규정상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2007년 12월 현재 중앙

보육정보센터를 포함해 전국 16개 시도와 시군구에 총 38개의 보육정보센터가 있으며, 앞으로 시군구 지역에 지속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 장애아통합보육지원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테마기획 사업으로 2006년부터 3년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9개 복지관이 선정되어 각각 4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통합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나.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현황

□ 장애 영유아 기관 배치 현황

- 0~5세 장애 영유아 출현율을 2% 정도로 간주할 때, 장애 영유아들은 특수교육기관에 2%, 일반유치원에 3%,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에 9%,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에 6% 정도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80%는 어느 곳에도 배치되어 있지 않음.
-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중 장애 영유아가 가장 많이 배치된 곳은 장애아전담 보육시설로 46.00%이며, 그 다음은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28.10%, 일반 유치원 17.34%, 특수교육기관 8.56%순으로 나타남.
- 기관에 배치된 장애 영유아 중 보육시설에 배치된 영유아가 74.11%로 유아교육기관에 배치된 영유아의 2.9배 정도임.
- 특수전담기관에 배치된 장애 영유아의 수가 54.56%로 더 많았으나, 일반통합기관에 배치된 장애 영유아 수도 45.44%로 큰 차이는 없었음.

□ 장애 유아 통합교육 현황

-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기관은 감소하는 반면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유치원수는 증가하고 있음.
- 일반 유치원에 통합되는 장애 유아 수도 계속 늘고 있어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 유아 수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특수교육기관, 특수학급순으로 나타남.
- 유치원 통합학급의 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소지자 및 60시간 이상 연수자는 일부에 불과함.
- 유치원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의 연령별 장애 유아 수는 일반학급에 재원하고 있는 장애 유아 수가 특수학급에 재원하고 있는 장애 유아 수의 2.5배 정도임.

- 통합 실시 유치원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과 경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유아가 통합교육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움을 알 수 있음.

□ 장애 영유아 통합보육 현황

- 장애아 전담시설에 재원하는 아동이 장애아 통합시설에 재원하는 아동에 비해 1.6배 이상 더 많음.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의 경우는 시설 수와 장애아 수 모두 법인보육시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민간개인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순으로 나타난 반면,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은 민간개인보육시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국공립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순으로 나타남.
-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에 재원하는 장애 영유아는 시설 전체 영유아의 6.67% 정도임.
- 통합보육시설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과 경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은 통합보육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움을 알 수 있음.

4.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실태와 요구 분석

가. 인적 환경

□ 전문인력

-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관장, 교사, 학부모 모두 특수교사와 치료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관장은 보조인력 지원을 들었고, 교사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조정이라고 응답함.
- 기관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통합학급의 담당자도 일반교사 1인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원확보에 대한 만족도도 불만족이 더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현장에서는 인력 확보에서부터 어려움이 상존함을 알 수 있음.
- 고용하기 어려운 인력으로는 특수교사가 가장 응답비율이 높고 그 다음은 치료사로 나타나 통합학급의 전문인력 수급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이러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예산부족이나 낮은 임금 등이 가장 큰 요인임.

- 현재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중 특수교육이나 통합교육 관련 교육이나 연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가 4명 당 1명 정도로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시급하며,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교사의 관심이나 연수 경험 여부에 상관없이 일반교사가 장애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 연수내용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개별화 교육, 교수방법, 통합에 대한 이해 등임. 대상에 따라서 일반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문제행동 중재방법과 그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과 교수법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고, 특수교사는 장애아의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내용과 일반아의 특성이나 이들을 위한 교수법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학부모들은 교사의 자질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93%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합 담당교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인성이라고 응답함.

□ 보조인력

-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조인력이 있는 기관이 29%에 불과하였으며, 있는 경우에도 교육청이나 시군구청이 지원하는 인력보다 자원봉사자나 친인척, 학부모나 기관이 고용한 인력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함.
- 현장의 교사들은 보조인력을 활동참여 보조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활동지도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문제행동 발생시와 행사참여시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남. 이는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보조인력이 필요하며, 또한 특별한 행사시에도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보조인력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 연령과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교사들은 특수교사 대 장애 영유아의 비율을 1 대 2 정도로 해 주길 원하고 있으며, 일반교사 대 일반아의 비율은 1 대 15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음. 또한 장애 영유아 1인당 일반아 5명을 줄여주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교사 대 영유아 비율에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며, 만 4

세의 경우 이상적인 비율을 교사 2명, 일반아 15명, 장애아 2명이라고 생각함. 유치원 만 5세 학급의 경우에도 장애아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일반 유아 수를 20명 정도로 줄여주기를 희망함.

- 전문가들은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오히려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하며, 교사의 역량에 따라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이 현행 1 대 3이나 4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기도 함.

나. 물리적 환경

□ 편의시설과 그 밖의 환경적 배려

- 기관장의 경우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배려를 안 한다는 응답이 59.4%로 배려를 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배려를 하는 기관 중 편의시설을 배려한다는 응답은 75.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기관장이 물리적 환경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장애의 특성상 불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제외하고 인력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예산부족임.
- 교사의 경우 물리적 환경을 배려한다는 응답이 58.0%로 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 42.0%보다 높게 나타남. 물리적 환경을 배려하는 교사 중 장애 영유아가 이동하기 편하도록 교실이나 보육실 공간을 구성한다는 비율이 36.3%정도임. 물리적 환경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장애 특성상 불필요하다는 응답을 제외하고는 정보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인력부족, 예산 부족 순이었음.
- 기관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관장과 교사 모두 30% 정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서는 특별히 편의시설이나 장비 등에서 배려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었음.
-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는 만족이 72.1%, 보통이 23.8%, 불만족이 4.1%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 A 어린이집은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은 없었으나 손잡이,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수전과 문의 손잡이 등에서 장애 영유아를 위한 배려가 있었음. 교사들은 학급에서 집단 활동시의 자리 배정 등에서 장애 영유아를 위해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었음.

□ 보조공학기기

- 장애 영유아를 위해 물리적 환경을 배려한다는 기관장과 교사 중 각각 7.9%와 8.5%만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한다고 응답함. 이러한 배려를 못하는 이유는 인력부족, 정보부족, 예산부족임.
-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 A 유치원은 특수 의자가 있음에도 창고에 넣어놓고 활용하지 않고 있었고, S 어린이집은 바퀴가 달린 특수 의자를 자체 제작하여 잘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 경사로 책상,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구, 보조젓가락, 특수가위 등의 보조공학기기를 갖추고 있었음.

□ 교재교구

-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물리적 환경은 장애 영유아 교육을 위한 교재교구였으며, 기관장들도 개별 공간 확보에 이어 두 번째로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교사들이 교재교구를 포함한 물리적 환경을 배려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부족임.
-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 A 유치원의 경우 통합학급에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에서의 배려가 없었으며, 장애 영유아가 사용하는 교재는 대부분 특수교사가 별도로 준비한 것들이었음. A 어린이집의 경우는 통합학급에 장애 영유아의 수준을 생각하여 유아 학급에도 영아용 놀잇감을 비치하고 있었음.

다. 프로그램 운영

□ 입학 및 학급 구성

- 장애 영유아의 기관 입학 결정 방법은 기관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허용하는 비율이 2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운영자 결정 17.2%, 교육청 배치 11.5%, 교사회의 10.7% 순이었음.
- 장애 영유아의 선발기준으로는 장애 유형이라는 응답이 63.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문제행동 정도 42.5%, 보행가능성 29.4%, 자조기술 26.7% 순이었음.

- 기관에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이나 통합보육을 하게 된 계기는 기관의 설립취지인 경우가 46.9%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 요청이 36.3%로 그 다음이었음. 그러나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에 따라 편차가 심하여 보육 시설은 설립취지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설립취지보다는 학부모의 요청으로 받게 된 경우가 더 많았음.
- 교사가 장애 영유아 학급을 담당하게 된 계기는 본인 희망이 34.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원장 권유 21.4%, 학부모 요청 14.6% 순이었음. 교사의 응답도 기관·설립 유형에 따라 편차가 커서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요청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어쩔 수 없는 기타 상황과 원장 권유가 각각 23.7%, 23.3%였고, 본인 희망에 의해 담당하게 된 경우는 10%도 채 되지 않음.
- 기관의 통합 형태는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모두 통합해서 운영하는 완전 통합의 형태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통합의 형태는 오히려 완전통합의 형태가 56% ~ 71%로 현재의 상태인 80%보다 더 낮게 나타났고, 시간제 부분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7% ~ 38%로 나타나 13% ~ 17%인 현실에 비해 시간제 부분통합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음. 시간제 부분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교사가 가장 높았음. 이러한 결과는 완전통합을 추구하는 사회적 동향과 조금 다른 결과임.
-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 S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입급 심사를 하지만, 형식적이고 대개 선착순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통합학급 교사선정은 상황에 따라 결정함. 한편 A 어린이집에서는 3배수의 아동을 대기 순서대로 면접하여 선정위원회가 입소를 결정함. 이때 기존의 장애와 다른 장애를 가진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함. 통합지원교사 선정은 전공이나 교사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함.

□ 프로그램 운영 내용

- 현장에서는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가 실시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네 기관 중 한 기관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교육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실시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2.5%, 시간부족이라는 응

답이 10.6%였음.

-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은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작성을 안 하는 경우보다 조금 더 많았으나, 기관유형에 따라 보육시설은 10개 시설 중 7개의 시설이 작성을 하고 있었고, 유치원은 10개원 중 3개원만 작성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사립유치원은 10개원 중 1개원 정도만 작성하고 있어 집단 간 차이가 큼.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기관 유형, 기관·설립유형, 지역에 상관없이 전문인력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작성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교사들이 장애 영유아를 위해 교육적 배려를 하는 것은 또래들과의 놀이 및 사회적 지도가 8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신변처리 및 기본생활습관지도 58.6%, 일반 영유아들의 태도 및 수용도 증진 45.1%, 의사소통과 관련된 지도 39.8% 순으로 나타남. 반면에 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 영유아의 발달 기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응답은 거의 모든 발달에 있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참여도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았고, 치료지원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50% 이하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전문가 지원

- 교사들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활동 계획시 참조하는 것은 특수교육관련 교재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동료교사 자문 26.5%, 인터넷 22.8% 순이었고, 외부자문을 받는 경우는 4.9%로 아주 낮았음.
-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 교사들은 담당하고 있는 장애 영유아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된 정보제공 사이트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함.

라. 가정 및 타 기관과의 연계

□ 가정과의 연계

- 기관에서는 장애 영유아 부모들의 요구가 부담스럽고, 부모들은 기관의 요구가 부담스럽거나 기관장이나 교사들의 태도에 섭섭함을 느낌.
- 기관에서 장애 영유아 가족에게 교육 프로그램 참여 요구를 하는 경우

는 활동 계획시, 활동시, 평가시 70% ~ 75% 정도이며, 실제로 참여하는 경우는 67% ~ 73%임.

- 가정과의 의사소통 방식은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68.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기관 홈페이지 54.0%, 가정방문 53.8%, 가정통신문 39.3% 순이었음.
- 가정과의 의사소통 내용은 장애 영유아의 기관에서의 생활이 7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부모협조사항 57.8%, 자녀의 성장발달 54.2%, 문제행동 대처방법 49.3%, 교육(보육)과정과 활동 38.9% 순이었음.
- 장애 영유아 부모들은 기관과의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 만족하나 더 많이 의사소통하기를 원하고 있음.
- 학부모들의 기관과 가족과의 연계에 대한 만족도는 부모교육 및 상담 영역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71.2%였고, 부모참여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56.7%였음.

□ 타 기관과의 협력

- 통합을 위한 공식적인 자문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사회단체나 복지기관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가 1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의 지원 14.8%, 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의 도움 12.3% 순이었음.
- 외부 자문을 받는 내용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3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교사 연수 30.0%, 치료교육 15.6%, 진단 및 검사 13.3%, 가족상담 4.2% 순이었음.
- 현장에서 통합관련 기관이나 장애 영유아 담당자 목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 기관장과 교사가 공통적으로 연계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관은 의료 기관으로 각각 38.1%, 32.6%였으며, 두 번째로 기관장은 외부 전문가라고 응답한 반면(34.6%), 교사는 정규 일과 후 장애 영유아 담당기관이라고 응답함(31.5%).
- 타 기관에 대한 협조 여부에 대한 응답에서 서로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비교적 협조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협조가 안 되는 경우,

그 이유로 공식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마. 정책 지원

□ 지원 실태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교육과 관련하여 10개 중 7개의 기관이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지원 내용은 교사인건비, 교재교구비, 장애 영유아 교육비 및 급식비, 보조인력, 기관운영비 순이었음. 기관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보육시설이 유치원에 비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보육시설은 교사인건비 지원이 유치원에 비해 훨씬 많았고, 유치원은 아동당 교육비와 급식비 지원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나 내용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임.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교육과 관련하여 10명 중 3명의 교사가 관련 혜택을 받고 있었으며, 교사가 받는 지원은 특별수당과 보조인력 지원 등임. 교사가 받는 혜택도 기관유형에 따라 보육시설이 유치원에 비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보육시설은 특별수당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 반면, 유치원은 보조인력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음.

5.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가. 인적환경의 질 제고

□ 전문인력의 수급과 전문성 제고

- 전문성을 지닌 인력 수급 및 수당 지급
- 현직교사와 예비교사 연수 및 지원을 통한 전문인력의 질 관리
 - 맞춤형 현직교사 연수
 - 일반교사 양성교육과정 개선
 - 통합학급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 기관장의 전문성 제고

□ 보조인력의 배치와 질 제고

- 전문 보조인력 지원
- 일반 보조인력 지원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하향화

나. 물리적 환경 개선

- 편의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환경적 배려
-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관련 연수
- 교재교구 및 제작 매뉴얼 보급

다. 적절한 배치 및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 통합교육의 질을 고려한 적절한 배치
-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관련 서비스 지원
 -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의 시행
 -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
 - 치료지원
- 전문가 지원 체계 및 자문 사이트 구축

라. 가정과의 연계 및 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 긴밀한 가정과의 연계 및 가족 지원
 - 장애 영유아 통합기관에 대한 정확한 홍보
 -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 부모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 개별화가족지원서비스 시행
- 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 장애 영유아 관련 기관의 목록 작성 및 협조체계 구축

- 장애 영유아에 대한 정보 교환과 공유
- 타 기관의 장애 영유아 담당자와 긴밀한 관계 유지

마. 정책 지원

- 지역 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프로그램 지원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위한 센터의 역할 규정
 - 장애 영유아 담당 전담 전문인력 배치의 제도화
- 중앙정부의 형평성 있는 재정지원
 - 장애 영유아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
 - 전담기관과 통합기관, 유치원과 보육시설, 국공립 기관과 사립민간 기관에 따른 재정지원의 차별을 없애고, 통합기관으로 선정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담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야 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3
3. 연구 방법	4
II.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	19
1.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의 개념과 사회적 동향	19
2.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25
3.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에 대한 선행 연구	31
III.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관련 제도와 현황	39
1.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관련 제도	39
2.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현황	55
IV.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실태와 요구 분석	65
1.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실태 분석	66
2.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만족도 및 요구 분석	134
V.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178
1. 인적환경의 질 제고	178
2. 물리적 환경 개선	190
3. 적절한 배치 및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196
4. 가정과의 연계 및 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204
5. 정책 지원	208
참고문헌	215

부록	219
1.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 배경	221
2.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 목록	224
3. 설문지 구성의 근거	225
4. 기관장 대상 설문지	241
5. 교사 대상 설문지	248
6. 학부모 대상 설문지	256
7. 설문조사 추가 분석표	263

표 목 차

〈표 I-3-1〉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 배경 특성	5
〈표 I-3-2〉 설문 참여 기관장의 배경 특성	7
〈표 I-3-3〉 설문 참여 교사의 배경 특성	8
〈표 I-3-4〉 설문 참여 학부모의 배경 특성	9
〈표 I-3-5〉 기관장 대상 설문지의 구성	10
〈표 I-3-6〉 교사 대상 설문지의 구성	11
〈표 I-3-7〉 학부모 대상 설문지의 구성	12
〈표 I-3-8〉 사례조사의 틀	14
〈표 I-3-9〉 워크숍 참여자 배경 특성	16
〈표 I-3-10〉 1차 자문회의 참여자 배경 특성	17
〈표 I-3-11〉 2차 자문회의 참여자 배경 특성	18
〈표 II-1-1〉 장애 영유아 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 및 정의	19
〈표 II-1-2〉 장애와 교육 관련 국제적 정책문서	22
〈표 III-1-1〉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관련 법령	39
〈표 III-1-2〉 장애 영유아 관련 법 중 학습권 관련 내용	40
〈표 III-1-3〉 장애 영유아 관련 법 중 차별 금지 관련 내용	41
〈표 III-1-4〉 장애 영유아 관련 법 중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관련 내용	41
〈표 III-1-5〉 장애 영유아 관련 법 중 장애아 보육 우선 관련 내용	42
〈표 III-1-6〉 장애 영유아 관련 법 중 통합교육 관련 정의	42
〈표 III-1-7〉 장애 영유아 관련 법 중 교육과 보육 지원 관련 내용	43
〈표 III-1-8〉 장애 영유아 관련 법 중 교원 자질 관련 내용	44
〈표 III-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중 통합교육 운영 관련 내용	44
〈표 III-1-10〉 통합보육 실시 보육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47
〈표 III-1-11〉 지방정부의 장애아 통합시설 지원	48
〈표 III-1-12〉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 규정	50
〈표 III-1-13〉 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51
〈표 III-1-14〉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구성과 기능	52
〈표 III-1-15〉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53

〈표 III-2-1〉 장애 영유아 기관 배치 현황	55
〈표 III-2-2〉 시도별 기관 배치 장애 영유아 수와 비율 I	57
〈표 III-2-3〉 시도별 기관 배치 장애 영유아 수와 비율 II	58
〈표 III-2-4〉 특수교육대상 배치 유아교육기관, 학급, 유아 현황	59
〈표 III-2-5〉 유치원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연령별 장애 유아 수	59
〈표 III-2-6〉 유치원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장애 유형별 유아 수	60
〈표 III-2-7〉 설립 주체에 따른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과 특수학급의 지역별 분포	61
〈표 III-2-8〉 특수교육대상 배치 보육시설 및 아동 현황	62
〈표 III-2-9〉 설립주체별 장애아 보육시설과 장애아 수	62
〈표 III-2-10〉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아동 현황	63
〈표 III-2-11〉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63
〈표 III-2-12〉 설립 주체에 따른 통합보육시설의 지역별 분포	64
〈표 IV-1-1〉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전문인력 유무	66
〈표 IV-1-2〉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전문인력 유형별 배치 비율(중복응답)	67
〈표 IV-1-3〉 통합학급 담당자	68
〈표 IV-1-4〉 교사 간 협력에 대한 인식	69
〈표 IV-1-5〉 교사 역할 분담 방식	70
〈표 IV-1-6〉 장애 영유아 통합 관련 연수 경험 유무	71
〈표 IV-1-7〉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조인력 유무	74
〈표 IV-1-8〉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조인력의 유형별 배치 비율	75
〈표 IV-1-9〉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조인력 활용방법	76
〈표 IV-1-10〉 장애 영유아 통합학급에서 보조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77
〈표 IV-1-11〉 교사 대 영유아의 현 비율과 이상적인 비율	80
〈표 IV-1-12〉 장애 영유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 배려 여부: 기관장	84
〈표 IV-1-13〉 장애 영유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 배려 여부: 교사	85
〈표 IV-1-14〉 장애 영유아를 위한 유형별 물리적 환경 배려 비율: 기관장	86
〈표 IV-1-15〉 장애 영유아를 위한 내용별 물리적 환경 배려 비율: 교사	87
〈표 IV-1-16〉 물리적 환경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유: 기관장	88
〈표 IV-1-17〉 물리적 환경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유: 교사	89
〈표 IV-1-18〉 장애 영유아의 입학 결정 방법	92
〈표 IV-1-19〉 장애 영유아의 선발 기준(중복응답)	93

〈표 IV-1-20〉 프로그램 운영시간과 통합시간: 기관장	95
〈표 IV-1-21〉 프로그램 운영시간과 통합시간: 교사	96
〈표 IV-1-22〉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시행 여부: 기관장	98
〈표 IV-1-23〉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시행 대상(중복응답)	99
〈표 IV-1-24〉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시행하지 않는 이유	100
〈표 IV-1-25〉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작성 여부: 교사	101
〈표 IV-1-26〉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팀의 구성원(중복응답)	102
〈표 IV-1-27〉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103
〈표 IV-1-28〉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적 배려의 유형(중복응답)	104
〈표 IV-1-29〉 가족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요구 여부	109
〈표 IV-1-30〉 가족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여부	110
〈표 IV-1-31〉 가정과의 의사소통 방식(중복응답): 교사	111
〈표 IV-1-32〉 가정과의 의사소통 내용(중복응답): 교사	112
〈표 IV-1-33〉 통합을 위한 공식적인 외부 자문 통로	115
〈표 IV-1-34〉 통합을 위한 공식적인 외부 자문 내용	116
〈표 IV-1-35〉 통합 관련 기관이나 장애 영유아 담당자 목록 유무: 기관장	117
〈표 IV-1-36〉 통합 관련 기관이나 장애 영유아 담당자 목록 유무: 교사	118
〈표 IV-1-37〉 타 기관과의 협조 정도	120
〈표 IV-1-38〉 타 기관과의 협조 내용	121
〈표 IV-1-39〉 타 기관과의 협조가 안 되는 이유	122
〈표 IV-1-40〉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보육 관련 지원 여부: 기관장	124
〈표 IV-1-41〉 장애 영유아 통합 관련 내용별 지원 여부: 기관장(중복응답)	125
〈표 IV-1-42〉 장애 통합 관련 지원 금액 및 인원: 기관장	126
〈표 IV-1-43〉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보육 관련 혜택 여부: 교사	127
〈표 IV-1-44〉 장애 영유아 통합 관련 내용별 혜택 여부: 교사	128
〈표 IV-1-45〉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어려운 점: 기관장	130
〈표 IV-1-46〉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어려운 점: 교사	131
〈표 IV-1-47〉 자녀를 통합기관에 보내면서 어려운 점: 학부모	133
〈표 IV-2-1〉 직원 확보에 대한 만족 여부: 기관장	134
〈표 IV-2-2〉 고용하기 어려운 자격 소지자	136
〈표 IV-2-3〉 자격 소지 직원 확보가 어려운 이유	137

〈표 IV-2-4〉 인적자원에 대한 만족도: 학부모	137
〈표 IV-2-5〉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	139
〈표 IV-2-6〉 특수교사의 자문이 필요한 영역: 일반교사	140
〈표 IV-2-7〉 일반교사의 자문이 필요한 영역: 특수교사	141
〈표 IV-2-8〉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위해 중요한 교사교육 내용	142
〈표 IV-2-9〉 통합 담당교사의 가장 중요한 요건: 학부모	143
〈표 IV-2-10〉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 학부모	145
〈표 IV-2-11〉 시급하게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여부: 기관장	146
〈표 IV-2-12〉 시급하게 필요한 장비나 교재교구 여부: 교사	147
〈표 IV-2-13〉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별 만족도 I: 학부모	150
〈표 IV-2-14〉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별 만족도 II: 학부모	151
〈표 IV-2-15〉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통한 자녀 발달 만족여부 I	152
〈표 IV-2-16〉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통한 자녀 발달 만족여부 II	153
〈표 IV-2-17〉 현재의 통합 형태와 바람직한 통합 형태: 기관장	155
〈표 IV-2-18〉 현재의 통합 형태와 바람직한 통합 형태: 교사	156
〈표 IV-2-19〉 현재의 통합 형태와 바람직한 통합 형태: 학부모	158
〈표 IV-2-20〉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통한 자녀 발달 기대비율 I	160
〈표 IV-2-21〉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통한 자녀 발달 기대비율 II	161
〈표 IV-2-22〉 가족연계에 대한 만족도: 학부모	163
〈표 IV-2-23〉 기관과의 내용별 추가 의사소통 요구 유무 I: 학부모	165
〈표 IV-2-24〉 기관과의 내용별 추가 의사소통 요구 유무 II: 학부모	166
〈표 IV-2-25〉 연계가 필요한 기관과 서비스 분야: 기관장	167
〈표 IV-2-26〉 연계가 필요한 기관과 서비스 분야: 교사	168
〈표 IV-2-27〉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선결 사항: 기관장	170
〈표 IV-2-28〉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선결 사항: 교사	172
〈표 IV-2-29〉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선결 사항: 학부모	173
〈표 IV-2-30〉 통합학급 일반 영유아 수의 경감 필요 여부: 교사	175
〈표 IV-2-31〉 통합학급 일반 영유아 수의 경감 정도	176

그 립 목 차

[그림 III-2-1] 장애 영유아 기관 배치 현황	56
[그림 IV-2-1] 바람직한 통합 형태에 대한 의견	159
[그림 IV-2-2] 통합의 질 향상을 위한 선결 사항에 대한 대상별 비교	174
[그림 V-1-1] 인적 환경의 질 제고를 위한 전략 로드맵	189
[그림 V-2-1]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 로드맵	195
[그림 V-3-1]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략 로드맵	203
[그림 V-4-1] 가정 및 타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전략 로드맵	207
[그림 V-5-1] 정책 지원을 위한 전략 로드맵	214

부 표 목 차

<부표 I-3-1>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 유치원장 배경 특성	221
<부표 I-3-2>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 보육시설장 배경 특성	221
<부표 I-3-3>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 유치원교사 배경 특성	222
<부표 I-3-4>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 보육교사 배경 특성	222
<부표 I-3-5>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 유치원 학부모 배경 특성	223
<부표 I-3-6>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 보육시설 학부모 배경 특성	223
<부표 IV-1-1>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이나 통합보육을 하게 된 계기: 기관장 ..	263
<부표 IV-1-2> 장애 영유아 학급을 담당하게 된 계기: 교사	265
<부표 IV-1-3> 장애 영유아를 위한 활동 계획시 참조 자원	266
<부표 IV-1-4> 통합학급 활동 선택시 중요 고려 요소	267
<부표 IV-1-5> 부모 대상 정보 제공 정도 I	269
<부표 IV-1-6> 부모 대상 정보 제공 정도 II	270
<부표 IV-1-7> 가정 연계 프로그램의 소개 및 참여 여부와 참여 희망 횟수 I ·	274
<부표 IV-1-8> 가정 연계 프로그램의 소개 및 참여 여부와 참여 희망 횟수 II ·	275
<부표 IV-1-9> 가정 연계 프로그램의 소개 및 참여 여부와 참여 희망 횟수 III ·	276
<부표 IV-1-10> 가정 연계 프로그램의 소개 및 참여 여부와 참여 희망 횟수 IV ·	277
<부표 IV-1-11> 기관과의 내용별 의사소통 유무 I: 학부모	278
<부표 IV-1-12> 기관과의 내용별 의사소통 유무 II: 학부모	279
<부표 IV-1-13> 자녀양육 관련 조언을 구하는 대상	28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아에 대한 무상 교육 및 보육 정책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장애 영유아들이 일반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교육과 보육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반교사들이 장애 영유아를 담당하는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미 서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통합교육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고, 현재는 완전통합(full inclusion)을 지향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공법 94-142에 최소 제한적 환경이라는 개념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통합교육의 형태로 실천해 왔으며, 그 이후 공법 99-457을 통해 장애아에 대한 무상교육과 더 어린 영아에 대한 교육적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개정 과정에서 통합교육의 개념이 소개되었고, 현재는 특수교육 차원에서의 통합교육에서 전체교육 차원¹⁾에서의 통합교육으로 그 논의의 방향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에 의해 3~5세 장애 유아들은 의무교육, 0~3세 장애 영아들은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2004)에서는 0~5세 장애 영유아들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서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교육적 의무와 준거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일반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통합되는 장애 영유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현재 일반 유치원에서 특수학급에 599명, 일반학급에 1,492명의 장애 유아들을 통합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통합보육시설에서 3,390명, 일반보육시설에서 682명의 장애 영유아들을 통합하여 보육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과 보육 현장에서 점점 많은 장애 영유아들이 일반기관에 통합되어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프로그램 운영상의 지침이 거의 없어서 교사들이 장애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들은 현장에서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 부족, 시설장의 인식 및 지원 부족, 전문성 부족,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교사 간 협력적 접근의 어려움, 부모지원 등의

1) 분리된 교육이 아닌 이미 하나의 교육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이소현, 조운경, 최윤희, 이수정, 원종례, 김수진, 2006). 이러한 어려움은 곧 일반기관에 통합되어 있는 장애 영유아들이 제공받고 있는 교육과 보육의 질적 저하로 연결된다. 현재 일반 기관에서 교육과 보육을 받고 있는 많은 장애 영유아들은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있을 뿐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교육적 통합이나 한 학급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역할을 다하는 사회적 통합 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장애아 통합교육이 장애아나 일반아에게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으나, 이러한 통합의 효과는 체계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행해진 물리적 통합만으로는 진정한 통합이 될 수가 없으며, 이러한 통합은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 및 보육의 질을 저하시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Smith, Polloway, Patton, & Dowdy, 2001)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가의 지원 체계는 아직까지 장애 영유아 무상교육 수혜율 확충의 차원에서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교육이나 성과지향적인 통합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소현, 2005). 진정한 통합이란 근본적으로 동일한 소속감을 지니고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으며 동등한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이소현, 2003)고 할 때 장애 영유아들을 일반 교육과 보육 현장에 배치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현장의 충분한 준비와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병행될 때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효과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1990년대는 주로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 기관장, 부모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한 내용이었으나, 2000년대에 와서는 연구 주제의 폭이 좀 더 넓어져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소현, 2006a) 및 문제점(신진숙, 2000)이나 통합교육의 실태(김경옥, 2003), 지원 요구(최선실, 박승희, 2001), 장애 영유아 지원 정책(이소현, 2006b)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통합교육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연구들(김은주, 권택환, 김정균, 박현옥, 2003; 안수정, 김성애, 김성은, 김종무, 2003; 오유정, 강경숙, 조운경, 박재국, 최병갑, 2006; 주정환, 김성애, 윤광보, 2005)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보다는 초중등학교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두드러진다.

취학 전 연령을 대상으로 그 동안 이루어진 장애 영유아 통합 관련 연구들은 대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중 한 곳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고, 두 기관을 함께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기관 선택에 따라 장애 영유아가 받는 혜택과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의 질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장애 영유아 입장에서 어떤 기관을 선택하건 동일한 지원을 받으며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의 개념을 살펴보고, 외국의 동향과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며,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관련 제도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대한 사례 분석과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에 근거해 본 연구는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대한 개념 정의와 더불어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대한 외국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그 동안 이루어진 선행연구의 내용을 기술하고 시사점을 찾아본다. 또한 그 간의 문헌연구들을 통해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실태와 요구조사의 기초를 마련한다.

나.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관련 제도 분석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관련된 현행 법령을 분석하고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과 관련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살펴봄으로써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제도상의 현 위치를 파악한다. 또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지원의 기능을 갖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통합보육지원센터)의 성격과 운영 실태를 고찰함으로써 본 연구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찾아본다.

다.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현황 분석

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통계 자료와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과 통합보육시설의 분포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

라.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분석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과 통합보육시설의 기관장,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관의 실태와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관계자들의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내실화 방안의 근거를 마련한다.

마.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사례 제시

우리나라에서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사례를 분석하여,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선행되어야 하고 어떤 체계로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바.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제안

이상의 연구 내용을 근거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갖추어져야 하며, 교육과 보육 프로그램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가정과 관련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또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내실화를 위해 어떤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헌연구, 포커스그룹 인터뷰, 설문조사, 사례조사,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문헌연구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적 배경과 동향,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관련 연구문헌, 관련 법, 지원 제도, 통계 자료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연구 문헌 및 관련 법령 수집과 분석을 하였으며, 관련 중앙정부 부처 홈페이지와 협조를 통해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나. 포커스그룹 인터뷰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 제작을 위해 특정화의 오류를 줄이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 연구 참여자

서울 경기 지역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기관장, 교사, 장애 영유아 부모 등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관계자 41명이 기관과 대상별로 6차에 걸쳐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참여자의 배경 특성은 <표 I-3-1>과 같다. 자세한 배경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I-3-1>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 배경 특성

기관구분	대상구분	배경구분	특성
유치원	원장(원감)	시설유형	국공립 단설 2, 국공립 병설 2, 사립법인 1, 사립 개인 2
	교사	교사자격	일반교사 4, 특수교사 2
	학부모	장애영역	정신지체 1, 발달장애 4, 뇌병변 장애 1, 건강 장애 1
보육시설	시설장	시설유형	국공립 4, 법인 1, 민간개인 2
	교사	교사자격	일반교사 5, 특수교사 2
	학부모	장애영역	정신지체 3, 발달장애 3, 언어장애 1

2)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 목록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요구사항을 근거로 설문지를 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질문 목록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마음을 열기 위한 질문으로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한 것이며, 두 번째는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을 하면서 좋은 점과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이고, 세 번째는 질 높은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을 위해 지원되어야 할 것, 걸림돌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 목록은 특수교육 전문가 1인의 검토를 거쳐 최종 수정되었다. 구체적인 질문 목록은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3) 연구절차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 대상자를 섭외한 후 공문을 발송하여 참여를 부탁하였다. 사전에 토의할 주제에 대한 질문 문항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 그룹당 90분에서 120분 정도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토의 내용을 녹음하고 전사하였다. 전사 분량은 A4 용지 166페이지였다. 공동연구자들은 전사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본 연구의 설문지에 포함될 수 있는 질문과 보기 문항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질문의 근거는 <부록 3>에 제시하였다.

다. 설문조사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6개 시도의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²⁾과 통합보육시설³⁾ 2,170개 기관이다.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기관장 719명(33.13%), 교사 1,063명(34.60%), 장애 영유아 학부모⁴⁾ 927(32.57%)명의 응답을 받았다. 이 중 성의 없게 응답한 설문지 각각 28부, 58부, 26부를 제외하고 기관

2) 유치원의 경우 통합 지정 유치원이 없으므로 본 설문조사에서는 특수학급 유무와 상관없이 장애 영유아가 입원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일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함.

3)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서 시·군·구청장이 통합시설로 지정한 시설임.

4)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일반적으로 학부모나 학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다니는 경우를 모두 일컬어 학부모와 학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장 설문지 691부, 교사 설문지 1,005부, 장애 영유아 학부모 설문지 90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의 배경은 <표 I-3-2>, <표 I-3-3>, <표 I-3-4>와 같다.

연구대상자 배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발송했기 때문에 기관장의 경우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다른 기관보다 2배 가까이 높으며, 학부모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밝혀둔다.

<표 I-3-2> 설문 참여 기관장의 배경 특성

n=691

	배경 변인	전체	유치원	보육시설
시설 구분	국공립	38.9(269)	19.7(136)	19.2(133)
	사립	61.1(422)	41.5(287)	19.5(135)
지역 구분	대도시	47.3(327)	27.2(188)	20.1(139)
	중소도시	37.6(260)	22.7(157)	14.9(103)
	읍면지역	15.1(104)	11.3(78)	3.8(26)
성별	남자	13.6(94)	11.0(76)	2.6(18)
	여자	86.4(596)	50.1(346)	36.2(250)
연령	20대	0.4(3)	0.1(1)	0.3(2)
	30대	16.8(115)	7.9(54)	8.9(61)
	40대	45.7(312)	25.3(173)	20.4(139)
	50대	29.1(199)	20.8(142)	8.3(57)
	60대 이상	7.9(54)	7.0(48)	0.9(6)
학력	고등학교 졸업	1.3(9)	0.3(2)	1.0(7)
	3년제 이하 대학 졸업	13.1(90)	6.3(43)	6.8(47)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32.6(224)	20.5(141)	12.1(83)
	대학원 졸업 이상	53.1(365)	34.3(236)	18.8(129)
전공	유아교육학	70.7(484)	47.9(328)	22.8(156)
	보육 관련학	3.8(26)	0(0)	3.8(26)
	특수교육학	1.6(11)	0.6(4)	1.0(7)
	유아특수교육학	0.6(4)	0.1(1)	0.4(3)
	아동학	1.5(10)	0.4(3)	1.0(7)
	사회복지학	7.0(48)	0.3(2)	6.7(46)
	일반 교육학(초중등 포함)	12.8(88)	11.4(78)	1.5(10)
	기타	2.0(14)	0.7(5)	1.3(9)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 경력	5년 미만	-	-	-
	5년~10년 미만	84.9(393)	45.4(210)	39.5(183)
	10년~20년 미만	12.7(59)	6.3(29)	6.5(30)
	20년 이상	2.4(11)	1.9(9)	0.4(2)

주: 결측치를 제외한 비율임

〈표 1-3-3〉 설문 참여 교사의 배경 특성

n=1,005

	배경 변인	전체	유치원	보육시설
시설 구분	국공립	49.3(495)	22.6(227)	26.7(268)
	사립	50.7(510)	27.7(278)	23.1(232)
지역 구분	대도시	49.9(504)	23.4(236)	26.5(268)
	중소도시	36.6(370)	17.8(180)	18.8(190)
	읍면지역	13.5(136)	9.1(92)	4.4(44)
성별	남자	0.7(7)	0.1(1)	0.6(6)
	여자	99.2(99.3)	50.5(504)	48.8(488)
연령	20대	59.6(587)	29.0(286)	30.6(301)
	30대	27.3(269)	13.0(128)	14.3(141)
	40대	12.5(123)	8.3(82)	4.2(41)
	50대	0.6(6)	0.2(2)	0.4(4)
학력	고등학교 졸업	4.3(43)	0.2(2)	4.1(41)
	3년제 이하 대학 졸업	44.5(441)	19.4(192)	25.2(249)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40.8(404)	22.4(222)	18.4(182)
	대학원 졸업 이상	10.3(102)	8.8(87)	1.5(15)
전공	유아교육학	64.0(634)	45.0(446)	19.0(188)
	보육 관련학	11.8(117)	0.3(3)	11.5(114)
	특수교육학	1.3(13)	0.3(3)	1.0(10)
	유아특수교육학	6.6(65)	4.4(44)	2.1(21)
	아동학	5.0(50)	0.6(6)	4.4(44)
	사회복지학	4.6(46)	0.1(1)	4.5(45)
	일반 교육학(초중등 포함)	0.8(8)	0.1(1)	0.7(7)
	기타	5.9(58)	0.1(1)	5.8(57)
장애 영유아	5년 미만	93.6(497)	43.1(229)	50.5(268)
통합교육과	5년~10년 미만	6.4(34)	2.1(11)	4.3(23)
통합보육 경력	10년 이상	-	-	-

주: 결측치를 제외한 비율임

〈표 1-3-4〉 설문 참여 학부모의 배경 특성

n=901

	배경 변인	전체	유치원	보육시설
시설 구분	국공립	53.5(451)	16.4(138)	37.1(313)
	사립	43.5(392)	28.0(253)	15.4(139)
지역 구분	대도시	49.9(450)	20.3(183)	29.6(267)
	중소도시	36.8(332)	16.8(151)	20.1(181)
	읍면지역	13.2(119)	8.7(78)	4.6(41)
자녀의 장애 종류	시각장애	1.9(16)	1.1(9)	0.9(7)
	청각장애	5.5(45)	3.5(29)	1.9(16)
	정신지체	24.7(203)	8.0(66)	16.6(137)
	지체장애	12.5(103)	6.3(52)	6.2(51)
	정서·행동장애	4.0(33)	2.1(17)	1.9(16)
	자폐성 장애(발달장애)	25.4(209)	9.4(77)	16.0(132)
	의사소통장애	8.5(70)	5.0(41)	3.5(29)
	건강장애	2.9(24)	2.3(19)	0.6(5)
	기타	9.5(78)	5.2(43)	4.3(35)
	복합장애	5.1(42)	2.2(18)	2.9(24)
자녀와의 관계	부	4.7(42)	2.5(22)	2.2(20)
	모	92.7(828)	42.0(375)	50.7(453)
	조부모	0.3(3)	0.1(1)	0.2(2)
	기타	2.2(20)	1.3(12)	0.9(8)
연령	20대	4.7(41)	2.2(19)	2.5(22)
	30대	76.7(673)	35.1(308)	41.6(365)
	40대	17.6(154)	7.8(68)	9.8(86)
	50대	0.9(8)	0.7(6)	0.2(2)
	60대 이상	0.1(1)	0.1(1)	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미만	3.0(27)	1.7(15)	1.4(12)
	고등학교 졸업	37.6(334)	16.2(144)	21.4(190)
	3년제 이하 대학 졸업	20.5(182)	9.6(85)	10.9(97)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35.4(314)	16.8(149)	18.6(165)
	대학원 졸업 이상	3.5(31)	1.7(15)	1.8(16)
생활정도	200만원 미만	21.6(171)	10.5(83)	11.1(88)
	200만원~300만원 미만	30.3(240)	13.9(110)	16.4(130)
	300만원~400만원 미만	25.9(205)	12.0(95)	13.9(110)
	400만원 이상	22.1(175)	9.7(77)	12.7(98)

주: 결측치를 제외한 비율임

2) 실태 및 요구 조사 도구

문헌연구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와 연구자의 의도에 기초하여 대상에 따라 기관장용, 교사용, 학부모용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설문지는 대상별로 2차에 걸친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 검토를 거쳐 수정하였다. 이렇게 수정한 설문지는 유아특수교육전문가 2인에게 검토를 받았다. 설문지 내용은 <부록 4>, <부록 5>, <부록 6>에 제시되어 있다.

기관장용 설문지는 일반 현황, 인적 환경, 물리적 환경, 프로그램 운영, 가정 및 타 기관 연계, 정책 지원, 인적 사항의 일곱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종류는 총 28개이고, 문항에 따라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1-3-5>와 같다.

〈표 1-3-5〉 기관장 대상 설문지의 구성

구 분	질 문
일반 현황	기관의 종류
	위치한 지역의 생활 정도
	학급, 영유아, 교사 현황
인적 환경	별도의 전문인력 유무 / 전문인력 유형
	보조인력 유무 / 보조인력 유형
	인력 확보의 만족도 / 고용 어려운 인력 /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
물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배려 여부 / 종류 / 없는 이유
	필요한 시설과 장비
프로그램 운영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계기
	장애 영유아 입학결정 방법 / 장애 영유아 선발 기준
	프로그램 운영시간 / 장애 영유아 프로그램 이용시간 및 통합시간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여부 / 교육 횟수 / 실시하지 않는 이유
	기관의 통합 형태 / 바람직한 통합교육 및 보육의 운영 형태
기관의 강점과 취약점	
가정 및 타 기관 연계	부모 대상 정보 제공 정보
	기관과 연계가 필요한 기관
	외부 자문 여부 / 자문 영역
	인근 지역이나 영유아가 다니는 기관의 목록 소유 여부
정책 지원	타 기관과의 상호협조 정도 / 협조 내용 /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현재 지원 여부 / 지원받고 있는 내용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어려움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
인적 사항	중앙정부 지원에 대한 의견
	성별 / 연령 / 학력 / 전공 / 경력

교사용 설문지는 기관장용 설문지와 같이 일반 현황, 인적 환경, 물리적 환경, 프로그램 운영, 가정 및 타 기관 연계, 정책 지원, 인적 사항의 일곱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종류는 총 35개이고, 문항에 따라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I-3-6>과 같다.

<표 I-3-6> 교사 대상 설문지의 구성

구 분	질 문
일반 현황	기관의 종류
	담당학급
	담당 장애 영유아 현황
	담당학급 교사 현황
인적 환경	통합학급 담당자 / 협력 여부 / 협력 방식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 / 이상적인 비율
	협력이 필요한 영역 / 자문이 필요한 영역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관련 교육 이수 유무 / 교육받은 시기
	중요한 교사 연수 내용
	보조인력 유무 / 보조인력 활용 방법
물리적 환경	보조인력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배려 유무 / 배려 영역 / 안 하는 이유
	필요한 장비와 교재교구
	통합학급 담당 계기
프로그램 운영	교육적 배려 내용
	장애 영유아 활동 계획시 참조하는 것
	통합학급 활동 선택시 중요한 요소
	프로그램 운영시간 / 장애 영유아 프로그램 이용시간 및 통합시간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작성 여부 / 팀 구성원 / 실시하지 않는 이유
	기관의 통합 형태 / 바람직한 통합교육의 운영 형태
가정 및 타 기관 연계	교사의 강점과 취약점
	가정과의 의사소통 방식 / 의사소통 내용
	기관과 연계가 필요한 기관
정책 지원	인근 지역이나 영유아가 다니는 기관의 목록 소유 여부
	근무시간
	통합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받고 있는 혜택 유무 / 혜택 내용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어려운 점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
인적 사항	통합학급 영유아 수 경감에 대한 의견 / 경감의 수
	중앙정부 지원에 대한 의견
	성별 / 연령 / 학력 / 전공 / 경력

학부모용 설문지는 일반 현황,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만족도, 가정 연계 프로그램, 정책 지원, 인적 사항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종류는 총 29개이고, 문항에 따라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I-3-7>과 같다.

〈표 I-3-7〉 학부모 대상 설문지의 구성

구 분	질 문
일반 현황	기관의 종류
	기관 등원 방법 / 시간
	프로그램 이용시간
	어머니 직장 여부 / 직장 그만 둔 이유
	자녀 장애 관련 정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이외의 프로그램 이용 여부 / 소요 비용 / 이용 이유
	특수교육대상 자녀에게 지출하는 총 비용
	입학 거부 경험 여부 / 이유
	기관을 그만 둔 경험 여부 / 이유
	자녀를 보낼만한 기관의 충분한 정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만족도	기관에 대한 만족도
	자녀 발달의 기대수준과 만족도
가정 연계 프로그램	프로그램 계획, 활동, 평가시의 참여 요구도와 참여 정도
	기관과의 주된 의사소통 정도와 요구 정도
	기관의 가정 연계 프로그램의 소개 여부, 참여 여부, 참여 및 희망 빈도
	조언 구하는 대상
	정보와 서비스의 부족을 느낀 시기
	기관의 통합 형태 / 바람직한 통합교육의 운영 형태
정책 지원	기관에 보내면서 어려운 점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점
	통합교육 담당교사의 중요한 요건
	바람직한 교사, 장애아, 일반아의 비율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필요한 가족 지원 내용
	중앙정부지원에 대한 의견
	장애아와의 관계 / 연령 / 학력 / 가정의 생활 정도
인적 사항	장애아와의 관계 / 연령 / 학력 / 가정의 생활 정도

3) 연구절차

본 설문지는 2007년 6월 28일~29일에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2,170개 기관(유치원 1,402개원, 통합보육시설 768개소)을 대상으로 8,180부의 설문지(기관장용 2,170부, 교사용 3,072부, 학부모용 2,938부)를 본 연구의 취지와 설문대상, 회신일자 및 방법을 담은 공문과 함께 우편 발송하였다. 한 기관당 기관장용 설문지 1부, 교사용 설문지 1~2부, 학부모용 설문지 1~2부를 발송하였다. 장애 영유아를 일반교사 1인이 담당하고 있을 경우에는 교사용 설문지 1부를 발송해 담당교사가 작성하도록 하였고, 통합학급에 일반교사와 장애 영유아 담당교사(특수교사 혹은 통합지원교사)가 있을 경우 일반교사와 장애 영유아 담당교사가 각 1부씩 작성하도록 2부를 발송하였다. 학부모용 설문지의 경우 유치원에는 장애 영유아가 한두 명 있는 경우가 많아 1부씩 발송하였고, 통합보육시설에는 3명 이상의 장애 영유아가 있고 10명 이상 있는 경우도 있어 2부씩 발송하였다. 학부모 설문지가 2부가 발송된 경우 장애 종류와 정도가 다른 장애 영유아 부모에게 설문을 부탁하도록 공문의 내용을 작성하였다.

설문지를 발송한 후 7월 5일~ 7월 20일에 설문지를 발송한 기관에 전화를 하여 설문지 작성을 부탁하였다. 설문지를 못 받았다고 응답한 곳은 설문지를 재 발송하였다.

4) 자료 분석

수거된 자료는 SPSS 12.0(Window용)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집단 간 비교분석을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기본배경과 주요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설문지 문항 분석을 위해 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기관 유형별, 기관·설립유형별, 지역별 조사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χ^2 검증과 단일표본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라. 사례조사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비교적 잘 하고 있다고 알려진 기관의 실태 분석을 통해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1) 연구대상

사례조사의 대상은 국내의 S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과 A 어린이집이다. S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학부모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선정하였고, A 어린이집은 통합보육을 잘 한다고 널리 알려진 시설이다.

2) 연구도구

사례조사를 위한 틀은 본 연구의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본 연구를 위한 설문 내용과 강경숙, 권택환, 김수연, 김은주(2000)의 사례연구의 연구내용 및 방법 체계표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본 사례조사를 위한 틀은 <표 I-3-8>과 같다.

〈표 I-3-8〉 사례조사의 틀

영역	하위 영역	세부 내용
인적 환경	가. 전문인력	· 전문인력의 유무, 유형
		· 통합학급 담당자
		· 교사 간 협력 - 의사소통의 통로 및 내용, 협력교수, 협의 횟수, 역할을 정하는 방식
	나. 보조인력	· 교사의 장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연수경험 유무 및 내용, 횟수
		· 보조인력의 유무와 유형, 명수
물리적 환경	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	· 보조인력 활용방법
	라. 또래	· 교사 대 일반 영유아 대 장애 영유아 비율
	가. 편의시설	· 상호작용의 정도
	나. 교실 내 배려	· 일반아의 장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프로그램 운영	가. 입학 및 학급구성	· 손잡이, 경사로 등
		· 대집단 활동시 자리 배치
	나. 프로그램 운영시간	· 통로 확보
		· 교재교구
다. 프로그램 내용	· 입학에 대한 의사결정 - 선발기준	
	· 학급편성의 기준	
	· 교사 선정	
		· 프로그램 운영시간, 장애아 통합 시간
		·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시행여부, 대상, 횟수
		·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작성 및 적용
		- 참여자, 실행자
		· 활동 선정의 기준과 자원

영역	하위 영역	세부 내용
가정 및 타 기관 연계	가. 가정과의 연계	·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의 대처방법,
		·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전략
	나. 타 기관과의 연계	· 교육적 배려 - 장애 영유아와 일반 아동의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여부
		· 부모의 기대 및 요구 · 부모의 참여 및 지원 · 부모간의 교류
정책 지원	가. 지원 실태	· 기관과 부모와의 교류 - 부모 대상 정보 제공 정도, 부모와의 의사소통방법, 협의내용, 횟수
		· 외부자문
	나. 현장의 어려움	· 관련기관 목록 여부, 종류
		· 타 기관 협조 정도
다. 정책 지원 요구		· 지원의 종류와 규모 ·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 · 현장에서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

3) 연구 절차

8월 30일에 각 기관에 전화를 하여 사례조사의 목적과 절차를 간단히 설명한 후 학급 참관 및 기관장과 교사 인터뷰 허락을 받았다. 9월 13일에서 17일 사이에 각 기관을 방문하여 통합학급의 하루일과를 관찰하고 기관장과 교사들(일반교사, 특수교사, 통합지원교사)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다. 또한 각 기관에 대한 이해와 사례조사 분석을 돕기 위해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과 관련한 문서를 수집하였다.

4) 자료 분석

사례조사의 틀에 근거하여 인적 환경, 물리적 환경, 프로그램, 가정 및 타 기관 연계, 정책 지원으로 나누어 그 세부 요소들에 대한 내용을 관찰 및 관련자 심층면접 내용과 문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하고 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사례조사 기관의 기관장과 교사들에게 이메일로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내용에 기초하여 사례분석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기초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마. 워크숍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이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1) 워크숍 참여자

정책 지원 방안 제안을 위한 워크숍의 참여대상은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의 기관장, 교사, 학부모를 비롯하여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전문가와 관련 행정가이다. 워크숍 참여자 배경 특성은 <표 I-3-9>와 같다.

<표 I-3-9> 워크숍 참여자 배경 특성

기관구분	대상구분	소속	전공	장애 영유아 관련 경력	총 교육(행정) 경력
유치원	원감	개인법인 유치원	유아교육	14년	18년
	교사	개인법인 유치원	유아교육 & 유아특수교육	3년	5년
	학부모	국공립 병설 유치원	국문학	-	-
	행정가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	특수교육	10년	21년
	교사교육자	사립 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 & 유아교육	20년	28년
보육시설	시설장	법인 보육시설	사회복지	4년	8년
	교사	법인 보육시설	유아교육	10년	13년
	학부모	국공립보육시설	실내건축학과	-	-
	행정가 1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	경제학	-	7년
	행정가 2	중앙보육정보센터	유아교육 & 유아특수교육	6년	8년
	교사교육자	사립 대학교 영유아보육과	특수교육	12년	18년

2) 진행 절차

10월 4일~10일에 전화연락을 통해 참여자를 섭외하고 10월 15일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10월 29일에 다시 전화연락을 하여 참여 확인을 하고 공문을 다시 요구하는 곳에 공문을 재 발송하였다. 11월 1일에 실시한 워크숍은 연구자가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참여자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되 이견이 있으면 중간 중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워크숍의 내용은 모두 기록하였고,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는데 반영하였다.

바.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는 그 동안의 연구결과와 정책 제언을 위한 워크숍을 기초로 작성한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1) 자문회의 참여자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는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의 기관장, 교사, 학부모를 비롯하여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전문가와 관련 행정가가 참여하였다. 1차 자문회의는 보육시설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차 자문회의는 유치원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워크숍 참여자 배경 특성은 <표 I-3-10>, <표 I-3-11>과 같다.

<표 I-3-10> 1차 자문회의 참여자 배경 특성

대상구분	소속	전공	장애 영유아 관련 경력	총 교육(행정) 경력
행정가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	특수교육	10년	21년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정책과	유아교육	-	20년
교사교육자	사립 대학교 유아교육과	유아교육	15년	28년
	사립대학 유아교육과	유아교육	5년	20년
	사립대학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 & 유아교육	20년	28년

〈표 1-3-11〉 2차 자문회의 참여자 배경 특성

대상구분	소속	전공	장애 영유아 관련 경력	총 교육(행정) 경력
행정가	여성가족부 보유정책국	행정학	4개월	7년
	중앙보육정보센터	유아교육 & 유아특수교육	6년	8년
교사교육자	사립대학 교육대학원 통합교육전공	유아특수교육	15년	18년
	국공립 대학 유아특수재활과	특수교육	14년	14년

2) 진행 절차

11월 15일~20일에 참여자를 섭외하고 11월 26일에 공문과 연구자가 작성한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자료를 발송하여 사전 서면 검토 후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11월 28일과 29일에 실시된 자문회의는 연구자가 제안한 방안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참여자가 차례로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한 의견에 대한 이견이나 의문점이 있는 경우 그 때 그 때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자문회의의 내용은 모두 기록하였고, 내실화와 정책 지원 방안을 수정하는데 활용하였다. 수정한 자료는 워크숍과 자문회의 참석자 일부를 대상으로 서면 자문을 받아 최종 수정하였다.

Ⅱ.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의 개념과 사회적 동향

가. 통합교육⁵⁾ 및 통합보육⁶⁾의 개념 정의

통합은 광의적 의미에서 볼 때, 장애 영유아를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로, 또는 특수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장선철, 2002). 지금까지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은 다양한 내용으로 정의되어 왔다. 대부분의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정의들은 모두 일반 교육과 보육 현장에 장애 아동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함으로써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면서는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 온 주류화(mainstreaming)의 개념보다는 포함(inclusion)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두 개의 분리된 집단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서로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함으로써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개념이 함께 교육하고 보육한다는 개념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 영유아 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용어와 그 정의를 살펴보면 <표 II-1-1>과 같다.

<표 II-1-1> 장애 영유아 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 및 정의

용어	출처	정의
Integration (합침)	Odom & McEvoy (1988)	두 집단의 아동을 혼합하는 적극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Richey & Wheeler (2000)	분리(segregation)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장애가 있는 아동과 장애가 없는 아동을 같은 학급에 함께 있게 하기 위한 체계적이고도 주의 깊은 노력을 의미한다.
Mainstreaming (주류화)	Turnbull & Turnbull (1990)	장애 아동을 가능한 일반 아동들의 생활흐름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5)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에서의 통합교육과 지원을 의미함

6)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에서의 통합교육과 지원을 의미함

	Hallahan & Kauffman (2003)	하루 전체나 일정 시간 동안 학급 활동의 전체나 부분적으로 일반 학급에 장애 아동을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특수교사가 장애 아동의 교육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진다.
Reversed Mainstreaming (역통합)	Guranlnick (1981)	장애 아동을 위한 학급에 일반 아동을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특수교육(integrated special education) 이라고도 한다.
Inclusion (포함)	Sailor(1991)	장애 아동이 일반 학급 프로그램의 진정한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포함한다: (1) 장애가 없었으면 다녔을 학교에서 교육받고, (2) 학교와 학급의 배치가 연령 및 학년에 적절하며, (3) 일반 학급 내에서 특수교육 지원이 이루어진다.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2006)	각 아동이 장애가 아니면 출석했을 학교와 교실에서 최대한 적절하게 교육받아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묘사하는 용어이다. 그것은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며, 그 교실에 있음으로써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
통합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 유형·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 2조 6항)

자료: 이소현, 박은혜(2006). 특수아동교육(p. 37). 서울: 학지사.
 UNESCO(2002). EFA: Is the world on track?(p. 17). Paris: Author.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 제 2조 6항.

현재 논의되고 있는 포함 개념의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은 장애 영유아들의 교육과 보육 선택권 및 구성원 자격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모든 교육과 보육 환경에서 동등한 소속감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를 인정하는 개념이다(이소현, 2003). 특히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에 있어서의 통합은 “장애가 있는 영유아와 장애가 없는 영유아들이 함께 배우고 노는 것(Abraham, Morris, & Wald, 1993)” 또는 “중도 장애를 포함하는 모든 장애 영유아들이 장애가 없는 영유아들과 같은 교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Bowe, 2000)” 등으로 정리되어 왔다.

최근에는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첫째는 분리된 학급에 배치되어 부분적인 활동에만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학급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는 학급 내에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영유아들이 일정 수 이상 존재함으로써 이들과 함께 일과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Odom, 2000). 결론적으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보육이란 장애를 지닌 영유아들이 장애를 지니지 않은 또래들과 함께 유치원이나 보육 시설 등의 기관에서 교육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 함께 교육 또는 보육 받는다는 것은 같은 장소에 배치하거나 같은 교수방법을 사용하거나 같은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동일한 소속감을 지니고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으며 동등한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이소현, 2003). 따라서 진정한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위해서는 장애 영유아를 물리적으로 같은 환경에 배치한 후, 장애 영유아에게 필요한 교육적, 사회적, 환경적, 복지적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형태는 아직까지 주류화의 개념이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 체제를 통해서 아직도 많은 장애 영유아들은 통합교육의 경험을 갖지 못하거나 시간제 형태의 부분적인 통합교육만을 경험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애아 전담시설과 장애아 통합시설이 있고, 장애아 전담시설에 있는 영유아들은 통합의 경험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증가추세를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의 관련 전문가들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형태는 장애 영유아들이 일반교육 및 보육 환경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동일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일원화된 통합교육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나.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의 사회적 동향

1960년대 이전까지 장애아 통합교육이란 개념은 별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이 당시에는 특수교육 요구 유아가 일반 유아로부터 분리 교육을 받는 것이 인도주의적 교육이라고 믿었고, 결과적으로 특수교육의 목적은 대체로 치료교육이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야 정상화 개념이 전파되면서 장애아를 통합하여 교육하고 보육하는 것이 인도주의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분리 및 통합교육의 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장애 및 교육과 관련된 국제적 정책문서를 살펴보면 <표 II-1-2>와 같다.

〈표 II-1-2〉 장애와 교육 관련 국제적 정책문서

연도	정책문서	내용 영역
1960	UN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19개 조항(1, 2, 3, 6조가 교육에 대한 조항)
1971	UN 정신지체인 권리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	7개 조항(2조가 교육에 대한 조항)
1975	UN 장애인 권리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13개 조항: 통합(integration), 고용
1981	UNESCO 선드버그 선언(Sundberg Declaration)	16개 조항(1, 4, 6, 7조가 교육에 대한 조항)
1982	UN 장애인과 관련된 3가지 목적을 위한 국제 행동 프로그램(United Nations World Programme of Action 3 goals: Concerning Disabled Persons)	예방, 사회복귀, 동등한 기회
1989	인적자원 발달에 대한 행동 지침(Tallinn Guidelines for Action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9개 전략(D질이 교육에 대한 부분)
1990	아동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CEF)	54개 조항(23조가 자조, 참여, 사회적 통합에 대한 조항)
1990	만인을 위한 교육 국제 선언(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 UNESCO, Jomstein)	10개 조항: 접근성, 권한, 환경, 파트너십
1993	UN 장애인 기회균등에 대한 표준 규정(United Nations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2개 규칙: 영역, 지원, 접근성, 동등한 기회, 법
1994	특별한 요구에 대한 국제 협약(World Congress on Special Needs, Salamanca)	85개 조항: 접근성, 편의, 질
1995	사회적 발달을 위한 국제 정상회담(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10개 공약: 행동계획
2000	만인을 위한 교육 행동강령(Education for All(EFA) Framework for Action, UNESCO, Dakar)	6가지 목적: 책임, 옹호, 참여

자료: Peters, S. J. (2007). Education for All?: A Historical Analysis of International Inclusive Education Policy an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p. 101).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18(2). 98-108.

이상의 정책문서는 차별금지와 장애인의 권리 등을 언급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통합교육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는 만인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국제 선언과 행동강령을 통해 통합(Inclusion)이 중요한 철학을 드러내고 있다(UNESCO, 2002).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델이 되고 있는 나라이다. 1960년대 미 연방정부의 거국적 복지 및 교육적 프로젝트였던 Head Start 운동으로 저소득층 유아들에 대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결함을 위한 보상교육과 더불어 장애아를 위한 가정방문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장애아에 대한 조기교육지원법(1968)이 제정되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장애아 교육국의 지원으로 3~5세를 대상으로 First Chance Program 등과 같은 실제적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편승하여 1975년에는 무상공교육과 관련한 전 장애아 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Act. PL 94~142)이 미연방중앙정부의 법안으로 제정되어, 장애아들이 최소제한 환경(th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속에서 비장애아와 함께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장애아와 일반아의 통합교육에 대해 고려하게 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에서는 관련 학계의 급속한 성장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으로 이미 수 년 전에 특수교육 대상 장애 유아의 50% 이상이 통합교육 현장에 소속되기 시작하였으며(U. S. Department of Education, 1998), 분리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 유아는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U. S. Department of Education, 2000). 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나 유아교육 및 유아특수교육의 기관장들도 통합교육으로의 배치를 장애 유아 교육에서의 가장 우선적인 선택으로 수용하고 있다(Odom, 2000).

한편 유럽 연합은 2003년을 유럽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였다. 유럽은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있어 국가별 편차가 심한 편이다. 예컨대 스페인의 경우에는 특수한 요구를 지닌 아동의 90%가 통합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는 반면, 헝가리는 10%만이 통합교육을 하는 교실에 출석하고 있다(European Agency for Development in Special Needs Education, 2003). 영국은 1978년 의회에 제출된 워노크 위원회 보고서(Warnock Committee Report)를 중앙정부가 수용함으로써 장애아 통합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연구, 적극적 지원의 계기가 되었다(강은주, 2003).

1996년에 15개의 유럽국가가 설립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교육 발전을 위한 유럽 기구(The European Agency for Development in Special Needs Education)는 특별한 요구가 있는 교육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 기구는 유럽 국가 간 정책과

실제, 그리고 교육적 맥락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통합교육, 동등한 기회, 접근성,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해 논쟁한다. 이전의 사업에서는 ‘integration’이란 용어를 사용했으나, 보다 최근에는 다양한 요구를 지닌 학생의 차별 방지를 내포하는 ‘inclusion’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통합교육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다(Meijer, Soriano, & Watkins, 2007).

일본의 경우에는 1993년에 담당교사 배치와 함께 ‘통급에 의한 지도’가 실시되면서 실질적 통합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장애 영역별로 구분되던 특수교육을 통합하여 ‘특별지원교육’으로, ‘재활훈련’이란 용어를 ‘자립활동’이란 용어로 변경하는 등 아동중심의 교육 및 통합교육 이념의 실현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2007년부터 장애 영역별 특수교육의 폐지와 더불어 특수교사자격 제도를 비 범주화하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대한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특별지원학교(가칭)’ 및 ‘특별지원교실(가칭)’에서의 특수교육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였다. 한편, 통합교육의 실질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문부성은 교사 주도적인 ‘일제수업’을 개선하고 완전통합교육을 추진하는 시책으로 팀티칭에 의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특별지원교육의 실행과 관련하여 교내위원회의 중심역할을 담당할 특별지원교육 코디네이터 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 코디네이터는 ‘개별 교육지원 계획’의 개발 작성, 순회상담 지원요청, 지역 관련기관과의 연계, 의료/복지와의 연계 등의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을 지원한다(오유경, 강경숙, 조윤경, 박재국, 최병갑, 2006).

우리나라는 1970~80년대에 통합교육의 개념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1987년에 유치원 교육과정에 특수교육진흥정책을 반영하게 되었고, 1994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고 대통령령을 공포하여 통합교육 실시, 개별교육 계획의 작성과 이에 대한 보호자의 의견 도입, 보호자의 이의 신청권 인정, 차별에 대한 벌칙 규정 등의 장애자에 대한 통합교육의 법적, 사회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 유아 대상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3세 미만 영아 대상으로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장애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2.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실천은 복잡한 과정이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Bricker, 1995).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실천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는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및 태도(이소현 외, 2006),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의 협력 및 역할(원종래, 이소현, 2006), 행정적인 지원(이소현, 부인영, 2004) 등 다양하다. 가장 최근에 장애 학생의 질적 통합을 위한 관련 변인 고찰(강경숙, 2007)이라는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질적 통합의 변인으로 학교 환경적 여건, 교사 개인적 특성, 교사 간 협력, 교수적 수정, 교육 과정적 통합을 꼽았다.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실태조사 연구(오유정 외, 2006)는 통합교육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과정 운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물리적 요인, 가족, 학교와의 협력 요인, 행정적 제도적 요인을 들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적 환경, 물리적 환경, 프로그램 운영, 가정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인적 환경

인적 환경은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이다. 장애 영유아를 둘러싼 인적 환경이라 하면 기관 내 교사들을 비롯하여 기관장, 보조교사, 자원 봉사자, 조리사, 운전기사 등 다양하다. 이들의 장애 특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 뿐 아니라 그들의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을 좌우한다. 정확한 정보는 잘못된 개념과 이해들을 수정해주고 편견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영유아들은 통합된 장애 영유아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수용한다. 여기서는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인 교사와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지지와 지원에 큰 역할을 하는 기관장, 인적자원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담당교사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실행의 성공 여부는 교사들의 장애 유아에 대한 인식과 태

도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강경숙, 2005). 교사가 긍정적인 장애인관에 따라 장애 영유아의 교육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있을 경우,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 실행에 대한 지식을 구비하고자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태도와 의지가 형성되어 실제로 시도될 것이다(박승희, 1997).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인식과 태도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수용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일반 영유아가 장애 영유아를 수용하고 함께 상호작용하는데 영향을 미침으로써(정계숙, 2001), 결과적으로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사의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그들을 위한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식은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이다. Sharpe와 Haws(2003)는 통합학급을 담당할 일반교사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의 목적과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숙지해야 하고 특수교사는 내용에 대한 이해와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충분히 능통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학급 교사가 통합 환경에서 장애 영유아를 고려한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지녀야 할 지식의 내용으로 강경숙(2007)은 장애 영유아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에 대한 지식, 활동 지도방법, 개별화 교육계획의 요소, 중재방법, 학부모 상담방법, 사회성 기술 촉진방법, 장애 영유아 지도를 위한 협력, 교재제작 및 수정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관련 교사들의 협력 또한 통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몇몇 연구(박승희, 2003; 손상희, 2005)는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적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었을 때 의미 있는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학급 담당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경숙(2007)은 장애 학생의 질적 통합을 위한 관련변인의 하나로 교사 간 협력을 들고 있으며, 협력의 기본여건 조성을 위한 특수교사의 노력과 상호협력을 위한 통합학급 교사의 동참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2)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실시 기관의 기관장

한 기관의 문화를 형성하고 제도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기관장이다. 기관장의 통합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리더십은 전체적인 기관의 변화,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성공을 위해 매우 필수적이며, 장애 영유아의 배치에 대한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강경숙, 2007; 김병하, 2001). 한 연구(Privik, Mccomas, & Laflamme, 2002)에 의하면, 훈련, 경험, 프로그램 요소와 같은 요인들이 기관장의 통합

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풍토는 기관장의 태도와 행동, 지원적 인 기관 공동체, 공유된 가치에 의거한다.

3) 인적 자원의 구성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교사와 기관장의 태도와 지식 외에 특수교육보조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의 보조인력 유무(강경숙, 강영택, 김성애, 정동일, 2002),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강경숙, 권택환, 김수연, 김은주, 2000) 등의 인적 자원의 구성도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교육에서도 교사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은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로, 학급 크기가 작을 경우 유아들의 활동 참여도, 초등학교에서의 학업 성취도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Stecher & Bohrnstedt, 2000; Nielsen & Cooper-Martin, 2002).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NAEYC에서는 학급당 원아수를 만 3세는 16~18명, 만 4~5세는 2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일반을 기초로 하는 보육시설은 만 3~5세 학급당 유아가 이러한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나, 유치원은 만 3~5세 한 학급당 유아가 25~35명 수준으로 이러한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나. 물리적 환경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 4항은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아 교육을 위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준비를 명시하고 있다.

일반 영유아도 마찬가지이지만, 장애 영유아는 특히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물리적 환경의 장애는 장애 영유아에게 또 하나의 다른 장애가 되어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방해할 수 있다. 반면 물리적 환경의 장애를 제거하고 장애 영유아가 필요로 하는 장비를 갖추게 되면, 장애 영유아의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하는 기관에서는 영유아의 장애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출입문, 경사로, 책걸상, 화장실 등의 접근에 있어서 편의성이 있어야 한다. 이 외에 시각 및 청각 장애 유아를 위한 경보, 피난 설비, 시각장애인 유도와 안내

설비, 지체 부자유 학생용 책걸상, 세면대, 계단용 휠체어 리프트, 손잡이 등이 있어야 한다(오유정 외, 2006).

교실 내에서는 장애 영유아를 교사 가까이 앉히거나 빛으로부터 멀리 앉히는 등의 자리 배정, 보조도구나 장치를 사용하는 학생을 위해 넓은 책상 마련하기,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제공하기 등의 물리적 공간 배치, 보조공학기기⁷⁾나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 등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다. 프로그램 운영

1)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 재구성

장애 영유아를 포함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교실에서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 교육과정이나 보육과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교육내용의 수정, 교수전략과 방법의 수정, 교수자료의 수정이 포함된다. 김병하(2001)는 일반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이 질적으로 좋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애 학생의 특수성과 보편성이 조화롭게 반영되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대식(2002)은 교수환경, 교수집단, 보조인력, 교육목표, 교수내용, 교수활동, 교수전략, 수업내용 제시방식, 교수자료, 교재 적합화, 평가방법의 수정을 교수적 수정의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애 영유아를 위해 적절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에 근거해 교육해야 한다.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은 전장애아 교육법(PL 94-142)의 6대 요소 중 하나로 한 학생의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목표, 교육실시 및 교육평가를 포함한 주요 정보가 담겨져 있는 문서이다. 미국 전장애아 교육법에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로, 첫째, 아동의 현재 교육적 수행 수준, 단기 교수목표를 포함한 연간 목적의 진술, 둘째, 아동에게 제공한 특정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셋째, 아동이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에 관한 진술, 넷째, 서비스 시작 일자 및 지속기간의 계획,

7)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기능적 역량을 증진시키거나 개선하는데 사용되어지는 품목, 장비, 또는 제품으로 일상생활, 의사소통, 착석, 이동, 학습 등을 지원하는 보조기구가 있음.

다섯째, 단기 교수목표가 성취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준거 및 평가 절차, 여섯째, 최소한 1년에 1번 실시하는 진보에 관한 형식적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에 개별화 교육을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 22조는 개별화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는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 2항에는 개별화 교육 지원팀이 매 학기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요소는 장애 영유아와 관련된 문제행동의 관리이다.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교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장애 영유아의 문제행동이다. 장애 영유아의 문제행동은 교사의 에너지를 소진시킬 뿐 아니라, 많은 경우 다른 영유아들에게도 방해가 된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지도하느냐에 따라 통합의 질이 좌우될 수 있다.

2)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실행의 유무는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장애 영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 영유아를 둘러싼 사람들의 인식은 장애 영유아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짓게 되며, 그들의 태도는 곧 장애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질과 연결된다. 장애 영유아 학급의 일반 또래 영유아들의 태도는 장애 영유아의 사회적 통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김주홍, 2004), 장애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의 태도는 일반 영유아들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원종례, 엄수정, 2007). 뿐만 아니라, 기관장의 태도, 기관 구성원들의 태도, 부모들의 태도 또한 직간접적으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장애 영유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있어서 꼭 실행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라. 가정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1) 가정과의 연계 및 협력

영유아의 연령적 특성으로 인하여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가정과의 연계는 상위 학교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강조되어 온 개념이다. 특히 장애 영유아에게 있어 가정과 기관의 연계와 협조는 교육이나 보육의 계획에서부터 시작하여 교육 연계성이나 전이 측면에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교사-부모간의 협력은 특수교육대상아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국립특수교육원, 2006).

가정과의 연계와 협력을 위해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요소이며, 부모-교사 간의 협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부모와 동참하는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들어주며 효과적으로 질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Dunst & Trivette, 1996).

2)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가지는 다양한 특성과 욕구의 개별화 때문에 한 전문 영역이나 전문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발달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간의 협력은 서비스의 질을 구성하는 지표의 하나로 간주된다(Heward, 2000). 특히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서비스 제공 맥락에서는 장애 영유아에게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제공하고 있는 교사와 관련 서비스 전문가, 특수교육보조원과 같은 준전문가와의 협력이 중요시되고 있다(Giangreco, Prelock, Dennis, & Ecleman, 2000).

장애 영유아가 처음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입학하게 되면, 그 영유아들이 이전에 거쳐 왔던 병원이나 조기교실, 복지관, 치료 시설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연계는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담당해야 하는 교사에게 장애 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과 조언을 준다. 장애 영유아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다니면서 동시에 받고 있는 다양한 교육과 치료 서비스와의 연계와 협력 또한 장애 영유아를 효과적으로 교육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담당교사는 외부 기관의 전문가로부터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정과 보육과정 수정과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과 연결된다.

3.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에 대한 선행 연구

1990년대의 연구는 주로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에 대한 교사나 학부모의 인식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향이 있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대한 실태분석이나 효율화를 위한 조건과 방법 혹은 정책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에 대한 연구에 있어 본격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함께 다룬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립특수교육원과 같은 기관에서 행해진 포괄적인 연구들은 유초중등교육의 연계선상에서 유치원을 일부 다루고 있을 뿐 유아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보육시설은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본 장에서는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에 관한 연구 중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장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실태 관련 연구, 장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 관련 연구, 장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정책 관련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장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실태 관련 연구

장애아 통합 실태 관련 연구에는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학생 실태조사(오유정 외, 2006), 통합학급 운영 실태 분석 연구(김은주 외, 2003) 등이 있다. 오유정 등(2006)은 효율적인 통합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지원과 관련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국 240개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완전통합되어 있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현황 및 교육활동 장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특수교육 종합발전계획의 추진목표인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최대화 제고, 효율적인 통합교육 방안 모색 및 특수교육 대상자의 지원과 관련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문헌연구, 조사연구,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에 대한 결과만 따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문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학교의 학교장(원장) 및 교사들이 통합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여러 조건이 미흡하다. 둘째, 대부분의 담임교사들은 특수교육이나 통합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이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지도와 통합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일반 학생들의 태도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동등한 또래 친구로 여기기보다는 돌봐주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수업 내용에 따라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는 유치원에서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긍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담임교사들은 ‘적절하지 않다’에, 학부모들은 ‘불편한 점이 없다’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여섯째,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지도와 관련된 자료가 부족하여 교사들은 학부모가 제공하는 정보와 요구에 의지하고 있었다. 일곱째, 교사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부모 사이의 협력 및 학교 내 다른 교직원과의 협조는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나 지역사회 기관과는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여덟째, 학교장(원장)은 편의시설을 위한 재정지원을, 통합학급 담임교사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활성화되기를, 학부모는 교사들이 특수교육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기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었다.

김은주 등(2003)은 통합학급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입안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3,217개교 전수를 대상으로 통학 학급 운영 실태 설문조사 및 통합학급 운영에 대한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 실시하였다.

장애 영유아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첫째, 유치원 입학 전 교육경험을 가진 경우는 71%이며, 통합학급 교사의 특수교사 자격소지나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경우는 18%이고, 유치원 특수학급 교사의 자격증 소지율은 70%였다. 둘째, 효율적인 통합교육 실행을 위해 전체적으로 일반 학생 수 경감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보조원 배치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다. 셋째, 일반 학부모 대상 장애이해교육은 24%, 일반 유아 대상 장애이해교육은 82%가 실시하였으며 실시하지 못한 이유로는 지식부족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통합학급 교사 배정은 학급배정 후 장애 유아를 확인한 경우가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교내규와 기타가 24%, 본인의 희망 22% 순이었다. 다섯째, 통합된 장애 유아를 위한 중점 교육활동 영역은 생활지도가 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부모가 인식하는 장애 유아의 주요교육목표는 사회성 발달이 62%로 가장 높았다. 또한 개별화 교육계획 작성 시 학부모의 참여는 74%였으며, 전적으로 특수학급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와 일부만 통합학급 교사와 협의하는 경우가 똑같이 47%였다. 여섯째, 전체적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은 통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

에 학생과 일반 학생 모두에게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84%였다. 일곱째, 학부모가 통합교육 결정시 도움을 제공한 사람은 유아특수교사와 치료사하는 응답이 50%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 유치원 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은 문제행동이 4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따돌림 24%, 교과 활동 어려움 20% 순이었다. 또한 자녀에게 가장 불편한 물리적 환경은 통학이 어렵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기타 응답이 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화장실이 40%로 높게 나타났다. 여덟째, 특수학급 참여 관찰 및 심층면담 결과 일반 유아가 장애 유아를 ‘자신보다 능력이 덜 하기 때문에 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장애아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거나 연수 등의 훈련이 부족하여 장애아 지도나 통합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개별화 교육계획은 전적으로 특수교사가 담당하거나 일부만 통합학급 교사와 협의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통합학급 교사는 본인의 희망보다는 다른 외적 요인에 의해 장애아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효율적인 통합교육 실행을 위해 일반 학생 수 경감과 보조원 배치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학부모 대상 장애아 해 교육이 많이 부족하고, 교사들은 장애 영유아의 생활지도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나 학부모들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가장 원하며, 문제행동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에는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은 통학과 화장실 사용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또한 가정과의 협력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사회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장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활성화·내실화 방안 관련 연구

장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관련 연구에는 장애 유아 통합교육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구성요인(조운경, 2004),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교육과정 모형(김수진 외, 2004), 장애 영유아 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관연계 방안(안수경 외, 2003), 통합교육 효율화를 위한 웹기반 교사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우정환 외, 2005), Elements of Successful Inclusion for Children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Alice Frazier Cross 외, 2004), Parents' Experiences of Their rights in the Implementation of Inclusive Education in South Africa(Petra Engelbrecht 외, 2004) 등이 있다.

조운경(2004)은 통합교육의 실행 방향이 어떠한지 모색해 보고자 하는 목

적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통합교육 실행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효과적인 통합교육 실행을 위한 구성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장애 유아 요인, 학급과 교사 변인, 가족의 관점과 전문가 간의 관계, 사회정책과 문화 및 지역사회 요인으로 나누어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통합교육 실행을 위한 구성요인들의 기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수진 등(2004)은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교수적인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문헌연구를 통해 'Building Block Model'에서의 교수적 지원의 구성을 고찰하였다. 연구자는 학습기회를 삽입할 통합 환경 구성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활동 참여를 통해 반응적인 교수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삽입된 학습기회는 교사와 부모가 적용하기 수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교사가 장애 유아에게 맞는 방법으로 교육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안수경 등(2003)은 장애 영유아들의 특수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동시에 장애 영유아 가족 지원의 한 형태로서의 보육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문헌조사, 통계자료 검색, 설문조사, 면담조사, 토론회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 영유아 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음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범 행정부처적 장애인 전달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의 조기시작 촉진, 둘째, 특수학교 유치부와 유아특수학교의 치료·통합·홍보 프로그램 강화, 셋째, 방과 후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간의 어린이집 특수교육프로그램과 특수학교의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인증 실시이다. 이 연구는 다양한 연구 방법으로 다양한 내용을 다룬 포괄적인 연구로 통합교육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장애 유아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과 보육의 연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공교육 체계를 중심으로 특수학교, 국공립유치원 특수학급, 보육시설을 함께 다루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제외되었다.

우정환 등(2005)은 통합교육에 대한 연수기회의 확대와 참여자의 능동적인 연수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요구조사,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특수교사 양성 대학(원)의 교과과정과 교원 연구기관 통합교육 교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통합교육 효율화를 위한 교사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적인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로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부분만 다루고 있다.

Cross, Traub, Hutter-Pishgahi, Shelton(2004)은 일반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중도 장애 영유아들의 완전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조기중재, 유아특수교육, 일반 유아

교육 서비스 제공자들이 수행하는 실제와 절차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인터뷰, 관찰, 기록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유치원과 유아원에서 서비스 받는 7명의 중도 장애 영유아의 성공적인 통합 사례를 분석하여 4가지 요소를 추출해 내고 각각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그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유아원이나 유치원 프로그램에의 성공적인 통합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요소는 태도, 부모-제공자의 관계, 치료적 중재, 적응의 4가지 요소였다. 연구자들은 각 아동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많은 성인들이 참여하고, 이들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어야 하며, 중도 장애아를 일반 환경에 통합시키는 것은 그들의 서비스, 목적, 배치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을 요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실제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성공에 기여하는 요소를 밝히고자 하였다.

Engelbrecht, Oswald, Swart, Kitching, Eloff(2004)는 평등, 개인의 권리, 선택의 자유가 통합교육의 실행 자체로 명백해지는 방식과 부모가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에 대해 논하고자 인터뷰를 통한 질적 분석을 기초로 배치와 협력에 대해 기술하였다. 아동을 정상교육에 통합하는 것은 부모의 결정으로 시작하는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고, 법과 부모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에서의 통합교육의 발달은 항상 평등과 개인의 권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교사, 부모, 전문가의 협동적이고 신뢰적인 관계 형성의 실패는 중요한 도전이 되고 통합교육의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통합교육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통합교육 관계자들의 협동적이고 신뢰적인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서는 장애 영유아의 적응능력, 충분히 교육받은 교사의 교수적 지원, 치료적 중재, 학습 기회를 삽입할 수 있는 학급의 환경, 관계자들의 태도 및 부모, 교사, 전문가와의 협동적이고 신뢰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다.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관련 정책 연구

장애 영유아 통합 관련 정책 연구로는 장애 영유아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 및 포괄적 지원 모형 개발(이소현, 2006), 장애 유아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 고찰(이소현, 2005), 장애 유아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의 실제: 통합보육지원 정책을 중심으로(이창미, 2004), Least Restrictive and Natural Environments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 Legal Analysis of Issues(Susan Etscheidt, 2006) 등이 있다. 또한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학생 실태조사(오유정 외,

2006), 통합학급 운영 실태 분석 연구(김은주 외, 2003) 등은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실태 관련 연구이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이소현(2006)은 우리나라 장애 영유아 지원과 관련된 현행 제도 및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질적 구성요소들을 반영한 지원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현행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자는 문헌연구를 통해 장애 영유아 지원체계의 질적 구성 요소를 밝히고, 장애 영유아 지원 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지원체계의 포괄적 모형과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장애 영유아 지원 체계의 질적 구성 요소로 조기발견, 최상의 질적 서비스 보장,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들었다. 이 연구는 장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함께 다루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모두 함께 다루고 있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통합교육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전체 장애 영유아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다루고 있으며, 법과 제도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소현(2005)은 통합교육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 통합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요소들을 분석하고 유아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문헌고찰을 통해 현재 통합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책적 요소와 장애 유아 통합교육의 현황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행 장애 유아교육과 관련된 법률 고찰하였다. 이에 기초해 다음과 같은 장애 유아 통합교육과 관련된 정책 내용을 제안하였다. 첫째, 통합교육의 개념 정립에 따른 재 정의, 둘째,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상의 통합교육 관련 정책의 장애 유아에 대한 적용, 셋째, 장애 유아 무상교육 기회 확대 계획의 통합교육 중심으로의 전환, 넷째, 장애 유아 통합교육 현장의 질적 통제를 위한 세부적인 지원 규정 수립, 다섯째, 장애 유아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소요 예산 확보 및 융통성 있는 운영이다. 이 연구는 통합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책적 요소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는데 의의가 있으나, 보육을 제외한 유아교육 분야만 다루었고, 문헌연구에 한정하였다.

이창미(2004)는 서울시 장애 유아 통합보육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문헌고찰을 통해 장애 유아 통합지원에 있어서의 최상의 실제, 장애아 보육의 현황과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확대 계획안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장애 유아 통합지원정책의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지속적인 시스템 구축을 들고, 첫

째, 장애 유아의 조기선별과 진단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유아교육기관의 배치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이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전문가 집단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넷째,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가족중심의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는 장애 유아 통합지원의 최상의 실제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통합보육지원 정책을 소개한 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앞으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Susan Etscheidt(2006)는 IDEA(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가 개정된 1997년부터 IDEIA(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가 제정된 2004년까지 LRE(최소제한환경)와 자연적인 환경과 관련된 소송을 고찰하고, 통합 배치에 대한 아동의 준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LRE Legal Research Center의 온라인 DB 자료 검토와 사례에 대한 질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배치 결정의 기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통합 배치 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안내를 하였다. 연구자는 통합 배치 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조기 중재 제공자에 대한 전문적 발달 확장, 둘째, 통합 배치의 '준비도' 향상, 셋째, 조정과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사례 분석을 통해 장애아 배치 결정의 기준을 탐색하고, 통합배치 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을 하였다.

오유정 등(2006)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완전통합되어 있는 통합학급의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 및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한다. 둘째,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를 확대한다. 셋째, 통합교육 연수를 확대한다. 넷째, 기초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 문제행동 관리 프로그램, 진로지도 매뉴얼 등 통합학급 업무 매뉴얼 및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다섯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제고한다. 여섯째, 특수교육 교수자료 센터(IMC: Instructional Material Center)를 설치한다. 일곱째, 학교시설 여건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은주 등(2003)은 통학학급 운영 실태 분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통합학급 내에서도 장애 학생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교육과 통합학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매우 시급하다. 둘째, 통합학급 교사는 물론 학교 관리자, 일반 학생, 학부모, 학교 직원에 이르기까지 각 대상별로 적절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

다. 셋째,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 교사와 학부모 간에 기본적인 정보 및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넷째, 특수교육보조원의 통합학급 배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다섯째, 통합학급 교사가 장애 학생에 대한 지도를 부담으로만 느끼지 않고 책무성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에 임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 축소, 급당 인원수 감축과 함께 일정액의 수당지급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여섯째, 통합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의 물리적인 환경이 장애 학생의 통합을 방해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상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이 보다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의 개념 재정립, 조기선별과 진단 및 배치 체계 구축, 통합교육 중심의 무상교육 기회 확대, 최상의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적 자원 배치와 연수 실시 및 인센티브 제공,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 통합학급 운영 프로그램과 교수자료의 개발과 보급,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체계 확립,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제고, 소요 예산 확보 및 융통성 있는 운영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Ⅲ.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관련 제도와 현황

1.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관련 제도

가.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의 법적 근거

장애 영유아 관련법은 장애 영유아의 사회적인 위상을 알아볼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실제로 이들을 보호하는 방편이 된다. 따라서 장애 영유아 관련법 중 본 연구의 주제인 장애 영유아 통합 관련 법규의 조항을 살펴보는 것은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관련 법령과 조항을 정리하면 <표 Ⅲ-1-1>과 같다.

<표 Ⅲ-1-1>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관련 법령

법령	관련 조항
유아교육법	제 15조(특수학교 등)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 3조(보육이념), 제 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 24조(비용의 보조)
아동복지법	제 3조(기본이념), 제 4조(책임)
장애인복지법	제 18조(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정의), 제 3조(의무교육 등), 제 4조(차별의 금지), 제 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 8조(교원의 자질향상), 제 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 21조(통합교육), 제 22조(개별화 교육), 제 25조(순회교육 등), 제 26조(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제 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제 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표 III-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관련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과 가장 최근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등이 있다. 이상의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관련 법령을 내용에 따라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습권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법의 일부 조항에서 국민의 학습권과 교육기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들 내용은 <표 III-1-2>와 같으며, 장애를 이유로 입학할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 영유아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표 III-1-2> 장애 영유아 관련 법 중 학습권 관련 내용

법	조항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 18조 4항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조 1항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차별 금지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의 일부 조항에서 차별 금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III-1-3>과 같으며, 장애 영유아들이 장애를 이유로 교육이나 보육을 받는 데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 III-1-3〉 장애 영유아 관련 법 중 차별 금지 관련 내용

법	조항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 3조 3항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 3조 1항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제 3조 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특수교육법은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장애 유아의 유치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만 3세 미만 장애 영아 교육은 무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1-4>와 같다.

〈표 III-1-4〉 장애 영유아 관련 법 중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관련 내용

법	조항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조 1항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 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 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3항	제 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장애아 보육 우선 실시

영유아보육법은 일반 보육에 앞서 장애 영유아 보육을 우선적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1-5>와 같다.

〈표 III-1-5〉 장애 영유아 관련 법 중 장애아 보육 우선 관련 내용

법	조항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 26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통합교육 관련 정의

특수교육법은 통합교육, 개별화 교육, 특수학급 등 특수교육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와 장애의 종류에 대한 명시를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1-6>과 같다.

〈표 III-1-6〉 장애 영유아 관련 법 중 통합교육 관련 정의

법	조항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통합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 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 2조	'개별화 교육'이라 함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특수학급'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제 15조 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시각장애, 2.청각장애, 3.정신지체, 4.지체장애, 5.정서·행동장애, 6.자폐성장애, 7.의사소통장애, 8.학습장애, 9.건강장애, 10.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6) 장애 영유아 교육과 보육 지원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영유아 교육과 보육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내용은 <표 III-1-7>과 같다. 이상의 규정들은 장애 영유아가 교육이나 보육을 받고자 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모든 교육기관은 장애인의 교육을 위해 물리적 환경을 구비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위한 재정지원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표 III-1-7> 장애 영유아 관련 법 중 교육과 보육 지원 관련 내용

법	조항	내용
유아교육법	제 30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 26조 2항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5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
장애인복지법	제 18조 5항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대상 장애인의 입학 및 수확 등에 있어서 장애의 중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4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5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7) 교원 자질

특수교육법은 장애 영유아 교육을 받고 있는 교원의 자질 향상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 III-1-8>과 같다.

<표 III-1-8> 장애 영유아 관련 법 중 교원 자질 관련 내용

법	조항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8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8) 통합교육 운영

특수교육법의 많은 조항들이 통합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을 하고 있다. 특수교육법은 통합교육의 운영, 개별화 교육의 실행, 특수교육지원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순회교육, 유치원 중일제 운영 담당 인력 배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치료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III-1-9>와 같다.

<표 III-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중 통합교육 운영 관련 내용

조항	내용	
제 21조 (통합교육)	1항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제 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항	일반학교의 장은 제 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 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 22조 (개별화 교육)	1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개별화

조항	내용
	<p>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p> <p>2항 개별화 교육지원팀은 매 학기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p> <p>3항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 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p> <p>4항 특수교육교원은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p> <p>5항 제 1항에 따른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구성, 제 2항에 따른 개별화 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제 25조 (순회교육 등)</p>	<p>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2항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3항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4항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26조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p>	<p>1항 「유아교육법」 제 2조 제 6호의 규정에 따른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p> <p>2항 제 1항에 따른 종일제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p>	<p>1항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p> <p>1.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p> <p>2항 교육감은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p> <p>3항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조항	내용	
제 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1항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항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 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3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4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5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을 위한 재정지원 현황

1) 중앙정부의 지원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은 전무하다. 다만 일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교육비 명목으로 일정금액(2007년 현재 361,000원 이내)을 지원해 주는 것뿐이다.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장애 유아 4명당 특수교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는 국공립 일반 유치원교사의 인건비가 국고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일 뿐이다.

한편 장애아 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유치원보다는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2007년 현재 장애 영유아에게 361,000원 이내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이외에 인건비 지원이나 그에 준하는 지원이 더 있다. 장애아통합 보육시설로 지정된 경우, 중앙정부 지원시설은 장애아 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와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에게 특수교사 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하며, 민간 지정시설일 경우 장애아 전담교사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는 보육시설 중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는 장애아 1인당 29만 2천원을 지원하며, 장애아에 대한 별도 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일반 보육시설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영아반(0세, 1세, 2세)으로 편성된 경우 해당 반별 기본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III-1-10>과 같다. 또한 표에는 없지만 2007년 8월부터 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실시하고 있는 장애아 보육 도우미 사업은 2007년 11월 현재 전국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180개소에 총 280명 정도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장애아 이해를 위한 반나절 정도의 오리엔테이션을 담당하고 노동부는 장애아 보육 도우미에게 월 77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표 III-1-10> 통합보육 실시 보육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구분	지정 주체	인건비 지원 (교사 1인)	기본보조금 (장애아 1인)	보육료 지원 (장애아 1인)
1. 장애아 통합지정시설: 통합교사 배치,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 인건비 지원: 배정 물량 범위 (중앙정부 지원시설 및 민간 시설 중 지원)				
	시·군·구청장	80% (국공립·법인)		361천원
- 기본보조금 지원 (민간시설 중 통합교사 인건비 미지원 시설)				
	시·군·구청장		292천원	361천원
2. 일반보육시설				
중앙정부 지원 시설	- 1 대 3 기준	80%		361천원
	- 1 대 5 기준	80%		317천원
	- 1 대 7 기준	80%		262천원
	- 1 대 15 기준	30%		180천원
	- 1 대 20 기준	30%		162천원
민간보육시설	- 1 대 3 기준		292천원	361천원
	- 1 대 5 기준		134천원	317천원
	- 1 대 7 기준		86천원	262천원
	- 1 대 15 기준		-	보육료 상한액
	- 1 대 20 기준		-	보육료 상한액

자료: 여성가족부(2007). 2007 보육사업안내.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국공립유치원과 보육시설은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 외에도 교사의 인건비가 어떤 형태로든 지원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장애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교육비 외에 시설이나 교사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2) 지방정부의 지원

지방정부에서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장애아나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Ⅲ-1-11>과 같다.

〈표 Ⅲ-1-11〉 지방정부의 장애아 통합시설 지원

지방정부	사업명	지원기준 및 내역	예산액(천원)	
서울 특별시	장애아 교재교구비 지원	장애아 통합시설의 장애아 1인당 월 25천원	201,600	
	시 자체 사업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	국공립, 법인 시설에 장애아 통합보육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교재교구비 지원 개소당 30,000천원 범위 내	750,000
	장애아 통합시설 특수교사 인건비 지원	장애아 통합 지정 시설: 장애아 9명당 치료사 인건비 지원(최대 5명)	936,360	
	장애아 보육지원센터 운영	장애아 통합시설 장애아 전문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100,000	
	성동구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공사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 공사 1개소 선정	30,000
	광진구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	구립어린이집 1개소	15,000
	강남구	취약(특수, 시간 연장) 보육시설 운영	야간교사 급식비 월 25천원 시간 연장 운영비 월 500천원 취약보육(장애, 영영아) 월 200천원	108,000
	송파구	아토피 및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지원	아토피 통합시설 간호사 인건비 1인 월 1,500천원 아동 급식비 1인 800원	28,000
	시 자체 사업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지원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특수교사, 치료사): 200명 / 1인당 월 80천원	192,000
	달서구	장애 아동 현장학습	보육시설 재원 장애 아동: 200명 / 1인 20천원	4,000
인천 광역시	시 자체 사업	장애아 통합시설 조력 사업	1식	10,000
	보육교사 특수보육 특성화 연수	장애아 전담 및 통합반 교사 특성화 연수	20,000	
	특수보육시설 운영	치료사 인건비 100%	200,000	

지방정부	사업명	지원기준 및 내역	예산액(천원)
		차량운영비: 월 300천원 교재교구비: 연 2,000천원 24시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월 750천원	
대전광역시	장애아 통합시설 개보수	1개소당 5,000천원	100,000
	특수보육교사(영아, 장애아, 방과 후 등) 특별수당	1인 60천원	1,632,240
	특수보육시설(장애아, 영아 전담, 방과 후 등) 보육아동 간식비	1인 일 600원, 월 15,000원	222,480
울산광역시	장애 아동 보육료	민간보육시설 만 5세아, 방과 후 보육 장애 아동: 60명 / 월 50천원 시간 연장 보육아동 30명 / 월 평균 180,500원	198,000
	공립, 법인 취약보육 종사자 수당	150명 / 월 100천원	180,000
	취약보육 종사자 교육지원	150명 / 300천원	52,500
울주군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장애아 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	장애아반 교사 1인 / 월 100천원	6,000
경기도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장애 및 영아반 담당 보육교사 장애아 전문교사 월 100천원 영아 전문교사 월 50천원	1,408,800
	방과 후 장애아반 차량비 지원	장애아 방과 후 반 운영 시설 1개소 월 200천원	2,400
	영아, 장애아 간식비 지원	1인 500원 / 보육일수	84,240
경상북도	구미시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및 장애 아동 현장 체험	보육시설 이용 장애 아동 1인당 150천원	31,500
경상남도	장애 전담 보육교사 수당 지급	1인당 월보수액 10% 장애통합시설 9개소 13명	15,600
	하동군 장애아 보육교사 수당	장애아 담당교사 월 50천원	9,000
제주특별자치도	도 자체 사업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특수보육시설 개소당 / 월 600천원	1,020,000

자료: 여성가족부(2007). 보육관련 지방정부 특수시책사업 현황(2007년도)

주: 내용상 지원이 분리되어 제시되지 않아 다른 지원과 함께 명시한 부분 있음.

<표 III-1-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7년 현재 16개 시도 중 8개의 시도와 232개의 시군구 중 10개의 시군구가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지방정부가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지원을 하더라도 지방정부별로 지원 사업명과 규모, 지원액이 다양하다. 이는 장애 영유아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지원 혜택을 다르게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은 2007년 현재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지역에서도 장애 영유아가 다니고 있는 기관의 종류에 따라 그 혜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지원 체제

1) 특수교육지원센터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교육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는 특수교육 대상학생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특수교육법 제 11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 III-1-12>과 같다.

<표 III-1-12>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 규정

법	조항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1조	1항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항 제 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 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교육청,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설치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 전담 인력이 배치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2001년 26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범 설치·운영 이후 2005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2007년 현재 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1-13>과 같다.

<표 III-1-13> 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명, 천원)

시·도	지원센터 수	설치 수								2007년도 운영예산
		전담인력 배치 수						소계		
		특수교사		치료교육교사		사무직		정규	기간제 (비정규)	
정규	기간제	정규	기간제	정규	비정규	정규	기간제 (비정규)			
서울	11	4	-	5	-	-	-	9	-	311,500
부산	6	3	2	22	-	1	-	26	2	240,000
대구	4	1	-	7	-	-	-	8	-	275,450
인천	5	5	-	5	-	5	-	15	-	1,000,000
광주	2	2	-	7	-	-	-	9	-	102,500
대전	2	2	-	2	-	2	-	6	-	100,000
울산	2	2	-	2	-	-	-	4	-	200,000
경기	25	-	-	15	-	-	-	15	-	865,000
강원	17	4	-	6	-	-	-	10	-	530,000
충북	11	-	9	-	7	-	-	-	16	806,000
충남	15	-	22	17	1	-	-	17	23	1,165,510
전북	14	10	-	2	-	-	-	12	-	624,000
전남	22	17	-	5	-	-	-	22	-	1,141,000
경북	23	-	8	-	6	-	-	-	14	700,000
경남	20	-	21	17	19	-	-	17	40	2,378,000
제주	3	-	7	-	-	-	-	-	7	310,336
계	182	50	69	112	33	8	-	170	102	10,749,296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표 III-1-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7년 현재 182곳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특수교사와 치료교육교사 등의 전담 인력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반수 이상이었던 2006년에 비해 2007년에는 특수교사와 치료교육교사 배치가 각각 1.5배, 1.8배 정도 증가하였다.

특수교육 연차보고서(2007. 9)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구성과 기능을 <표 III-1-14>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III-1-14>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구성과 기능

	진단·배치팀	소아정신과 의사, 특수교육 교사, 특수교육 요구학생 부모, 치료교육 교사, 재활의학 전공의사, 변호사, 일반학교 교장·교감 등
구 성	특수교육지원팀	특수교육교사, 치료교육교사(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보행훈련·청능훈련 등), 직업교육교사 등
	전환교육지원팀	특수교육교사, 직업교육교사, 장애인 고용기관 대표, 장애인 직업재활기관 대표, 장애인 복지기관 대표, 장애 학생 부모 대표, 특수학교(급) 교장 등
기능	특수교육 대상학생 발견 정보 관리	· 특수교육 요구 영아 관련 정보수집 관리 · 만 3세 유아 발달진단 결과정보 관리 · 초등학교 3학년 학교생활적응검사 결과정보 관리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평가	· 3세 유아 발달진단검사 및 진단검사 실시 · 초등학교 3학년 학교생활적응검사 및 진단검사 실시 · 중등 특수교육 대상학생 전환능력 평가 지원
	특수교육 대상학생 선정·배치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단·평가 결과 분석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교배치, 지원서비스의 내용과 범위 결정
	특수교육 활동 지원	· 지역사회 장애인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 가족상담 · 일반학급·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수전략 및 방법 지원 · 특수교육 대상학생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 · 재택 특수교육 대상학생 순회교육 지도 및 치료교육 서비스 제공 ·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공학기구 및 학습보조도구 대여 · 특수교육보조원 훈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2006년에 수원교육청, 의정부교육청, 여주교육청, 광주하남교육청에서 시범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장애 학생에 대한 치료교육 및 특수교육 등 추가교육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선정·배치 지원,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진단·평가 분석, 상담 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특수치료교육 교실 개설, 방학을 이용한 치료교실 운영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2007년에는 상근 교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하여 지역사회 장애인 및 장애 학생, 가족에 대한 상담, 미취학 장애 학생에 대한 진단·평가 지원, 특수교육 지원공학기구 및 학습보조기구, 치료교육기구 대여 등의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경기교육소식, 2007. 3. 7).

2) 보육정보센터와 장애아통합보육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장애 영유아 보육 지원의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 2007년 12월 현재 중앙보육정보센터 산하 16개 시도에 모두 설립되어 있으며, 시군구 차원에서는 서울시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서초구, 성동구, 인천시 부평구, 경기도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평택시, 강원도 강릉시, 경상남도 진주시에 21개의 보육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포함해 전국에 총 38개의 보육정보센터가 있으며, 앞으로 시군구 지역에 지속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보육정보센터 설치의 목적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일반주민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육시설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보육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보육정보센터 설치자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07).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은 <표 III-1-15>와 같다.

〈표 III-1-15〉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구분	기능
중앙보육정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 보육시설평가인증 조력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 · 보육통계 산출 및 기초조사 · 시·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
지방보육정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지역주민의 육아지원(양육 상담, 놀잇감 무료 대여, 부모강좌 등) · 지역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 상담 및 조력 · 보육도서관 (on line / off line) 운영 · 보육정보지 발간 등 보육관련 홍보 ·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여성가족부(2007). 2007 보육사업안내.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중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포함되어 있어 보육센터의 기능 중 일부가 장애 영유아 보육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장애아 보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별화 보육계획안 등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으며, 장애아 보육시설 검색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장애아통합보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와는 달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설립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테마기획 사업으로 2006년부터 3년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2006년에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전밀알복지관,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도장애인복지관의 9개 복지관이 선정되어 각각 4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장애아통합보육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통합보육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한 예로, 양천장애인복지관의 장애아통합보육지원센터는 특수교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아 통합보육 수행력 증진을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발달지원 여부를 진단하고 부모 상담을 통해 후속 지원책을 자문한다. 또 순회교사를 파견하여 장애 아동의 특성 및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계

획안을 작성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기적인 교사모임과 온라인 모임을 통해 교사 및 부모에게 통합보육에 대한 정보 공유와 가족상담, 모자놀이, 형제지원 활동 등 가족을 위한 지원을 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 아동 3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로 전담교사가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 지원한다(위드뉴스, 2007. 1. 25). 이처럼 장애통합보육지원센터는 한 단체의 한시적 사업이기는 하지만,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지원을 위한 센터운영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준다.

2.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현황

가. 장애 영유아 기관 배치 현황

장애 영유아 출현율은 연구마다 그 비율이 차이가 많아 그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러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로 0~5세 장애 영유아 출현율을 2% 정도로 간주하면 현재 20.11%의 영유아들만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교육과 보육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5세 장애 영유아의 기관 배치 현황을 보면 <표 III-2-1>, <그림 III-2-1>과 같다.

<표 III-2-1> 장애 영유아 기관 배치 현황

							단위: 명, %
0~5세아 인구수	장애 영유아 수 추정 2%	특수 교육기관 ⁸⁾	일반 유치원	전담 보육시설 ⁹⁾	통합 보육시설	기관배치 장애 영유아비율	
2,999,461	59,989	1,032	2,091	5,549	3,390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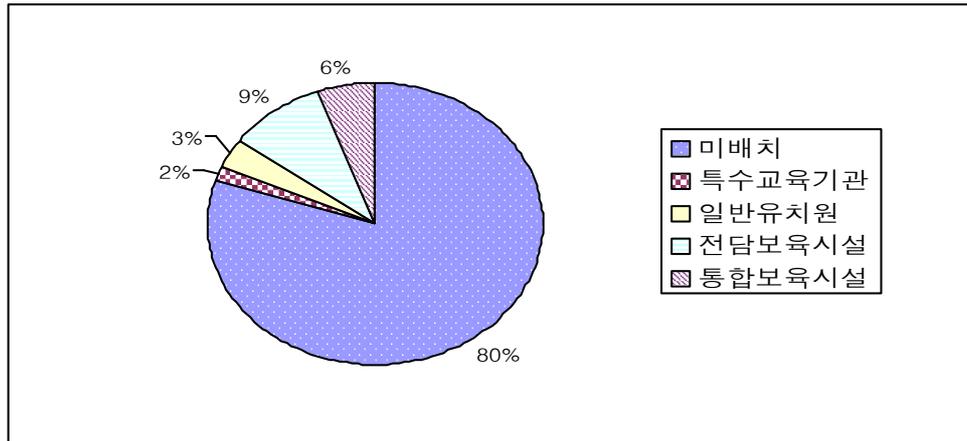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도 특수교육실태 조사서
여성가족부(2007. 6). 보육통계.

<표 III-2-1>과 <그림 III-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 영유아 출현율을 2% 정도로 간주할 때, 장애 영유아들은 특수교육기관에 2%, 일반유치원에 3%, 장애아

8) 특수교육기관은 장애아 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인데, 여기서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특수학교와 특수학교의 유치부를 말한다.

9)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시도지사가 장애아 전담시설로 지정한 보육시설로 장애 영유아를 주로 보육하는 시설임.

전담 보육시설에 9%,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에 6% 정도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80%는 어느 곳에도 배치되어 있지 않다.



[그림 III-2-1] 장애 영유아 기관 배치 현황

유아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배치 장애 영유아 중 특수교육기관, 일반 유치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에 배치된 영유아의 수와 비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표 III-2-2>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중 장애 영유아가 가장 많이 배치된 곳은 장애전담 보육시설로 46.0%이며, 그 다음은 장애통합 보육시설 28.1%, 일반 유치원 17.3%, 특수 교육기관 8.6% 순이다. 이러한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는 전체적인 경향과 같으나, 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에는 장애통합 보육시설에 가장 많은 영유아가 배치되어 있다. 그 다음은 서울과 인천의 경우 일반 유치원, 장애전담 보육시설, 특수교육기관 순이며, 경기는 장애전담 보육시설, 일반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순이다. 한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전남은 장애전담 보육시설에 가장 많은 장애 영유아가 배치되어 있다. 그 다음은 부산, 대구, 울산, 전남의 경우 일반 유치원, 장애통합 보육시설, 특수교육기관 순이며, 광주는 일반 유치원, 특수 교육기관, 통합보육시설 순이고, 충북은 장애통합 보육시설, 특수교육기관, 일반 유치원 순이다. 대전의 경우에는 일반 유치원에 가장 많은 장애 영유아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 다음은 장애전담 보육시설, 장애통합 보육시설, 특수 교육기관 순이다.

<표 III-2-2> 시도별 기관 배치 장애 영유아 수와 비율 I

단위: %(명)

구분	특수교육기관	일반 유치원	전담 보육시설	통합 보육시설	합계
전체	8.6 (1,032)	17.3 (2,091)	46.0 (5,549)	28.1 (3,390)	100.0 (12,062)
서울	15.5	20.4	16.3	47.8	100.0
부산	13.5	26.0	40.6	19.9	100.0
대구	2.5	13.1	75.1	9.3	100.0
인천	6.3	29.0	16.4	48.3	100.0
광주	2.9	15.7	78.8	2.7	100.0
대전	6.7	38.6	33.3	21.5	100.0
울산	0.6	13.1	76.3	10.0	100.0
경기	11.8	14.4	23.9	49.9	100.0
강원	10.1	25.1	33.0	31.7	100.0
충북	15.3	10.4	47.8	26.5	100.0
충남	7.3	20.5	41.8	30.5	100.0
전북	9.5	11.7	62.1	16.6	100.0
전남	3.6	11.6	75.7	9.2	100.0
경북	3.6	13.2	66.9	16.2	100.0
경남	2.9	11.7	64.9	20.6	100.0
제주	5.1	12.7	64.1	18.1	10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도 특수교육실태 조사서
 여성가족부(2007. 6). 보육통계.

유아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배치 장애 영유아 중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 특수 전담기관과 일반통합기관으로 나누어 각 기관에 배치된 영유아의 수와 비율을 시도 별로 살펴보면 <표 III-2-3>과 같다. 장애 영유아 중 보육시설에 배치된 영유아가 74.1%로 유아교육기관에 배치된 영유아의 2.9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그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지역에서 보육시설에 더 많은 장애 영유아가 배치되어 있다. 한편, 특수전담기관과 일반통합기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특수전담기관에 배치된 장애 영유아의 수가 54.6%로 더 많았으나, 일반통합기관에 배치된 장애 영유아 수도 45.4%로 큰 차이는 없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10개 시도는 전체의 경향과 같이 특수 전담기관에 배치된 장애 영유아의 비율이 높으나, 서울,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남의 6개 시도는 일반 통합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영유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2-3〉 시도별 기관 배치 장애 영유아 수와 비율 II

단위: %(명)

구분	유아교육기관	보육시설	합계	특수전담	일반통합
전체	25.9 (3,123)	74.1 (8,939)	100.0 (12,062)	54.6 (6,581)	45.4 (5,481)
서울	35.8	64.2	100.0	31.8	68.2
부산	39.5	60.5	100.0	54.0	46.0
대구	15.6	84.4	100.0	77.6	22.4
인천	35.3	64.7	100.0	22.7	77.3
광주	18.5	81.5	100.0	81.6	18.4
대전	45.2	54.8	100.0	40.0	60.0
울산	13.7	86.3	100.0	76.9	23.1
경기	26.2	73.8	100.0	35.8	64.3
강원	35.2	64.8	100.0	35.2	56.8
충북	25.7	74.3	100.0	63.1	36.9
충남	27.8	72.2	100.0	49.0	51.0
전북	21.2	78.8	100.0	71.6	28.4
전남	15.2	84.8	100.0	79.3	20.7
경북	16.9	83.2	100.0	70.5	29.5
경남	14.6	85.4	100.0	67.7	32.3
제주	17.8	82.3	100.0	69.2	30.8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도 특수교육실태 조사서.

여성가족부(2007. 6). 보육통계.

주: 특수전담은 특수교육기관과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일반통합은 일반유치원과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임.

나. 장애 유아 통합교육 현황¹⁰⁾

2007년 현재 유아특수교육기관은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유아특수학교 10개교 58학급, 특수학교 유치부 108개교 208학급, 유치원 특수학급 150개교 174학급으로 2006년에 비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기관은 5개교가 감소하였고, 학급 수도 8개 학급이 감소하였다. 반면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유치원 수는 2006년에 비해 20개원이 증가하였고, 특수학급 수도 23개 학급이 증가하였다. 장애 유아를 교육하는 일반 유치원수는 2006년에 비해 110개원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최근 장애 유아

10)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에서 해마다 발행하는 특수교육실태조사서 2007년 통계자료를 기초로 정리함. 특수교육실태조사서는 특수교육현황, 특수학교 현황, 특수학급 현황, 일반학급 현황, 순회교육 현황, 기타로 구성되어 있음.

의 통합교육 확산으로 특수학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으나, 특수학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일반 유치원에 통합되는 유아 수도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의 특수교육 대상 유아 현황은 <표 III-2-4>와 같다. <표 III-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수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특수교육기관, 특수학급 순이다. 유치원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수를 합하면 2,091명으로 특수교육기관에 소속된 유아 수 1,032명의 2배 가까이 된다.

<표 III-2-4> 특수교육대상 배치 유아교육기관, 학급, 유아 현황

단위: 개, 명

특수교육기관			특수학급			일반학급		
기관수	학급 수	유아 수	유치원 수	학급 수	유아 수	유치원 수	학급 수	장애 유아 수
118	266	1,032	150	174	599	903	1,188	1,492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도 특수교육실태 조사서.

유치원 통합학급의 교사는 2007년 현재 총 1,385명이며, 이 중 특수교사 자격증소지자 및 60시간 이상 연수자는 180명이고, 60시간 이상 연수 미이수 교사는 1,205명이다. 한편 특수학급 교사는 2007년 현재 180명이며, 특수교사 중 1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는 43명, 2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는 101명, 일반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는 19명, 60시간 이상 연수 이수자는 5명, 미이수자는 12명이다.

유치원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의 연령별 장애 유아 수를 살펴보면 <표 III-2-5>와 같다. 만 3세는 160명이 일반학급에, 56명이 특수학급에 재원하고 있으며, 만 4세는 438명이 일반학급에, 131명이 특수학급에 재원하고 있고, 만 5세는 894명이 일반학급에, 412명이 특수학급에 재원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일반학급에 재원하고 있는 장애 유아 수가 특수학급에 재원하고 있는 장애 유아 수의 2.5배 정도가 된다.

<표 III-2-5> 유치원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연령별 장애 유아 수

단위: 명

	3세반		4세반		5세반		소계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일반학급	160	50	438	155	894	302	1,492	507
특수학급	56	21	131	45	412	135	599	201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도 특수교육실태 조사서.

한편 유치원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에 재원하고 있는 장애 유아 수를 장애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표 III-2-6>과 같다. 일반학급에는 정신지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언어장애,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건강장애, 청각장애 순이다. 특수학급에는 정신지체와 정서장애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체부자유가 많다.

<표 III-2-6> 유치원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장애 유형별 유아 수

단위: 명

	3세반		4세반		5세반		소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전 체	여	전 체	여	전 체	여	전 체	여								
시각장애	5	1	0	0	29	11	1	0	34	18	5	1	68	30	6	1
청각장애	12	5	1	0	30	12	2	1	72	26	7	3	114	43	10	4
정신지체	46	17	29	14	95	37	53	18	224	86	192	74	365	140	274	106
지체부자유	18	8	4	2	68	34	23	13	163	66	76	30	249	108	103	45
정서장애	27	4	13	2	55	12	27	6	95	17	90	19	177	33	130	27
언어장애	28	5	4	1	94	27	13	4	219	60	22	6	341	92	39	11
학습장애	11	3	1	0	18	6	3	0	30	7	6	0	59	16	10	0
건강장애	13	7	4	2	49	16	9	3	57	22	14	2	119	45	27	7
총계	160	50	56	21	438	155	131	45	894	302	412	135	1,492	507	599	201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도 특수교육실태 조사서.

설립 주체에 따른 장애 유아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III-2-7>과 같다. 16개 시도별로 장애 유아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유치원의 수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심하다.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은 경기도가 264개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서울이 249개원, 부산 163개원, 경남 108개원 순이다.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이 가장 적은 시도는 인천으로 6개의 유치원이 있으며, 제주도가 18개 유치원으로 그 다음으로 적다.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현황은 서울과 경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유아가 통합교육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움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지방에 사는 장애 유아의 경우 통합 실시 유치원을 찾아 서울이나 경기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장애 유아와 부모 중 한 명은 서울이나 경기 지역으로 이사하고 나머지 가족은 그대로 지방에 머무는 가족해체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설립 주체별로 살펴보면, 인천, 충남, 전남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더 높다. 그리고 인천과 충남에서 장애 유아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유치원은 모두 국공립유치원으로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다.

한편 특수학급 수를 보면 전국적으로 153개 학급이 있으며, 특수학급 또한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제주의 경우 특수학급이 하나도 없으며, 대구, 충북, 경북은 2개, 울산은 3개의 특수학급밖에 없는 실정이다.

〈표 III-2-7〉 설립 주체에 따른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과 특수학급의 지역별 분포
단위: 개

구 분	설립 주체		계	특수학급 수	
	지 역	국공립			사립
합계		276	1,082	1,358	153
서울		33	216	249	30
부산		14	149	163	10
대구		6	74	80	2
인천		6	0	6	15
광주		5	50	55	6
대전		20	45	65	13
울산		3	42	45	3
경기		38	226	264	25
강원		10	32	42	5
충북		20	24	44	2
충남		27	0	27	13
전북		11	36	47	8
전남		28	26	54	13
경북		23	68	91	2
경남		27	81	108	6
제주		5	13	18	0
대도시		87	556	643	79
중소도시		86	405	491	55
읍·면지역		103	121	224	19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장애 유아 통합교육 실시 현황 내부자료.

주: 2007년 4월 기준

다. 장애 영유아 통합보육 현황¹¹⁾

보육시설의 장애 영유아 현황은 <표 III-2-8>과 같다. 2007년 6월 현재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147개소이며, 장애 아동 5,549명이 재원하고 있다.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은 724개소이며, 3,390명의 장애 아동이 재원하고 있다. 일반 보육시설에도 682명의 장애 아동이 재원하고 있다. 유치원과 달리 보육시설은 장애아 전담시설에 재원하는 아동이 통합시설에 재원하는 아동보다 1.6배 이상 더 많다.

<표 III-2-8> 특수교육대상 배치 보육시설 및 아동 현황

단위: 개소, 명

장애아 전담		장애아 통합			일반 보육시설		
시설 수	아동현원	시설 수	아동현원	장애아 현원	시설 수	아동현원	장애아 현원
147	5,549	724	50,819	3,390	29,823	1,062,415	682

자료: 여성가족부(2007. 6). 보육통계.

장애아 보육시설의 설립 주체별 현황은 <표 III-2-9>와 같다.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의 경우는 시설 수와 장애아 수 모두 법인보육시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민간개인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순이다. 반면에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은 민간개인보육시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국공립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순이다.

<표 III-2-9> 설립주체별 장애아 보육시설과 장애아 수

단위: 개소, 명, %

구분	국공립	법인	단체	민간개인	부모협동	가정	직장	계
전담시설								
시설 수	15.0	57.8	7.5	17.7	-	2.0	-	100.0(147)
보육아동 수	12.9	64.6	7.0	14.7	-	0.8	-	100.0(5,549)
통합시설								
시설 수	31.8	7.5	4.8	44.6	0.1	11.2	-	100.0(704)
장애 아동 수	38.1	7.0	4.8	38.8	0.1	11.2	-	100.0(3,390)

자료: 여성가족부(2007. 6). 보육통계.

11) 여성가족부의 2007년 6월 기준 보육통계를 자료를 기초로 정리함.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의 영유아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 III-2-10>과 같다. <표 III-2-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에 재원하는 장애 아동은 3,390명이며, 이 중 1~3급 장애 영유아가 2,627명, 4급 이상 장애 영유아가 763명이다.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에 재원하는 장애 영유아는 시설 전체 영유아의 6.67% 정도이다.

<표 III-2-10>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아동 현황

단위: 명, %

일반아	장애아			전체 아동 수	장애아 비율
	1~3급	4급 이상	소계		
47,429	2,627	763	3,390	50,819	6.67

자료: 여성가족부(2007. 6). 보육통계.

한편,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인력을 살펴보면 <표 III-2-11>과 같다. 2007년 6월 현재 724개의 통합보육시설에 1,117명의 보육교사, 180명의 특수교사, 95명의 치료사가 보육에 종사하고 있다.

<표 III-2-11>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단위: 명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취사원	기타	계
1,117	180	95	145	69	1,606

자료: 여성가족부(2007. 6). 보육통계

설립 주체에 따른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III-2-12>와 같다. 16개 시도별로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수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심하다. 통합보육시설은 경기도가 249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서울이 171개소로 많으며, 그 이외의 시도는 그 수가 현저히 적어져 그 다음이 충남으로 49개의 통합보육시설이 있다. 통합보육시설이 가장 적은 시도는 광주로 4개의 시설이 있으며, 제주도가 8개 시설로 그 다음으로 적다.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의 지역별 분포와 마찬가지로 통합보육시설 또한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타 지역 장애 아동이 통합보육 서비스를 받기는 실로 어렵다.

이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이 통합보육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서울 경기 지역의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이용을 위해 이동하면서 가족해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설립 주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국공립 통합보육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는데 반해,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는 민간개인 통합보육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다. 광주는 법인과 민간개인 통합시설이 같은 비율이다.

〈표 III-2-12〉 설립 주체에 따른 통합보육시설의 지역별 분포

단위: 명, %

구 분	설립 주체					계
	지 역	국공립	법인	단체	민간개인	
합계	247(32.2)	62(8.1)	38(4.9)	320(41.7)	101(13.2)	768(100.0)
서울	71.3	1.8	4.1	15.8	7.0	100.0(171)
부산	23.8	23.8	2.4	47.6	2.4	100.0 (42)
대구	5.0	20.0	15.0	60.0	0.0	100.0 (20)
인천	26.2	7.1	4.8	42.9	19.0	100.0(42)
광주	0.0	50.0	0.0	50.0	0.0	100.0(4)
대전	27.8	5.6	0.0	38.9	27.8	100.0(18)
울산	15.4	0.0	7.7	76.9	0.0	100.0(13)
경기	30.1	2.4	4.0	40.2	23.3	100.0(249)
강원	12.5	18.8	6.3	56.3	6.3	100.0(16)
충북	15.0	5.0	20.0	55.0	5.0	100.0(21)
충남	6.1	20.4	8.2	55.1	10.2	100.0(49)
전북	15.8	36.8	0.0	42.1	5.3	100.0(19)
전남	4.5	22.7	9.1	59.1	4.5	100.0(22)
경북	2.9	2.9	0.0	85.3	8.8	100.0(34)
경남	17.9	10.3	7.7	51.3	12.8	100.0(39)
제주	0.0	25.0	0.0	75.0	0.0	100.0(8)
대도시	49.3	7.2	4.2	30.7	8.5	100.0(306)
중소도시	25.1	6.0	4.8	50.7	13.4	100.0(335)
읍·면지역	9.4	15.7	7.1	44.1	23.6	100.0(127)

자료: 여성가족부(2007). 보육지원팀 e-통계 자료.

주: 2007년 4월 기준

IV.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실태와 요구 분석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와 사례조사 결과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인적환경, 물리적 환경, 프로그램 운영, 가정 및 타 기관과의 연계와 정책 지원으로 나누어 설문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어서 사례조사의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설문분석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과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근거로 구성된 설문지의 결과 제시에 있어서 일관되게 기관유형, 기관·설립유형, 지역을 변수로 하였다. 기관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 것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운영과 지원체제가 다르기 때문이고, 기관·설립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고자 한 것은 같은 유형의 기관이라 하더라도 국공립과 사립(민간)에 따라 그 운영과 지원체제가 또 다르기 때문이며,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고자 한 것은 지방으로 갈수록 그 여건이 열악하다는 그 간의 본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사례조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비교적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치원과 보육시설 각각 한 기관씩을 방문하여 사례조사를 위한 틀을 가지고 문서를 수집하고 관찰하고 면담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S 유치원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지만, 공간적으로 분리된 느낌을 받는 건물 1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분리된 바깥놀이시설을 가지고 있다. 만 4세 1개 학급, 만 5세 2개 학급, 특수반 1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에 특수 Edu-care반이 생겨 장애 유아도 종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A 어린이집은 단독 건물로 2개의 건물이 연결되어 있으며 보육실 14실 외에 지원시설로 교사 연수실과 자료실, 양호실, 식당, 작은 놀이실, 샤워실, 세탁실, 사무실 등이 있다. 또한 특별활동실로 강당, 작업치료교실, 언어치료교실이 있고, 실외공간에는 수영장, 동물사육장, 자연학습장, 잔디밭, 모래놀이터, 종합실외놀이터, 영아육상놀이터, 옥상놀이터가 있다. 비교적 통합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관에서도 어려움과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S 유치원과 A 어린이집은 서로 체계가 달라 어려움과 요구사항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1.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실태 분석

가. 인적 환경

1) 전문인력

가) 설문조사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전문인력 유무는 <표 IV-1-1>과 같다. 전체적으로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가 55.4%로 있는 경우 44.6%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1)=173.7$, $p<.001$), 기관·설립유형($\chi^2(3)=251.8$, $p<.001$), 지역($\chi^2(2)=18.5$,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보육시설(76.0%)이 유치원(24.8%)보다 전문인력이 있는 경우가 3배 정도 높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전문인력이 있는 경우가 81.8%로 가장 높았으며, 사립유치원이 1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규모가 클수록 전문인력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전문인력 유무

단위: %(기관수)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44.6(308)	55.4(382)	100.0(690)
기관유형			
유치원	24.8	75.2	100.0(423)
보육시설	76.0	24.0	100.0(267)
$\chi^2(df) = 173.7(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55.1	44.9	100.0(136)
사립유치원	10.5	89.5	100.0(287)
국공립보육시설	81.8	18.2	100.0(132)
민간보육시설	70.4	29.6	100.0(135)
$\chi^2(df) = 251.8(3)^{***}$			
지역			
대도시	51.5	48.5	100.0(326)
중소도시	42.7	57.3	100.0(260)
읍면지역	27.9	72.1	100.0(104)
$\chi^2(df) = 18.5(2)^{***}$			

주: *** $p < .001$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전문인력의 유형별 배치 비율은 <표 IV-1-2>와 같다. 전문인력의 유형은 전체적으로 특수교사가 1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일반교사 16.6%, 치료사 10.4%, 순회교사 7.8% 순이었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전문인력의 유형에 따른 유무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기관유형, 기관·설립유형,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유치원보다 보육시설에 특수교사, 일반교사, 치료사, 순회교사, 외부자문 등의 전문인력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유치원에 특수교사, 순회교사, 기타 인력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민간보육시설은 일반교사가 있는 경우가, 국공립보육시설에는 치료사와 외부자문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에 특수교사, 치료사, 외부자문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1-2>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전문인력 유형별 배치 비율(중복응답)
단위: %(기관수)

구분	특수교사	일반교사	치료사	순회교사	외부자문	기타	합계
전체	18.4 (127)	16.6 (115)	10.4 (72)	7.8 (54)	4.8 (33)	5.1 (35)	100.0 (691)
기관유형							
유치원	13.9	5.2	3.1	7.3	0.2	4.5	100.0(423)
보육시설	25.4	34.7	22.0	8.6	11.9	6.0	100.0(268)
$\chi^2(df)$	14.3(1)**	102.9(1)**	63.1(1)**	.4(1)	49.4(1)**	.7(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38.2	8.8	7.4	16.9	0.7	11.0	100.0(136)
사립유치원	2.4	3.5	1.0	2.8	-	1.4	100.0(287)
국공립보육시설	27.1	30.1	25.6	10.5	16.5	3.8	100.0(133)
민간보육시설	23.7	39.3	18.5	6.7	7.4	8.1	100.0(135)
$\chi^2(df)$	93.6(3)**	108.9(3)**	70.6(3)**	27.3(3)**	61.8(3)**	21.2(3)**	
지역							
대도시	22.6	15.6	15.9	7.0	7.3	4.6	100.0(327)
중소도시	17.7	20.0	6.5	8.5	3.5	5.4	100.0(260)
읍면지역	6.7	11.5	2.9	8.7	-	5.8	100.0(104)
$\chi^2(df)$	13.4(2)**	4.3(2)	21.1(2)**	.5(2)	10.9(2)**	.3(2)	

주: ** p < .01, *** p < .001

통합학급 담당자는 <표 IV-1-3>과 같다. 통합학급 담당자는 전체적으로 일반교사 1인이 담당하는 경우가 40.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일반교사 1인과 특수교사 1인이 담당하는 경우가 18.6%, 기타 13.9%, 일반교사 2인이 담당하는 경우가

13.4%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5)=214.2$, $p<.001$), 기관·설립유형($\chi^2(15)=398.6$, $p<.001$), 지역($\chi^2(10)=58.5$,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 유치원의 경우 일반교사 1인이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경우가 61.0%로 가장 높았으며, 보육시설의 경우 일반교사 1인과 특수교사 1인이 담당하는 경우가 24.8%로 가장 높았고, 일반교사 2인이 담당하는 경우가 23.8%로 비슷하게 높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는 일반교사 1인이 담당하는 경우는 사립유치원이 80.7%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국공립보육시설은 9.2%로 가장 낮았다. 일반교사 1인과 특수교사 1인이 담당하거나 일반교사 2인이 담당하는 경우는 국공립보육시설이 각각 31.7%, 27.5%로 가장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일반교사 1인인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IV-1-3〉 통합학급 담당자

단위: %(학급수)

구분	일반교사 1인	일반교사인 +특수교사인	기타	일반교사 2인	일반 또는 특수교사 1인	2개 이상 학급을 특수교사 1인 지원	계
전체	40.4(394)	18.6(182)	13.9(136)	13.4(131)	7.9(77)	5.7(56)	100.0(976)
기관유형							
유치원	61.0	12.7	11.1	3.4	5.6	6.2	100.0(497)
보육시설	19.0	24.8	16.9	23.8	10.2	5.2	100.0(479)
	$\chi^2(df) = 214.2(5)^{***}$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37.1	27.7	8.0	4.9	8.9	13.4	100.0(224)
사립유치원	80.7	0.4	13.3	2.2	3.0	0.4	100.0(270)
국공립보육시설	9.2	31.7	15.6	27.5	9.9	6.1	100.0(262)
민간보육시설	31.2	16.7	18.1	19.5	10.2	4.2	100.0(215)
	$\chi^2(df) = 398.6(15)^{***}$						
지역							
대도시	30.6	22.7	16.3	14.3	8.0	8.2	100.0(490)
중소도시	46.2	16.7	12.7	13.6	8.2	2.5	100.0(353)
읍면지역	60.9	9.0	8.3	9.8	6.8	5.3	100.0(133)
	$\chi^2(df) = 58.5(10)^{***}$						

주: *** $p < .001$

교사 2인 이상이 한 학급을 담당하는 경우 교사 간 협력에 대한 인식은 <표 IV-1-4>와 같다. 교사 간 협력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편이라는 응답이 54.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주 잘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43.6%였다. 한편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응답은 1.5%로 소수였다. 교사 간 협력에 대한 인식은 기관유형($\chi^2(2)=7.3, p<.05$)과 지역($\chi^2(4)=12.6,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보육시설(46.7%)이 유치원(37.0%)에 비해 협력이 아주 잘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가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55.7%로 가장 높았고, 읍면지역이 29.4%로 가장 낮았다.

<표 IV-1-4> 교사 간 협력에 대한 인식

단위: %(응답수)

구분	아주 잘 이루어짐	잘 이루어지는 편	잘 이루어지지 못함	계
전체	43.6(146)	54.9(184)	1.5(5)	100.0(335)
기관유형				
유치원	37.0	59.3	3.7	100.0(108)
보육시설	46.7	52.9	0.4	100.0(227)
$\chi^2(df) = 7.3(2)^*$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38.5	58.3	3.1	100.0(96)
사립유치원	25.0	66.7	8.3	100.0(12)
국공립보육시설	45.3	54.7	-	100.0(150)
민간보육시설	49.4	49.4	1.3	100.0(77)
$\chi^2(df) = 10.9(6)$				
지역				
대도시	38.7	59.1	2.2	100.0(186)
중소도시	55.7	43.5	0.9	100.0(115)
읍면지역	29.4	70.6	-	100.0(34)
$\chi^2(df) = 12.6(4)^*$				

주: *p < .05

교사의 역할 분담 방식은 <표 IV-1-5>와 같다. 전체적으로 비정기적 협의를 통해 교사의 역할을 정한다는 응답이 39.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학급별 회의와 기관 내 전체 회의를 통해 정한다는 응답이 똑같이 29.2%로 나타났다. 교사의 역할을 정하는 방식은 기관유형($\chi^2(3)=27.9, p<.001$)과 기관·설립유형($\chi^2(9)=47.6, p<.001$), 지역($\chi^2(6)=15.7,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 유치원은 비정기적 협의를 통해 교사의 역할을 정한다는 응답이 58.7%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보육시설은 시설 내 전체회의를 통해 교사의 역할을 정한다는 응답이 36.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비정기적 협의를 통해 교사의 역할을 정한다는 응답이 각각 59.4%, 50.0%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은 학급별 회의를 통해 정한다는 응답이 37.1%, 민간보육시설은 기관 내 전체회의를 통해 정한다는 응답이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 대도시는 학급별 회의를 통해 정한다는 응답이 35.6%, 중소도시는 시설 내 전체회의를 통해 교사의 역할을 정한다는 응답이 38.8%, 읍면지역은 비정기적 협의를 통해 교사의 역할을 정한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IV-1-5〉 교사 역할 분담 방식

단위: %(응답수)

구분	비정기적 협의	학급별회의	기관내 전체회의	개인결정	계
전체	39.0(123)	29.2(92)	29.2(92)	2.5(8)	100.0(315)
기관유형					
유치원	58.7	25.0	15.4	1.	100.0(104)
보육시설	29.4	31.3	36.0	3.3	100.0(211)
	$\chi^2(df) = 27.9(3)^{***}$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59.4	25.0	15.6	-	100.0(96)
사립유치원	50.0	25.0	12.5	12.5	100.0(8)
국공립보육시설	31.4	37.1	27.9	3.6	100.0(140)
민간보육시설	25.4	19.7	52.1	2.8	100.0(71)
	$\chi^2(df) = 47.6(9)^{***}$				
지역					
대도시	38.2	35.6	23.0	3.1	100.0(191)
중소도시	37.8	21.4	38.8	2.0	100.0(98)
읍면지역	50.0	11.	38.5	-	100.0(26)
	$\chi^2(df) = 15.7(6)^*$				

주: *p < .05, **p < .01, ***p < .001

교사의 특수교육 혹은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등 장애 영유아 통합 관련 연수를 받은 경험 유무에 대한 응답은 <표 IV-1-6>과 같다. 전체적으로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3.4%로 연수 경험이 없다는 응답 26.6%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다. 교사의 통합 관련 연수 경험은 기관유형($\chi^2(1)=14.5, p<.001$), 기관·설립유형($\chi^2(3)=29.6, p<.001$), 지역($\chi^2(2) =25.3,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보육시설의 교사(78.7%)가 유치원교사(68.1%)보다 연수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교사들이 관련 연수 경험이 83.4%로 가장 많았으며, 사립유치원교사가 62.8%로 가장 적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규모가 커짐에 따라 교사들의 통합관련 연수 경험도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IV-1-6〉 장애 영유아 통합 관련 연수 경험 유무

단위: %(응답수)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73.4(730)	26.6(265)	100.0(995)
기관유형			
유치원	68.1	31.9	100.0(501)
보육시설	78.7	21.3	100.0(494)
$\chi^2(df) = 14.5(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74.6	25.4	100.0(224)
사립유치원	62.8	37.2	100.0(274)
국공립보육시설	83.4	16.6	100.0(265)
민간보육시설	73.6	26.4	100.0(227)
$\chi^2(df) = 29.6(3)***$			
지역			
대도시	78.7	21.3	100.0(497)
중소도시	72.1	27.9	100.0(362)
읍면지역	57.4	42.6	100.0(136)
$\chi^2(df) = 25.3(2)***$			

주: *** p < .001

나) 사례 조사

(1) 유치원 사례

S 유치원에는 원감 1명과 교사 4명, 보육강사 3명, 보조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교사는 유치원 1급 정교사 1명과 2급 정교사 2명, 특수교사 1명이고, 보육강사는 Edu-care 반의 보육교사 2명, 특수 Edu-care 반의 유치원 2급 정교사 1명이다. 특

수학급에는 특수교사 1명과 특수 Edu-care 반의 유치원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통합학급의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는 매일 비공식적으로 일일교육계획안을 짜면서 의논한다. 서로 도와주었으면 하는 부분과 중그룹 지도 담당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일반교사는 특수교사와 협의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논을 하고 실행한다.

특수교사는 장애아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하고 기다려준다. 일반교사는 장애에 대해 부정적이지는 않으나 어려울 때가 있다고 한다. 일반교사는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하나 현 유치원과 같은 좋은 시스템이 없이 받은 장애 유아가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유아들이 피해를 받고 장애 유아가 방해가 될 수밖에 없어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 일반교사의 장애아에 대한 인식에는 인력배치가 큰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연구자가 관찰하였을 때 일반교사는 통합학급에서 장애 유아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특수교사는 대학에서 하는 장애 관련 워크숍에 참석하며 특히 교육방법에 관련된 연수는 찾아서 교육을 받고 유치원에서는 1년에 9만원 범위 내에서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교사 2명은 현재 직무연수로 장애이해에 관련된 사이버 연수를 받고 있다.

(2) 보육시설 사례

A 어린이집에는 특수교사자격증을 지닌 원장 1명, 유치원교사 자격을 지닌 교사 10명, 특수교사 자격을 지닌 교사 4명, 보육교사 자격을 지닌 교사 14명, 치료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학급에 일반교사(통합교사)와 통합지원교사가 배치되며 통합지원교사는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도 있고 유아교사나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도 있다. 작업치료사와 언어치료사가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개별과 소집단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주 1회 통합교실에 들어와 통합 환경에서 장애 영유아를 교육하고 도움을 제공한다.

장애 영유아 교육을 위해 매월 1회 통합지원교사와 치료사의 협의회를 통해 부모 상담이나 통합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협의하고, 학급 내에서는 매주 1회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와 치료사가 함께 협의회를 한다. 역할분담은 학기 초에 교사별로 아주 세세하게 역할분담표를 만들어 실행한다. 일반교사와 통합지원교사가 수시로 교수학습에 대해 논의하고 비공식적으로 오후 5시 이후에 일지를 쓰면서 다음날에 대한 계획과 역할분담을 한다.

교사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긍정적인 편이다. A 어린이집은 처음부터

통합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로 채용 공고를 내기 때문에 자원봉사 경력이 많고 어느 정도는 장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교사들이 지원한다. 시설에 임용이 되어서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들은 장애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교사가 장애 영유아 교육을 위해 인터넷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장애아를 위한 교구를 만드는 등 부모 이상으로 노력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교사도 장애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

A 어린이집의 모든 교사들은 1월 말에서 2월 사이에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주 1회씩 5~6회에 걸쳐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교육을 받으면서 장애아의 특성이나 교육과정 수정방법에 대해 알게 된다. 또한 매월 주제별 세미나를 열고, 매월 1회 수정전략에 대한 발표를 한다. 이 때 인근의 교사들까지 함께 교육하기도 한다. 신입교사의 경우 여름과 겨울에 장애아통합실천연구회에서 주최하는 연수를 받는다. 이 외에도 각종 외부연수나 특별직무연수,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사이버 강의에 14명이 등록해 교육을 받고 있다. 언어치료사는 장애인 복지관이나 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올해부터 치료교사도 일반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보수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2007년의 보수교육은 주제가 장애아 보육이라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2) 보조인력

가) 설문조사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조인력의 유무는 <표 IV-1-7>과 같다. 전체적으로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가 70.7%로 있는 경우 29.3%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조인력 유무는 기관·설립유형($\chi^2(3)=106.4,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유치원이 보조인력이 있는 경우가 63.7%로 가장 높았으며, 사립유치원이 보조인력이 있는 경우가 15.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1-7〉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조인력 유무

단위: %(기관수)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29.3(196)	70.7(474)	100.0(670)
기관유형			
유치원	30.9	69.1	100.0(418)
보육시설	26.6	73.4	100.0(252)
$\chi^2(df) = 1.4(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63.7	36.3	100.0(135)
사립유치원	15.2	84.8	100.0(283)
국공립보육시설	23.6	76.4	100.0(127)
민간보육시설	29.6	70.4	100.0(125)
$\chi^2(df) = 106.4(3)^{***}$			
지역			
대도시	31.9	68.1	100.0(320)
중소도시	28.3	71.7	100.0(251)
읍면지역	23.2	76.8	100.0(99)
$\chi^2(df) = 2.9(2)$			

주: *** p < .001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조인력의 유형별 유무는 <표 IV-1-8>과 같다. 보조인력의 유형별 유무는 전체적으로 유급 인력은 교육청 지원 인력이 있는 경우가 8.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기관고용 인력이 7.1%, 시군구청 지원 인력과 자원봉사자가 각각 2.5% 순이었다. 무급인력은 자원봉사자가 4.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기관고용과 교육청 지원 각각 1.6%, 시군구청 지원 1.4% 순이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 유치원에는 유급과 무급 교육청 지원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보육시설에는 무급의 시군구청 지원 인력과 자원봉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국공립유치원에는 유급의 교육청 지원 인력, 시군구청 지원 인력, 자원봉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국공립보육시설에는 무급의 시군구청 지원 인력과 자원봉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에 무급의 교육청 지원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V-1-8>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조인력의 유형별 배치 비율

단위: %(기관수)

구분	친인척	학부모 고용	기관 고용	교육청 지원	시군구청 지원	자원 봉사자	합계	
전체	유급 (2)	0.3 (12)	7.1 (49)	8.8 (61)	2.5 (17)	2.5 (17)	100.0 (691)	
	무급 (3)	0.4 (2)	1.6 (11)	1.6 (11)	1.4 (10)	4.1 (28)		
기관유형								
유치원	유급	0.2	2.4	7.6	14.4	2.4	2.1	100.0
	무급	0.2	0.2	0.9	2.4	0.5	0.5	(423)
보육시설	유급	0.4	0.7	6.3	-	2.6	3.0	100.0
	무급	0.7	0.4	2.6	0.4	3.0	9.7	(268)
기관·설립유형								
국공립	유급	-	1.5	7.4	41.2	7.4	5.9	100.0
	유치원 무급	-	-	0.7	2.2	0.7	0.7	(136)
사립	유급	0.3	2.8	7.7	1.7	-	0.3	100.0
	유치원 무급	0.3	0.3	1.0	2.4	0.3	0.3	(287)
국공립	유급	-	0.8	3.8	-	0.8	3.8	100.0
	보육시설 무급	0.8	-	1.5	0.8	4.5	12.0	(133)
민간	유급	0.7	0.7	8.9	-	4.4	2.2	100.0
	보육시설 무급	0.7	0.7	3.7	-	1.5	7.4	(135)
지역								
대도시	유급	0.3	2.4	8.0	11.3	2.4	2.8	100.1
	무급	-	0.6	1.8	0.9	1.2	5.8	(327)
중소도시	유급	0.4	1.2	7.3	5.8	1.5	2.3	100.0
	무급	0.8	-	1.9	3.1	1.2	3.1	(260)
읍면지역	유급	-	1.0	3.8	8.7	4.8	1.9	100.0
	무급	1.0	-	-	-	2.9	1.0	(104)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조인력 활용방법은 <표 IV-1-9>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조인력이 활동참여를 보조하는 경우가 6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문제 행동 대처가 10.4%, 수업준비 보조가 8.1% 순이었다. 기타 응답에는 보조기 착용, 신변처리 보조, 현장학습 보조 등이 있었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조인력 활용방법은 기관유형($\chi^2(4)=20.3, p<.001$)과 지역($\chi^2(8)=7.7,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 유치원에서는 보조인력이 활동참여를 보조하거나 수업준비를 보조하는 경우가 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보육시설에서는 보조인력

이 문제행동에 대해 대처를 하거나 개별교수를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에서 보조인력을 활동참여 보조로 활용하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중소도시에서는 개별교수, 읍면지역에서는 문제행동 대처나 수업준비 보조로 활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V-1-9〉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조인력 활용방법

단위: %(학급수)

구분	활동참여 보조	문제행동 대처	수업준비 보조	개별교수	기타	계
전체	68.3(237)	10.4(36)	8.1(28)	6.6(23)	6.6(23)	100.0(347)
기관유형						
유치원	73.6	9.0	9.4	2.4	5.7	100.0(212)
보육시설	60.0	12.6	5.9	13.3	8.1	100.0(135)
$\chi^2(df = 20.3(4)^{***}$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81.4	4.8	8.3	2.1	3.4	100.0(145)
사립유치원	57.6	16.7	12.1	3.0	10.6	100.0(66)
국공립보육시설	62.7	6.8	8.5	15.3	6.8	100.0(59)
민간보육시설	58.7	17.3	4.0	12.0	8.0	100.0(75)
$\chi^2(df = na$						
지역						
대도시	72.9	8.3	7.3	6.3	5.2	100.0(192)
중소도시	65.2	10.7	8.0	7.1	8.9	100.0(112)
읍면지역	55.8	18.6	11.6	7.0	7.0	100.0(43)
$\chi^2(df = 7.7(8)^*$						

주: *p<.05, ***p<.001

통합학급에서 보조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표 IV-1-10>과 같다. 전체적으로 활동지도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경우가 3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문제행동 발생시 28.8%, 행사참여시 26.5% 순이었다. 기타 응답에는 다른 유아와 동등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동보조에 필요하다는 응답, 중증이어서 항상 필요하다는 응답 등이 있었다. 한편 장애의 특성상 별로 필요치 않다는 의견도 소수 있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5)=74.3$, $p<.001$)과 기관·설립유형($\chi^2(15)=100.1$,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유치원이 활동지도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8.0%로 보육시설 22.7%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행사참여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보육시설이 38.1%로 유치원 15.3%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서 국공립유치원은 활동지도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립유치원은 문제행동 발생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은 행사참여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41.9%,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1-10〉 장애 영유아 통합학급에서 보조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단위: %(응답수)

구분	활동 지도시	문제행동 발생시	행사 참여시	기본생활 지도시	수업 준비시	기타	계
전체	30.5(298)	28.8(282)	26.5(259)	7.6(74)	5.5(54)	1.1(11)	100.0(978)
기관유형							
유치원	38.0	32.5	15.3	7.6	5.0	1.6	100.0(498)
보육시설	22.7	25.0	38.1	7.5	6.0	0.6	100.0(480)
	$\chi^2(df = 74.3(5)^{***})$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43.8	31.3	8.9	9.8	5.8	0.4	100.0(224)
사립유치원	33.2	33.6	20.3	5.9	4.4	2.6	100.0(271)
국공립보육시설	22.1	22.1	41.9	7.8	5.0	1.2	100.0(258)
민간보육시설	23.6	28.6	33.6	6.8	7.3		100.0(220)
	$\chi^2(df = 100.1(15)^{***})$						
지역							
대도시	31.1	27.0	28.4	7.8	4.5	1.2	100.0(486)
중소도시	28.2	29.1	27.1	7.3	7.3	1.1	100.0(358)
읍면지역	34.3	35.1	17.9	7.5	4.5	0.7	100.0(134)
	$\chi^2(df = 11.6(10))$						

주: ***p < .001

나) 사례 조사

(1) 유치원 사례

장애 유아를 위한 보조인력에는 특수교육보조원 1명과 특수 Edu-care반 보조원 1명이 있다. 특수교사는 보조원에게 수시로 필요한 부탁을 하며, 보조원은 장애 유아를 전담하는 일에 집중한다. 보조원들은 장애아의 이동시에 도움을 주고, 자유선택 활동시 교육활동을 보조하며, 대집단 활동시 장애아가 집중하도록 도움을 준다. 보조원은 연 1회 보수교육을 받는다.

보조원의 장애에 대한 인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장애 유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보거나 필요 없는 지나

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 어떤 보조원은 연구자에게 한 장애 유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공격적이라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원감은 보조원이 힘들어하고 벽차게 생각하며 체력적으로 지친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아 개개인에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자기편의 위주로 도와주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교사와 부모들은 보조원도 일정한 교육을 받고 지속적인 재교육을 받기를 원한다.

(2) 보육시설 사례

A 어린이집은 장애 영유아가 많은 편이어서 2007년 8월부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아 보육도우미 2명을 지원받고 있다. 이 중 1명은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아가 2명인 학급에 주 3회 배치를 하고, 나머지 1명은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2006년의 경우에는 7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평균적으로 주 1회 만나절을 3개월 정도 봉사하였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실습생 73명이 실습을 하면서 도움을 주었다. 통합학급에 보조인력이 들어올 경우 주로 장애 영유아를 담당하며, 특히 중도 지체장애의 경우는 종일 옆에 붙어서 도와주고 있다.

시설장에 의하면 보조인력의 장애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편이라고 한다. 도우미의 경우는 장애아 이해를 위한 1일 교육을 보육정보센터에서 받고, 자원봉사자나 실습생의 경우에는 A 어린이집이 통합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원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 장애아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다. 특별활동 교사도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유아를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시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사는 실습생의 경우 장애아 통합보다는 보육 관련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잘 모른다고 하였다. 그래서 통합지원교사는 게시판에 '장애아동을 이렇게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으로 표를 만들어 게시하여 일관성 있는 지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가) 설문조사

통합학급의 교사 대 영유아의 현 비율과 이상적인 비율에 대한 교사의 응답은 <표 IV-1-11>과 같다. 전체적으로 현재의 특수교사 대 장애아의 비율은 1 대 2.8명, 일반교사 대 일반아의 비율은 1 대 18.1명, 전체교사 대 전체아동의 비율은 1 대 14.0명이었다. 교사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특수교사 대 장애아의 비율은 1 대 2.2명, 일반교사 대 일반아의 비율은 1 대 15.2명, 전체교사 대 전체아동의 비율

은 1 대 9.1명이었다. 현 비율과 이상적인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현 비율보다 이상적인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즉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기관유형, 기관·설립유형, 지역, 담당학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 현재 일반교사 대 일반아와 교사 대 전체아동의 비율은 유치원이 각각 1 대 21.2명, 1 대 18.1명으로 보육시설 각각 1 대 14.7명, 1 대 9.7명보다 높았으며,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중 일반교사 대 일반아와 교사 대 전체아동의 비율도 유치원이 각각 1 대 16.6명, 1 대 10.2명으로 보육시설 각각 1 대 13.7명, 1 대 8.0명보다 높았다. 한편 이상적인 비율 중 특수교사 대 장애아의 비율은 보육시설이 1 대 2.3명으로 유치원 1 대 2.1명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현재 특수교사 대 장애아 비율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각각 1 대 21.7명, 1 대 20.9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국공립보육시설이 1 대 15.9명이었으며, 민간보육시설이 1 대 13.0명으로 가장 낮았다. 현재 교사 대 전체아동 비율은 사립유치원이 1 대 20.9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국공립유치원이 1 대 14.5명이었으며,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이 각각 1 대 10.0명, 1 대 9.4명으로 가장 낮았다. 이상적인 비율 중 일반교사 대 일반아의 비율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각각 1 대 16.2명, 1 대 17.0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국공립보육시설이 1 대 14.4명이었으며, 민간보육시설이 1 대 12.7명으로 가장 낮았다. 이상적인 비율 중 교사 대 전체아동의 비율은 사립유치원이 1 대 10.8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국공립유치원이 1 대 9.5명이었으며,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이 각각 1 대 8.1명, 1 대 7.8명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에 따라서 현재의 일반교사 대 일반아 비율은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각각 1 대 19.0명, 1 대 17.9명으로 읍면지역 1 대 14.8명보다 높았다. 이상적 비율에서 일반교사 대 일반아의 비율은 대도시가 1 대 15.9명으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각각 1 대 14.8명, 1 대 13.9명보다 많았다.

담당학급에 따라서 현재의 일반교사 대 일반아 비율은 유아반과 영유아 혼합반이 각각 1 대 18.7, 1 대 18.4명으로 영아반 1 대 7.1명보다 높았다. 교사 대 전체 아동의 비율은 유아반이 1 대 14.6명으로 가장 높았고, 영아반이 1 대 6.4명으로 가장 낮았다. 이상적 비율에서 일반교사 대 일반아의 비율은 유아반과 영유아 혼합반이 각각 1 대 15.8, 1 대 14.7명으로 영아반 1 대 7.3명보다 높았다. 교사 대 전체 아동의 비율은 유아반이 1 대 9.5명으로 가장 높았고, 영아반이 1 대 4.8명으로 가장 낮았다.

〈표 IV-1-11〉 교사 대 영유아의 현 비율과 이상적인 비율

단위: 명

구분	현재비율			이상적 비율		
	특수 교사 :장애아 (SD)	일반교사 :일반아 (SD)	교사 :전체 아동 (SD)	특수 교사 :장애아 (SD)	일반교사 :일반아 (SD)	교사 :전체 아동 (SD)
전체	2.8 (1.3)	18.1 (7.3)	14.0 (7.2)	2.2 (1.4)	15.2 (5.1)	9.1 (3.6)
기관유형						
유치원	3.0 (1.9)	21.2 (7.5)	18.1 (7.4)	2.1 (1.2)	16.6 (5.1)	10.2 (3.9)
보육시설	2.7 (0.9)	14.7 (5.4)	9.7 (3.6)	2.3 (1.5)	13.7 (4.5)	8.0 (2.8)
t	-0.7	-14.5***	-21.5***	2.4*	-8.2***	-9.0***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3.0 (1.5)	21.7 ^a (8.6)	14.5 ^a (5.8)	2.1 (1.2)	16.2 ^a (5.2)	9.5 ^a (3.3)
사립유치원	3.0 (4.1)	20.9 ^a (6.6)	20.9 ^b (7.3)	2.0 (1.3)	17.0 ^a (5.0)	10.8 ^b (4.3)
국공립보육시설	2.8 (0.7)	15.9 ^b (4.7)	10.0 ^c (2.9)	2.2 (1.5)	14.4 ^b (3.9)	8.1 ^c (2.4)
민간보육시설	3.0 (1.2)	13.0 ^c (5.8)	9.4 ^c (4.3)	2.5 (1.4)	12.7 ^c (5.3)	7.8 ^c (3.2)
F	.6	79.4***	234.6***	2.9*	27.2***	22.0***
지역						
대도시	2.9 (1.1)	19.0 ^a (7.4)	14.1 (6.8)	2.3 (1.5)	15.9 ^a (5.0)	9.4 (3.2)
중소도시	2.9 (1.5)	17.9 ^a (6.7)	14.3 (7.5)	2.1 (1.0)	14.8 ^b (4.9)	8.8 (3.4)
읍면지역	2.6 (1.5)	14.8 ^b (8.1)	12.5 (7.3)	2.1 (1.4)	13.9 ^b (5.5)	9.0 (5.2)
F	1.1	14.2***	2.7	1.2	7.6***	2.9
담당학급						
영아반(0, 1, 2세)	2.8 (.9)	7.1 ^a (4.4)	6.4 ^a (3.3)	2.0 (0.6)	7.3 ^a (4.9)	4.8 ^a (2.7)
유아반(3, 4, 5세)	2.9 (1.3)	18.7 ^b (6.9)	14.6 ^b (7.1)	2.2 (1.4)	15.8 ^b (4.6)	9.5 ^b (3.5)
영유아 혼합반	2.6 (1.4)	18.4 ^b (7.3)	12.4 ^c (6.6)	2.1 (0.9)	14.7 ^b (5.2)	8.4 ^c (2.7)
F	1.5	59.4***	32.4***	.8	53.0**	34.1***

주: *p < .05, **p < .01, ***p < .001

a, b, c 다른 문자끼리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나) 사례 조사

(1) 유치원 사례

특수학급에는 담임교사 1명과 특수보조원 1명 외에 특수 Edu-care 교사와 특수 Edu-care 보조원이 각각 1명씩 있어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은 1 대 1이다. 그러나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는 교사가 시차제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3 대 4나 2 대 4가 되기도 한다.

통합학급에는 만 4세반의 경우 일반교사 1명과 특수 Edu-care 보조원 1명이 30명의 일반아와 1명의 장애아를 교육하고 있어 교사 대 유아 비율은 2 대 31이다. 만 5세반의 경우 일반교사 1명, 특수교사 1명, 특수교육보조원 1명이 30명의 일반아와 3명의 장애아를 교육하고 있어 교사 대 유아 비율은 3 대 33이다.

(2) 보육시설 사례

A 어린이집의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은 반마다 다른데, 만 0, 1세반에는 장애영아가 없고, 만 2세반은 일반아동 15명과 장애아동 3명에 일반교사 2명과 통합지원교사 1명이 배치되어 있어 전체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은 3 대 18이다. 만 3세반은 일반아동 15명과 장애아동 4명에 일반교사 1명과 통합지원교사 1명이 배치되어 있어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은 2 대 19이다. 만 4세반과 만 5세반은 일반아동 21명과 장애아동 6명에 일반교사 1명과 통합지원교사 2명이 배치되어 있는 반과 일반아동 21명과 장애아동 3명에 일반교사 1명과 통합지원교사 1명이 배치되어 있는 반이 있어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은 각각 3 대 27과 2 대 24이다. 만 6세 이상의 반은 일반아동 21명과 장애아동 4명에 일반교사 1명과 통합지원교사 1명이 배치되어 있어 교사 대 아동 비율은 2 대 25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 4세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교사와 통합지원교사 모두 일반아동과 장애아의 수를 줄여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비율은 만 4세의 경우 교사 2명에 일반 유아 15명, 장애 유아 2명이었다.

4) 또래

설문분석에서는 또래에 대한 문항이 없었으나, 사례조사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고, 또래도 인적 환경의 하나로서 장애 영유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 사례조사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S 유치원 장애아의 또래와의 상호작용 정도는 장애의 특성이나 정도에 따라 다르

다. 그러나 대부분 장애아가 상호작용을 자발적으로 시도하는 경우는 드물다. 교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장애아와 일반아의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바깥놀이에서 ‘동대문 놀이’를 하면서 먼저 교사가 장애아와 문을 만들어 놀이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진행되면 장애아와 일반아가 함께 문을 만들어 놀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장애아에 대한 일반아의 인식 또한 유아들마다 혹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장애아를 도와주는 유아가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유아도 있다. 장애아를 놀리는 유아가 있는가 하면 장애아와 좋은 놀이 경험을 가질 경우 장애아에 대해 친숙하다. 장애아의 특성도 장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장애아나 침을 흘리는 등 청결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장애아의 경우 유아들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연구자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만 4세 언어장애아의 경우 또래에게 먼저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재미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또래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언어장애아는 자신이 선호하는 여아와 짝꿍을 하자고 허리를 안는데, 여아는 계속 도망을 갔다. 그러자 다른 여아를 찾아 먼저 손을 잡았다. 또한 바깥놀이에서 일반아들이 하는 놀이에 참여하려고 시도했으나 일반 유아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만 5세 발달장애아의 경우에는 아이들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보나 그 이상의 시도는 보이지 않았다. 교사가 개입하자 다른 유아들과 놀잇감을 공유하는 듯 하다가 곧 다른 곳에 관심을 보인다. 교사가 개입을 하니 일반 유아들도 잠시 관심을 보이거나 교사가 자리를 뜨자 그 이상의 상호작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A 어린이집 만 4세 두 반을 관찰한 결과 일반 유아는 장애 유아를 동등한 또래로 인정하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장애의 종류나 정도, 특성에 따라 장애 유아와 또래간의 상호작용 정도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연구자가 관찰을 했을 때도 다운증후군 유어나 정인지체 유아는 소극적이거나 대부분 혼자 노는 경향이 있었고, 중도 지체장애아의 경우에는 교사가 계속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교사가 유도하지 않는 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거의 없었으며, 시각장애아와 청각장애아의 경우에는 먼저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때때로 실패하기도 하나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일반 유아는 공격성이 있는 장애 유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반면, 공격성이 없고 온순한 장애 유아는 예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로 인식하고 있다

고 한다. 연구자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일반 유아들은 장애 유아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며, 남아보다는 여아가 장애 유아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시도하거나 보살피는 경향이 있었다.

일반 유아는 순간순간 장애 유아를 도와주었다. 시각장애아의 경우 손을 잡아 길을 인도하고, 정신지체의 경우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거나 자기 자리에 앉아있도록 양쪽의 또래들이 잡아주었다. 또한 점심시간에 기도한 후 먹으라고 참견하기도 했고, 대집단 활동 시간에 앞으로 너무 나가지 않도록 잡아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일반 유아들이 교사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행동을 하면서 도와주는 모습은 많이 보이나, 놀이에서 일반 유아들끼리 보이는 상호작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활동적인 놀이를 할 때에는 장애 유아가 도움을 받기 보다 또래와의 동등한 상호작용이 더 일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나. 물리적 환경

1)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배려

가) 설문조사

기관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의 배려가 되어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관장의 응답은 <표 IV-1-12>와 같다. 전체적으로 배려가 없다는 응답이 59.4%로 배려가 있다는 응답 40.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1)=48.0$, $p<.001$), 기관·설립유형($\chi^2(3)=24.0$, $p<.001$), 지역($\chi^2(2)=24.0$,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에 따라서는 보육시설이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응답이 56.9%로 유치원 30.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응답이 67.4%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17.8%로 가장 낮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가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응답이 49.1%로 가장 높았고, 읍면지역이 24.0%로 가장 낮았다.

〈표 IV-1-12〉 장애 영유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 배려 여부: 기관장

단위: %(기관수)

구분	배려함	배려하지 않음	계
전체	40.6(280)	59.4(409)	100.0(689)
기관유형			
유치원	30.3	69.7	100.0(422)
보육시설	56.9	43.1	100.0(267)
$\chi^2(df) = 48.0(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56.6	43.4	100.0(136)
사립유치원	17.8	82.2	100.0(286)
국공립보육시설	67.4	32.6	100.0(132)
민간보육시설	46.7	53.3	100.0(135)
$\chi^2(df) = 117.4(3)^{***}$			
지역			
대도시	49.1	50.9	100.0(326)
중소도시	36.7	63.3	100.0(259)
읍면지역	24.0	76.0	100.0(104)
$\chi^2(df) = 23.2(2)^{***}$			

주: *** p < .001

장애 영유아를 위해 물리적 환경을 배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사의 응답은 <표 IV-1-13>과 같다. 전체적으로 배려한다는 응답이 58.0%로 배려를 못한다는 응답 42.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1)=53.2$, $p<.001$), 기관·설립유형($\chi^2(3)=85.8$,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에 따라서는 보육시설이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응답이 69.5%로 유치원 46.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응답이 73.7%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36.2%로 가장 낮았다.

〈표 IV-1-13〉 장애 영유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 배려 여부: 교사

단위: %(응답수)

구분	배려함	배려하지 않음	계
전체	58.0(580)	42.0(420)	100.0(1000)
기관유형			
유치원	46.7	53.3	100.0(505)
보육시설	69.5	30.5	100.0(495)
$\chi^2(df) = 53.2(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59.7	40.3	100.0(226)
사립유치원	36.2	63.8	100.0(276)
국공립보육시설	73.7	26.3	100.0(266)
민간보육시설	65.2	34.8	100.0(227)
$\chi^2(df) = 85.8(3)^{***}$			
지역			
대도시	59.4	40.6	100.0(500)
중소도시	59.0	41.0	100.0(366)
읍면지역	50.0	50.0	100.0(134)
$\chi^2(df) = 4.1(2)$			

주: *** p < .001

기관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의 배려가 있을 경우 유형별 물리적 환경 배려 여부에 대한 기관장의 응답은 <표 IV-1-14>와 같다. 전체적으로 편의시설이 있는 경우가 7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장애아용 교재교구 61.8%, 특수 의자와 책상 11.4%, 보조공학기기 7.9% 순이었다. 유형별 물리적 환경 배려 유무는 기관유형과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유치원이 보육시설에 비해 보조공학기기가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유치원이 편의시설, 특수 의자와 책상, 보조공학기기, 장애아용 교재교구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사립유치원은 편의시설과 특수 의자 및 책상이 있는 경우가 가장 적었으며, 국공립보육시설은 보조공학기기가 민간보육시설은 장애아용 교재교구가 있는 경우가 가장 적었다.

〈표 IV-1-14〉 장애 영유아를 위한 유형별 물리적 환경 배려 비율: 기관장

단위: %(기관수)

구분	편의시설	장애아용 교재교구	특수의자 /책상	보조 공학기기	기타	계
전체	75.7 (212)	61.8 (173)	11.4 (32)	7.9 (22)	6.4 (18)	100.0(280)
기관유형						
유치원	74.2	68.0	11.7	11.7	4.7	100.0(128)
보육시설	77.0	56.6	11.2	4.6	7.9	100.0(152)
$\chi^2(df)$.3(1)	3.8(1)	.0(1)	4.9(1)*	1.2(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84.4	79.2	19.5	15.6	5.2	100.0(77)
사립유치원	58.8	51.0	-	5.9	3.9	100.0(51)
국공립보육시설	83.1	60.7	9.0	4.5	6.7	100.0(89)
민간보육시설	68.3	50.8	14.3	4.8	9.5	100.0(63)
$\chi^2(df)$	15.7(3)**	15.7(3)**	12.5**	8.8(3)*	1.7(3)	
지역						
대도시	75.5	66.0	10.1	8.8	6.3	100.0(159)
중소도시	77.9	56.8	13.7	6.3	8.4	100.0(95)
읍면지역	69.2	53.8	11.5	7.7	-	100.0(26)
$\chi^2(df)$.8(2)	2.9(2)	.8(2)	.5(2)	2.4(2)	

주: *p<.05, **p<.01

장애 유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 배려 내용에 대한 교사의 응답은 <표 IV-1-15>와 같다. 전체적으로 장애 유아를 위하여 교재교구를 수정한다는 응답이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이동 공간 마련 36.3%, 보조공학기기 구비 및 제작 8.5% 순이었다. 기타 응답에는 활동선정 시 참여가능여부를 먼저 고려, 이동비탈과 손잡이 설치, 장애 영유아들만의 활동 공간 마련, 엄마의 심정으로 상호작용, 따로 구입해서 교육, 교사의 도움이 빨리 미칠 수 있는 자리배치,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자극 제거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설립유형($\chi^2(12)=24.0$,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교재교구를 수정함으로써 장애 유아를 배려한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56.9%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36.3%로 가장 낮았다. 이동 공간 마련은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이 각각 41.2%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30.9%로 가장 낮았다.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배려를 한다는 비율 또한 국공립유치원이 12.8%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2.9%로 가장 낮았다. 기타는 사립유치원이 19.6%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3.5%로 가장 낮았다. 한편 기관유형과 지역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15〉 장애 영유아를 위한 내용별 물리적 환경 배려 비율: 교사
단위: %(응답수)

구분	교재교구 수정	이동 공간 마련	보조공학기기	기타	계
전체	48.7(343)	36.3(256)	8.5(60)	6.5(46)	100.0(705)
기관유형					
유치원	43.3	38.1	9.1	9.5	100.0(275)
보육시설	52.1	35.1	8.1	4.7	100.0(430)
$\chi^2(df) = 7.2(4)$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47.7	36.0	12.8	3.5	100.0(172)
사립유치원	36.3	41.2	2.9	19.6	100.0(102)
국공립보육시설	56.9	30.9	7.9	4.3	100.0(253)
민간보육시설	45.2	41.2	8.5	5.1	100.0(177)
$\chi^2(df) = 24.0(12)^*$					
지역					
대도시	51.5	33.8	9.8	4.9	100.0(367)
중소도시	49.2	36.3	6.9	7.6	100.0(262)
읍면지역	32.9	48.7	7.9	10.5	100.0(76)
$\chi^2(df) = 4.0(8)$					

주: *p < .05

장애 영유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응답은 〈표 IV-1-16〉과 같다. 전체적으로 장애 특성상 불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인력부족 32.8%, 예산부족 13.8% 순이었다. 이는 기관·설립유형($\chi^2(6)=14.9$, $p<.05$)과 지역($\chi^2(4)=9.7$,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장애 특성상 불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을 배려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민간보육시설이 62.9%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은 38.6%로 가장 낮았다. 인력부족이라는 응답은 국공립유치원이 46.6%로 가장 높았고, 민간보육시설이 27.1%로 가장 낮았다. 예산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25.0%로 가장 높았고, 민간보육시설이 10.0%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장애 특성상 불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도시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인력부족이라는 응답은 도시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예산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은 중소도시가 1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읍면지역이 1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1-16〉 물리적 환경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유: 기관장

단위: %(개소)

구분	장애 특성상 불필요	인력 부족	예산 부족	계
전체	53.3(216)	32.8(133)	13.8(56)	100.0(405)
기관유형				
유치원	53.3	33.7	13.1	100.0(291)
보육시설	53.5	30.7	15.8	100.0(114)
$\chi^2(df) = 0.7(2)$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39.7	46.6	13.8	100.0(58)
사립유치원	56.7	30.5	12.9	100.0(233)
국공립보육시설	38.6	36.4	25.0	100.0(44)
민간보육시설	62.9	27.1	10.0	100.0(70)
$\chi^2(df) = 14.9(6)^*$				
지역				
대도시	58.8	27.3	13.9	100.0(165)
중소도시	53.4	31.7	14.9	100.0(161)
읍면지역	41.8	46.8	11.4	100.0(79)
$\chi^2(df) = 9.7(4)^*$				

주: *p < .05

반올림으로 인해 계의 비율이 100%가 좀 안 되거나 넘는 경우가 있음

장애 영유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교사의 응답은 〈표 IV-1-17〉과 같다. 전체적으로 장애 특성상 불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55.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정보 부족이 17.6%, 인력부족 12.8%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설립유형($\chi^2(12)=24.0,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장애 특성상 불필요하여 물리적 환경을 배려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60.7%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46.2%로 가장 낮았다. 정보부족이라는 응답은 민간보육시설이 23.1%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15.6%로 가장 낮았다. 인력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은 국공립유치원이 15.4%로 가장 높았고, 민간보육시설이 7.7%로 가장 낮았다. 예산부족이라는 응답은 국공립유치원이 13.2%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2.9%로 가장 낮았다. 한편 물리적 환경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관유형과 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17〉 물리적 환경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유: 교사

단위: %(응답수)

구분	장애 특성상 불필요	정보 부족	인력 부족	기타	예산 부족	계
전체	55.7(231)	17.6(73)	12.8(53)	8.2(34)	5.8(24)	100.0(415)
기관유형						
유치원	56.0	16.2	15.0	6.4	6.4	100.0(266)
보육시설	55.0	20.1	8.7	11.4	4.7	100.0(149)
$\chi^2(df) = 7.3(4)$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46.2	17.6	15.4	7.7	13.2	100.0(91)
사립유치원	60.7	15.6	15.0	5.8	2.9	100.0(173)
국공립보육시설	53.6	17.4	10.1	14.5	4.3	100.0(69)
민간보육시설	56.4	23.1	7.7	9.0	3.8	100.0(78)
$\chi^2(df) = 24.0(12)^*$						
지역						
대도시	54.8	17.6	14.6	8.5	4.5	100.0(199)
중소도시	58.4	18.1	10.7	6.7	6.0	100.0(149)
읍면지역	52.2	16.4	11.9	10.4	9.0	100.0(67)
$\chi^2(df) = 4.0(8)$						

주: * p < .05

나) 사례 조사

(1) 유치원 사례

S 유치원에는 지체장애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층만 사용하기 때문인지 장애아를 위한 편의시설은 화장실에 있는 손잡이 뿐이다. 그러나 화장실의 손잡이는 성인 변기에 설치되어 있어서 실제로 장애 유아가 사용하지는 않는다.

지체장애아를 위한 보조기구로 특수의자가 있으나 사용하지 않아 창고에 넣어놓았다. 지체장애아가 사용하는 위키는 교실 입구에 있었고, 이동시 종종 사용하나 교사의 손을 잡고 이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 지체장애아가 의자에 앉을 때 앉기 편하도록 발밑에 네모난 블록을 대 주었다.

특수학급이 있기 때문에 특수학급 운영비가 따로 지급되어 금액 범위 안에서 장애아에게 필요한 교재교구를 마련한다. 그러나 특수학급 교실 내에는 장애아만을 위한 특별한 교재교구보다는 모든 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재교구가 대부분이었다.

통합학급에서 대집단 활동의 자리배치는 만 4세반의 경우는 자유롭게 앉게 하였으나, 만 5세반의 경우에는 정해진 자리가 있었다. 지체장애아의 경우에는 의자에

앉도록 하고, 발달장애아의 경우에는 잘 도와주는 성향이 있는 여아를 주변에 앉혔으며, ADHD 유아의 경우에는 산만하고 소리를 많이 지르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잡아줄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배치하였다.

통합학급에서 장애 유아가 사용하는 활동지 등은 특수교사가 준비한다. 통합학급에 비치되어 있는 교재교구들은 장애 유아를 위한 특별한 배려는 없었으며, 실제로 자유선택활동시에 비치되어 있는 교재교구를 가지고 활동하기보다는 특수교사가 따로 준비한 재료로 활동을 하였다.

(2) 보육시설 사례

A 어린이집은 오래된 건물이어서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은 없다. 다만 계단과 번기에 장애아를 위한 손잡이가 있고, 시각장애 유아의 길안내를 위해 복도에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다. 장애아들이 손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수전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두 개로 된 핸들식 수전에서 원터치 수전으로 바꾸었고, 문손잡이는 원형에서 레버 손잡이로 교체하였다.

시각장애아가 있는 교실에서는 장애아를 위해 바닥에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처럼 백업으로 길을 만들어 놓았다. M 학급에서 대집단 활동시의 자리배치는 시각장애아와 다운증후군 아동의 경우는 지정된 자리가 없는 반면, 발달장애는 뒷자리에 앉았고, 한 정신지체 아동은 뒤쪽의 특수 의자에 앉았다. 교사는 착석이 가능한 경우는 또래와 앉도록 하고 교사가 도와주어야 할 경우는 뒤쪽에 앉게 하며, 주의집중이 어려운 경우는 의자에 앉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H 학급의 경우에는 청각장애아를 위해서는 교사의 입모양이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배치했고, 다운증후군 아동은 앞쪽에 언어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친구 옆에 앉혔으며, 중도 지체장애아는 특수 의자를 사용하고 교사의 옆에 앉히기 위해 뒤쪽에 자리를 배치하였다.

M 학급에서 볼 수 있었던 장애아를 위한 장비는 특수 의자가 있었고, 이들을 위한 교재교구는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구, 보조젓가락, 의사소통을 위한 그림카드, 특수가위 등이 있었다. 교사의 설명에 의하면 놀잇감에 수준 차이를 두어 장애아도 놀이할 수 있는 영아용 놀잇감을 배치하며, 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수정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 주전자 입구를 빠는 장애아가 있어 교실 내에 주전자 대신 플라스틱 물통을 배치하고 빠는 걸 좋아하는 장애아를 위해서는 빨아서 먹을 수 있는 물컵을 따로 준비해 두고 있었다.

H 학급에는 중도 지체장애아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보조기구를

볼 수 있었는데, 경사로 책상, 미끄럼 방지 매트, 유텐실 홀더, 목 받침대, 잡기 쉽도록 백업을 덧댄 포크와 칼, 넓은 쟁반, 독서대, 바퀴의자, 바퀴를 붙인 피더 시트, 굴림 가위, 작두가위, 집게 젓가락, 교사 사진 자료 등이 있었다.

다. 프로그램 운영

1) 입학 및 학급 구성

가) 설문조사

장애 영유아 입학 결정 방법에 대한 응답은 <표 IV-1-18>과 같다. 전체적으로 기관의 조건에 맞는 경우 장애 영유아를 입학시킨다는 응답이 29.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기타 22.1%, 운영자 결정 17.2%, 교육청에서 배치 11.5%, 교사회의 10.7% 순이었다. 기타 응답에는 학부모 상담, 대기 순서, 면접, 아동 관찰,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의 여부, 입소진단 및 사정회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 유형($\chi^2(6)=85.3$, $p<.001$), 기관·설립유형($\chi^2(18)=292.9$, $p<.001$), 지역($\chi^2(12)=21.5$,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유치원은 운영자 결정이나 교육청에서 배치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보육시설은 기관의 조건, 전문기관 의견, 교사회의, 일반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기관의 조건에 맞는 경우 장애 영유아를 입학시킨다고 응답한 비율과 교사회의에서 결정한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각각 39.0%, 19.5%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각각 15.3%, 5.6%로 가장 낮았다. 운영자가 결정한다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28.1%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4.0%로 가장 낮았다. 교육청에서 배치한다는 응답은 국공립유치원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전달체계가 다른 보육시설에서는 전혀 없었다. 일반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8.9%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1.9%로 가장 낮았다. 전문기관 의견에 따른다는 응답은 민간보육시설이 7.9%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1.6%로 가장 낮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기관의 조건에 따라 입학을 결정한다는 응답은 높아지고, 교사회의나 일반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응답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운영자가 결정한다는 응답과 전문기관의 의견을 따른다는 응답은 중소

도시가 각각 22.5%, 5.4%로 가장 높았고, 교육청에서 배치한다는 응답은 읍면지역이 13.8%로 가장 높았다.

〈표 IV-1-18〉 장애 영유아의 입학 결정 방법

단위: %(기관수)

구분	기관의 조건	기타	운영자 결정	교육청 배치	교사 회의	일반아와 동일	전문기관 의견	계
전체	29.2 (185)	22.1 (140)	17.2 (109)	11.5 (73)	10.7 (68)	4.7 (30)	4.6 (29)	100.0 (634)
기관유형								
유치원	23.4	23.2	20.3	19.0	8.9	2.6	2.6	100.0(384)
보육시설	38.0	20.4	12.4	-	13.6	8.0	7.6	100.0(250)
$\chi^2(df = 85.3(6)***$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15.3	19.4	4.0	50.0	5.6	4.0	1.6	100.0(124)
사립유치원	27.3	25.0	28.1	4.2	10.4	1.9	3.1	100.0(260)
국공립보육시설	39.0	21.1	4.1	-	19.5	8.9	7.3	100.0(123)
민간보육시설	37.0	19.7	20.5	-	7.9	7.1	7.9	100.0(127)
$\chi^2(df = 292.9(18)***$								
지역								
대도시	28.0	20.7	14.3	12.3	14.0	5.7	5.0	100.0(300)
중소도시	29.2	20.8	22.5	9.6	8.3	4.2	5.4	100.0(240)
읍면지역	33.0	29.8	12.8	13.8	6.4	3.2	1.1	100.0(94)
$\chi^2(df = 21.5(12)*$								

주: *p < .05, ***p < .001

장애 영유아 선발 기준에 대한 응답은 <표 IV-1-19>와 같다. 전체적으로 장애 유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응답이 6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문제행동 정도 42.5%, 보행가능성 29.4%, 자조기술 26.7% 순이었다. 이러한 선발기준은 기관유형과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보육시설이 유치원에 비해 보행가능성, 저소득층, 기타, 가족관계 및 분위기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는 장애 유형, 보행가능성, 자조기술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은 가장 낮았다. 문제행동 정도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민간보육시설이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가장 낮았다. 기준이 없다는 응답은 국공립유치원이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가장 낮았다. 저소득층인지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가장 낮았다. 기타

다른 것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가장 낮았다. 가족관계나 분위기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가장 낮았다.

〈표 IV-1-19〉 장애 영유아의 선발 기준(중복응답)

단위: %(응답수)

구분	장애 유형	문제 행동 정도	보행 가능성	자조 기술	없음	저소득층	기타	가족 관계/ 분위기	총 응답수
전체	63.0 (264)	42.5 (178)	29.4 (123)	26.7 (112)	10.0 (42)	9.3 (39)	5.7 (24)	4.8 (20)	100.0 (419)
기관유형									
유치원	60.6	45.8	22.5	24.6	11.4	4.2	3.0	2.5	100.0(236)
보육시설	66.1	38.3	38.3	29.5	8.2	15.8	9.3	7.6	100.0(183)
$\chi^2(df)$	2.7(1)	1.4(1)	14.0(1)***	1.8(1)	.9(1)	17.5(1)***	8.1(1)**	6.4(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56.5	30.4	10.1	13.0	26.1	7.2	8.7	1.4	100.0(69)
사립유치원	72.5	41.9	41.9	32.3	9.0	17.4	10.2	8.4	100.0(167)
국공립보육시설	67.8	32.2	40.0	28.9	3.3	21.1	11.1	7.8	100.0(90)
민간보육시설	64.5	44.1	36.6	30.1	12.9	10.8	7.5	7.5	100.0(93)
$\chi^2(df)$	4.0(3)	13.6(3)**	21.6(3)***	8.7(3)*	27.4(3)***	24.6(3)***	15.0(3)**	na	
지역									
대도시	67.4	41.0	30.1	28.0	8.8	10.4	5.7	6.2	100.0(193)
중소도시	59.8	41.4	29.0	27.2	10.7	9.5	6.5	3.0	100.0(169)
읍면지역	57.9	47.4	28.1	21.1	12.3	5.3	3.5	5.3	100.0(57)
$\chi^2(df)$	2.3(2)	.8(2)	.1(3)	1.0(2)	.8(2)	1.3(2)	.7(2)	2.1(2)	

주: *p < .05, **p < .01, ***p < .001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나) 사례 조사

(1) 유치원 사례

S 유치원의 경우 1월 말까지 학부모가 유치원에 원서를 내면 유치원에서는 교육청에 서류를 제출해서 입학 심사를 받는다. 교육청에서는 거리를 고려하고 유예 기준에 맞는지를 점검한 후 2월 중에 확정통보를 해 준다. 유치원에서는 유아의 연령에 따라 학급을 결정한다.

특수교사는 교육청에서 입학 심사를 하나 유치원에서 올린 자료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유치원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선착순으로 하는 편이라

고 했다. 교사는 거리가 멀면 제 시간에 등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아 입급 시 유치원과 가정의 거리를 고려했으면 하는 요구를 하였다.

교사 선정은 만 4세반은 한 반이기 때문에 장애아가 있을 경우 선택의 여지가 없으나, 만 5세반은 교사가 희망하거나 그 전해에 장애아를 맡지 않았던 교사가 담당하게 된다.

(2) 보육시설 사례

장애 영유아 입소는 입소 대상 연령 아동수의 3배수의 아동을 대기 순서대로 선정위원회가 면접하여 결정한다. 가능하면 재원 중인 아동과 같은 장애를 가진 아동을 배제하고 다른 장애를 가진 장애아를 선정한다. 학급편성은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하되 반의 구성원과 교실의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가능하면 교사의 힘이 더 같 것 같은 영유아와 좀 덜 같 것 같은 영유아를 짝지어 한 반에 배정한다.

통합지원교사 선정은 전공이나 교사의 의견을 살펴서 결정한다. 재원하는 장애아의 경우 담당했던 교사가 함께 상위 학급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12월에 상담을 해서 교사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경력이 많은 교사를 중심으로 하며, 이전 일반교사와 통합지원교사가 교대로 담당하는 방향으로 담당교사를 선정한다. 이견이 있으면 시설장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2) 프로그램 운영시간

가) 설문조사

프로그램 운영시간과 통합시간에 대한 기관장의 응답은 <표 IV-1-20>과 같다. 전체적으로 반일제나 시간연장제 운영시간은 5.3시간이고, 종일제 운영시간은 10.4시간이며, 장애 영유아의 기관 이용시간은 6.8시간이고, 장애 영유아의 통합시간은 6.4시간이다. 장애 영유아의 기관이용 대비 통합시간의 비율은 94.1%로 대부분의 시간을 통합으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 기관·설립유형,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많았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이 유치원에 비해 운영시간이 길었으며, 장애 영유아의 이용시간과 통합시간도 더 길게 나타났다. 장애 영유아의 기관이용 대비 통합시간의 비율은 유치원이 95.1%로 보육시설 93.7%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기관의 반일제와 시간연장제 운영시간과 장애 영유아 이용시간은 공사립 간 차이 없이 보육시설이 길었고, 유치원이 짧았다. 종일제 운영

시간은 국공립보육시설이 가장 길었고, 유치원이 가장 짧았다. 장애 영유아의 통합 시간은 국공립보육시설이 가장 길었고, 국공립유치원이 가장 짧았다. 장애 영유아의 기관이용 대비 통합시간의 비율은 사립유치원이 100.0%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82.0%로 가장 낮았다. 이는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대부분 일반학급에 장애 유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특수학급이 있어 어느 정도 분리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에 따라서 반일제와 시간연장제 운영시간은 읍면지역이 대도시에 비해 길었다. 종일제 운영시간은 지역규모가 커짐에 따라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장애 영유아의 이용시간과 통합시간은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V-1-20〉 프로그램 운영시간과 통합시간: 기관장

단위: 시간, %

구분	반일제, 시간연장제 운영시간 (SD)	종일제 운영시간 (SD)	장애 영유아 이용시간 (SD)	통합시간 (SD)	장애 영유아 이용시간 대비 통합시간 비율
전체	5.3(1.0)	10.4(1.8)	6.8(2.2)	6.4(2.4)	94.1
기관유형					
유치원	5.2(.9)	9.6(1.7)	6.1(1.9)	5.8(2.0)	95.1
보육시설	5.9(1.2)	11.2(1.6)	7.9(2.2)	7.4(2.5)	93.7
t	5.1***	10.1***	9.8***	7.3***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5.0(1.0) ^a	9.5(2.0) ^a	6.1(2.0) ^a	5.0(2.2) ^a	82.0
사립유치원	5.3(.8) ^a	9.6(1.5) ^a	6.1(1.8) ^a	6.1(1.8) ^b	100.0
국공립보육시설	6.1(1.4) ^b	11.6(1.4) ^b	8.0(1.8) ^b	7.7(1.8) ^{b''}	96.3
민간보육시설	5.8(1.1) ^b	10.8(1.6) ^c	7.8(2.1) ^b	6.9(2.5) ^{b'''}	88.5
F	11.9**	40.2***	31.9**	25.1***	
지역					
대도시	5.2(.9) ^a	10.8(2.0) ^a	6.8(2.3)	6.5(2.4)	95.6
중소도시	5.4(.9)	10.3(1.6) ^b	6.7(2.1)	6.3(2.2)	94.0
읍면지역	5.6(1.1) ^b	9.6(1.4) ^c	7.0(2.0)	6.5(2.4)	92.9
F	5.8*	12.2***	.6	.4	

주: ** p < .01, *** p < .001

a, b, c 다른 문자끼리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b'와 b''는 차이가 있으나, b'와 b''', b''와 b'''은 차이가 없음.

프로그램 운영시간과 통합시간에 대한 교사의 응답은 <표 IV-1-21>와 같다. 전체적으로 교사가 속한 반의 운영시간은 7.4시간이고, 장애 영유아의 기관 이용시간

은 6.0시간이며, 장애 영유아의 통합시간은 5.5시간이다. 장애 영유아의 기관이용 대비 통합시간의 비율은 91.7%로 대부분의 시간을 통합으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모든 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보육시설이 유치원에 비해 운영시간이 길었으며, 장애 영유아의 이용시간과 통합시간도 더 길게 나타났다. 장애 영유아의 기관이용 대비 통합시간의 비율은 보육시설이 93.9%로 유치원 88.7%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국공립보육시설이 가장 길었으며,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가장 짧았다. 장애 영유아 이용시간은 공사립 간 차이 없이 보육시설이 길었고, 유치원이 짧았다. 장애 영유아 통합시간은 민간보육시설이 가장 길었고, 국공립유치원이 가장 짧았다. 장애 영유아의 기관이용 대비 통합시간의 비율은 사립유치원이 96.3%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80.4%로 가장 낮았다.

〈표 IV-1-21〉 프로그램 운영시간과 통합시간: 교사

단위: 시간, %

구분	프로그램 운영시간 (SD)	장애 영유아 이용시간 (SD)	통합시간 (SD)	장애 영유아 이용시간 대비 통합시간 비율
전체	7.4(3.3)	6.0(2.2)	5.5(2.2)	91.7
기관유형				
유치원	5.6(2.9)	5.3(2.7)	4.7(1.8)	88.7
보육시설	9.2(2.6)	6.6(1.8)	6.2(2.0)	93.9
t	19.2***	7.7***	10.9**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5.5(1.9) ^a	5.1(3.5) ^a	4.1(2.0) ^a	80.4
사립유치원	5.5(1.4) ^a	5.4(1.4) ^a	5.2(1.3) ^b	96.3
국공립보육시설	9.8(2.4) ^b	6.6(1.8) ^b	6.1(1.8) ^c	92.4
민간보육시설	8.6(2.6) ^c	6.5(1.8) ^b	6.3(2.2) ^c	96.9
F	228.1***	19.8***	52.8***	
지역				
대도시	7.5(3.7)	6.0(2.7)	5.3(2.1)	88.3
중소도시	7.4(3.0)	5.8(1.9)	5.6(1.9)	96.6
읍면지역	6.8(2.1)	5.9(1.8)	5.3(2.1)	89.8
F	1.7	.5	1.3	

주: ** p < .01, *** p < .001

a, b, c 다른 문자끼리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나) 사례 조사

(1) 유치원 사례

S 유치원의 반일제 프로그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운영하며, 종일반 프로그램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나, 종일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아들은 대부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정도까지 10시간 정도 이용을 한다. 장애아는 대부분 9시 20분경에 와서 오후 2~3시에 귀가하며, 지체장애아만 5시에 귀가한다.

장애아가 통합교육을 받는 시간은 대개 9시나 9시 30분에서 시작하여 점심을 먹기 전인 11시 50분까지로 2시간 20분~2시간 50분 정도이다.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통합교육을 시작하는 시간이 다소 조절이 된다. 예컨대 일반학급의 이야기나누기 시간이 다소 길게 계획되어 있으면 장애아들은 특수학급에서 다른 활동을 하다가 통합을 시작한다.

(2) 보육시설 사례

A 어린이집의 전체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이다. 장애아의 경우에는 대개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에 귀가한다. 영아반의 경우는 지나친 자극은 좋지 않기 때문에 점심시간까지만 머무르도록 권유한다. A 어린이집은 특수학급이 따로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 시간이 모두 통합보육 시간이 된다.

만 4세 M 학급의 시각장애아, 중도 정신지체아, 발달장애아는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에 귀가하고, 중도 다운증후군과 지체장애아 1명은 오후 4시 15분에서 4시 30분 사이에 귀가하며, 경도 다운증후군 유아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시설에 머문다. H 학급의 경우에는 중도 지체장애아와 청각장애아는 오후 1시 30분에 귀가하고, 다운증후군 유아는 오후 6시 30분에서 7시 30분 사이에 귀가한다고 하였다.

3) 프로그램 내용

가) 설문조사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시행 여부에 대한 기관장의 응답은 <표 IV-1-22>와 같다. 전체적으로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74.8%로 시행하

지 않는다는 응답 2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설립유형($\chi^2(3)=14.8, p<.01$), 지역($\chi^2(2)=16.2,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는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83.9%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68.7%로 가장 낮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규모가 클수록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V-1-22〉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시행 여부: 기관장

단위: %(기관수)

구분	시행	시행 안 함	계
전체	74.8(494)	25.2(166)	100.0(660)
기관유형			
유치원	73.0	27.0	100.0(407)
보육시설	77.9	22.1	100.0(253)
$\chi^2(df = 2.0(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81.8	18.2	100.0(132)
사립유치원	68.7	31.3	100.0(275)
국공립보육시설	83.9	16.1	100.0(124)
민간보육시설	72.1	27.9	100.0(129)
$\chi^2(df = 14.8(3)**$			
지역			
대도시	81.3	18.7	100.0(315)
중소도시	71.5	28.5	100.0(246)
읍면지역	62.6	37.4	100.0(99)
$\chi^2(df = 16.2(2)**$			

주: ** p<.01, *** p<.001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시행 대상에 대한 기관장의 응답은 <표 IV-1-23>과 같다. 전체적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응답은 유아가 59.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교사 54.9%, 학부모 44.7%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이나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응답은 유치원이 54.8%로 보육시설 41.4%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유아대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70.4%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국공립보육시설이 59.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응답은 민간보육시설이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공립보육시설이 29.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1-23>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시행 대상(중복응답)

단위: %(응답수)

구분	유아	교사	학부모	계
전체	59.9(296)	54.9(271)	44.7(221)	100.0(494)
기관유형				
유치원	54.8	56.3	54.8	100.0(268)
보육시설	41.4	41.8	41.4	100.0(197)
$\chi^2(df)$	3.5(1)	.3(1)	13.5(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63.3	53.9	38.0	100.0(297)
사립유치원	70.4	61.1	53.7	100.0(108)
국공립보육시설	59.3	49.7	29.1	100.0(189)
민간보육시설	60.6	53.8	56.7	100.0(104)
$\chi^2(df)$	10.1(3)*	4.4(3)	30.6(3)**	
지역				
대도시	48.4	59.1	52.7	100.0(93)
중소도시	59.8	57.0	47.3	100.0(256)
읍면지역	59.1	51.7	39.2	100.0(176)
$\chi^2(df)$.3(2)	1.2(2)	3.5(1)	

주: *p < .05, ***p < .001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한 기관장의 응답은 <표 IV-1-24>와 같다. 전체적으로 교육 자료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기타 25.0%, 실시방법을 몰라서 22.5%, 시간 부족 10.6% 순이었다. 기타 응답에는 다른 유아와 별 차이를 못 느낄 정도의 미약한 장애여서, 유아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이 없어서, 여건이 안 맞아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일반 유아와 동일하므로,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아 부모가 일반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 등이 있었다.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은 기관유형, 기관·설립유형,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V-1-24〉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시행하지 않는 이유

단위: %(응답수)

구분	교육자료 부족	기타	실시방법 잘 모름	시간 부족	계
전체	41.9(67)	25.0(40)	22.5(36)	10.6(17)	100.0(160)
기관유형					
유치원	43.5	25.9	18.5	12.0	100.0(108)
보육시설	38.5	23.1	30.8	7.7	100.0(52)
		$\chi^2(df) = 3.3(3)$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40.9	18.2	9.1	31.8	100.0(22)
사립유치원	44.2	27.9	20.9	7.0	100.0(86)
국공립보육시설	29.4	23.5	35.3	11.8	100.0(17)
민간보육시설	42.9	5.9	28.6	5.7	100.0(35)
	$\chi^2(df)$	$\chi^2(df) = 16.4(9)$			
지역					
대도시	36.4	32.7	20.0	10.9	100.0(55)
중소도시	40.0	24.3	24.3	11.4	100.0(70)
읍면지역	54.3	14.3	22.9	8.6	100.0(35)
	$\chi^2(df)$	$\chi^2(df) = 5.1(6)$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작성 여부에 대한 교사의 응답은 <표 IV-1-25>와 같다. 전체적으로 작성을 한다는 응답이 51.8%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48.2%보다 조금 높았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1)=129.8$, $p<.001$), 기관·설립유형($\chi^2(3)=320.1$, $p<.001$), 지역($\chi^2(2)=46.0$,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응답은 보육시설이 70.3%로 유치원 33.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84.2%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9.2%로 가장 낮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IV-1-25>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작성 여부: 교사

단위: %(응답수)

구분	작성	작성 안 함	계
전체	51.8(505)	48.2(470)	100.0(975)
기관유형			
유치원	33.8	66.2	100.0(494)
보육시설	70.3	29.7	100.0(481)
$\chi^2(df) = 129.8(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64.5	35.5	100.0(220)
사립유치원	9.2	90.8	100.0(271)
국공립보육시설	84.2	15.8	100.0(259)
민간보육시설	53.6	46.4	100.0(220)
$\chi^2(df) = 320.1(3)^{***}$			
지역			
대도시	61.0	39.0	100.0(492)
중소도시	47.3	52.7	100.0(353)
읍면지역	29.2	70.8	100.0(130)
$\chi^2(df) = 46.0(2)^{***}$			

주: *** p < .001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할 경우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팀의 구성원이 누구인지에 대한 응답은 <표 IV-1-26>과 같다. 전체적으로 특수교사가 6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일반교사 65.7%, 장애아 학부모 47.5%, 기관장이나 원감 43.7% 순이었다. 한편 치료사는 참여하는 비율이 대체적으로 낮았는데, 그 중 언어치료사의 참여비율이 1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응답에는 부장교사, 외부자문, 자문교사, 음악치료사, 행동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건교사, 보조인력, 지역사회인사, 치료실의 소견서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 기관·설립유형,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 특수교사가 참여하는 경우는 유치원이 80.1%로 보육시설 63.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보육시설은 언어치료사가 참여하는 비율이 14.4%로 유치원 6.0%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특수교사가 참여하는 경우는 국공립유치원이 89.4%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은 28.0%로 가장 낮았다. 장애아 부모가 참여하는 비율은 국공립보육시설이 56.3%로 가장 높고, 사립유치원이 36.0%로 가장 낮았다. 지역에 따라서 일반교사가 참여하는 비율은 읍면지역이 73.7%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가 57.0%로 가장 낮았다.

〈표 IV-1-26〉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팀의 구성원(중복응답)

단위: %(응답수)

구분	일반 교사	특수 교사	장애아 부모	기관장 원감	기타	언어 치료사	의사	심리 치료사	물리 치료사	재활 치료사	계
전체	65.7 (328)	68.7 (343)	47.5 (237)	43.7 (218)	17.2 (86)	11.6 (58)	1.6 (8)	1.4 (7)	1.2 (6)	.6 (3)	100.0 (499)
기관유형											
유치원	61.4	80.1	44.0	47.0	12.0	6.0	3.0	1.2	1.8	-	100.0(166)
보육시설	67.9	63.1	49.2	42.0	19.8	14.4	.9	1.5	.9	.9	100.0(333)
$\chi^2(df)$	20(1)	150(1)**	12(1)	1.1(1)	45(1)*	76(1)*	31(1)	.1(1)	.8(1)	15(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58.9	89.4	45.4	48.2	10.6	5.7	3.5	1.4	2.1	-	100.0(141)
사립유치원	76.0	28.0	36.0	40.0	20.0	8.0	-	-	-	-	100.0(25)
국공립보육시설	66.2	67.1	56.3	39.0	23.5	14.1	.9	1.9	.9	1.4	100.0(213)
민간보육시설	71.2	55.9	37.3	48.3	12.7	14.4	.8	.8	.8	-	100.0(118)
$\chi^2(df)$	5.7(3)	565(3)**	132(3)**	4.3(3)	11.4(3)**	7.4(3)	4.8(3)	1.0(3)	1.6(3)	4.0(3)	
지역											
대도시	69.6	69.6	50.0	46.3	19.3	13.9	1.0	2.0	1.0	1.0	100.0(296)
중소도시	57.0	67.3	44.2	41.2	15.8	7.3	2.4	-	1.2	-	100.0(165)
읍면지역	73.7	68.4	42.1	34.2	7.9	13.2	2.6	2.6	2.6	-	100.0(38)
$\chi^2(df)$	8.7(2)*	.3(2)	1.9(2)	2.6(2)	3.3(2)	4.6(2)	1.6(2)	3.6(2)	.7(2)	2.1(2)	

주: *p < .05, **p < .01, ***p < .001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은 <표 IV-1-27>과 같다. 전체적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작성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33.1%, 기타 20.1%, 많은 업무량 7.0% 순이었다. 기타 응답에는 경도장애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개별화보다는 사회성을 키워주는 것이 우선이라서, 교육청 특수 담당교사가 매주 1회 방문하여 교육을 해주기 때문, 똑같이 교육받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요청으로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 기관·설립유형, 지역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IV-1-27>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단위: %(응답수)

구분	전문인력 부족	작성방법 모름	기타	많은 업무량	실제로 도움 안 됨	계
전체	33.8(141)	33.1(138)	20.1(84)	7.0(29)	6.0(25)	100.0(417)
기관유형						
유치원	33.9	33.9	18.7	7.6	5.9	100.0(289)
보육시설	33.6	31.3	23.4	5.5	6.3	100.0(128)
$\chi^2(df) = 1.8(4)$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30.6	30.6	18.1	16.7	4.2	100.0(72)
사립유치원	35.2	34.7	19.0	4.6	6.5	100.0(216)
국공립보육시설	25.6	30.8	23.1	10.3	10.3	100.0(39)
민간보육시설	37.1	31.5	23.6	3.4	4.5	100.0(89)
$\chi^2(df) = 18.5(12)$						
지역						
대도시	35.2	30.7	21.6	6.3	6.3	100.0(176)
중소도시	34.0	38.3	19.1	4.9	3.7	100.0(162)
읍면지역	30.4	27.8	19.0	12.7	10.1	100.0(79)
$\chi^2(df) = 11.4(8)$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적 배려의 유형에 대한 교사의 응답은 <표 IV-1-28>과 같다. 전체적으로 또래들과의 놀이 및 사회성 지도를 한다는 응답이 8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신변처리 및 기본생활습관지도 58.6%, 일반 영유아들의 태도 및 수용도 증진 45.1%, 의사소통 영역과 관련된 지도 39.8%, 또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일반 영유아 교육 37.3%, 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교육과정 수정 32.2%, 인지 영역과 관련된 지도 24.9%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 기관·설립유형,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 보육시설의 응답 비율은 신변처리 및 기본생활습관지도 69.7%, 의사소통 영역과 관련된 지도 46.6%, 또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일반 영유아 교육 41.3%, 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교육과정 수정 42.7%, 인지 영역과 관련된 지도 33.9%, 외부 전문가와의 상담 및 협력 강구 15.7%로 모든 영역에서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또래들과의 놀이 및 사회성 지도를 한다는 응답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88.5%로 가장 높았고, 민간보육시설이 78.4%로 가장 낮았다. 신변처리

및 기본생활습관지도, 또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일반 영유아 교육, 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교육과정 수정, 외부 전문가와의 상담 및 협력을 강구한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각각 76.0%, 50.4%, 43.5%, 18.7%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각각 46.2%, 18.2%, 32.4%, 2.9%로 가장 낮았다. 일반 영유아들의 태도 및 수용도 증진을 위해 배려한다는 응답은 국공립유치원이 51.8%로 가장 높았고, 민간보육시설이 39.0%로 가장 낮았다. 의사소통 영역과 관련된 지도, 인지 영역과 관련된 지도를 한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각각 51.5%, 35.1%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각각 31.2%, 15.6%로 가장 낮았다. 일반 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한다는 응답은 국공립유치원이 14.2%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4.4%로 가장 낮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신변처리 및 기본생활습관지도, 인지 영역과 관련된 지도, 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교육과정 수정, 일반 영유아들의 태도 및 수용도 증진을 위해 배려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IV-1-28〉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적 배려의 유형(중복응답)

단위: %(응답수)

구분	놀이/사회성	신변처리/기본생활	일반아수용증진	의사소통	일반아교육	교육과정수정	인지	외부전문가협력	학부모인식개선	배려못함	기타	총응답수
전체	82.6 (816)	58.6 (579)	45.1 (446)	39.8 (393)	37.3 (369)	32.2 (318)	24.9 (246)	9.8 (97)	9.4 (93)	3.0 (30)	.5 (5)	100.0 (988)
기관유형												
유치원	80.6	47.6	46.6	32.1	33.5	21.8	15.9	4.0	8.7	4.0	.4	100.0 (496)
보육시설	84.6	69.7	43.7	46.6	41.3	42.7	33.9	15.7	10.2	2.0	.6	100.0 (492)
$\chi^2(df)$	2.6(1)	499(1)***	.8(1)	278(1)***	6.4(1)*	495(1)***	428(1)***	37.7(1)***	.6(1)	3.4(1)	.2(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79.8	49.1	51.8	31.2	34.4	26.6	15.6	5.5	14.2	3.7	-	100.0 (218)
사립유치원	81.1	46.2	41.8	33.1	32.4	18.2	16.4	2.9	4.4	4.4	.7	100.0 (275)
국공립보육시설	88.5	76.0	47.7	51.5	43.5	50.4	35.1	18.7	11.5	2.3	-	100.0 (262)
민간보육시설	78.4	62.7	39.0	43.0	38.6	33.3	32.5	12.3	8.8	1.8	1.3	100.0 (228)
$\chi^2(df)$	9.2(3)	597(3)***	9.3(3)*	279(3)***	8.1(3)*	677(3)***	424(3)***	441(3)***	15.4(3)**	3.7(3)	5.6(3)	

구분	놀이/사회성	신변처리/기본생활	일반아 수용 증진	의사소통	일반아 교육	교육과정 수정	인지	외부 전문가 협력	학부모 인식 개선	배려 못함	기타	총 응답수
지역												
대도시	84.3	62.4	49.2	41.4	38.4	36.9	29.2	11.0	10.6	3.3	.4	100.0 (490)
중소도시	82.1	57.1	41.8	40.4	35.2	29.4	21.2	9.1	7.7	2.5	.3	100.0 (364)
읍면지역	77.6	48.5	39.6	32.1	39.6	22.4	19.4	7.5	9.7	3.7	1.5	100.0 (134)
$\chi^2(df)$	3.3(2)	8.9(2)*	6.6(2)*	3.9(2)	1.2(2)	123(2)*	9.7(2)**	1.9(2)	2.1(2)	.7(2)	3.1(2)	

주: *p < .05, **p < .01, ***p < .001

나) 사례 조사

(1) 유치원 사례

S 유치원의 경우 장애아로 인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추첨일에 유치원에 지원한 부모를 대상으로 특수학급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원하지 않는 부모는 포기를 할 것을 권유한다. 또한 장애이해를 위해 부모교육 자료를 통해 특수학급의 필요성과 특수아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통합학급에서는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장애이해 교육을 하고 있다. 매월 1회 정도 장애 관련 동화를 들려주거나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또한 매주 1회 정도 유아를 반으로 나누어 중그룹 활동을 하면서 장애아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준다. 또한 종종 모둠별 역통합 활동을 통해 일반아가 특수학급에 와서 함께 활동할 기회를 준다. 교사들끼리는 반 편견 관련 자료를 공유한다.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은 매월 특수교사가 각 장애아에 대해 영역별 관찰을 한 후 작성하여 학부모와 원감의 결재를 받는다.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매월 평가를 한다. 1주일에 1회 방문하는 작업치료사는 따로 치료계획을 작성한다.

장애아를 위한 교육적 배려는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하는 활동을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활동자료를 수정하거나 분량을 조정한다. 예컨대 일반아들이 그림을 그려서 사전을 만들 경우에 장애아는 점선을 따라 그리고 칠하는 작업으로 수정한다.

장애아를 위한 활동은 주로 일반아를 대상으로 하는 주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며,

특수교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특수교사가 장애아를 위해 주로 참고하는 자료는 인터넷 사이트와 관련 전문 서적이다.

장애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주로 중그룹 활동을 하면서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이동시에 또래를 활용해 장애아와 함께 오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실내놀이에서는 장애아가 놀잇감을 뺏았을 때 싸움이 안 일어나고 놀이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놀이하도록 중재를 한다. 장애아가 역할놀이 영역에서 교사한테만 음식을 주면서 상호작용하려고 할 때 장애아가 차린 음식을 다른 친구와 나누어 먹도록 유도한다. 이밖에 장애아와 일반아를 짝 지어주거나 장애아를 일반 아이들이 바르게 앉도록 유도하는 것을 알려주고 실행하도록 하면서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를 준다.

장애아가 문제행동을 보일 경우 특수교사는 유아의 특성을 파악하여 전략을 세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유아에게는 그 사람을 통해 바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장애아를 잡아놓고 알아듣게 이야기를 하며, 가끔 타임아웃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연구자는 만 4세 언어장애아가 정리시간에 밖으로 도망가고 보조원은 잡으러 다니는 광경을 목격했다. 이어서 언어장애아가 쌓기놀이 영역에서 정리는 안 하고 블록을 계속 꺼내자 보조원이 말리고 이에 언어장애아는 보조원을 때렸다. 보조원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저지한 후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했다.

(2) 보육시설 사례

A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따로 실시하지는 않는다. 그 동안 일반아 부모의 항의를 받은 적이 없고, 입소를 신청하는 일반아의 부모 중 10%가 아이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 신청한다고 기록하고 있어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지 않다. 교사는 1월 말에서 2월 중에 장애통합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일반아들은 어려서부터 장애아와 함께 진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친구를 자연스럽게 도와준다. 다만 장애아가 새로 들어올 경우 일반아를 대상으로 장애아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 M 학급에서는 학기 초에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장애아를 소개하면서 그들에 대한 설명을 한다. H 학급에서는 학기 초에 장애에 대한 설명을 하며 장애에 관한 책을 비치해 둔다.

A 어린이집은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을 위해 작성하는 문서들이 많다. 통합지원교사는 매일 일과 계획, 평가, 관찰의 목록이 들어가 있는 통합보육일지를 작성한다. 학기 초에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찰일지를 쓰며, 부모협력을 위한 부모

동의서를 받는다. 3월 한 달 동안 적응기간 평가서를 작성하여 장애아가 하루 일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기록하고 부모협력사항을 알려준다. 또한 교육의 일관성을 위해 개별화목표 지도도표와 각 장애아동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고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서를 벽에 게시해 놓고 있다. 5월부터는 각 장애아동을 위한 수정 주안을 작성해서 보내고, 월 1회 가정연계 개별교육 계획안과 평가서를 작성한다.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은 통합지원교사가 부모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실행하고 있다. 부모의 요구, 희망사항, 생육사가 담겨 있는 가정방문일지, 장애아가 다녔던 치료실 등 외부소견서, 치료사의 아동 평가, 통합지원교사의 현행수준 평가(일과적응 평가표와 캐롤라이나 평가)를 바탕으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에게 설명을 해주고 부모를 비롯하여 일반교사, 통합지원교사, 치료사의 사인을 받는다.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교육을 하고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목표, 수행정도, 총평 등을 기록하는 평가서를 1학기에 2회 작성한다. 이 외에 동영상을 촬영하여 부모들에게 보여주기도 한다. 2학기 말에는 소견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곳에 보낸다. 이밖에 작업치료사와 언어치료사가 별도로 부모와 협의하여 각각의 영역에 대한 현행수준을 파악하고 장단기 목표와 치료계획을 세운 후 실행한다. 치료사는 1주일에 1회씩 각각의 교실에 들어가 도움을 주고, 치료실에서는 매월 1회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고, 매주 1회 30분 정도 장애아와 일반아를 3명씩 선정해서 소그룹으로 활동을 한다.

장애아를 위한 활동은 통합학급의 주안에 기초해서 계획되며, 장애의 특성에 따라 더 필요한 활동들을 보완해서 실행한다. 장애아를 위한 활동에 대한 정보는 전공서적이거나 특수기관이나 대학에서 발행하는 교재를 참고한다.

연구자는 통합학급에서 장애아의 활동을 위해서 자료 수정을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수업 중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는 활동이지만 장애아에 따라 수준에 맞는 각각 다른 자료를 제공하였다. 전날 민속촌에 견학 다녀온 것을 회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운증후군 유아에게는 초가집이 그려진 자료에 색칠만 하도록 하였고, 시각장애아에게는 초가집이 그려진 자료에 지붕을 양면테이프로 붙인 후 아동으로 하여금 종이끈을 붙이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테이프의 끈끈한 감촉과 종이끈의 감촉을 느끼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였다. 견학을 가지 않았던 정신지체 유아에게는 컴퓨터로 민속촌 관련 자료를 보여주고, 투호놀이를 하는 그림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오려붙이도록 하였다.

장애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종종 일반아로 하여금 장애아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거나 이야기를 시키도록 하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었다. H 학급에서는 통합지원 교사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친구 생일에 장애 유아에게만 카드를 만들어오도록 하여 친근감을 높이도록 하거나 원아사진을 보내 미리 이름을 외우도록 배려를 한다. 또한 장애아에게 나누어주는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친구 이름표를 전달하도록 한다거나 장애아로 하여금 매일 3명의 친구에게 치약 짜주기를 하도록 한다거나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가정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는 등 또래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장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또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대 일로 교사가 지도하고, 손이 남는 대로 서로 도와주었다. 또한 일관성 있는 지도를 위해 교실 입구 게시판에 각 장애 유아에 대한 안내문을 붙여놓는다.

라. 가정 및 타 기관 연계

1) 가정과의 연계

가) 설문조사

부모를 대상으로 기관에서 가족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 요구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IV-1-29>와 같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계획시 참여를 요구한다는 응답은 70.7%, 활동시 요구한다는 응답은 75.2%, 평가시 요구한다는 응답은 69.5%로, 기관에서 가족의 프로그램 참여를 요구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과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에 따라 프로그램 계획시($\chi^2(2)=11.7, p<.01$)와 평가시($\chi^2(2)=7.2, p<.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가 커질수록 프로그램 계획시와 평가시 기관의 가족 참여를 요구한다는 응답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IV-1-29〉 가족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요구 여부

단위: %(응답수)

구분	계획시			활동시			평가시		
	요구함	요구안함	계	요구함	요구안함	계	요구함	요구안함	계
전체	70.7 (612)	29.3 (254)	100.0 (866)	75.2 (639)	24.8 (211)	100.0 (850)	69.5 (582)	30.5 (256)	100.0 (838)
기관유형									
유치원	69.6	30.4	100.0 (398)	77.2	22.8	100.0 (390)	68.9	31.1	100.0 (383)
보육시설	71.6	28.4	100.0 (468)	73.5	26.5	100.0 (460)	69.9	30.1	100.0 (455)
$\chi^2(df)$	0.4(1)			1.5(1)			0.1(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62.7	37.3	100.0 (134)	73.8	26.2	100.0 (130)	68.2	31.8	100.0 (129)
사립유치원	72.8	27.2	100.0 (243)	77.5	22.5	100.0 (240)	69.1	30.9	100.0 (233)
국공립보육시설	71.0	29.0	100.0 (300)	74.6	25.4	100.0 (299)	70.2	29.8	100.0 (295)
민간보육시설	71.6	28.4	100.0 (134)	70.3	29.7	100.0 (128)	68.8	31.3	100.0 (128)
$\chi^2(df)$	4.7(3)			2.3(3)			0.2(3)		
지역									
대도시	75.9	24.1	100.0 (431)	77.8	22.2	100.0 (424)	73.7	26.3	100.0 (418)
중소도시	66.5	33.5	100.0 (319)	71.2	28.8	100.0 (312)	65.8	34.2	100.0 (307)
읍면지역	62.9	37.1	100.0 (116)	76.3	23.7	100.0 (114)	63.7	36.3	100.0 (113)
$\chi^2(df)$	11.7(2)***			4.4(2)			7.2(2)*		

주: *p < .05, ***p < .001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IV-1-30>과 같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계획시 참여한다는 응답은 68.2%, 활동시 요구한다는 응답은 73.9%, 평가시 요구한다는 응답은 67.3%로, 가족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과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에 따라 프로그램 계획시($\chi^2(2)=8.5, p<.05$)와 평가시($\chi^2(2)=9.7, p<.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가 커질수록 프로그램 계획시와 평가시 가족이 참여한다는 응답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IV-1-30〉 가족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여부

단위: %(응답수)

구분	계획시			활동시			평가시		
	참여함	참여안함	계	참여함	참여안함	계	참여함	참여안함	계
전체	68.2 (590)	31.8 (275)	865 (100.0)	73.9 (630)	26.1 (222)	100.0 (852)	67.3 (567)	32.7 (275)	100.0 (842)
기관유형									
유치원	69.1	30.9	100.0 (466)	71.3	28.7	100.0 (463)	67.2	32.8	100.0 (460)
보육시설	67.2	32.8	100.0 (399)	77.1	22.9	100.0 (389)	67.5	32.5	100.0 (382)
$\chi^2(df)$	0.4(1)			3.8(1)			0.0(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64.4	35.6	100.0 (135)	75.4	24.6	100.0 (130)	65.4	34.6	100.0 (130)
사립유치원	68.3	31.7	100.0 (243)	77.8	22.2	100.0 (249)	68.8	31.2	100.0 (231)
국공립보육시설	69.2	30.8	100.0 (299)	73.0	27.0	100.0 (300)	68.2	31.8	100.0 (296)
민간보육시설	65.4	34.6	100.0 (133)	67.7	32.3	100.0 (130)	64.7	35.3	100.0 (133)
$\chi^2(df)$	1.3(3)			4.8(3)			1.0(3)		
지역									
대도시	72.5	27.5	100.0 (429)	76.9	23.1	100.0 (424)	71.6	28.4	100.0 (419)
중소도시	65.5	34.5	100.0 (319)	71.5	28.5	100.0 (312)	65.5	34.5	100.0 (307)
읍면지역	59.8	40.2	100.0 (117)	69.8	30.2	100.0 (116)	56.9	43.1	100.0 (116)
$\chi^2(df)$	8.5(2)*			3.9(2)			9.7*(2)		

주: * p < .05, ** p < .01

교사에게 가정과의 의사소통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IV-1-31>과 같다. 가장 많은 의사소통의 방식은 직접대면으로 68.6%였고, 그 다음은 기관홈페이지 54.0%, 가정방문 53.8%, 가정통신문 39.3%, 부모 오리엔테이션 32.8%, 이메일이나 전화상담 12.2%, 연락장 12.1%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 기관·설립유형, 지역에 따라 많은 방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 보육시설이 유치원에 비해 직접대면, 기관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부모 오리엔테이션, 이메일과 전화상담, 연락장을 통해 가정과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직접 대면, 가정통신문, 부모 오리엔테이션, 이메일

일과 전화상담, 연락장을 통해 가정과 의사소통하는 경우는 국공립보육시설이 가장 많았고, 사립유치원이 가장 적었다. 기관홈페이지를 통해 가정과 의사소통하는 경우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제일 많았고, 국공립유치원이 가장 적었다. 가정방문을 통해 가정과 의사소통하는 경우는 사립유치원이 가장 많았고, 국공립유치원이 가장 적었다. 지역에 따라 기관홈페이지를 통한 가정과의 의사소통은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고, 읍면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정통신문과 부모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가정과의 의사소통은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IV-1-31〉 가정과의 의사소통 방식(중복응답): 교사

단위: %(응답수)

구분	직접 대면	기관 홈페 이지	가정 방문	가정 통신 문	부모 오리 엔테 이션	이메 일/ 전화 상담	연 락 장	기타	계
전체	68.6 (674)	54.0 (531)	53.8 (529)	39.3 (386)	32.8 (322)	12.2 (120)	12.1 (119)	2.6 (26)	100.0(983)
기관유형									
유치원	36.3	35.5	56.8	28.1	20.5	4.2	8.4	2.2	100.0(498)
보육시설	74.2	73.0	50.7	50.7	45.4	20.4	15.9	3.1	100.0(485)
$\chi^2(df)$	13.6(1)***	138.7(1)***	3.7(1)	52.7(1)***	69.0(1)***	60.1(1)***	12.8(1)***	0.7(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75.0	30.9	43.2	40.5	30.0	7.3	10.9	2.3	100.0(220)
사립유치원	53.8	39.6	68.0	18.5	13.1	1.8	6.5	2.2	100.0(275)
국공립보육시설	81.5	77.7	46.9	57.7	54.2	25.0	18.1	3.8	100.0(260)
민간보육시설	65.8	68.2	54.7	42.6	35.4	14.8	13.5	2.2	100.0(223)
$\chi^2(df)$	53.2(3)***	146.9(3)***	37.3(3)***	87.6(3)***	103.9(3)***	74.0(3)***	17.3(3)**	1.9(3)	
지역									
대도시	71.5	55.1	51.6	45.7	36.6	13.6	12.6	3.0	100.0(492)
중소도시	67.4	57.7	54.6	33.7	32.6	9.5	13.4	2.5	100.0(359)
읍면지역	61.1	40.2	59.8	30.3	18.9	14.4	6.8	1.5	100.0(132)
$\chi^2(df)$	5.67(2)	12.4(2)**	3.0(2)	17.7(2)**	14.7(2)**	4.01(2)	4.1(2)	1.0(2)	

주: *p < .05, **p < .01, ***p < .001

기관·설립유형에서 데이터 결측값이 있어 전체 값에 5개소 차이가 있음

교사에게 가정과의 의사소통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IV-1-32>와 같다. 가장 많은 의사소통의 내용은 기관에서의 생활로 75.8%였고, 그 다음은 부모 협조사항 57.8%, 장애 영유아의 성장발달 54.2%, 문제행동 대처방법 49.3%, 교육(보육)과정 및 활동 38.9%, 가정에서의 양육법 36.0%, 장애관련 기관 소개 11.0%, 가족

스트레스 해소방안 6.1%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 기관·설립유형, 지역에 따라 많은 내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 보육시설이 유치원에 비해 모든 내용 영역에서 가정과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부모협조사항, 교육(보육)과정 및 활동, 가정에서의 양육법, 장애관련 기관소개에 대해 가정과 의사소통한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가장 낮았다. 기관에서의 생활과 문제행동 대처방법에 대해 의사소통한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가장 낮았다. 가족스트레스 해소방안에 대해 의사소통한다는 응답은 민간보육시설이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가장 낮았다. 지역에 따라 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해 의사소통한다는 응답은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고, 읍면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문제행동 대처방법, 교육(보육)과정 및 활동, 가정에서의 양육법에 대해 의사소통한다는 응답은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IV-1-32〉 가정과의 의사소통 내용(중복응답): 교사

단위: %(응답수)

구분	기관 에서 생활	부모 협조 사항	성장 발달	문제 행동 대처 방법	교육 (보육) 과정/ 활동	양 육 법	장애 관련 기관 소개	스트 레스 해소 방안	기타	계
전체	75.8 (721)	57.8 (550)	54.2 (515)	49.3 (469)	38.9 (370)	36.0 (342)	11.0 (105)	6.1 (58)	1.2 (11)	100.0 (951)
기관유형										
유치원	68.0	48.6	51.4	38.5	28.7	26.8	6.2	4.6	1.2	100.0(481)
보육시설	83.8	67.2	57.0	60.4	49.4	45.3	16.0	7.7	1.1	100.0(470)
$\chi^2(df)$	32.6(1)***	33.7(1)***	3.1(1)	45.9(1)***	42.7(1)***	35.3(1)***	22.9(1)***	4.0(1)*	0.1(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65.9	53.9	55.8	38.2	34.1	28.1	10.6	6.5	2.3	100.0(217)
사립유치원	69.3	44.4	47.5	38.7	24.5	25.7	2.7	3.1	.4	100.0(261)
국공립보육시설	90.8	76.0	57.2	62.8	56.0	49.6	18.0	6.4	1.2	100.0(250)
민간보육시설	75.7	57.3	56.9	57.8	41.7	40.4	13.3	9.2	.9	100.0(218)
$\chi^2(df)$	48.0(3)***	54.4(3)***	6.5(3)	46.9(3)***	56.2(3)***	39.9(3)***	32.2(3)***	7.8(3)*	4.0(3)	
지역										
대도시	77.6	61.2	56.1	53.0	43.9	40.9	13.1	6.3	1.7	100.0(474)
중소도시	78.7	56.5	53.7	48.0	34.1	33.0	9.1	6.8	.9	100.0(352)
읍면지역	60.8	48.8	48.0	39.2	33.6	25.6	8.8	3.2	-	100.0(125)
$\chi^2(df)$	17.8(2)***	1.0(2)	2.7(2)	7.9(2)*	9.9(2)**	12.3(2)**	0.9(2)	2.2(2)	2.9(2)	

주: *p < .05, **p < .01, ***p < .001

기관·설립유형에서 데이터 결측값이 있어 전체 값에 5개소 차이가 있음.

나) 사례조사

(1) 유치원 사례

S 유치원의 경우 만 4, 5세 장애아 부모는 자녀들이 통합교육을 받으며 사회성을 기르고 인지발달을 하기를 원한다. 또한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내기를 원한다.

장애아의 부모이기 때문에 유치원을 더 지원하거나 행사에 더 참여하지는 않는다. 장애아의 부모는 일반아의 부모와 똑같이 급식당번을 할 때 유치원을 방문한다. 특수교사는 매주 1회 동시전달장을 보내 가정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이 외에 알림장을 보내고 매일 하원 시에 장애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부모간의 교류는 장애아 부모끼리는 더 친밀하나 일반아 부모들과도 접촉할 기회를 갖는다. 장애아 부모들은 사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급식당번이 되면 유치원에 와서 일반부모와도 이야기를 나눈다. 이러한 기회는 1학기에 4~5번 정도 있다. 이 외에 학기당 1회 실시하는 부모참여 수업이나 연 1회 실시하는 가족 산행에서 일반 부모들과 접촉할 기회를 갖는다.

(2) 보육시설 사례

A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의 기대와 요구를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작성 시 반영한다. 부모의 교육적인 요구는 수렴하나 그 외의 요구는 조율이 필요하다고 한다. 장애아 부모는 어린반의 경우 신변처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으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언어와 인지에 관심이 많다. 사회성에 대한 기대 또한 높다. 장애아 부모의 참여 정도는 현장 견학시 자원봉사자가 없을 경우 지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김장 등의 행사시에는 일반아 부모와 동일하게 자원봉사를 한다.

시설에서는 학기 초에 부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데, 1회는 신입원아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여 어린이집의 프로그램과 일과 활동을 설명하고, 2회는 전체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외부강사를 초빙한다. 1년에 2회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침의 효능’이나 ‘생의 주기’ 등 일반적인 주제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으며, 참여수업과 유사한 부모 워크숍을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 1회 가족 캠프나 유아 캠프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마다 ‘엄마와 함께 하는 순환놀이’라는 명칭으로 작업치료사가 강당에 세팅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장애아와 그 부모가 함께 놀이를 한다.

학급에서는 공식적으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계획과 평가시에 연 4회 부모와의 만남을 갖는다. 또한 매주 금요일에 통합지원교사가 부모에게 다음 주 수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다. 비공식적으로는 유아 등하원시 하루 일과 및 장애아의 상태와

활동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때때로 전화 상담이나 이메일로 의견을 교환한다.

부모간의 교류는 장애아 부모간의 교류는 활발하나 일반 부모와의 교류는 별로 없다. 장애아 부모끼리는 함께 여행도 다니고 무언가를 배우러 다니는 등 교류가 아주 활발하나, 일반아 부모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2) 타 기관과의 협력

가) 설문조사

타 기관과의 연계와 관련하여 통합을 위한 공식적인 외부 자문의 통로에 대한 기관장의 응답은 <표 IV-1-33>과 같다. 전체적으로 통합을 위한 공식적인 외부 자문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4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단체 및 복지 기관의 전문가를 통하여 자문 받는다는 응답이 15.1%, 대학 전공 관련 전문가 12.3%, 특수교육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 14.8%, 기타 9.2%, 인터넷 4.7% 순이었다. 기타 응답에는 교육청, 치료센터, 다른 기관 원장, 초등학교 특수교사, 전문병원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5)=111.5, p<.001$), 기관·설립유형($\chi^2(15)=148.8,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 통합을 위한 공식적인 외부 자문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유치원이 55.6%로 보육시설 25.4%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단체나 복지기관 전문가나 대학 전공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는 비율은 보육시설이 각각 28.4%, 20.1%로 유치원 각각 6.6%, 7.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특수교육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의 자문을 받는다는 응답은 큰 차이는 없었으나 보육시설이 15.9%로 유치원 14.1%보다 다소 높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외부 자문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57.6%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21.2%로 가장 낮았다. 단체나 복지기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31.1%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6.0%로 가장 낮았다. 특수교육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자문을 받는다는 응답은 국공립유치원이 26.1%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8.3%로 가장 낮았던 반면, 인터넷을 통해 자문을 구한다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6.2%로 가장 높았으며, 국공립유치원이 2.2%로 가장 낮았다. 대학전공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는 응답은 민간보육시설이 25.0%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3.7%로 가장 낮았다.

<표 IV-1-33> 통합을 위한 공식적인 외부 자문 통로

단위: %(응답수)

구분	받지 않음	단체/ 복지 기관	특수교육 지원 및 보육정보 센터	대학 전공 관련	기타	인터넷	계
전체	43.8(295)	15.1(102)	14.8(100)	12.3(83)	9.2(62)	4.7(32)	100.0(674)
기관유형							
유치원	55.6	6.6	14.1	7.3	11.5	4.9	100.0(410)
보육시설	25.4	28.4	15.9	20.1	5.7	4.5	100.0(264)
$\chi^2(df) = 111.5(5)^{***}$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51.5	6.0	26.1	3.7	10.4	2.2	100.0(134)
사립유치원	57.6	6.9	8.3	9.1	12.0	6.2	100.0(276)
국공립보육시설	21.2	31.1	19.7	15.2	8.3	4.5	100.0(132)
민간보육시설	29.5	25.8	12.1	25.0	3.0	4.5	100.0(132)
$\chi^2(df) = 148.8(15)^{***}$							
지역							
대도시	42.0	18.6	15.1	12.3	8.8	3.2	100.0(317)
중소도시	41.2	13.3	14.9	14.5	9.4	6.7	100.0(255)
읍면지역	55.9	8.8	13.7	6.9	9.8	4.9	100.0(102)
$\chi^2(df) = 17.2(10)$							

주: ***p < .001

통합을 위한 공식적인 외부 자문내용에 대한 응답은 <표 IV-1-34>와 같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문을 받는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교사 연수 30.0%, 치료교육 15.6%, 진단 및 검사 13.3%, 가족상담 4.2%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5)=40.8$, $p<.001$), 기관·설립유형($\chi^2(15)=65.1$,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 통합을 위한 공식적인 외부 자문내용이 프로그램과 가족상담이라는 응답은 보육시설이 각각 48.9%, 4.3%로 유치원 각각 20.3%, 4.1%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사 연수, 치료교육, 진단 및 검사라는 응답은 유치원이 각각 34.3%, 23.8%, 14.5%로 보육시설 각각 26.1%, 8.0%, 12.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통합을 위한 공식적인 외부 자문내용이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53.7%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16.9%로 가장 낮은 반면, 치료교육이라는 응답은 국공립유치원이 39.0%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4.2%로 가장 낮았다. 교사 연수라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38.1%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23.2%로 가장 낮았다. 진단 및 검사라는 응답과 가족상담이라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각각 17.7%, 4.4%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각각 8.5%, 3.4%로 가장 낮았다.

〈표 IV-1-34〉 통합을 위한 공식적인 외부 자문 내용

단위: %(응답수)

구분	프로 그램	교사 연수	치료 교육	진단/ 검사	가족 상담	기타	계
전체	35.3(127)	30.0(108)	15.6(56)	13.3(48)	4.2(15)	1.7(6)	100.0(360)
기관유형							
유치원	20.3	34.3	23.8	14.5	4.1	2.9	100.0(172)
보육시설	48.9	26.1	8.0	12.2	4.3	0.5	100.0(188)
	$\chi^2(df) = 40.8(5)^{***}$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16.9	27.1	39.0	8.5	3.4	5.1	100.0(59)
사립유치원	22.1	38.1	15.9	17.7	4.4	1.8	100.0(113)
국공립보육시설	53.7	23.2	4.2	13.7	4.2	1.1	100.0(95)
민간보육시설	44.1	29.0	11.8	10.8	4.3	-	100.0(93)
	$\chi^2(df) = 65.1(15)^{***}$						
지역							
대도시	35.4	31.5	12.9	14.6	3.4	2.2	100.0(178)
중소도시	42.3	25.5	15.3	11.7	4.4	0.7	100.0(137)
읍면지역	13.3	37.8	26.7	13.3	6.7	2.2	100.0(45)
	$\chi^2(df) = 17.0(10)$						

주: ***p < .001

통합 관련 기관이나 장애 영유아 담당자 목록의 유무에 대한 기관장의 응답은 <표 IV-1-35>와 같다. 전체적으로 행정기관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5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49.1%, 통합 실시 유치원과 보육시설 41.7%, 사설 치료실과 교육센터 39.8%, 보건소 39.4%, 병원 36.0%, 특수교육기관 34.3%, 일반초등학교 29.3%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 기관·설립유형,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 보육시설은 기타를 제외한 모든 관련 기관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유치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장애인 복지관, 통합 실시 유치원과 보육시설, 보건소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국공립보육시설이 가장 많았고, 사립유치원이 가장 적었다. 병원과 사설치료실이나 교육센터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민간보육시설이 가장 많았고, 국공립유치원이 가장 적었

다. 특수교육기관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민간보육시설이 가장 많았고, 사립유치원이 가장 적었다. 일반초등학교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국공립유치원이 가장 많았고, 사립유치원이 가장 적었다. 지역에 따라 사설치료실이나 교육센터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지역규모가 클수록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IV-1-35> 통합 관련 기관이나 장애 영유아 담당자 목록 유무: 기관장

단위: %(응답수)

구분	행정 기관	장애인 복지관	통합 유치원/보육 시설	보건소	병원	사설 치료실/교육 센터	특수 교육 기관	일반 초등학교	기타	총 응답수
전체	52.7 (340)	49.1 (317)	41.7 (269)	39.4 (254)	36.0 (232)	39.8 (257)	34.3 (221)	29.3 (189)	4.0 (26)	100.0 (645)
기관유형										
유치원	49.3	35.5	30.8	31.6	31.1	30.8	28.2	29.2	4.2	100.0(383)
보육시설	57.6	69.1	57.6	50.8	43.1	53.1	43.1	29.4	3.8	100.0(262)
$\chi^2(df)$	4.3(1)*	70.2(1)***	46.0(1)***	24.0(1)**	9.8(1)**	32.1(1)***	15.4(1)***	0.0(1)	0.1(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50.0	51.5	33.8	34.6	20.8	30.0	33.8	42.3	4.6	100.0(130)
사립유치원	49.0	27.3	29.2	30.0	36.4	31.2	25.3	22.5	4.0	100.0(253)
국공립보육시설	62.6	71.0	60.3	56.5	41.2	51.1	40.5	27.5	3.1	100.0(131)
민간보육시설	52.7	67.2	55.0	45.0	45.0	55.0	45.8	31.3	4.6	100.0(131)
$\chi^2(df)$	6.9(3)	90.8(3)***	47.6(3)***	28.3(3)**	19.3(3)**	32.6(3)***	19.0(3)**	16.7(3)**	0.5(3)	
지역										
대도시	50.0	49.0	42.3	37.4	37.4	44.4	34.1	26.2	3.3	100.0(302)
중소도시	56.7	52.5	42.5	39.2	35.0	37.9	38.3	30.8	4.2	100.0(240)
읍면지역	51.5	41.7	37.9	45.6	34.0	31.1	25.2	35.0	5.8	100.0(103)
$\chi^2(df)$	2.5(2)	3.3(2)	0.7(2)	2.2(2)	0.6(2)	6.3(2)*	5.5(2)	3.3(2)	1.3(2)	

주: *p < .05, **p < .01, ***p < .001

통합 관련 기관이나 장애 영유아 담당자 목록의 유무에 대한 교사의 응답은 <표 IV-1-36>과 같다. 전체적으로 장애인 복지관 목록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4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사설 치료실과 교육센터 36.3%, 통합 실시 유치원과 보육시설 33.5% 행정기관 32.0%, 병원 25.2%, 보건소 23.5%, 특수교육기관 18.2%, 일반초등학교 16.0%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 기관·설립유형,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 보육시설의 교사는 장애인 복지관, 사설치료실이나 교육센터, 특수교육기관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각각 56.2%, 45.6%, 22.4%로 유치원 각각

28.4%, 25.6%, 13.5%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반면, 일반초등학교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유치원교사가 21.1%로 보육시설 11.6%에 비해 더 많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장애인복지관과 사설치료실이나 교육센터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국공립보육시설 교사가 각각 59.2%, 50.6%로 가장 많았고, 사립유치원 교사는 각각 17.8%, 21.3%로 가장 적었다. 병원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립유치원교사가 33.2%로 가장 많았고, 국공립보육시설 교사가 19.6%로 가장 적었다. 특수교육기관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민간보육시설 교사가 24.1%로 가장 많았고, 사립유치원교사가 9.9%로 가장 적었다. 일반초등학교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국공립유치원교사가 30.5%로 가장 많았고, 국공립보육시설 교사가 9.8%로 가장 적었다.

지역에 따라 사설치료실이나 교육센터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대도시 교사가 43.5%로 가장 많았고, 읍면지역 교사가 20.8%로 가장 적은 반면 보건소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읍면지역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대도시가 20.6%로 가장 적었다. 통합 실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중소도시 교사가 35.6%로 가장 많았고, 읍면지역 교사가 23.3%로 가장 적은 반면, 행정기관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읍면지역 교사가 40.8%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 교사가 27.1%로 가장 적었다.

〈표 IV-1-36〉 통합 관련 기관이나 장애 영유아 담당자 목록 유무: 교사

단위: %(응답수)

구분	장애인 복지관	사설 치료실/ 교육 센터	통합 유치원/ 보육 시설	행정 기관	병원	보건소	특수 교육 기관	일반 초등 학교	기타	계
전체	43.2 (365)	36.3 (306)	33.5 (283)	32.0 (270)	25.2 (213)	23.5 (198)	18.2 (154)	16.0 (135)	7.0 (59)	100.0 (844)
기관유형										
유치원	28.4	25.6	30.2	32.5	27.7	23.4	13.5	21.1	9.9	100.0(394)
보육시설	56.2	45.6	36.4	31.6	23.1	23.6	22.4	11.6	4.4	100.0(450)
$\chi^2(df)$	66.1(1)**	36.1(1)**	3.7(1)	0.1(1)	2.3(1)	0.0(1)	11.4(1)*	14.1(1)**	9.6(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40.0	30.5	34.2	37.9	21.6	24.2	16.8	30.5	5.3	100.0(190)
사립유치원	17.8	21.3	26.7	27.7	33.2	22.3	9.9	12.4	14.4	100.0(202)
국공립보육시설	59.2	50.6	37.1	32.7	19.6	20.4	21.2	9.8	4.1	100.0(245)
민간보육시설	52.7	39.9	35.5	30.0	27.6	27.6	24.1	13.3	4.9	100.0(203)
$\chi^2(df)$	86.7(3)**	45.2(3)**	6.0(3)	5.1(3)	12.8(3)**	3.4(3)	15.9(3)**	40.0(3)**	22.2(3)**	

구분	장애인 복지관	사실 치료실/교육센터	통합 유치원/보육시설	행정 기관	병원	보건소	특수 교육 기관	일반 초등학교	기타	계
지역										
대도시	44.5	43.5	34.9	33.0	26.3	20.6	19.6	13.9	6.0	100.0(418)
중소도시	45.4	32.4	35.6	27.1	22.9	21.9	18.6	16.7	7.5	100.0(306)
읍면지역	33.3	20.8	23.3	40.8	27.5	37.5	12.5	21.7	9.2	100.0(120)
$\chi^2(df)$	5.7(2)	24.0(2)***	6.6(2)*	7.8(2)*	1.5(2)	15.5(2)***	3.2(2)	4.4(2)	1.7(2)	

주: *p < .05, **p < .01, ***p < .001

설문에 참여한 기관이 타 기관과 어느 정도 협조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관장의 응답은 <표 IV-1-37>과 같다. 전체적으로 응답한 기관이 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협조한다는 응답이 65.3%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유형($\chi^2(4)=53.6, p<.001$)과 기관·설립유형($\chi^2(12)=79.6,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 응답한 기관이 타 기관에 협조 요청 시 협조한다는 응답은 보육시설이 80.3%로 유치원의 55.5%보다 높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응답한 기관이 타 기관에 협조 요청을 했을 때 협조해 준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82.2%로 가장 높았으며, 국공립유치원이 69.5%로 가장 낮았다.

한편 전체적으로 타 기관이 응답한 기관에 협조를 요청을 했을 때 협조한다는 응답은 72.9%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4)=33.1, p<.001$)과 기관·설립유형($\chi^2(12)=49.8,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 타 기관에서의 협조 요청 시 협조한다는 응답은 보육시설이 91.4%로 유치원의 71.2%보다 높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이 타 기관의 협조 요청 시 협조한다는 응답이 92.0%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66.0%로 가장 낮았다.

〈표 IV-1-37〉 타 기관과의 협조 정도

단위: %(응답수)

구분	귀 기관이 협조 요청			계	타 기관이 협조 요청			계
	협조	비협조	해당 안됨		협조	비협조	해당 안됨	
전체	65.3 (383)	16.2 (95)	18.4 (108)	100.0 (586)	79.2 (399)	6.4 (32)	14.5 (73)	100.0 (504)
기관유형	$\chi^2(df) = 53.6(4)^{***}$			$\chi^2(df) = 33.1(4)^{***}$				
유치원	55.5	18.1	26.3	100.0(353)	71.2	7.5	21.2	100.0(306)
보육시설	80.3	13.3	6.4	100.0(233)	91.4	4.5	4.0	100.0(198)
기관·설립유형	$\chi^2(df) = 79.6(12)^{***}$			$\chi^2(df) = 49.8(12)^{***}$				
국공립유치원	69.5	12.7	17.8	100.0(118)	80.8	5.5	13.8	100.0(109)
사립유치원	48.5	20.9	30.6	100.0(235)	66.0	8.7	25.4	100.0(197)
국공립보육시설	82.2	13.5	4.2	100.0(118)	92.0	5.0	3.0	100.0(100)
민간보육시설	78.2	13.1	8.7	100.0 (115)	90.8	4.1	5.1	100.0(98)
지역	$\chi^2(df) = 6.1(8)$			$\chi^2(df) = 7.9(8)$				
대도시	66.2	17.1	16.7	100.0(275)	81.6	5.0	13.4	100.0(238)
중소도시	66.2	13.7	20.1	100.0(219)	79.3	5.3	15.4	100.0(188)
읍면지역	61.2	19.4	19.4	100.0(92)	71.8	12.8	15.4	100.0(78)

주: *** p < .001

다른 기관과 협조할 경우 협조하는 내용은 <표 IV-1-38>과 같다. 전체적으로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의견 교환이 7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2)=33.8$, $p<.001$)과 기관·설립유형($\chi^2(6)=52.8$,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는 응답은 유치원이 87.6%로 보육시설 63.6%보다 높았던 반면,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참여로 타 기관과 협조한다는 응답은 보육시설이 30.7%로 유치원의 8.1%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90.2%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53.8%로 가장 낮았다.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참여를 통하여 타 기관과의 협조한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41.9%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4.9%로 가장 낮았다.

〈표 IV-1-38〉 타 기관과의 협조 내용

단위: %(응답수)

구분	의견 교환	IEP 개발 참여	기타	계
전체	76.6(295)	18.4(71)	4.9(19)	100.0(385)
기관유형				
유치원	87.6	8.1	4.3	100.0(209)
보육시설	63.6	30.7	5.7	100.0(176)
$\chi^2(df) = 33.8(2)^{***}$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83.9	12.6	3.4	100.0(87)
사립유치원	90.2	4.9	4.9	100.0(122)
국공립보육시설	53.8	41.9	4.3	100.0(93)
민간보육시설	74.7	18.1	7.2	100.0(83)
$\chi^2(df) = 52.8(6)^{***}$				
지역				
대도시	75.4	19.4	5.2	100.0(191)
중소도시	74.8	20.9	4.3	100.0(139)
읍면지역	85.5	9.1	5.5	100.0(55)
$\chi^2(df) = 4.0(4)$				

주: *** p < .001

타 기관과의 협조를 안 할 경우 협조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응답은 다음 <표 IV-1-39>와 같다. 전체적으로 공식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협력이 시급하지 않음 23.3%, 상대기관에 대한 이해 부족 13.0%, 많은 기관 내 업무 10.3%, 원아모집에 대한 이해관계 1.4%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설립유형($\chi^2(15)=28.1, p<.05$), 지역($\chi^2(10)=22.8,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공식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타 기관과의 협조가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공립유치원이 83.3%로 가장 높았고, 민간보육시설이 32.3%로 가장 낮았던 반면, 많은 기관 내 업무 때문이라는 응답은 민간보육시설이 19.4%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은 응답자가 하나도 없었다. 협력이 시급하지 않다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28.2%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8.3%로 가장 낮았다. 상대기관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15.5%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5.0%로 가장 낮았다. 원아모집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응답은 민간보육시설에서 유일하게 6.5%의 응답자가 있었다.

지역에 따라서 공식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타 기관과의 협조가 어렵다

고 응답한 비율은 대도시가 61.8%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가 32.7%로 가장 낮았다. 기관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는 응답은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협력이 시급하지 않다는 응답과 많은 업무 때문이라는 응답은 중소도시가 각각 29.1%, 20.0%로 가장 높았고, 읍면지역이 각각 8.7%, 4.3%로 가장 낮았던 반면, 원아모집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응답은 읍면지역이 4.3%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는 응답자가 하나도 없었다.

〈표 IV-1-39〉 타 기관과의 협조가 안 되는 이유

단위: %(응답수)

구분	공식적인 협력체계 미구축	협력이 시급하지 않음	상대 기관에 대한 이해부족	많은 기관 내 업무	원아모집에 대한 이해관계	기타	계
전체	50.7(74)	23.3(34)	13.0(19)	10.3(15)	1.4(2)	1.4(2)	100.0(146)
기관유형							
유치원	54.7	23.2	13.7	7.4	-	1.1	100.0(95)
보육시설	43.1	23.5	11.8	15.7	3.9(2)	2.0	100.0(51)
			$\chi^2(df) = 7.1(5)$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83.3	8.3	8.3	-	-	-	100.0(24)
사립유치원	45.1	28.2	15.5	9.9	-	1.4	100.0(71)
국공립보육시설	60.0	20.0	5.0	10.0	-	5.0	100.0(20)
민간보육시설	32.3	25.8	16.0	19.4	6.5	-	100.0(31)
			$\chi^2(df) = 28.1(15)^*$				
지역							
대도시	61.8	23.5	7.4	4.4	1.5	1.5	100.0(68)
중소도시	32.7	29.1	16.4	20.0	-	1.8	100.0(55)
읍면지역	60.9	8.7	21.7	4.3	4.3	-	100.0(23)
			$\chi^2(df) = 22.8(10)^*$				

주: *p < .05

나) 사례 조사

(1) 유치원 사례

S 유치원에서는 외부자문을 받고 있지 않으며, 관련 기관 목록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문의가 들어오면 통합교육을 하는 다른 유치원을 소개해 주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에서 S 유치원을 소개해서 유아들이 오는 경우도 있다.

외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아에 대한 정보를 받은 적은 있지만, 현재까지 장애아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곳도 없고 제공한 적도 없다.

(2) 보육시설 사례

외부자문은 시설에서 근무했었던 교수님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일반아 중 장애가 발견되는 경우 진단과 장애아의 취학준비도 검사를 장애인복지관에 의뢰하고 있다. 관련기관에 대한 목록은 시설장과 교사 모두 따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시설장은 문의가 오는 경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명단으로 안내를 한다고 했으나, 시설장과 교사 모두 실제로 타 기관에 대한 정보는 장애아 부모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타 기관과의 협조에 대해서 시설장은 치료기관과 초등학교 교사에게 전화했으나 싫어했다고 하면서 협조가 잘 안 되는 편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사는 학기 초 한 달 동안 유아 평가시 이전에 다녔던 치료실을 알아보고 소견서를 부탁한다고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소견서를 보내주기도 한다고 하였다. 치료사가 찾아와서 의견을 교환한 적도 있었다고 하였다.

마. 정책 지원

1) 지원 실태

가) 설문조사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보육 관련 지원 여부에 대한 기관장의 응답은 <표 IV-1-40>과 같다. 전체적으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보육에 대하여 지원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3.6%로 지원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 26.4%보다 훨씬 높았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1)=45.6$, $p<.001$), 기관·설립유형($\chi^2(3)=65.7$, $p<.001$), 지역($\chi^2=13.0$, $p<.01$)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보육시설이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보육에 관련하여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7.9%로 유치원의 64.4%보다 높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교육에 관련하여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92.4%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58.1%로 가장 낮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가 77.4%로 지원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읍면지역이 54.9%로 가장 낮았다.

〈표 IV-1-40〉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보육 관련 지원 여부: 기관장

단위: %(기관수)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73.6(496)	26.4(178)	100.0(674)
기관유형			
유치원	64.4	35.6	100.0(410)
보육시설	87.9	12.1	100.0(264)
$\chi^2(df) = 45.6(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77.4	22.6	100.0(133)
사립유치원	58.1	41.9	100.0(277)
국공립보육시설	92.4	7.6	100.0(132)
민간보육시설	83.3	16.7	100.0(132)
$\chi^2(df) = 65.7(3)^{***}$			
지역			
대도시	77.4	22.6	100.0(323)
중소도시	74.4	25.6	100.0(250)
읍면지역	59.4	40.6	100.0(101)
$\chi^2(df) = 13.0(2)^{**}$			

주: ** p < .01, *** p < .001

장애 영유아 통합과 관련한 내용별 지원 여부에 대한 기관장의 응답은 <표 IV-1-41>과 같다.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496개 기관 중 323개 기관이 본 질문에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교사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교재교구비 29.7%, 기타 27.2%, 보조인력 19.8%, 기관운영비 19.2%, 간식비 13.0%, 시설개선비 2.2% 순이었다. 기타 응답에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급식비 지원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 기관·설립유형,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 교사인건비, 교재교구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보육시설이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고, 기타, 보조인력, 기관운영비, 간식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유치원이 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교사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민간보육시설이 가장 많았고, 사립유치원이 가장 적었다. 교재교구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국공립보육시설이 가장 많았고, 민간보육시설이 가장 적었다. 기타와 간식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사립유치원이 가장 많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가장 적었다. 보조인력 지원을 받는 경우는 국공립유치원이 가장 많았고, 민간보육시설이 가장 적었다. 기관운영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국공립유치원이 가장 많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가장 적었다. 시설개선비를 받는 경우는 국공립유치원이

가장 많았고, 민간보육시설은 하나도 없었다. 지역에 따라 기타 지원은 중소도시가 가장 많았고, 읍면지역이 가장 적었던 반면, 보조인력 지원을 받는 경우는 읍면지역이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가 가장 적었다.

<표 IV-1-41> 장애 영유아 통합 관련 내용별 지원 여부: 기관장(중복응답)
단위: %(응답수)

구분	교사 인건비	교재 교구비	기타	보조 인력	기관 운영비	간식비	시설 개선비	총 응답수
전체	34.1 (110)	29.7 (96)	27.2 (88)	19.8 (64)	19.2 (62)	13.0 (42)	2.2 (7)	100.0 (323)
기관유형								
유치원	8.6	21.5	43.5	30.6	28.0	15.1	2.7	100.0(186)
보육시설	68.6	40.9	5.1	5.1	7.3	10.2	1.5	100.0(137)
$\chi^2(df)$	126.5(1)***	14.2(1)***	58.8(1)***	32.4(1)***	21.7(1)***	1.6(1)	.6(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16.9	16.9	19.7	67.6	28.2	8.5	5.6	100.0(71)
사립유치원	3.5	24.3	58.3	7.8	27.8	19.1	.9	100.0(115)
국공립보육시설	55.2	70.1	4.5	7.5	3.0	6.0	3.0	100.0(67)
민간보육시설	81.4	12.9	5.7	2.9	11.4	14.3	-	100.0(70)
$\chi^2(df)$	140.5(3)***	69.1(3)***	91.7(3)***	131.6(3)***	23.3(3)***	8.1(3)*	6.7(3)	
지역								
대도시	30.8	41.9	26.2	22.7	15.7	16.9	2.9	100.0(172)
중소도시	39.5	15.1	30.3	11.8	23.5	10.9	.8	100.0(119)
읍면지역	31.3	18.8	21.9	34.4	21.9	-	3.1	100.0(32)
$\chi^2(df)$	2.5(2)	26.1	1.1(2)	10.0(2)**	2.9(2)	7.5(2)*	1.6(2)	

주: *p<.05, **p<.01, ***p<.001
a, b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장애 영유아 통합과 관련한 내용별 지원 금액 및 인원은 <표 IV-1-42>와 같다.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는 기관의 교사인건비는 평균 월 1,522천원, 시설개선비 연 2,514천원, 기관운영비 월 570천원, 교재교구비 월 395천원, 간식비 월 108천원, 기타 373천원이었고, 보조인력 지원은 평균 1.45명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 기관·설립유형,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 기관운영비 지원 금액은 보육시설이 유치원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교사인건비 지원 금액은 국공립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보다 많았고, 기관운영비 지원 금액은 민간보육시설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많았다. 교재교구비 지원 금액은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교사인건비 지원 금액은 대도시가 읍면지역보다 많았고, 교재교구비 지원 금액은 읍면지역이 대도시에 비해 많았다.

〈표 IV-1-42〉 장애 통합 관련 지원 금액 및 인원: 기관장

단위: 천원, 명

구분	시설 개선비 (SD)	교사 인건비 (SD)	기관 운영비 (SD)	교재 교구비 (SD)	기타 (SD)	간식비 (SD)	보조 인력 (SD)
전체	2,514 (821.4)	1,522 (1473.4)	570 (1196.5)	395 (914.0)	373 (511.4)	108 (317.2)	1.45 (1.1)
기관유형							
유치원	2,440 (971.1)	1,621 (1675.8)	421 (546.0)	598 (1225.2)	381 (527.2)	55 (75.7)	1.39 (1.1)
보육시설	2,700 (424.3)	1,505 (1445.5)	1,344 (2687.1)	250 (572.1)	277 (273.0)	215 (535.8)	2.00 (1.2)
<i>t</i>	.4	-.3	2.3*	-1.9	-.5	1.6	1.4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2,550 (1084.7)	2,008 (1771.6)	582 (801.9)	1,330 ^a (1853.5)	481 (894.5)	133 (144.2)	1.44 (1.2)
사립유치원	2,000 (na)	460 (367.1)	321 ^a (263.6)	284 ^b (654.5)	360 (420.4)	34 (14.8)	1.11 (.3)
국공립보육시설	2,700 (424.3)	2,023 ^a (2082.0)	200 (0.0)	257 ^b (576.3)	154 (246.4)	32 (26.1)	2.40 (1.1)
민간보육시설	-	1,170 ^b (626.0)	1,630 ^b (2969.2)	213 ^b (520.8)	369 (347.7)	288 (627.3)	1.00 (0.0)
<i>F</i>	.2	3.9*	2.9*	5.5**	.4	1.6	1.6
지역							
대도시	2,820 (756.3)	1,932 ^a (1940.3)	599 (724.5)	263 ^a (620.9)	389 (519.2)	69 (120.3)	1.56 (1.3)
중소도시	2,000 (na)	1155 ^b (684.2)	616 (1642.7)	593 (993.1)	325 (473.2)	197 (545.6)	1.36 (.8)
읍면지역	1,500 (na)	1,075 (482.3)	279 (157.5)	1,385 ^b (2340.5)	516 (685.2)	-	1.18 (.4)
<i>F</i>	1.5	4.2*	.2	5.1**	.5	1.5	.6

주: *p < .05, **p < .01, ***p < .001

a, b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에 관련해 교사가 받는 혜택 여부에 대한 교사의 응답은 다음 <표 IV-1-43>과 같다. 전체적으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보육 관련 혜택이 없다는 응답이 67.8%로 있다는 응답 32.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1)=36.9$, $p<.001$), 기관·설립유형($\chi^2(3)=96.6$, $p<.001$), 지역($\chi^2(2)=9.6$,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보육시설이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보육 관련 혜택이 있다는 응답이 41.3%로 유치원의 23.2%보다 높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는 민간보육시설이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보육 관련 혜택이 있다는 응답이 41.8%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8.8%로 가장 낮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가 혜택이 있다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았고, 읍면지역이 21.2%로 가장 낮았다.

〈표 IV-1-43〉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보육 관련 혜택 여부: 교사

단위: %(응답수)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32.2(318)	67.8(670)	100.0(988)
기관유형			
유치원	23.2	76.8	100.0(499)
보육시설	41.3	58.7	100.0(489)
$\chi^2(df) = 36.9(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41.4	58.6	100.0(222)
사립유치원	8.8	91.2	100.0(274)
국공립보육시설	41.2	58.8	100.0(267)
민간보육시설	41.8	58.2	100.0(220)
$\chi^2(df) = 96.6(3)^{***}$			
지역			
대도시	32.4	67.6	100.0(494)
중소도시	35.9	64.1	100.0(362)
읍면지역	21.2	78.8	100.0(132)
$\chi^2(df) = 9.6(2)^{**}$			

주: ** p < .01, *** p < .001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관련 내용별 혜택 여부에 대한 응답은 <표 IV-1-44>와 같다. 전체적으로 혜택 내용은 특별수당이 5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보조인력 지원 20.0%, 기타 11.0%,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소 8.1%, 공동업무 경감 5.2% 순이었다. 기타 응답에는 가산점, 배울 수 있는 계기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4)=74.7,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 특별수당,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소, 공동업무 경감의 비율은 보육시설이 각각 69.4%, 9.7%, 7.1%로 유치원 32.5%, 5.3%, 1.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보조인력 지원은 유치원이 40.4%로 보육시설 8.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IV-1-44〉 장애 영유아 통합 관련 내용별 혜택 여부: 교사

단위: %(응답수)

구분	특별 수당	보조인력 지원	기타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소	공동업무 경감	계
전체	55.8(173)	20.0(62)	11.0(34)	8.1(25)	5.2(16)	100.0(310)
기관유형						
유치원	32.5	40.4	20.2	5.3	1.8	100.0(114)
보육시설	69.4	8.2	5.6	9.7	7.1	100.0(196)
$\chi^2(df) = 74.7(4)^{***}$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37.4	34.1	22.0	5.5	1.1	100.0(91)
사립유치원	13.0	65.2	13.0	4.3	4.3	100.0(23)
국공립보육시설	72.2	8.3	5.6	9.3	4.6	100.0(108)
민간보육시설	65.9	8.0	5.7	10.2	10.2	100.0(88)
$\chi^2(df) = na$						
지역						
대도시	56.7	22.3	10.8	7.6	2.5	100.0(157)
중소도시	60.0	16.0	8.8	8.8	6.4	100.0(125)
읍면지역	32.1	25.0	21.4	7.1	14.3	100.0(28)
$\chi^2(df) = 15.4(8)$						

주: *** p < .001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나) 사례 조사

(1) 유치원 사례

S 유치원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특수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100% 지원받고 있으며, 그 밖에 교재교구 등 특수학급 운영비로 연 300만원, 특수 Edu-Care 학급 운영비로 연 200만원, 급간식비와 현장학습비 등으로 장애 영유아 1인당 월 21,000원을 지원받고 있었다. 또한 시설개선 등 연초에 개선내용을 신청하면 거의 수용이 된다. 따라서 장애 유아 통합교육을 하는데 있어 예산상의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2) 보육시설 사례

A 보육시설은 통합지원교사 인건비의 80%를 지원받고 있으며, 서울시의 교재교구 지원 사업으로 장애아 1인당 월 21,000원을 지원받고 있고, 사랑의 열매에서의 사소통 대체기구 등을 지원받았다. 이 밖에 최근 여성가족부와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아 보육 도우미 2명을 지원받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은 어렵다고 한다.

2) 현장의 어려움

가) 설문조사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어려운 점에 대한 기관장의 응답은 <표 IV-1-45>와 같다. 전체적으로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어려운 점은 인적자원 관리가 2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문제행동 지도 20.0%, 물리적 환경 부족 10.1%, 프로그램 운영 6.9%, 기타 2.6%, 부모와의 관계 2.3%, 재정 1.9% 순이었다. 기타 응답에는 공문처리, 시간 확보, 교사 대 아동 비율, 야외활동, 일반아에 대한 부정적 영향,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6) = 23.5, p < .01$), 기관·설립유형($\chi^2(18) = 43.5, p < .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 유치원은 문제행동 지도가 어렵다는 응답이 36.3%로 가장 높았던 반면, 보육시설은 인적자원관리가 어렵다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은 문제행동 지도, 프로그램 운영, 기타, 재정에서 어렵다는 응답이 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시설은 인적자원관리, 물리적 환경 부족, 부모와의 관계가 어렵다는 응답이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인적자원관리가 어렵다는 응답은 민간보육시설이 45.6%로 가장 높고 국공립유치원이 16.3%로 가장 낮은 반면, 프로그램운영이 어렵다는 응답은 국공립유치원이 16.3%로 가장 높고, 민간보육시설이 5.9%로 가장 낮았다. 문제행동 지도가 어렵다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36.8%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17.2%로 가장 낮았다. 물리적 환경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민간보육시설이 25.0%로 가장 높고 사립유치원이 11.4%로 가장 낮은 반면, 재정이 어렵다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4.4%로 가장 높고, 민간보육시설이 0%로 가장 낮았다. 부모와의 관계가 어렵다는 응답은 국공립유치원이 5.4%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2.6%로 가장 낮았다.

〈표 IV-1-45〉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어려운 점: 기관장

단위: %(응답수)

구분	인적 자원 관리	문제 행동 지도	물리적 환경 부족	프로 그램 운영	기타	부모 와의 관계	재정	계
전체	20.7 (143)	20.0 (138)	10.1 (70)	6.9 (48)	2.6 (18)	2.3 (16)	1.9 (13)	100.0 (446)
기관유형								
유치원	27.8	36.3	13.4	10.9	4.4	3.4	3.8	100.0(320)
보육시설	42.9	17.5	21.4	10.3	3.2	17.5	0.8	100.0(126)
$\chi^2(df) = 23.5(6)**$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16.3	34.8	18.5	16.3	6.5	5.4	2.2	100.0(92)
사립유치원	32.5	36.8	11.4	8.8	3.5	2.6	4.4	100.0(228)
국공립보육시설	39.7	17.2	17.2	15.5	3.4	5.2	1.7	100.0(58)
민간보육시설	45.6	17.6	25.0	5.9	2.9	2.9	-	100.0(68)
$\chi^2(df) = 43.5(18)***$								
지역								
대도시	31.1	28.3	17.9	11.8	5.7	2.8	2.4	100.0(212)
중소도시	33.3	31.4	14.5	9.4	2.5	4.4	4.4	100.0(159)
읍면지역	32.0	37.3	12.0	10.7	2.7	4.0	1.3	100.0(75)
$\chi^2(df) = 9.0(12)$								

주: ** p < .01, *** p < .001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어려운 점에 대한 교사의 응답은 <표 IV-1-46>과 같다. 전체적으로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어려운 점은 전문가 지원 부재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는 응답이 31.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29.0%, 시설 및 교재교구 부족 14.7%, 기타 12.8%, 교사 간의 갈등 6.4%, 학부모와의 관계 5.4% 순이었다. 기타 응답에는 적절한 통합 프로그램의 부재, 교사의 지식 부족, 교육환경과 시간 부족,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 부재, 연수에 대한 부담, 업무처리 서류, 관리자의 인식 부족, 일반 유아의 인식 개선, 큰 어려움 없음 등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5)=33.5$, $p<.001$), 기관·설립유형($\chi^2(15)=63.3$, $p<.001$), 지역($\chi^2(10)=19.4$,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 유치원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는 응답이 33.7%로 가장 높았으며, 보육시설은 전문가 지원 부재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32.7%로 가장 높았다. 기타를 제외한 시설 및 교재교구 부족, 교

사 간 갈등,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렵다는 응답의 비율도 보육시설이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전문가 지원 부재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36.1%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24.1%로 가장 낮았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는 응답은 국공립유치원이 36.1%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23.4%로 가장 낮았던 반면, 학부모와의 관계가 어렵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7.9%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2.8%로 가장 낮았다. 시설 및 교재교구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민간보육시설이 21.1%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10.9%로 가장 낮았던 반면, 기타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16.9%로 가장 높았고, 민간보육시설이 8.7%로 가장 낮았다. 교사 간 갈등이 가장 어렵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10.3%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0.8%로 가장 낮았다.

지역에 따라 전문가 부재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는 응답은 읍면지역이 각각 36.9%, 36.2%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는 각각 30.8%, 26.8%로 가장 낮았다. 반면에 시설 및 교재교구 부족,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렵다는 응답은 중소도시가 각각 16.5%, 6.6%로 가장 높았고, 읍면지역은 각각 12.3%, 4.6%로 가장 낮았다. 교사간의 갈등이 가장 어렵다는 응답은 대도시가 8.6%로 가장 높았고, 읍면지역이 3.1%로 가장 낮았다.

〈표 IV-1-46〉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어려운 점: 교사

단위: %(응답수)

구분	전문가 지원 부재	인력부족	시설, 교재교구 부족	기타	교사 간 갈등	학부모와의 관계	계
전체	31.7 (303)	29.0 (277)	14.7 (140)	12.8 (122)	6.4 (61)	5.4 (52)	100.0 (955)
기관유형							
유치원	30.8	33.7	12.2	15.7	4.5	3.1	100.0(484)
보육시설	32.7	24.2	17.2	9.8	8.3	7.9	100.0(471)
	$\chi^2(df = 33.5(5))^{***}$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24.1	36.1	13.4	14.4	9.3	2.8	100.0(216)
사립유치원	36.1	32.0	10.9	16.9	0.8	3.4	100.0(266)
국공립보육시설	34.1	23.4	13.5	10.7	10.3	7.9	100.0(252)
민간보육시설	31.2	25.2	21.1	8.7	6.0	7.8	100.0(218)
	$\chi^2(df = 63.3(15))^{***}$						

구분	전문가 지원 부재	인력부족	시설, 교재교구 부족	기타	교사 간 갈등	학부모와의 관계	계
지역							
대도시	31.0	28.7	13.9	12.9	8.6	4.9	100.0(474)
중소도시	30.8	26.8	16.5	14.8	4.6	6.6	100.0(351)
읍면지역	36.9	36.2	12.3	6.9	3.1	4.6	100.0(130)
			$\chi^2(df=10) = 19.4$				

주: *p < .05, ***p < .001

자녀를 통합기관에 보내면서 어려운 점에 대한 학부모의 응답은 <표 IV-1-47>과 같다. 전체적으로 자녀를 통합기관에 보내면서 어려운 점으로 치료지원의 부재로 타 기관에서의 추가 치료가 어렵다는 응답이 4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업 참여의 어려움 25.1%, 일반부모의 인식, 태도 10.9%, 통학 8.9%, 기타 6.8%, 교사와의 관계 0.6% 순이었다. 기타 응답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교육시간이 짧음, 일반아들의 인식, 교육방법 부재, 전문적인 중재 부족, 중앙정부의 지원 부재, 시설부족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5)=26.6, p<.001$), 기관·설립유형($\chi^2(15)=47.5,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 치료지원의 부재로 타 기관에서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교사와의 관계, 통학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은 보육시설이 각각 50.4%, 0.9%, 11.8%로 유치원 각각 44.3%, 0.3, 5.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인력 부족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움, 일반부모의 인식과 태도로 인해 어렵다는 응답은 유치원이 각각 26.6%, 13.2%로 보육시설 각각 23.7%, 9.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치료지원의 부재로 타 기관에서 추가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어렵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공립유치원이 43.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력부족으로 수업 참여가 어렵다는 응답과 일반부모의 인식과 태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각각 27.3%, 1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공립보육시설이 각각 22.3%, 7.5%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통학이 어렵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14.7%로 가장 높고, 사립유치원이 2.1%로 가장 낮았다. 한편 교사와의 관계가 어렵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0.7%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은 하나도 없었다.

〈표 IV-1-47〉 자녀를 통합기관에 보내면서 어려운 점: 학부모

단위: %(응답수)

구분	치료지원 부재	인력부족 으로 참여 어려움	일반부모의 인식, 태도	통학	기타	교사와의 관계	계
전체	47.6(405)	25.1(213)	10.9(96)	8.9(76)	6.8(58)	0.6(5)	100.0(850)
기관유형							
유치원	44.3	26.6	13.2	5.6	9.9	0.3	100.0(394)
보육시설	50.4	23.7	9.0	11.8	4.2	0.9	100.0(456)
$\chi^2(df = 26.6(5)***$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43.4	25.0	10.3	12.5	8.8	-	100.0(136)
사립유치원	45.0	27.3	15.1	2.1	10.1	0.4	100.0(238)
국공립보육시설	51.4	22.3	7.5	14.7	3.4	0.7	100.0(292)
민간보육시설	49.2	25.4	13.1	6.2	6.2	-	100.0(130)
$\chi^2(df = 47.5(15)***$							
지역							
대도시	47.0	27.3	9.3	9.7	6.4	0.2	100.0(421)
중소도시	47.0	22.1	13.9	9.8	6.6	0.6	100.0(317)
읍면지역	51.8	25.0	8.9	3.6	8.9	1.8	100.0(112)
$\chi^2(df = 15.1(10)$							

주: *** p < .001

나) 사례 조사

(1) 유치원 사례

S 유치원의 원감은 통합교육을 하면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고 하였다. 특수교사는 학부모가 특수학급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학부모가 의뢰를 해 왔는데 정원이 찼을 경우 그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부모에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일반교사는 장애 유아를 통합하여 교육할 경우 한 학급에 유아 수가 너무 많으면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으며, 장애 유아의 발달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해당 유아에 대해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에 대해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2) 보육시설 사례

A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수교사의 처우 때문에 특수교사를 고용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통합지원교사는 연구하고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편의

시설이 안 되어 있어 장애 영유아를 데리고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원아 수가 너무 많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였다. 일반교사는 장시간 보육을 하는 것이 어려우며, 지역마다 보수가 달라 이에 대한 갈등이 있고, 부모의 요구 중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2.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만족도 및 요구 분석

가. 인적 환경

1) 인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

기관장의 직원확보에 대한 만족 여부는 <표 IV-2-1>과 같다. 전체적으로 직원 확보에 불만족 한다는 응답이 54.6%로 만족한다는 응답 45.4%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만족 여부는 기관유형($\chi^2(1)=19.9$, $p<.001$), 기관·설립유형($\chi^2(3)=21.6$, $p<.001$), 지역($\chi^2(2)=9.0$,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유치원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52.4%로 보육시설 34.6%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유치원이 만족한다는 응답이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민간보육시설이 32.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가 만족한다는 응답이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읍면지역이 3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2-1> 직원 확보에 대한 만족 여부

단위: %(기관수)

구분	만족	불만족	계
전체	45.4(297)	54.6(357)	100.0(654)
기관유형			
유치원	52.4	47.6	100.0(397)
보육시설	34.6	65.4	100.0(257)
$\chi^2(df) = 19.9(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56.1	43.9	100.0(132)
사립유치원	50.6	49.4	100.0(265)
국공립보육시설	37.2	62.8	100.0(129)
민간보육시설	32.0	68.0	100.0(128)
$\chi^2(df) = 21.6(3)^{***}$			

구분	만족	불만족	계
지역			
대도시	51.4	48.6	100.0(313)
중소도시	40.7	59.3	100.0(243)
읍면지역	37.8	62.2	100.0(98)
$\chi^2(df = 9.0(2)^*$			

주: *p < .05, ***p < .001

고용하기 어려운 자격 소지자는 <표 IV-2-2>와 같다. 전체적으로 특수교사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6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치료사 16.5%, 일반교사 14.7%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3)=19.5, p<.001$), 기관·설립유형($\chi^2(9)=116.6, p<.001$), 지역($\chi^2(6)=27.3,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보육시설이 특수교사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72.0%로 유치원 58.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치료사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유치원이 21.5%로 보육시설 10.9%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이 특수교사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8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공립유치원이 35.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치료사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국공립유치원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립유치원이 9.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일반교사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민간보육시설이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공립유치원은 하나도 없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특수교사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대도시가 7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읍면지역이 47.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일반교사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읍면지역이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도시가 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가장 고용하기 어려운 자격소지자는 특수교사이나, 기관·설립유형이나 지역에 따라서는 일반교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2-2〉 고용하기 어려운 자격 소지자

단위: %(기관수)

구분	특수교사	치료사	일반교사	기타	계
전체	64.8(243)	16.5(62)	14.7(55)	4.0(15)	100.0(375)
기관유형					
유치원	58.5	21.5	13.0	7.0	100.0(200)
보육시설	72.0	10.9	16.6	0.6	100.0(175)
	$\chi^2(df) = 19.5(3)^{***}$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35.9	46.9	-	17.2	100.0(64)
사립유치원	69.1	9.6	19.1	2.2	100.0(136)
국공립보육시설	83.9	10.3	5.7	-	100.0(87)
민간보육시설	60.2	11.4	27.3	1.1	100.0(88)
	$\chi^2(df) = 116.6(9)^{***}$				
지역					
대도시	73.4	16.9	5.8	3.9	100.0(154)
중소도시	63.3	17.1	17.1	2.5	100.0(158)
읍면지역	47.6	14.3	30.2	7.9	100.0(63)
	$\chi^2(df) = 27.3(6)^{***}$				

주: *** $p < .001$ 반올림을 하여 퍼센트 합계가 99.9%나 100.1%인 경우가 있음

자격을 가진 직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는 <표 IV-2-3>과 같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낮은 임금 30.3%, 인원 부족 16.3%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5)=109.8, p<.001$), 지역($\chi^2(10)=53.4,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예산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유치원이 61.2%로 보육시설 11.1%보다 5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낮은 임금 때문이라는 응답은 보육시설이 49.7%로 유치원 14.4%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인원 부족, 자질 부족, 구직자 부족, 위화감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은 모두 보육시설이 유치원에 비해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예산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은 중소도시가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도시가 3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낮은 임금 때문이라는 응답은 대도시가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읍면지역이 2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구직자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은 읍면지역이 19.7%로 높게 나타난 반면 대도시는 하나도 없었다. 이상의 결과는 자격을 가진 직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는 예산 부족과 낮은 임금이 가장 큰 이유이긴 하나 지역에 따라서는 구직자 부족이 다른 큰 원인이 되기도 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표 IV-2-3〉 자격 소지 직원 확보가 어려운 이유

단위: %(기관수)

구분	예산 부족	낮은 임금	인원 부족	자질 부족	구직자 부족	위화감	계
전체	38.7(147)	30.3(115)	16.3(62)	6.6(25)	5.0(19)	3.2(12)	100.0(380)
기관유형							
유치원	61.2	14.4	14.4	3.3	3.8	2.9	100.0(209)
보육시설	11.1	49.7	18.7	10.5	6.4	3.5	100.0(171)
$\chi^2(df) = 109.8(5)^{***}$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59.4	15.6	15.6	1.6	1.6	6.3	100.0(64)
사립유치원	62.1	13.8	13.8	4.1	4.8	1.4	100.0(145)
국공립보육시설	10.6	50.6	21.2	10.6	1.2	5.9	100.0(85)
민간보육시설	11.6	48.8	16.3	10.5	11.6	1.2	100.0(86)
$\chi^2(df) = na$							
지역							
대도시	32.7	39.5	15.4	9.3	-	3.1	100.0(162)
중소도시	46.1	23.7	18.4	5.3	3.9	2.6	100.0(152)
읍면지역	36.4	22.7	13.6	3.0	19.7	4.5	100.0(66)
$\chi^2(df) = 53.4(10)^{**}$							

주: *** p < .001

반올림을 하여 퍼센트 합계가 99.9%나 100.1%인 경우가 있음

학부모의 인적자원에 대한 만족도는 <표 IV-2-4>와 같다. 전체적으로 원장의 자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92.3%로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은 보통 7.4%, 불만족 0.3%였다.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93.4%로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은 보통 6.3%, 불만족 0.2%였다. 학부모의 인적자원에 대한 만족도는 기관유형, 기관·설립유형,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거나 빈도수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았다.

〈표 IV-2-4〉 인적자원에 대한 만족도: 학부모

단위: %(응답수)

구분	원장자질			계	교사자질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92.3(825)	7.4(66)	0.3(3)	100.0(894)	93.4(839)	6.3(57)	0.2(2)	100.0(898)
기관유형								
유치원	92.3	7.2	0.4	100.0(405)	93.6	6.1	0.0	100.0(409)
보육시설	92.2	7.6	0.2	100.0(489)	93.0	6.5	0.4	100.0(489)
$\chi^2(df) = .6(2)$				$\chi^2(df) = 1.8(2)$				

구분	원장자질			계	교사자질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88.1	11.2	0.7	100.0(134)	94.9	5.1	0.0	100.0(136)
사립유치원	94.4	5.2	0.4	100.0(250)	93.3	6.7	0.0	100.0(252)
국공립보육시설	92.9	6.7	0.3	100.0(313)	94.6	5.1	0.3	100.0(313)
민간보육시설	90.6	9.4	-	100.0(139)	89.9	9.4	0.7	100.0(139)
	$\chi^2(df) = na$				$\chi^2(df) = 5.7(6)$			
지역								
대도시	91.6	7.8	0.6	100.0(448)	93.5	6.3	0.2	100.0(448)
중소도시	93.1	7.0	-	100.0(330)	92.7	6.9	0.3	100.0(331)
읍면지역	93.1	6.9	-	100.0(116)	95.0	5.0	0.0	100.0(119)
	$\chi^2(df) = na$				$\chi^2(df) = .9(4)$			

*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2) 인적 환경에 대한 요구

가) 설문조사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표 IV-2-5>와 같다. 전체적으로 교육활동 선정 및 계획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생활지도 23.5%, 수업진행 14.9%, 부모상담 5.7%, 수업준비 3.6%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5)=13.5$, $p<.05$)과 기관·설립유형($\chi^2(15)=34.4$,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교육활동 선정 및 계획, 생활지도, 수업준비에서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유치원은 수업진행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더 느꼈고, 보육시설은 부모 상담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었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는 교육활동 선정 및 계획과 수업준비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이, 생활지도에 있어서는 사립유치원이, 부모상담에는 민간보육시설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IV-2-5〉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

단위: %(응답수)

구분	교육활동 선정/계획	생활지도	수업진행	부모상담	수업준비	기타	계
전체	51.0(511)	23.5(235)	14.9(149)	5.7(57)	3.6(36)	1.4(14)	100.0(1002)
기관유형							
유치원	50.3	23.0	18.0	3.8	3.6	1.4	100.0(505)
보육시설	51.7	23.9	11.7	7.6	3.6	1.4	100.0(497)
$\chi^2(df) = 13.6(5)^*$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55.3	17.7	20.8	1.8	4.0	0.4	100.0(226)
사립유치원	46.0	27.2	15.9	5.4	3.3	2.2	100.0(276)
국공립보육시설	54.7	24.9	8.3	7.5	3.4	1.1	100.0(265)
민간보육시설	48.3	22.6	15.7	7.8	3.9	1.7	100.0(230)
$\chi^2(df) = 34.4(15)^{**}$							
지역							
대도시	53.1	23.0	13.0	6.2	3.0	1.8	100.0(501)
중소도시	48.8	24.3	15.8	6.0	4.4	0.8	100.0(367)
읍면지역	49.3	23.1	19.4	3.	3.7	1.5	100.0(134)
$\chi^2(df) = 8.9(10)$							

주: * p < .05, ** p < .01

일반교사들이 장애 영유아에 대해 특수교사의 자문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표 IV-2-6>과 같다. 전체적으로 문제행동 중재방법에 자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장애아 특성 파악 24.2%, 교수법 20.2%, 기본생활 지도방법 13.8%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설립유형($\chi^2(9)=19.8,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은 문제행동 중재 방법, 장애아 특성 파악, 교수법 에서 자문을 필요로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립유치원은 부모 상담 및 부모교육, 국공립보육시설은 활동 계획 및 평가, 민간보육시설은 기본생활 지도방법에서 자문을 필요로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2-6〉 특수교사의 자문이 필요한 영역: 일반교사

단위: %(응답수)

구분	문제행동 중재방법	장애아 특성파악	교수법	기본생활 지도방법	활동 계획평가	부모상담/ 부모교육	기타	계
전체	25.7 (327)	24.2 (308)	20.2 (257)	13.8 (176)	9.9 (126)	6.2 (79)	0.1 (1)	100.0 (1274)
기관유형								
유치원	25.0	23.0	18.8	17.3	10.5	5.4	-	100.0(496)
보육시설	26.2	24.9	21.1	11.6	9.5	6.7	0.1	100.0(778)
$\chi^2(df) = 22.2(3)$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27.0	29.1	21.6	8.3	11.2	2.8	-	100.0(278)
사립유치원	25.7	22.3	20.6	13.6	8.7	8.9	0.2	100.0(494)
국공립보육시설	25.0	22.9	18.3	16.3	12.1	5.4	-	100.0(240)
민간보육시설	24.8	22.8	19.3	18.5	9.1	5.5	-	100.0(254)
$\chi^2(df) = 19.8(9)$								
지역								
대도시	25.3	24.6	18.6	13.0	12.0	6.5	-	100.0(598)
중소도시	25.5	23.9	20.4	15.0	8.9	6.3	-	100.0(461)
읍면지역	27.0	23.7	24.2	13.5	6.0	5.1	0.5	100.0(215)
$\chi^2(df) = 1.6(6)$								

주: *p < .05

특수교사들이 일반교사의 자문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표 IV-2-7>과 같다. 전체적으로 통합학급 내 장애아의 또래관계에서 자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일반아 교수법 19.3%, 일반아 특성파악 15.0%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설립유형($\chi^2(9)=19.9$,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은 통합학급 내 장애아의 또래관계에서 일반교사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사립유치원은 일반아 특성파악, 민간보육시설은 일반아교수법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7> 일반교사의 자문이 필요한 영역: 특수교사

단위: %(응답수)

구분	장애아의 도래관계	일반아 특성파악	일반아 교수법	기타	계
전체	61.5(217)	15.0(53)	19.3(68)	4.2(15)	100.0(353)
기관유형					
유치원	64.3	17.0	15.2	3.6	100.0(112)
보육시설	60.2	14.1	21.2	4.6	100.0(241)
$\chi^2(df = 2.2(3))$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70.2	9.5	15.5	4.8	100.0(84)
사립유치원	46.4	39.3	14.3	-	100.0(28)
국공립보육시설	63.4	13.4	19.7	3.5	100.0(142)
민간보육시설	56.1	14.3	23.5	6.1	100.0(98)
$\chi^2(df = 19.9(9))$					
지역					
대도시	60.4	15.6	19.3	4.7	100.0(192)
중소도시	62.4	14.3	18.8	4.5	100.0(133)
읍면지역	64.3	14.3	21.4	-	100.0(28)
$\chi^2(df = 1.6(6))$					

주: *p<.05

통합을 위해 중요한 교사교육 내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표 IV-2-8>과 같다. 전체적으로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개별화 교육이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장애아 교수방법 19.4%,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이해 15.3%, 특수교육의 이해 11.9%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1)=24.0, p<.001$)과 기관·설립유형($\chi^2(3)=111.7,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 유치원은 장애아 교수방법, 특수교육이해, 생활지도 방법, 장애아 진단 및 평가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보육시설은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이해, 통합을 위한 환경 관리, 부모 상담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은 장애아 교수방법,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이해, 특수교육 이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사립유치원은 생활지도방법과 장애아 진단 및 평가, 국공립보육시설은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개별화교육계획,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이해, 부모상담, 민간보육시설은 통합을 위한 환경관리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8〉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위해 중요한 교사교육 내용

단위: %(응답수)

구분	개별화 교육	교수 방법	통합 이해	특수 교육 이해	생활 지도	진단 평가	통합 환경	부모 상담	기타	계
전체	28.0 (527)	19.4 (366)	15.3 (289)	11.9 (225)	10.2 (192)	7.8 (147)	4.6 (87)	2.2 (42)	0.5 (10)	100.0 (1885)
기관유형										
유치원	23.8	20.9	14.3	15.2	10.7	9.6	3.6	1.6	0.3	100.0(1,876)
보육시설	32.1	18.0	16.4	8.7	9.7	6.0	5.6	2.8	0.7	100.0(1,894)
	$\chi^2(df) = 24.0(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23	24.5	16.9	17.7	9.0	5.7	1.7	1.0	0.5	100.0(826)
사립유치원	24.4	18.3	12.1	13.1	12.1	12.5	5.2	2.1	0.2	100.0(1,038)
국공립보육시설	32.7	17.8	16.9	7.3	11.4	4.3	5.3	3.1	1.2	100.0(1,020)
민간보육시설	31.6	18.0	15.7	10.4	7.9	7.9	5.8	2.5	0.2	100.0(866)
	$\chi^2(df) = 111.7(3)^{***}$									
지역										
대도시	263.0	20.7	17.1	11.8	9.6	7.9	3.6	2.7	0.6	100.0(940)
중소도시	29.6	17.3	13.6	11.9	11.6	7.5	6.1	2.0	0.3	100.0(689)
읍면지역	30.8	20.3	13.3	12.5	8.6	8.2	4.3	1.1	0.8	100.0(256)
	$\chi^2(df) = 5.7(2)$									

주: *** p < .001

통합 담당교사의 가장 중요한 요건에 대한 부모의 응답은 <표 IV-2-9>와 같다. 전체적으로 교사의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73.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의사소통능력 15.2%, 교사의 전공 10.1% 순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교사의 장애에 대한 지식, 유아들을 대할 때의 태도와 다룰 줄 아는 기술과 책임감, 다양한 장애에 대한 인식으로 유아 수용, 아이의 긍정적인 면을 보는 시각, 장애 유형별 대처방법 습득, 적절한 중재에 대한 이해와 노력 등이 있었다. 통합 담당교사의 가장 중요한 요건에 대한 부모의 응답은 기관유형, 기관·설립유형,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V-2-9〉 통합 담당교사의 가장 중요한 요건: 학부모

단위: %(응답수)

구분	인성	의사소통능력	전공	기타	계
전체	73.2(649)	15.2(135)	10.1(90)	1.5(13)	100.0(887)
기관유형					
유치원	74.7	13.0	11.1	1.2	100.0(407)
보육시설	71.9	17.1	9.4	1.7	100.0(480)
$\chi^2(df) = 3.5(3)$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69.3	15.3	14.6	0.7	100.0(137)
사립유치원	77.1	11.6	9.6	1.6	100.0(249)
국공립보육시설	72.3	15.2	10.3	2.3	100.0(310)
민간보육시설	71.9	20.7	6.7	0.7	100.0(135)
$\chi^2(df) = 12.2(9)$					
지역					
대도시	76.4	14.2	7.9	1.6	100.0(444)
중소도시	71.8	14.7	11.7	1.8	100.0(326)
읍면지역	65.0	20.5	14.5	-	100.0(117)
$\chi^2(df) = 11.6(6)$					

나) 사례 조사

인적 환경이 풍부하다는 것은 곧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이 질적으로 우수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가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례조사 대상인 S 유치원과 A 어린이집에는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을 위한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이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과를 진행하는데 있어 인력이 충분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특히 보육시설에는 일반교사와 통합지원교사 외에 치료사 인력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지치고 힘들어 보였다. 인적환경에 대한 사례조사 기관의 원감, 시설장, 교사들의 요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근무시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특히 보육교사의 경우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하루 종일 격무에 시달리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종일반교사를 채용하는 등 추가 인력배치 방법 등을 강구하여 교사들이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또한 토요일에 자유롭게 연수나 정보 획득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기를 원하는 교사도 있었다. 구 행사와 세미나 참석 등을 하다보면 1달에 1회 정도만 쉴 수 있어서 사실

상 자유롭게 보고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병설유치원인 S 유치원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8시간 근무 체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는 별로 없었으나, 사립유치원에서는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이런 요구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교사 보수를 더 지원해야 한다. 유치원이건 보육시설이건 장애아를 담당하는 경우는 추가의 업무가 주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처우 개선비에 차이가 있어 교사보수의 지역차가 심하고 이는 곧 교사의 불만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 보수에 대한 지원은 우선 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에 대해 먼저 배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교사에 대한 처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병설유치원의 특수교사는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으나, 보육시설의 경우 지금의 처우와 상황으로는 특수교사자격을 가진 교사를 채용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고용한 교사도 기회만 있으면 떠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보육시설은 종일반이 기초로 하루 종일 영유아들과 지내는 고된 노동 강도에도 불구하고 처우는 학교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

셋째, 교사를 위한 실제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S 유치원의 특수교사는 그간 들었던 연수가 너무 이론적이라고 했다. 연수내용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어떻게 협력을 해서 교육해야 하는지 등 실제적이 되어야 하며, 방법 면에 있어서도 토론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했다. 또한 편견 해소를 위해 일반교사를 위한 특수교육이해 강좌가 있어야 하며, 보조원들도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넷째, 통합학급에는 보조인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S유치원의 일반교사는 이전 유치원에서 장애 유아가 있었음에도 특수학급이 없어 아무런 인적 지원을 받지 못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조건 하에서는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다섯째, 교사 대 영유아 비율에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보육시설 만 4세 M반의 경우 일반교사 1명과 통합지원교사 2명이 유아들을 담당하고 있으나, 통합지원교사 2명이 대소변 등 신변처리를 못하는 장애 유아를 각각 1명씩 돌보고 있을 경우 일반교사가 21명의 일반 유아와 4명의 장애 유아를 보고 있어야 할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대소변 등 신변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2명일 경우도 벽찰 경우가 있다고 한다. 교사들은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교사 대 영유아 비율에 융통성이 있었으면 하고 기대하면서 만 4세의 경우 이상적인 비율을 교사 2명, 일반아 15명, 장애아 2명으로 보았다. 유치원 만 5세 학급의 경우에도 장애아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일반 유아 수를 20명 정도로 줄여주기를 희망했다.

나. 물리적 환경

1)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표 IV-2-10>과 같다. 전체적으로 기관의 주변 환경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기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만족도 역시 만족한다는 응답이 7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기관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기관유형($\chi^2(2)=11.1, p<.01$)과 기관·설립유형($\chi^2(6)=18.1,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위한 주변 환경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유치원이 77.1%로 보육시설의 69.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시설은 보통이라는 응답과 불만족 한다는 응답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사립유치원이 79.5%로 가장 높았으며, 민간보육시설이 65.7%로 가장 낮았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민간보육시설이 29.2%로 가장 높았으며, 사립유치원이 18.9%로 가장 낮았다. 불만족 한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7.0%로 가장 높았으며, 사립유치원이 1.6%로 가장 낮았다.

<표 IV-2-10>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 학부모

단위: %(개소)

구분	주변 환경			계	시설 및 설비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72.8 (649)	22.5 (201)	4.7 (42)	100.0 (892)	72.1 (643)	23.8 (212)	4.1 (37)	100.0 (892)
기관유형								
유치원	77.1	20.5	2.5	100.0	74.2	21.4	4.4	100.0(407)
보육시설	69.2	24.2	6.6	100.0	70.3	25.8	3.9	100.0(485)
	$\chi^2(df) = 11.1(2)**$				$\chi^2(df) = 2.4(2)$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74.8	23.0	2.2	100.0	72.8	22.1	5.1	100.0(136)
사립유치원	79.5	18.9	1.6	100.0	76.1	20.3	3.6	100.0(251)
국공립보육시설	71.3	21.7	7.0	100.0	72.6	23.9	3.5	100.0(310)
민간보육시설	65.7	29.2	5.1	100.0	63.0	31.9	5.1	100.0(138)
	$\chi^2(df) = 18.1(6)**$				$\chi^2(df) = 8.5(6)$			
지역								
대도시	69.2	25.4	5.3	100.0	73.8	22.8	3.4	100.0(447)
중소도시	75.4	20.2	4.3	100.0	71.5	24.2	4.3	100.0(326)
읍면지역	78.8	17.8	3.4	100.0	67.2	26.1	6.7	100.0(119)
	$\chi^2(df) = 6.3(4)$				$\chi^2(df) = 3.6(4)$			

주: ** p < .01

2) 물리적 환경에 대한 요구

가) 설문조사

장애 영유아를 위하여 시급하게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은 <표 IV-2-11>과 같다. 전체적으로 장애 영유아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70.3%로 있다는 응답 29.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1)=43.4$, $p<.001$)과 기관·설립유형($\chi^2(3)=58.1$,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 영유아를 위하여 시급하게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가 있다고 답한 보육시설은 44.8%로 유치원의 20.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는 장애 영유아를 위하여 시급하게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공립보육시설이 47.9%로 가장 높았으며 사립유치원이 14.8%로 가장 낮았다.

〈표 IV-2-11〉 시급하게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여부: 기관장

단위: %(개소)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29.7(195)	70.3(462)	100.0(657)
기관유형			
유치원	20.5	79.5	100.0(409)
보육시설	44.8	55.2	100.0(248)
$\chi^2(df) = 43.4(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32.6	67.4	100.0(132)
사립유치원	14.8	85.2	100.0(277)
국공립보육시설	47.9	52.1	100.0(121)
민간보육시설	41.7	58.3	100.0(127)
$\chi^2(df) = 58.1(3)^{***}$			
지역			
대도시	31.5	68.5	100.0(311)
중소도시	27.8	72.2	100.0(245)
읍면지역	28.7	71.3	100.0(101)
$\chi^2(df) = 1.0(2)$			

주: *** $p < .001$

기관장에게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가 있을 경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술하도록 한 질문에 대한 1순위 응답은 다음과 같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장애 영유아 개별교육을 위한 공간이었다. 기관장들은 장애 영유아 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실, 치료실 등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그 다음은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 화장실 지지대, 경사로, 엘리베이터, 출입구 자동문, 특수 책상과 의자, 휠체어, 교실 등 문턱 제거 순이었다.

장애 유아를 위하여 시급하게 필요한 장비나 교재교구 여부에 대한 응답은 <표 IV-2-12>와 같다. 전체적으로 장애 유아를 위하여 시급하게 필요한 장비나 교재교구가 없다는 응답이 68.2%로 있다는 응답 31.8%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1)=4.5, p<.05$), 기관·설립유형($\chi^2(3)=57.8,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 보육시설이 장애 유아를 위하여 시급하게 필요한 장비나 교재교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1%로 유치원 28.7%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살펴보면, 장애 유아를 위하여 시급하게 필요한 장비나 교재교구가 있다는 응답은 국공립유치원이 46.0%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15.2%로 가장 낮았다.

<표 IV-2-12> 시급하게 필요한 장비나 교재교구 여부: 교사

단위: %(개소)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31.8(296)	68.2(636)	100.0(932)
기관유형			
유치원	28.7	71.3	100.0(488)
보육시설	35.1	64.9	100.0(444)
$\chi^2(df = 4.5(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46.0	54.0	100.0(215)
사립유치원	15.2	84.8	100.0(270)
국공립보육시설	37.2	62.8	100.0(242)
민간보육시설	32.5	67.5	100.0(200)
$\chi^2(df = 57.8(3)^{***}$			
지역			
대도시	32.4	67.6	100.0(466)
중소도시	30.0	70.0	100.0(343)
읍면지역	34.1	65.9	100.0(123)
$\chi^2(df = 0.9(2)$			

주: *p < .05, ***p < .001

교사에게 필요한 장비나 교재교구가 있을 경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술하도록 한 질문의 1순위 응답은 다음과 같다.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장애 영유아의 특성에 맞는 교재교구였으며, 그 다음은 안전 바 등 이동시 안전시설, 휠체어 등 이동기구, 의사소통기구, 특수 제작된 책상과 의자, 진단 및 평가 검사도구 순이었다. 그 밖에 쓰거나 그리기 보조도구, 특수가위, 워커, 터치스크린 등이 있었다.

부모에게 자녀를 위해 기관에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설이나 장비, 교재교구는 무엇인지에 대해 기술하도록 한 질문의 1순위 응답은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치료에 도움이 되는 교재교구였으며, 그 다음은 각종 치료실 및 장비, 대근육 활동 공간 및 도구, 장애 영유아 특성에 맞는 편의시설, 놀이감 및 놀이 시설, 안전장비, 휠체어 순이었다. 그밖에 화장실, 엘리베이터, 전용 책상과 의자, 통학버스, 와우 FM 수신기 등이 있었다.

나) 사례조사

S 유치원과 A 어린이집은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잘 하는 곳으로 알려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를 위한 편의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 아니다. 다만,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리적 환경에 대한 사례조사 기관의 원감, 시설장, 교사들의 요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영유아가 있을 경우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 A 어린이집의 경우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어 지체장애아 이동시 전적으로 교사의 손을 빌린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실제로 지체장애아를 보육하다가 허리가 상해 사직한 교사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장애아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 유형에 따라 적절한 편의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아를 위한 교재교구를 지원해야 한다. S 유치원이나 A 보육시설 모두 교사들이 장애아를 위한 교재교구를 제작하거나 그들을 위해 교육 자료를 수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교사의 노력만으로 충당하기에는 교사의 업무 부담이 크고 충분하지도 않다. 따라서 장애아 통합을 위한 교재교구는 그 유형이 장애이해를 위한 것이건 장애아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건 현장에서 금방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거나 그러한 교재교구를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은 교사들의 업무를 줄여줌과 동시에 장애 영유아들의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프로그램 운영

1)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의 내용별 만족도는 <표 IV-2-13>, <표 IV-2-14>와 같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내용별로 보면 건강·안전·영양 관리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8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 78.4%, 일반아들의 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 73.4%,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 70.5%, 프로그램 참여 정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 65.0%, 치료 지원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 42.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있었다.

건강, 안전, 영양에 대한 만족도는 기관·설립유형($\chi^2(6)=19.0$,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건강·안전·영양 관리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91.5%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79.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기관유형($\chi^2(2)=6.8$, $p<.05$)과 기관·설립유형($\chi^2(6)=23.9$,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프로그램 참여 정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기관유형에 상관없이 비슷했으나, 불만족 한다는 응답은 유치원이 5.8%로 보육시설 2.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프로그램 참여 정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사립유치원과 국공립보육시설이 똑같이 69.8%로 가장 높았고, 민간보육시설이 56.1%로 가장 낮았으며,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국공립유치원이 6.8%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1.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치료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chi^2(4)=12.1$,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치료지원에 만족하거나 보통이라는 응답이 높아지고 불만족 한다는 응답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일반아들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는 기관·설립유형($\chi^2(6)=21.1$,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일반아들의 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77.5%로 가장 높았고, 민간보육시설이 64.7%로 가장 낮았다.

〈표 IV-2-13〉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별 만족도 I: 학부모

단위: %(응답수)

구분	건강, 안전, 영양			계	프로그램 운영시간			계	일반아들의 태도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85.9 (758)	13.6 (120)	.5 (4)	100.0 (882)	78.4 (695)	18.7 (166)	2.9 (26)	100.0 (887)	73.4 (644)	24.9 (218)	1.7 (15)	100.0 (877)
기관유형												
유치원	83.7	16.1	.2	100.0 (404)	79.1	17.7	3.2	100.0 (406)	72.7	26.3	0.9	100.0 (403)
보육시설	87.9	11.5	.6	100.0 (478)	77.8	19.5	2.7	100.0 (481)	74.1	23.6	2.3	100.0 (474)
	4.5(2)				$\chi^2(df) = .6(2)$.6(2)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79.3	20.0	.7	100.0 (135)	74.3	20.6	5.1	100.0 (136)	67.2	32.1	0.7	100.0 (134)
사립유치원	85.5	14.5	-	100.0 (248)	81.1	16.5	2.4	100.0 (249)	76.2	23.0	0.8	100.0 (248)
국공립보육시설	91.5	7.8	.7	100.0 (307)	79.2	18.5	2.3	100.0 (308)	77.5	21.1	1.3	100.0 (303)
민간보육시설	80.0	19.3	.7	100.0 (135)	73.7	22.6	3.6	100.0 (137)	64.7	30.1	5.1	100.0 (136)
	19.0(6)**				$\chi^2(df) = 6.1(6)$				21.1(6)**			
지역												
대도시	87.6	12.2	.2	100.0 (443)	80.0	18.0	2.0	100.0 (444)	77.0	21.7	1.4	100.0 (443)
중소도시	85.0	14.3	.6	100.0 (321)	75.7	19.9	4.3	100.0 (326)	70.5	27.7	1.9	100.0 (318)
읍면지역	82.2	16.9	.8	100.0 (118)	79.5	17.9	2.6	100.0 (117)	68.1	29.3	2.6	100.0 (116)
	3.2(4)				$\chi^2(df) = 4.2(4)$				6.2(4)			

주: *p < .05,

〈표 IV-2-14〉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별 만족도 II: 학부모

단위: %(응답수)

구분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참여 정도				치료지원			
	만족	보통	불만족	계	만족	보통	불만족	계	만족	보통	불만족	계
전체	70.5 (619)	25.4 (223)	4.1 (36)	100.0 (878)	65.0 (562)	31.1 (269)	3.9 (34)	100.0 (865)	42.7 (346)	42.0 (341)	15.4 (125)	100.0 (812)
기관유형												
유치원	68.6	26.6	4.8	100.0 (399)	64.4	29.8	5.8	100.0 (399)	39.7	45.1	15.2	100.0 (368)
보육시설	72.1	24.4	3.5	100.0 (479)	65.5	32.2	2.4	100.0 (466)	45.0	39.4	15.6	100.0 (444)
$\chi^2(df)$	$\chi^2(df) = 1.5(2)$				6.8(2)*				$\chi^2(df) = 2.9(2)$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71.4	26.3	2.3	100.0 (133)	56.4	36.8	6.8	100.0 (133)	46.6	37.1	16.3	100.0 (129)
사립유치원	67.4	26.5	6.1	100.0 (245)	69.8	24.5	5.7	100.0 (245)	37.5	47.5	15.0	100.0 (219)
국공립보육시설	75.2	21.2	3.6	100.0 (307)	69.8	29.2	1.0	100.0 (298)	47.6	37.4	15.0	100.0 (281)
민간보육시설	63.7	31.9	4.4	100.0 (135)	56.1	37.9	6.1	100.0 (132)	40.2	40.2	19.6	100.0 (127)
$\chi^2(df)$	$\chi^2(df) = 10.4(6)$				23.9(6)***				$\chi^2(df) = 8.6(6)$			
지역												
대도시	74.5	22.3	3.2	100.0 (440)	68.0	28.8	3.2	100.0 (438)	44.0	43.5	12.5	100.0 (414)
중소도시	67.7	27.1	5.2	100.0 (325)	62.7	32.5	4.8	100.0 (311)	42.7	41.9	15.5	100.0 (291)
읍면지역	62.9	32.7	4.4	100.0 (113)	59.5	36.2	4.3	100.0 (116)	37.4	36.4	26.2	100.0 (107)
$\chi^2(df)$	$\chi^2(df) = 8.7(4)$				4.6(4)				$\chi^2(df) = 12.1(4)^*$			

주: ** p < .01, *** p < .001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통한 자녀 발달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여부는 <표 IV-2-15>, <표 IV-2-16>과 같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불만족 한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내용별로 보면, 건강과 영양관리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9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신체발달 92.9%, 다른 장애 예방 92.6%, 신변처리 92.2%, 장애증상 완화 91.3%, 언어발달 91.2%, 사회성 발달 90.3%, 인지발달 84.7%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 기관·설립유형,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있었다.

사회성 발달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기관유형($\chi^2(1)=4.1,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유치원이 92.5%로 보육시설 88.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지발달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기관유형($\chi^2(1)=10.4, p<.01$)과 기관·설립유형($\chi^2(3)=11.4,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지발달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기관유형에 따라 유치원이 89.1%로 보육시설 81.1%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90.8%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8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2-15〉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통한 자녀 발달 만족여부 I

단위: %(응답수)

구분	건강·영양관리		계	신체발달		계	다른 장애 예방		계	신변처리		계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전체	97.6 (837)	2.4 (21)	100.0 (858)	92.9 (790)	7.1 (60)	100.0 (850)	92.6 (749)	7.4 (60)	100.0 (809)	92.2 (785)	7.3 (66)	100.0 (851)
기관유형												
유치원	97.8	2.1	100.0 (386)	94.2	5.8	100.0 (381)	92.4	7.6	100.0 (367)	93.5	6.5	100.0 (383)
보육시설	97.2	2.8	100.0 (472)	91.9	8.1	100.0 (469)	92.8	7.2	100.0 (442)	91.2	8.8	100.0 (468)
$\chi^2(df)$.4(1)			1.7(1)			.0(1)			1.5(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96.9	3.1	100.0 (129)	94.5	5.5	100.0 (127)	95.2	4.8	100.0 (124)	93.0	7.0	100.0 (128)
사립유치원	98.3	1.7	100.0 (237)	94.0	6.0	100.0 (233)	91.1	8.9	100.0 (224)	93.6	6.4	100.0 (234)
국공립보육시설	98.0	2.0	100.0 (302)	92.7	7.3	100.0 (300)	92.6	7.4	100.0 (283)	92.0	8.0	100.0 (300)
민간보육시설	95.5(12)	4.5 (134)	100.0 (134)	88.8	11.2	100.0 (134)	92.1	7.9	100.0 (127)	88.0	12.0	100.0 (133)
$\chi^2(df)$	3.3(3)			4.2(3)			1.9(3)			3.9(3)		
지역												
대도시	97.4	2.6	100.0 (426)	93.8	6.2	100.0 (420)	93.0	7.0	100.0 (402)	92.4	7.6	100.0 (421)
중소도시	98.1	1.9	100.0 (317)	92.4	7.6	100.0 (317)	93.9	6.1	100.0 (297)	92.1	7.9	100.0 (317)
읍면지역	96.5	3.5	100.0 (115)	91.2	8.8	100.0 (113)	87.3	12.7	100.0 (110)	92.0	8.0	100.0 (113)
$\chi^2(df)$	1.0(2)			1.2(2)			5.4(2)			.0(2)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IV-2-16〉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통한 자녀 발달 만족여부 II

단위: %(응답수)

구분	장애증상 완화			언어발달			사회성 발달			인지발달		
	만족	불만족	계	만족	불만족	계	만족	불만족	계	만족	불만족	계
전체	91.3 (773)	8.7 (74)	100.0 (847)	91.2 (786)	8.8 (76)	100.0 (862)	90.3 (780)	9.7 (84)	100.0 (864)	84.7 (725)	15.3 (131)	100.0 (856)
기관유형												
유치원	89.8	10.2	100.0 (382)	92.1	7.9	100.0 (390)	92.5	7.5	100.0 (389)	89.1	10.9	100.0 (385)
보육시설	92.5	7.5	100.0 (465)	90.5	9.5	100.0 (472)	88.4	11.6	100.0 (475)	81.1	18.9	100.0 (471)
$\chi^2(df)$	1.9(1)			.7(1)			4.1(1)*			10.4(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92.3	7.7	100.0 (130)	89.9	10.1	100.0 (129)	92.3	7.7	100.0 (130)	85.7	14.3	100.0 (126)
사립유치원	88.4	11.6	100.0 (232)	92.9	7.1	100.0 (240)	93.7	6.3	100.0 (238)	90.8	9.2	100.0 (238)
국공립보육시설	92.2	7.8	100.0 (296)	89.4	10.6	100.0 (303)	87.2	12.8	100.0 (305)	80.5	19.5	100.0 (302)
민간보육시설	91.9	9.0	100.0 (135)	90.3	9.3	100.0 (134)	88.8	11.2	100.0 (134)	82.8	17.2	100.0 (134)
$\chi^2(df)$	2.9(3)			2.1(3)			7.3(3)			11.4(3)**		
지역												
대도시	91.6	8.4	100.0 (419)	91.4	8.6	100.0 (428)	90.2	9.8	100.0 (429)	84.6	15.4	100.0 (423)
중소도시	92.1	7.9	100.0 (316)	90.0	10.0	100.0 (320)	90.3	9.7	100.0 (319)	84.7	15.3	100.0 (320)
읍면지역	87.5	12.5	100.0 (112)	93.9	6.1	100.0 (114)	90.5	9.5	100.0 (116)	85.0	15.0	100.0 (113)
$\chi^2(df)$	2.3(2)			1.6(2)			.0(2)			.0(2)		

주: * p < .05, ** p < .01, *** p < .001

2)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가) 설문조사

현재의 통합 형태와 바람직한 통합 형태에 대한 기관장의 응답은 <표 IV-2-17>과 같다. 우선 현재 기관의 통합 형태는 전체적으로 완전통합이 8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시간제 부분통합 12.5%, 별도로 운영하는 특수학급 2.1% 순이었다. 기관의 통합 형태는 기관·설립유형($\chi^2(6)=138.2$,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완전통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98.2%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58.0%로 가장 낮았다. 시간제 부분통합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공립유치원이 38.9%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1.1%로 가장 낮았다. 별도로 운영하는 특수학급이 있다는 응답은 민간보육시설이 5.4%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0.7%로 가장 낮았다.

한편 기관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통합 형태 역시 완전통합이 6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시간제 부분통합 36.7%, 별도로 운영하는 특수학급 3.3% 순이었다. 이는 기관유형($\chi^2(2)=33.8$, $p<.001$), 기관·설립유형($\chi^2(6)=59.4$, $p<.001$), 지역($\chi^2(4)=18.8$, $p<.01$)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 완전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보육시설이 73.7%로 유치원의 51.2%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시간제 부분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유치원이 45.5%로 보육시설 23.1%보다 높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는 완전통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기관은 국공립보육시설이 77.5%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34.1%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시간제 부분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공립유치원은 61.1%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20.9%로 가장 낮았다. 별도로 운영하는 특수학급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민간보육시설이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공립보육시설이 1.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완전통합이 바람직하다는 비율은 높아지고, 시간제 부분통합이나 별도로 운영되는 특수학급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기관의 현재 통합 형태와 바람직한 통합 형태 모두 완전통합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바람직한 통합 형태는 현재의 통합 형태에 비해 완전통합의 비율은 낮아지고 시간제 부분통합의 비율은 3배 가까이 높아졌으며, 별도로 운영되는 특수학급 또한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다소 증가하였다.

〈표 IV-2-17〉 현재의 통합 형태와 바람직한 통합 형태: 기관장

단위: %(응답수)

구분	기관의 통합 형태				바람직한 통합 형태			
	완전 통합	시간제 부분통합	별도운영 특수학급	계	완전 통합	시간제 부분통합	별도운영 특수학급	계
전체	85.4 (573)	12.5 (84)	2.1 (14)	100.0 (671)	60.0 (384)	36.7 (235)	3.3 (21)	100.0 (640)
기관유형								
유치원	85.4	13.2	1.5	100.0(410)	51.2	45.5	3.3	100.0(389)
보육시설	85.4	11.5	3.1	100.0(261)	73.7	23.1	3.2	100.0(251)
$\chi^2(df)$		2.3(2)				33.8(2)**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58.0	38.9	3.1	100.0(131)	34.1	61.1	4.8	100.0(126)
사립유치원	98.2	1.1	0.7	100.0(279)	59.3	38.0	2.7	100.0(263)
국공립보육시설	93.1	6.1	0.8	100.0(131)	77.5	20.9	1.6	100.0(129)
민간보육시설	77.7	16.9	5.4	100.0(130)	69.7	25.4	4.9	100.0(122)
$\chi^2(df)$		138.2(6)**				59.4(6)**		
지역								
대도시	85.4	13.1	1.6	100.0(321)	64.8	33.2	2.0	100.0(307)
중소도시	86.5	11.1	2.4	100.0(252)	60.9	35.7	3.4	100.0(238)
읍면지역	82.7	14.3	3.1	100.0(98)	42.1	50.5	7.4	100.0(95)
$\chi^2(df)$		1.8(4)				18.8(4)**		

주: ** p < .01, *** p < .001

현재의 통합 형태와 바람직한 통합 형태에 대한 교사의 응답은 <표 IV-2-18>과 같다. 우선 현재의 통합 형태는 전체적으로 완전통합이 79.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시간제 부분통합 17.2%, 별도로 운영되는 특수학급 3.0%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4)=35.1$, $p<.001$), 기관·설립유형($\chi^2(6)=224.6$,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재 완전통합을 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85.2%로, 유치원의 74.5%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시간제 부분통합은 유치원이 23.8%로 보육시설 10.4%보다 높았다. 별도 운영되는 특수학급은 보육시설이 4.4%로 유치원 1.6%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는 완전통합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95.8%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48.9%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시간제 부분통합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공립유치원이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립유치원이 2.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별도로 운영되는 특수학급이 있다는 응답은 민간보육시설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립유치원이 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바람직한 통합 형태에 대한 교사의 응답은 전체적으로 완전통합이 56.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시간제 부분통합 38.3%, 별도로 운영되는 특수학급 5.5%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2)=36.2, p<.001$), 기관·설립유형($\chi^2(6)=60.5, p<.001$), 지역($\chi^2(4)=13.8,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완전통합이 가장 바람직한 통합 형태라고 응답한 비율이 보육시설이 65.9%로 유치원 46.4%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시간제 부분통합이거나 별도로 운영 특수학급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유치원이 각각 47.5%, 6.1%로 보육시설 29.1%, 5.0%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완전통합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73.5%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40.0%로 가장 낮은 반면, 시간제 부분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공립유치원이 55.2%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 22.9%로 가장 낮았다. 별도로 운영되는 특수학급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7.3%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3.6%로 가장 낮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 규모가 커질수록 완전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높아지고 시간제 부분통합이나 별도로 운영되는 특수학급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기관장의 응답과 유사하게 기관의 현재 통합 형태와 바람직한 통합 형태 모두 완전통합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바람직한 통합 형태는 현재의 통합 형태에 비해 완전통합의 비율은 낮아지고 시간제 부분통합의 비율은 2배 이상 높아졌으며, 별도로 운영되는 특수학급 또한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표 IV-2-18〉 현재의 통합 형태와 바람직한 통합 형태: 교사

단위: %(응답수)

구분	기관의 통합 형태				바람직한 통합 형태			
	완전 통합	시간제 부분통합	별도운영 특수학급	계	완전 통합	시간제 부분통합	별도운영 특수학급	계
전체	79.8 (776)	17.2 (167)	3.0 (29)	100.0 (972)	56.1 (516)	38.3 (352)	5.5 (51)	100.0 (919)
기관유형								
유치원	74.5	23.8	1.6	100.0(491)	46.4	47.5	6.1	100.0(459)
보육시설	85.2	10.4	4.4	100.0(481)	65.9	29.1	5.0	100.0(460)
$\chi^2(df)$	35.1(2)**				36.2(2)**			

구분	기관의 통합 형태				바람직한 통합 형태			
	완전 통합	시간제 부분통합	별도운영 특수학급	계	완전 통합	시간제 부분통합	별도운영 특수학급	계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48.9	49.3	1.8	100.0(223)	40.0	55.2	4.8	100.0(210)
사립유치원	95.8	2.6	1.5	100.0(265)	51.2	41.5	7.3	100.0(246)
국공립보육시설	86.9	9.3	3.9	100.0(259)	73.5	22.9	3.6	100.0(253)
민간보육시설	83.6	11.4	5.0	100.0(220)	56.6	36.6	6.8	100.0(205)
$\chi^2(df)$	224.6(6)***				60.5(6)***			
지역								
대도시	79.2	16.9	3.9	100.0(491)	60.6	34.2	5.2	100.0(465)
중소도시	82.4	15.9	1.7	100.0(352)	54.9	39.7	5.4	100.0(335)
읍면지역	75.2	21.7	3.1	100.0(129)	42.0	50.4	7.6	100.0(119)
$\chi^2(df)$	5.8(4)				13.8(4)**			

주: **p<.01, *** p<.001

현재의 통합 형태와 바람직한 통합 형태에 대한 학부모의 응답은 <표 IV-2-19>와 같다. 우선 현재의 통합 형태는 전체적으로 완전통합이 80.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시간제 부분통합 15.4%, 별도로 운영되는 특수학급 3.9%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설립유형($\chi^2(6)=101.7,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완전통합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93.2%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55.4%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시간제 부분통합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공립유치원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립유치원이 3.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별도로 운영되는 특수학급이 있다는 응답은 민간보육시설이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공립유치원이 2.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를 대상으로 한 바람직한 통합 형태에 대한 응답은 전체적으로 완전통합이 70.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시간제 부분통합 26.9%, 별도로 운영되는 특수학급 2.5%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설립유형($\chi^2(6)=33.3, p<.001$)과 지역($\chi^2(4)=13.5,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완전통합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76.9%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52.0%로 가장 낮은 반면, 시간제 부분통합이나 별도로 운영되는 특수학급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공립유치원이 각각 43.3%, 4.7%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각각 22.0%, 1.0%로 가장 낮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 규모가 커질수록 완전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높아지고 시간제 부분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별도로 운영되는 특수학급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중소도시가 3.2%로 가장 높았고, 대도시가 1.7%로 가장 낮았다.

〈표 IV-2-19〉 현재의 통합 형태와 바람직한 통합 형태: 학부모

단위: %(응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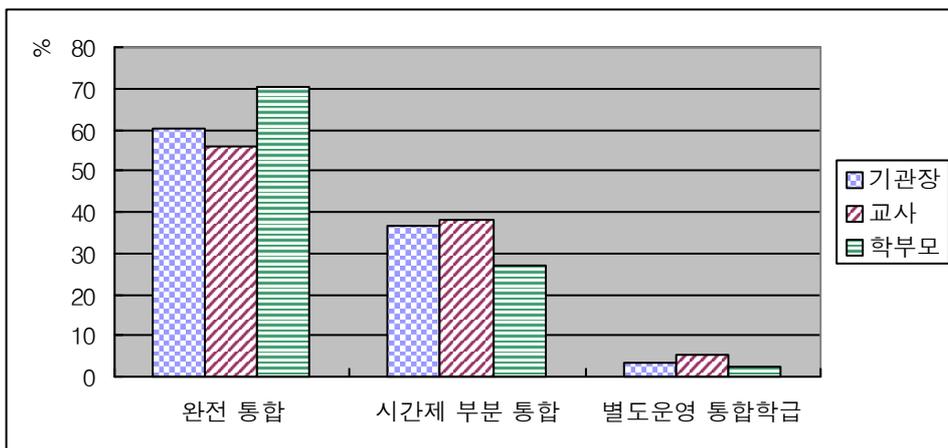
구분	기관의 통합 형태				바람직한 통합 형태			
	완전 통합	시간제 부분통합	별도운영 특수학급	계	완전 통합	시간제 부분통합	별도운영 특수학급	계
전체	80.7 (683)	15.4 (130)	3.9 (33)	100.0 (846)	70.6 (591)	26.9 (225)	2.5 (21)	100.0 (837)
기관유형								
유치원	80.5	16.4	3.1	100.0(385)	67.1	30.2	2.7	100.0(374)
보육시설	80.9	14.5	4.6	100.0(461)	73.4	24.2	2.4	100.0(463)
$\chi^2(df)$		1.6(2)				4.0(2)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55.4	42.3	2.3	100.0(130)	52.0	43.3	4.7	100.0(127)
사립유치원	93.2	3.4	3.4	100.0(236)	73.2	25.0	1.8	100.0(228)
국공립보육시설	83.6	13.1	3.4	100.0(298)	76.9	22.0	1.0	100.0(295)
민간보육시설	76.6	17.2	6.3	100.0(128)	62.9	32.6	4.5	100.0(132)
$\chi^2(df)$		101.7(6)***				33.3(6)***		
지역								
대도시	83.3	13.9	2.8	100.0(424)	74.0	24.3	1.7	100.0(419)
중소도시	78.1	16.1	5.8	100.0(311)	70.9	25.9	3.2	100.0(309)
읍면지역	78.4	18.9	2.7	100.0(111)	70.6	26.9	2.5	100.0(837)
$\chi^2(df)$		6.8(4)				13.5(4)**		

주: ** p < .01, *** p < .001

전체적으로 기관의 현재 통합 형태와 바람직한 통합 형태 모두 완전통합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바람직한 통합 형태는 현재의 통합 형태에 비해 완전통합의 비율은 다소 낮아지고 시간제 부분통합의 비율은 2배 가까이 높아졌으며, 별도로 운영되는 특수학급은 기관장이나 교사와 다르게 다소 감소하였다.

기관장, 교사, 부모의 바람직한 통합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을 비교해보면 <그림 IV-2-1>과 같다. 완전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부모가 70.6%로

가장 높았고, 교사가 56.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간제 부분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교사가 38.3%로 가장 높았고, 학부모가 26.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별도로 운영되는 특수학급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교사가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가 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통합의 형태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은 유사하나 그 비율에 있어서는 응답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IV-2-1] 바람직한 통합 형태에 대한 의견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통한 장애 영유아 발달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여부는 <표 IV-2-20>, <표 IV-2-21>과 같다. 전체적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이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내용별로 보면, 언어발달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이 9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사회성 발달 98.1%, 건강과 영양 관리 95.9%, 신체발달 94.2%, 신변처리 94.0%, 인지발달 91.2%, 장애증상 완화 90.3%, 다른 장애 예방 83.8%의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 기관·설립유형,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있었다.

사회성 발달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은 지역($\chi^2(2)=6.3,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신변처리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은 기관·설립유형($\chi^2(3)=8.3,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립유치원이 96.2%로 가장 높았으며, 민간보육시설이 89.1%로 가장 낮았다. 인지발달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은 기관유형($\chi^2(1)=6.4,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유치원이 94.0%로 보육시설 89.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장애증상 완화에 대한 기대는 기관·설립유형($\chi^2(3)=11.4$,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국공립유치원이 93.8%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85.5%로 가장 낮았다.

〈표 IV-2-20〉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통한 자녀 발달 기대비율 I

단위: %(응답수)

구분	언어발달	계	사회성 발달	계	건강·영양 관리	계	신체발달	계
전체	98.2 (849)	100.0 (865)	98.1 (845)	100.0 (861)	95.9 (818)	100.0 (853)	94.2 (806)	100.0 (856)
기관유형								
유치원	97.9 (389)	100.0 (389)	98.4 (389)	100.0 (386)	96.0 (471)	100.0 (471)	95.3 (384)	100.0 (384)
보육시설	98.3 (476)	100.0 (476)	97.9 (475)	100.0 (475)	95.8 (382)	100.0 (382)	93.2 (472)	100.0 (472)
$\chi^2(df)$.2(1)		.4(1)		.0(1)		1.7(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97.7 (129)	100.0 (129)	96.9 (128)	100.0 (128)	96.1 (127)	100.0 (127)	95.2 (126)	100.0 (126)
사립유치원	97.9 (240)	100.0 (240)	99.2 (237)	100.0 (237)	95.3 (235)	100.0 (235)	94.9 (237)	100.0 (237)
국공립보육시설	98.7 (307)	100.0 (307)	98.7 (308)	100.0 (308)	96.1 (305)	100.0 (305)	94.4 (304)	100.0 (304)
민간보육시설	97.0 (132)	100.0 (132)	95.4 (130)	100.0 (130)	94.6 (129)	100.0 (129)	88.5 (131)	100.0 (131)
$\chi^2(df)$	1.6(3)		7.8(3)		.6(3)		7.3(3)	
지역								
대도시	99.3 (432)	100.0 (432)	99.1 (431)	100.0 (431)	96.5 (427)	100.0 (427)	95.1 (426)	100.0 (426)
중소도시	97.5 (340)	100.0 (340)	97.8 (317)	100.0 (317)	95.5 (314)	100.0 (314)	93.4 (318)	100.0 (318)
읍면지역	95.6 (113)	100.0 (113)	95.6 (113)	100.0 (113)	94.6 (853)	100.0 (853)	92.9 (112)	100.0 (112)
$\chi^2(df)$	8.0(2)		6.3(2)		.9(2)		1.3(2)	

주: ** $p < .01$

<표 IV-2-21>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통한 자녀 발달 기대비율 II

단위: %(응답수)

구분	신변처리	계	인지발달	계	장애증상 완화	계	다른 장애 예방	계
전체	94.0 (799)	100.0 (850)	91.2 (782)	100.0 (857)	90.3 (783)	100.0 (867)	83.8 (685)	100.0 (817)
기관유형								
유치원	94.8	100.0 (382)	94.0	100.0 (382)	88.5	100.0 (391)	85.9	100.0 (369)
보육시설	93.4	100.0 (468)	89.1	100.0 (475)	91.8	100.0 (476)	85.9	100.0 (448)
$\chi^2(df)$.7(1)		6.4(1)*		2.7(1)		2.1(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92.0	100.0 (125)	91.3	100.0 (126)	93.8	100.0 (130)	90.0	100.0 (120)
사립유치원	96.2	100.0 (236)	94.9	100.0 (235)	85.5	100.0 (241)	83.5	100.0 (230)
국공립보육시설	94.7	100.0 (303)	89.5	100.0 (306)	93.1	100.0 (306)	81.8	100.0 (286)
민간보육시설	89.1	100.0 (129)	87.9	100.0 (132)	88.7	100.0 (133)	81.1	100.0 (127)
$\chi^2(df)$	8.3(3)*		6.8(3)		11.4(3)**		4.8(3)	
지역								
대도시	94.1	100.0 (425)	92.5	100.0 (427)	92.1	100.0 (432)	82.2	100.0 (411)
중소도시	95.2	100.0 (315)	90.3	100.0 (318)	88.4	100.0 (320)	86.5	100.0 (296)
읍면지역	90.0	100.0 (110)	89.3	100.0 (112)	88.7	100.0 (115)	82.7	100.0 (110)
$\chi^2(df)$	4.0(2)		1.8(2)		3.3(2)		2.4(2)	

주: *p<.5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통한 장애 영유아 발달에 대한 만족 여부와 기대 여부를 비교해 보면(<표 IV-2-15>, <표 IV-2-16>과 <표 IV-2-20>, <표 IV-2-21> 참고), 건강·영양 관리, 장애증상 완화, 다른 장애 예방에 대해서는 기대한다는 응답에 비해 만족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고, 언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발달, 신변처리에 대해서는 기대한다는 응답에 비해 만족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언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 발달은 기대한다는 응답의 비율과 만족한다는 응답비율 간 차이가 6.5%~7.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나) 사례 조사

통합 프로그램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시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다음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첫째, 장애아 수용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일정한 기준 없이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제도는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입급 심사에 있어 장애의 유형과 정도 및 특성에 따라 혹은 기관의 상황과 장애아의 구성에 따라서 양질의 통합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각 장애아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된 정보제공 사이트가 필요하다. 장애의 유형과 종류에 따른 영유아의 특성을 알려주고 그에 대해 교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원은 장애아 담당교사 뿐 아니라 일반교사 및 기관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고할 수 있고, 양질의 통합교육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 가정 및 타 기관 연계

1) 연계에 대한 만족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프로그램의 부모참여와, 부모교육 및 상담, 일반아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표 IV-2-22>와 같다. 전체적으로 부모교육 및 상담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부모참여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 56.7%, 일반아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족한다는 응답 54.8%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모두 관련 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거나 빈도수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았다.

〈표 IV-2-22〉 가족연계에 대한 만족도: 학부모

단위: %(응답수)

구분	부모교육 및 상담			계	부모참여			계	일반아 부모와의 관계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71.2 (627)	25.6 (225)	3.1 (28)	100.0 (880)	56.7 (485)	39.3 (336)	4.0 (34)	100.0 (855)	54.8 (472)	41.3 (356)	3.9 (33)	100.0 (861)
기관유형												
유치원	72.2	24.1	3.8	100.0 (399)	58.2	37.7	4.1	100.0 (390)	59.3	37.4	3.3	100.0 (398)
보육시설	70.5	26.8	2.7	100.0 (481)	55.5	40.6	3.9	100.0 (465)	51.0	44.7	4.3	100.0 (463)
$\chi^2(df)$	4.4(4)				4.5(4)				6.7(4)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68.7	26.1	5.2	100.0 (134)	55.7	38.9	5.4	100.0 (131)	52.7	41.3	6.0	100.0 (133)
사립유치원	73.4	23.7	2.9	100.0 (244)	59.6	36.7	3.7	100.0 (240)	64.4	33.6	2.0	100.0 (244)
국공립보육시설	73.9	23.5	2.6	100.0 (306)	59.0	37.3	3.7	100.0 (295)	54.7	41.3	4.1	100.0 (298)
민간보육시설	66.6	30.4	2.9	100.0 (138)	48.1	47.4	4.5	100.0 (133)	43.1	51.5	5.4	100.0 (130)
$\chi^2(df)$	na				na				na			
지역												
대도시	73.9	23.0	3.1	100.0 (444)	57.9	38.7	3.4	100.0 (433)	56.6	39.5	3.9	100.0 (435)
중소도시	70.4	25.9	3.7	100.0 (321)	56.4	38.8	4.8	100.0 (309)	51.6	44.8	3.5	100.0 (310)
읍면지역	63.5	34.8	1.8	100.0 (115)	53.1	43.3	3.6	100.0 (113)	56.9	38.8	4.3	100.0 (116)
$\chi^2(df)$	10.9(8)				6.5(8)				8.7(8)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2) 연계에 대한 요구

가) 설문조사

기관과의 의사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부모의 응답은 <표 IV-2-23>, <표 IV-2-24>와 같다. 전체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기관과의 의사소통이 더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의사소통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가장 높은 내용은 자녀의 문제행동 대처방법으로 87.9%였고, 그 다음은 교육(보육) 과정 및 활동 관련 정보 86.1%, 부모협조 사항 85.6%, 자녀의 성장발달 관련 내용 85.3%, 자녀의 기관에서의 생활 85.1%, 가정에서의 장애아 양육법 83.3%, 장애관련 기관 소개 및 이용법 77.3%,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방안 70.1% 순이었으나, 후순위 2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응답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은 내용에 따라 부분적으로 기관유형, 기관·설립유형,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있었다.

자녀의 문제행동 대처방법은 지역($\chi^2(2)=7.1,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소도시가 89.9%로 가장 높았고, 읍면지역이 80.2%로 가장 낮았다. 가정에서의 장애아 양육법에 대한 의사소통 요구 유무는 기관·설립유형($\chi^2(3)=12.7,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국공립유치원이 91.5%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76.8%로 가장 낮았다. 장애 관련 기관 소개 및 이용법에 대한 의사소통 요구 유무는 기관유형($\chi^2(1)=4.2, p<.05$)과 기관·설립유형($\chi^2(3)=21.6,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관유형에 따라 장애 관련 기관 소개 및 이용법에 대한 의사소통 요구는 보육시설이 80.0%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유치원이 73.8%로 낮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유치원이 87.0%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67.1%로 가장 낮았다.

〈표 IV-2-23〉 기관과의 내용별 추가 의사소통 요구 유무 1: 학부모

단위: %(응답수)

구분	자녀의 문제행동 대처 방법			교육보육과정 및 활동 관련 정보			부모협조 사항			자녀의 성장발달 관련 내용		
	요구 됨	필요 없음	계	요구 됨	필요 없음	계	요구 됨	필요 없음	계	요구 됨	필요 없음	계
	전체	87.9 (696)	12.1 (96)	100.0 (792)	86.1 (681)	13.9 (110)	100.0 (791)	85.6 (668)	14.4 (112)	100.0 (780)	85.3 (690)	14.7 (119)
기관유형												
유치원	86.5	13.5	100.0 (349)	85.3	14.7	100.0 (348)	84.6	15.4	100.0 (345)	85.4	14.6	100.0 (362)
보육시설	88.9	11.1	100.0 (443)	86.7	13.3	100.0 (443)	86.4	13.6	100.0 (435)	85.2	14.8	100.0 (447)
$\chi^2(df)$	1.1(1)			0.3(1)			0.5(1)			0.0(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 유치원	90.8	9.2	100.0 (119)	89.2	10.8	100.0 (120)	89.0	11.0	100.0 (118)	87.0	13.0	100.0 (123)
사립 유치원	84.4	15.6	100.0 (211)	82.3	17.7	100.0 (209)	82.7	17.3	100.0 (208)	83.6	16.4	100.0 (220)
국공립 보육시설	89.1	10.9	100.0 (285)	84.4	15.6	100.0 (288)	84.3	15.7	100.0 (281)	84.5	15.5	100.0 (284)
민간 보육시설	87.3	12.7	100.0 (126)	90.5	9.5	100.0 (126)	92.1	7.9	100.0 (126)	86.3	13.7	100.0 (131)
$\chi^2(df)$	3.8(3)			5.9(3)			7.2(3)			0.9(3)		
지역												
대도시	88.5	11.5	100.0 (399)	86.3	13.8	100.0 (400)	87.5	12.5	100.0 (392)	85.8	14.2	100.0 (402)
중소도시	89.9	10.1	100.0 (287)	85.5	14.5	100.0 (283)	83.6	16.4	100.0 (281)	84.2	15.8	100.0 (297)
읍면지역	80.2	19.8	100.0 (106)	87.0	13.0	100.0 (108)	84.1	15.9	100.0 (107)	86.4	13.6	100.0 (110)
$\chi^2(df)$	7.1(2)*			0.2(2)			2.2(2)			0.5(2)		

주: *p < .05, **p < .01

〈표 IV-2-24〉 기관과의 내용별 추가 의사소통 요구 유무 II: 학부모

단위: %(응답수)

구분	자녀의 기관에서의 생활			가정에서의 장애아 양육법			장애 관련 기관 소개 및 이용법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 방안		
	요구 됨	필요 없음	계	요구 됨	필요 없음	계	요구 됨	필요 없음	계	요구 됨	필요 없음	계
전체	85.1 (676)	14.9 (118)	100.0 (794)	83.3 (654)	16.7 (131)	100.0 (785)	77.3 (599)	22.7 (176)	100.0 (85.9)	70.1 (551)	29.9 (235)	100.0 (786)
기관유형												
유치원	84.6	15.4	100.0 (351)	81.6	18.4	100.0 (347)	73.8	26.2	100.0 (344)	67.6	32.4	100.0 (349)
보육시설	85.6	14.4	100.0 (443)	84.7	15.3	100.0 (438)	80.0	20.0	100.0 (431)	72.1	27.9	100.0 (437)
$\chi^2(df)$	0.1(1)			1.4(1)			4.2(1)*			1.8(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 유치원	89.2	10.8	100.0 (117)	91.5	8.5	100.0 (117)	87.0	13.0	100.0 (115)	73.1	26.9	100.0 (119)
사립 유치원	81.6	18.4	100.0 (211)	76.8	23.2	100.0 (211)	67.1	32.9	100.0 (210)	65.4	34.6	100.0 (211)
국공립 보육시설	83.6	16.4	100.0 (282)	84.0	16.0	100.0 (282)	78.4	21.6	100.0 (278)	71.1	28.9	100.0 (280)
민간 보육시설	88.1	11.9	100.0 (125)	85.6	14.4	100.0 (125)	83.7	16.3	100.0 (126)	74.8	25.2	100.0 (127)
$\chi^2(df)$	4.8(3)			12.7(3)**			21.6(3)***			4.2(3)		
지역												
대도시	86.0	14.0	100.0 (400)	83.3	16.7	100.0 (396)	78.9	21.1	100.0 (388)	70.7	29.3	100.0 (392)
중소도시	84.7	15.3	100.0 (287)	82.8	17.2	100.0 (285)	75.2	24.8	100.0 (282)	70.0	30.0	100.0 (302)
읍면지역	83.2	16.8	100.0 (107)	84.6	15.4	100.0 (104)	77.1	22.9	100.0 (105)	68.2	31.8	100.0 (110)
$\chi^2(df)$	0.6(2)			0.2(2)			1.3(2)			0.2(2)		

주: * p < .05, ** p < .01, *** p < .001

연계가 필요한 기관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기관장의 응답은 <표 IV-2-25>와 같다. 전체적으로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8.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외부 전문가 34.6%, 정규 일과 후 장애 영유아를 담당하는 기관 15.3%, 보조 인력 지원기관 11.7%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4)=22.3$, $p<.001$), 기관·설립유형($\chi^2(12)=45.0$,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 연계가 필요한 기관과 서비스 분야가 의료기관, 정규일과 후 담당기관, 보조인력 지원기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유치원이 각각 39.6%, 17.2%, 14.3%로 보육시설 각각 35.9%, 12.2%, 7.6%보다 높았다. 반면 외부 전문가라고 응답한 비율은 보육시설이 44.3%로 유치원 28.4%보다 높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연계가 필요한 기관과 서비스 분야가 의료기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민간보육시설이 44.3%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27.5%로 가장 낮았다. 외부 전문가라고 응답한 비율은 국공립보육시설이 52.7%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27.1%로 가장 낮았다. 정규 일과 후 담당기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국공립유치원이 24.4%로 가장 높았고, 민간보육시설이 11.5%로 가장 낮았다. 보조인력 지원기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사립유치원이 14.8%로 가장 높았으며, 국공립보육시설이 6.9%로 가장 낮았다.

<표 IV-2-25> 연계가 필요한 기관과 서비스 분야: 기관장

단위: %(응답수)

구분	의료기관	외부 전문가	정규 일과 후 담당 기관	보조인력 지원기관	기타	계
전체	38.1(257)	34.6(233)	15.3(103)	11.7(79)	0.3(2)	100.0(674)
기관유형						
유치원	39.6	28.4	17.2	14.3	0.5	100.0(412)
보육시설	35.9	44.3	12.2	7.6	-	100.0(262)
$\chi^2(df = 22.3(4)***$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30.4	31.1	24.4	13.3	0.7	100.0(135)
사립유치원	44.0	27.1	13.7	14.8	0.4	100.0(277)
국공립보육시설	27.5	52.7	13.0	6.9	-	100.0(131)
민간보육시설	44.3	35.9	11.5	8.4	-	100.0(132)
$\chi^2(df = 45.0(12)***$						
지역						
대도시	36.3	37.8	15.0	10.3	0.6	100.0(320)
중소도시	41.4	31.9	14.7	12.0	-	100.0(251)
읍면지역	35.9	31.1	17.5	15.5	-	100.0(103)
$\chi^2(df = 7.4(8)$						

주: ***p < .001

연계가 필요한 기관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교사의 응답은 <표 IV-2-26>과 같다. 전체적으로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2.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정규 일과 후 장애 영유아를 담당하는 기관 31.5%, 외부 전문가 24.4%,

보조인력 지원기관 10.5%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지역($\chi^2(8)=23.8,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역에 따라서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 분야가 의료기관이나 보조인력 전문기관이라는 응답은 지역규모가 클수록 작아지고, 외부 전문가나 정규일과 후 담당기관이라는 응답은 지역규모가 클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IV-2-26〉 연계가 필요한 기관과 서비스 분야: 교사

단위: %(응답수)

구분	의료기관	정규 일과 후 담당 기관	외부 전문가	보조인력 지원기관	기타	계
전체	32.6(324)	31.5(313)	24.4(243)	10.5(104)	1.1(11)	100.0(995)
기관유형						
유치원	32.4	30.4	23.7	12.5	1.0	100.0(503)
보육시설	32.7	32.5	25.2	8.3	1.2	100.0(492)
$\chi^2(df) = 4.9(4)$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32.0	27.6	26.7	12.9	0.9	100.0(225)
사립유치원	33.1	32.4	21.1	12.4	1.1	100.0(275)
국공립보육시설	31.8	34.8	26.1	6.1	1.1	100.0(264)
민간보육시설	34.1	29.6	23.9	11.1	1.3	100.0(226)
$\chi^2(df) = 12.0(12)$						
지역						
대도시	28.7	32.5	27.9	9.0	1.8	100.0(501)
중소도시	32.4	32.1	23.5	11.6	0.3	100.0(361)
읍면지역	47.4	25.6	13.5	12.8	0.8	100.0(133)
$\chi^2(df) = 23.8(8)^{***}$						

주: ***p<.001

나) 사례 조사

S 유치원과 A 어린이집은 나름대로 부모참여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S 유치원은 장애아 부모라고 해서 특별히 더 긴밀하게 연계를 하기보다는 일반아 부모와 동일하게 참여하도록 하거나 부모교육을 하고 있으며, A 어린이집은 학기 초 가정방문 등 일반 부모보다는 좀 더 긴밀하게 가정과 연계를 하고 있었다. 기관장과 교사들은 부모의 잘못된 정보 인지와 과도한 요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한편 외부 기관과의 연계는 필요와 상황에 따라 종종 실시되고 있을 뿐 긴밀하

게 상호작용하면서 장애아 교육을 위해 협력해서 일관성 있게 교육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가정 및 타 기관 연계에 있어서는 다음의 지원 요구가 있었다.

첫째, 장애아 통합 정책과 통합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전국적인 홍보 체제가 갖추어져 정확한 장애아 통합 정책을 제대로 알려 부모로 하여금 기관에 기관의 능력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어떤 기관에서 장애아들을 수용하고 있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장애아 부모가 자녀의 특성에 맞는 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둘째, 통합하고 있는 장애아와 관련된 기관과 긴밀한 연계를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기관의 다양한 자문을 받고 장애아가 다니는 치료기관 등의 기관과 연계해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하면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마. 정책 지원

1) 정책 지원에 대한 요구

가) 설문조사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의 1순위에 대한 기관장의 응답은 <표 IV-2-27>과 같다. 전체적으로 기관 내 특수교사나 치료교사 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보조인력 지원 18.6%, 장애인식개선 교육 8.7%,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조정 6.5%, 시설개선 및 보조공학기기 구입 6.2%, 교사와 기관장 연수 5.3%, 기관 내 교육 시스템 4.1%, 가정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3.0%, 외부 전문가 지원 2.2%, 통합기관 간의 정보 교환 0.9%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10)=21.6,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 기관 내 특수교사나 치료교사 배치, 보조인력 지원,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조정, 외부 전문가 지원에 대한 응답은 유치원이 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장애인식개선 교육, 시설개선 및 보조공학기기 구입, 교사와 기관장 연수, 기관 내 교육 시스템, 가정이나 관련 기관과의 연계, 통합기관 간 정보교환에 대한 응답은 보육시설이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27〉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선결 사항: 기관장

단위: %(응답수)

구분	특수/치료 교사 배치	보조 인력 지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교사 영유아 비율 조정	시설 개선/ 보조 공학 기기	교사/ 기관장 연수	기관 내 교육 시스템	가정/ 관련 기관 연계	외부 전문가 지원	통합 기관 정보 교환	기타	계
전체	43.8 (296)	18.6 (126)	8.7 (59)	6.5 (44)	6.2 (42)	5.3 (36)	4.1 (28)	3.0 (20)	2.2 (15)	0.9 (6)	0.6 (4)	100.0 (676)
기관유형												
보육시설	43.9	22.7	7.6	6.6	5.9	5.1	2.7	2.4	2.4	0.5	0.2	100.0(410)
유치원	43.6	12.4	10.5	6.4	6.8	5.6	6.4	3.8	1.9	1.5	1.1	100.0(266)
	$\chi^2(df = 21.6(10)^*$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40.5	16.8	7.6	9.9	6.9	6.1	4.6	3.8	2.3	0.8	0.8	100.0(131)
사립유치원	45.5	25.4	7.5	5.0	5.4	4.7	1.8	1.8	2.5	0.4	0	100.0(279)
국공립보육시설	44.3	9.9	9.2	10.7	6.9	3.1	6.9	5.3	3.1	0	0.8	100.0(131)
민간보육시설	43.0	14.8	11.9	2.2	6.7	8.1	5.9	2.2	0.7	3.0	1.5	100.0(135)
	$\chi^2(df = na$											
지역												
대도시	43.8	15.7	7.1	9.3	6.2	4.9	4.9	3.4	3.1	0.3	1.2	100.0(324)
중소도시	43.3	19.0	11.9	4.4	7.1	6.3	3.2	2.4	0.8	1.6	0	100.0(252)
읍면지역	45.0	27.0	6.0	3.0	4.0	4.0	4.0	3.0	3.0	1.0	0	100.0(676)
	$\chi^2(df = na$											

주: *p < .05, **p < .01, ***p < .001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의 1순위에 대한 교사의 응답은 <표 IV-2-28>과 같다. 전체적으로 기관 내 특수교사나 치료교사 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조정 13.7%, 보조인력 지원 11.5%, 장애인식개선 교육 11.2%, 교사와 기관장 연수 6.5%, 기관 내 교육 시스템 5.5%, 통합기관 간의 정보 교환 2.8% 가정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2.5%, 시설개선 및 보조공학기기 구입 2.4%, 외부 전문가 지원 2.0%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10)=48.2$, $p<.001$), 기관·설립유형($\chi^2(30)=101.9$, $p<.001$), 지역($\chi^2(20)=43.2$,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 기관 내 특수교사나 치료교사 배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조정,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응답은 유치원이 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장애인식개선 교육, 교사와 기관장 연수, 기관 내 교육 시스템, 통합기관 간

정보교환, 가정이나 관련 기관과의 연계, 외부 전문가 지원에 대한 응답은 보육시설이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기관 내 특수교사나 치료교사 배치에 대한 응답은 국공립유치원이 48.9%로 가장 높고 국공립보육시설이 34.8%로 가장 낮은 반면, 교사와 기관장 연수에 대한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8.6%로 가장 높고 국공립유치원이 4.4%로 가장 낮았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조정에 대한 응답은 국공립유치원이 21.3%로 가장 높았고, 민간보육시설이 7.5%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장애인식개선 교육, 기관 내 교육시스템, 가정이나 관련 기관 연계에 대한 응답은 민간보육시설이 각각 17.2%, 11.5%, 3.5%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각각 4.4%, 2.2%, 0.4%로 가장 낮았다.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16.4%로 가장 높고, 민간보육시설이 8.4%로 가장 낮았다. 통합기관 간 정보교환과 외부 전문가 지원에 대한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각각 4.1%, 3.4%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각각 1.5%, 1.1%로 가장 낮았다. 시설개선 및 보조공학기기 구입에 대한 응답은 민간보육시설이 4.0%로 가장 높고 국공립보육시설이 1.1%로 가장 낮았다.

지역에 따라 기관 내 특수교사나 치료교사 배치, 보조인력 지원, 가정이나 관련 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응답은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조정, 교사와 기관장 연수에 대한 응답은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기관 내 교육시스템, 외부 전문가 지원, 장애인식개선 교육, 통합기관 간의 정보 교환에 대한 응답은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고, 읍면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설개선 및 보조공학 기구 구입에 대한 응답은 중소도시가 3.3%로 가장 높았고, 대도시가 1.6%로 가장 낮았다.

〈표 IV-2-28〉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선결 사항: 교사

단위: %(응답수)

구분	특수/교사 치료 영유아 교사 비율 배치 조정	보조 인력 지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교사/ 기관장 연수	기관 교육 시스템	통합 기관 정보 교환	가정/ 관련 기관 연계	시설/ 보조 공학 기기	외부 전문가 지원	기타	계	
전체	41.4 (413)	13.7 (137)	11.5 (115)	11.2 (112)	6.5 (65)	5.5 (55)	2.8 (28)	2.5 (25)	2.4 (24)	2.0 (20)	0.4 (4)	100.0 (998)
기관유형												
보육시설	46.8	14.5	14.1	8.2	6.0	2.6	2.0	1.6	2.4	1.2	0.6	100.0(502)
유치원	35.9	12.9	8.9	14.3	7.1	8.5	3.6	3.4	2.4	2.8	0.2	100.0(496)
$\chi^2(df = 48.2(10)^{***}$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48.9	21.3	11.6	4.4	4.4	2.2	2.7	0.4	2.2	1.3	0.4	100.0(225)
사립유치원	44.9	8.8	16.4	11.3	7.3	2.9	1.5	2.6	2.6	1.1	0.7	100.0(274)
국공립보육시설	34.8	17.6	9.4	11.2	8.6	6.0	4.1	3.4	1.1	3.4	0.4	100.0(267)
민간보육시설	37.4	7.5	8.4	17.2	5.3	11.5	3.1	3.5	4.0	2.2	-	100.0(227)
$\chi^2(df = 101.9(30)^{***}$												
지역												
대도시	38.0	18.6	10.0	11.4	7.6	5.4	2.8	2.2	1.6	2.0	0.4	100.0(500)
중소도시	42.0	9.9	11.3	11.8	5.8	7.1	3.3	2.7	3.3	2.2	0.5	100.0(364)
읍면지역	52.2	6.0	17.9	9.0	4.5	1.5	1.5	3.0	3.0	1.5	-	100.0(134)
$\chi^2(df = 43.2(20)^{**}$												

주: ** p < .01, *** p < .001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의 1순위에 대한 학부모의 응답은 <표 IV-2-29>와 같다. 전체적으로 기관 내 특수교사나 치료교사 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0.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장애인식개선 교육 12.3%, 보조인력 지원 9.1%,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조정 5.3%, 기관 내 교육 시스템 3.4%, 교사와 기관장 연수 2.6%, 외부 전문가 지원 2.3%, 시설개선 및 보조공학기기 구입 1.9%, 가정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1.5%, 통합기관 간의 정보 교환 0.8%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기관·설립유형과 지역에 따라서는 빈도수 특성상 차이검증이 불가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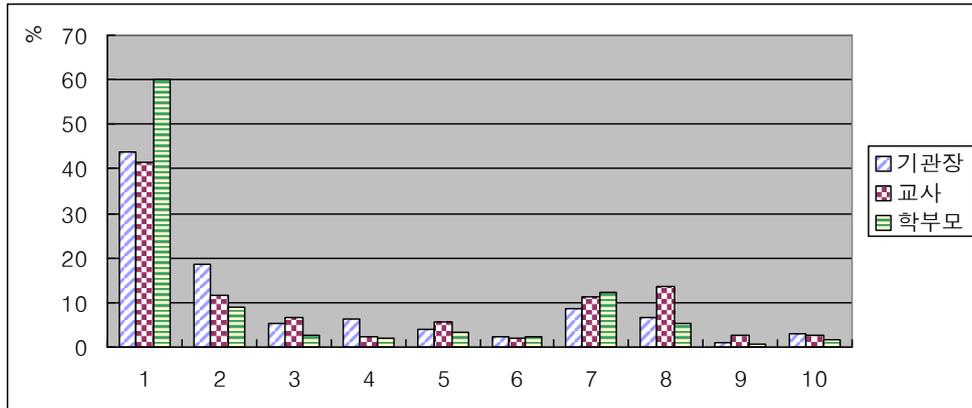
〈표 IV-2-29〉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선결 사항: 학부모

단위: %(응답수)

구분	특수/치료 교사 배치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보조 인력 지원	교사 영유아 비율 조정	기관내 교육 시스템	교사/ 기관장 연수	외부 전문가 지원	시설 개선/ 보조 공학 기구	가정/ 관련 기관 연계	통합 기관 정보 교환	기타	응답수
전체	60.1 (528)	12.3 (108)	9.1 (80)	5.3 (47)	3.4 (30)	2.6 (23)	2.3 (20)	1.9 (17)	1.5 (13)	.8 (7)	.7 (6)	100.0 (879)
$\chi^2(df) = 15.8(10)$												
기관유형												
유치원	57.6	13.5	9.7	5.0	2.5	4.5	2.0	2.0	2.0	.7	.5	100.0(401)
보육시설	62.1	11.3	8.6	5.6	4.2	1.0	2.5	1.9	1.0	.8	.8	100.0(478)
$\chi^2(df) = na$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64.2	8.0	8.8	4.4	.7	4.4	2.9	3.6	.7	1.5	.7	100.0(137)
사립유치원	53.3	16.4	10.7	5.3	3.7	4.5	1.6	1.2	2.5	.4	.4	100.0(244)
국공립보육시설	62.0	12.2	6.3	7.3	4.6	.7	2.6	1.7	1.3	.3	1.0	100.0(303)
민간보육시설	60.1	10.1	13.8	2.2	2.9	2.2	2.9	2.9	.7	2.2	-	100.0(138)
$\chi^2(df) = na$												
지역												
대도시	58.0	13.6	8.6	7.5	3.9	2.0	2.5	1.1	.5	.2	.5	100.0(440)
중소도시	60.7	12.8	9.0	3.7	3.1	3.4	1.6	1.6	1.2	1.6	1.2	100.0(321)
읍면지역	66.1	5.9	11.0	1.7	2.5	2.5	3.4	5.9	-	.8	-	100.0(118)
$\chi^2(df) = na$												

주: *p < .05, **p < .01, ***p < .001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기관장, 교사, 학부모의 응답을 비교하면 <그림 IV-2-2>와 같다. 응답 대상 모두 특수교사 및 치료교사 배치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보조인력 지원, 장애인식개선,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조정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수교사 및 치료교사 배치와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요구는 학부모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요구는 기관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조정에 대한 요구는 교사가 가장 높게 나타나 각각의 입장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 1. 특수교사나 치료교사의 배치, 2. 보조인력 지원, 3. 교사와 기관장 연수, 4. 시설개선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5. 기관 내 교육시스템, 6. 외부 전문가 지원, 7. 장애인식개선 교육, 8. 교사 대 영유아 비율조정, 9. 통합기관 간 정보교환, 10. 가정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그림 IV-2-2] 통합의 질 향상을 위한 선결 사항에 대한 대상별 비교

통합학급에서 일반 영유아 수의 경감이 필요한지에 대한 교사의 응답은 <표 IV-2-30>과 같다. 전체적으로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44.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이 33.7%로, 통합학급의 일반 영유아 수의 경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8.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4)=44.9$, $p<.001$), 기관·설립유형($\chi^2(12)=150.6$,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 통합학급 일반 영유아 수의 경감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유치원이 54.3%로 보육시설의 34.2%보다 높았고, 보육 시설은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이 42.5%로 가장 높았으며, 필요없다는 응답은 9.0%로 유치원 6.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유치원이 통합학급 일반 영유아 수의 경감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78.1%로 가장 높았고, 민간보육시설이 31.1%로 가장 낮았으며, 필요없다는 응답은 민간보육시설이 11.2%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1.8%로 가장 낮았다. 유치원교사들의 통합학급 일반 영유아 수의 경감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같은 연령에 대한 일반아동 대 교사의 비율이 보육 시설보다 유치원에서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2-30〉 통합학급 일반 영유아 수의 경감 필요 정도: 교사

단위: %(응답수)

구분	매우 필요	조금 필요	보통	필요 없음	기타	계
전체	44.6(412)	33.7(311)	12.8(118)	7.8(72)	1.2(11)	100.0(924)
기관유형						
유치원	54.3	25.5	11.9	6.7	1.7	100.0(479)
보육시설	34.2	42.5	13.7	9.0	0.7	100.0(445)
$\chi^2(df) = 44.9(4)^{***}$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78.1	14.6	4.1	1.8	1.4	100.0(219)
사립유치원	34.2	35.0	18.3	10.5	1.9	100.0(257)
국공립보육시설	37.1	45.1	10.1	6.8	0.8	100.0(237)
민간보육시설	31.1	39.3	18.0	11.2	0.5	100.0(206)
$\chi^2(df) = 150.6(12)^{***}$						
지역						
대도시	43.9	35.4	11.6	7.2	2.0	100.0(458)
중소도시	42.6	35.0	14.1	7.6	0.6	100.0(340)
읍면지역	52.4	23.8	13.5	10.3	-	100.0(126)
$\chi^2(df) = 13.4(8)$						

주: *** p < .001

통합학급 일반 영유아 수의 경감 정도에 대한 교사의 응답은 <표 IV-2-31>과 같다. 전체적으로 5명 정도 경감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28.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3명 26.0%, 2명 23.3% 순이었다. 기타 응답에는 연령이나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5)=119.2, p<.001$), 기관·설립유형($\chi^2(15)=147.9, p<.001$), 지역($\chi^2(10)=35.5, p<.001$)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 유치원은 경감 필요 인원으로 5명이 40.2%로 가장 높은 반면, 보육 시설은 경감 필요 인원으로 2명이 36.6%로 가장 높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경감 인원을 5명 정도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4.9%, 35.2%로 가장 높은 반면,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은 경감 인원을 2명 정도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34.5%, 39.7%로 가장 높았다. 한편, 1명의 경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 2명이라는 응답은 민간보육시설, 3명이라는 응답은 사립유치원, 4명, 5명이라는 응답은 국공립유치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1명, 2명, 3명의 경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역규모가 커질수

록 높아지는 반면, 4명, 5명의 경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IV-2-31〉 통합학급 일반 영유아 수의 경감 정도

단위: %(응답수)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기타	계
전체	6.3(46)	23.3(169)	26.0(189)	10.1(73)	28.5(207)	5.8(42)	100.0(726)
기관유형							
유치원	2.1	10.9	27.1	13.3	40.2	6.4	100.0(376)
보육시설	10.9	36.6	24.9	6.6	16.0	5.1	100.0(350)
$\chi^2(df) = 119.2(5)^{***}$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	6.1	24.5	17.3	44.9	7.1	100.0(196)
사립유치원	4.5	16.2	30.2	8.4	35.2	5.6	100.0(179)
국공립보육시설	14.3	34.5	24.1	6.4	15.8	4.9	100.0(203)
민간보육시설	6.2	39.7	25.3	6.8	16.4	5.5	100.0(146)
$\chi^2(df) = 147.9(15)^{***}$							
지역							
대도시	8.6	24.7	27.2	8.6	23.6	7.2	100.0(360)
중소도시	5.6	25.7	25.7	10.4	29.4	3.3	100.0(269)
읍면지역	-	11.3	22.7	14.4	44.3	7.2	100.0(97)
$\chi^2(df) = 35.5(10)^{***}$							

주: *** p < .001

나) 사례조사

S 유치원의 원감과 교사, A 어린이집의 시설장과 교사들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기초로 정책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의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실제적인 연수가 필요하며, 대상도 장애 영유아 담당교사 뿐 아니라 편견 해소를 위해 일반학급 교사, 보조인력 대상의 특수교육이해 강좌가 필요하다.

둘째,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연구하고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므로, 오후 담당교사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셋째, 장애 영유아를 통합하는 경우 일반 영유아 정원을 줄여주어야 한다. 특히

보행이 어렵거나 신변처리가 안 되는 영유아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에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넷째, 현실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장애 영유아 담당교사의 인건비를 100% 지원해주고, 특수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학기 중에 장애 영유아가 퇴소하는 경우에도 인건비 지원은 계속 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 영유아에 대한 정보 이해 사이트 구축이 필요하다. 장애 영유아에 대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이 제시된 사이트가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면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V.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관련된 요소를 기초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근거하여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인적환경의 질 제고

가. 전문인력의 수급과 전문성 제고

다른 모든 교육과 마찬가지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인식과 지식은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인적환경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고, 또 그 인적환경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얼마나 협력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지가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전문인력 수급과 교육의 문제는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내실화를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많은 기관들은 통합학급을 담당할 장애 영유아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태도와 지식을 지니고 있는 전문인력¹²⁾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적절하고 필요한 교육적 지원도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한편 기관장은 기관 운영에 있어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기관장의 통합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지식은 장애 영유아의 배치 결정과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대한 지원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기관장들은 물리적 환경이나 교사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 영유아 입학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며, 입학을 허용하고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위해 적절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12) 여기서의 전문인력은 장애 영유아를 담당하는 특수교사나 통합지원교사뿐 아니라 관련 연수를 받은 통합학급의 일반교사, 치료사 등을 포함함

전문인력의 수급과 전문성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관장, 교사, 학부모 모두 특수교사와 치료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기관장은 보조인력 지원을 들었고, 교사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조정이라고 응답함.
-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통합학급의 담당자도 일반교사 1인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원확보에 대한 만족도도 불만족이 더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현장에서는 인력 확보에서부터 어려움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고용하기 어려운 인력으로는 특수교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치료사로 나타나 통합학급의 전문인력 수급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이러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예산부족이나 낮은 임금, 유능한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환경 등이 가장 큰 요인임.
- 현재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¹³⁾ 중 특수교육이나 통합교육 관련 교육이나 연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가 4명 당 1명 정도로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시급함.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특수교사 자격을 지닌 전문인력이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고, 통합보육시설의 장애 영유아를 담당하는 통합지원교사는 특수교사 자격은 없더라도 일정한 연수를 받고 배치된 인력이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교사의 관심이나 연수 경험 여부에 상관없이 일반교사가 장애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 연수내용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개별화교육, 교수 방법, 통합에 대한 이해 등임. 대상에 따라서 일반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문제행동 중재방법과 그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과 교수법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고, 특수교사는 장애아의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내용과 일반아의 특성이나 이들을 위한 교수법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한편 학부모들은 교사의 자질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93%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합 담당교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인성이라고 응답함.

13) 여기서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통합학급의 장애 영유아 담당교사와 일반아 담당 교사 모두를 포함한다.

- 통합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가 적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현재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사나 유아특수교사도 보육시설에 오래 남아있기 어려움. 뿐만 아니라 현장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급하는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와 유치원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 여성부에서 인정하는 특수교사(자격인정)와 보육교사가 장애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어서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일정 기준이 없고 이들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으며 혼란의 여지가 있음.
- 통합교육과 통학보육을 하고 있는 기관의 기관장이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부정적인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처음부터 장애 영유아 입학을 거절하거나, 입학을 허락하고도 장애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육하는데 관심이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많음.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내실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문성을 지닌 인력 수급 및 수당 지급

장애 영유아를 통합하여 교육하고 보육하는 일반 유치원과 보육시설 현장에 전문 인력, 특히 특수교사가 부족하지만, 실제로 특수교사의 수급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많은 대학에서 특수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최근 유아특수교육과가 신설되어 더 많은 유아특수교사들이 양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공립유치원은 특수교사를 1년에 30명 내외로밖에 선발하지 않고 있고, 사립유치원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특수교사를 채용할 여력이 없으며, 보육시설은 근무여건과 교사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어서 특수교사들이 통합현장에 가기보다는 병원이나 복지관을 선택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보육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사들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고 항상 이직할 생각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성가족부에서는 교육지책으로 일반교사를 40시간 연수를 통해 통합지원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보건대 장애 영유아가 배치된 모든 기관에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공립유치원과 같이 특수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곳은 모두 배치를 하되 그렇지 못한

곳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정부는 현재 공개채용하고 있는 유아특수교사의 수를 대폭 확대한다. 이렇게 채용한 유아특수교사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담임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사로 임명한다. 현재 국공립유치원의 특수학급에도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앞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활성화되면 영유아 통합 지원을 위한 순회교사가 상당 수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추계하여 현실성 있는 임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장에서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유치원교사나 보육교사에게 최소한 관련 과목 9학점을 이수하거나 150시간 정도의 연수를 통해 임시 자격을 부여하여 우선적으로 통합학급의 장애 영유아 담당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시자격을 가진 교사들로 하여금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추후 정식자격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한다. 장애 영유아 담당교사에게는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통합학급의 일반 영유아 담당교사에게도 일정 비율의 수당을 지급한다.

셋째, 장애 영유아가 3(4)인 미만으로 통합학급을 교사 1인이 담당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유아교육이나 보육과 특수교육을 복수전공한 교사로 하여금 학급을 담당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 교사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초를 가지고 특수교육에 전문성을 지닌 질 높은 전문인력들이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지원하여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직교사와 예비교사연수 및 지원을 통한 전문인력의 질 관리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인력의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수교사가 통합현장에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이러한 현실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볼 때 중앙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단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서 특수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통합학급을 담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을 길러내는 일일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통합학

급 전문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여 전문인력을 길러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맞춤형 현직교사 연수

이미 장애 영유아 통합학급에 배치된 교사들의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고 실제로 통합교육이나 특수교육과 관련한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우선 시급하게 장애 영유아 통합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통합교육과 관련한 연수 과정을 신속하게 이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장애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장애 영유아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중심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좀 더 나아가서는 장애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뿐 아니라 모든 유치원과 보육시설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의 통합교육 관련 사전 연수 경험여부에 따라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고 교사의 요구에 기초하여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전반에 대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교사 각 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연수가 아니라 교육내용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한다.

셋째, 중앙정부에서는 대체교사를 확보하고 연수비용을 지급하여 교사가 실제적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연수를 받은 교사에게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나) 일반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선

유치원교사나 보육교사라면 누구나 현장에서 장애 영유아 통합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자질을 형성하기 위하여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할 수 있는 소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장애 영유아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의 당위성에 대한 내용의 교양과목을 이수하도록 한다.

둘째,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통합교육 관련 과목을 최소한 1과목 3학점 이상을 필수과목으로 하여 이수하도록 한다. 현재 개정 중인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세부이수기준(안)은 2급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직소양으로 특수아동의 이해 과목 2학점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C 대학 유아교육과의 경우 유아특수교육개론과 장애아통합에 대한 과목을 3과목 9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3과목을 이수하면서 현장 관찰과 참관, 실습을 통해 부담과 두려움이 줄어들고 장애 영유아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된다고 한다(본 연구 2차 자문회의). 따라서 자격이수 기준으로 2학점의 기준은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수아동의 이해 과목에서 실제로 다루는 내용에 장애 영유아 통합현장을 경험해야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이수기준이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목의 개설은 특수교육학과가 있는 경우 대학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개설한 과목을 수강 인정할 수도 있다.

셋째, 통합학급의 경우 교사 2명 이상이 배치된 경우가 많으므로 팀티칭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각의 교사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하나의 팀으로 협조하여 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양성 교육과정에서 팀티칭의 기술을 다루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다) 통합학급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장기적으로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사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이 통합학급을 담당하도록 한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기초를 가지고 장애 영유아와 관련된 특수교육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3년제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배출되고 있으므로, 이들로 하여금 전문대학을 졸업 후 특수교육이나 통합교육 관련 전공으로 심화자격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

둘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이나 통합교육 관련 전공을 하여 특수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입학의 기회를 확대하고 보조인력 제공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한다.

셋째, 최근에 생기기 시작한 유아특수교육과의 교사교육과정에 유아교육이나 보육 현장에서 충분히 통합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 예

컨대 유아특수교육과 교육과정에 일반아를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과 통합학급에서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수목표를 일상적인 하루일과에 적용하는 방법을 다루는 과목을 이수하게 하고 통합기관에서의 교육실습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유아교육과나 보육 관련 학과와 특수교육과가 함께 있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일정비율을 복수전공을 하도록 규정하여 유치원교사나 보육교사와 (유아)특수교사 복수자격을 취득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다섯째, 통합학급에는 이상의 전문자격을 가진 교사들을 우선 배치하고, 공식적인 임용의 과정을 거치며, 그에 적절한 처우를 함으로써 자격을 갖춘 교사가 현장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우선은 국공립유치원교사 임금의 70~80% 수준에서 시작하여 100% 수준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기관장의 전문성 제고

통합을 담당하는 교사뿐 아니라 기관장의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고 관련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장애 영유아 이해와 통합기관 운영에 관한 연수를 받도록 한다. 이러한 연수에는 기관장이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과 함께 장애 영유아와 담당교사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장에 대한 연수는 방법상으로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하는 기관의 기관장은 일정한 연수를 받은 자, 예컨대 대학(교)이나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이나 통합교육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50시간 정도의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관련 연수를 받은 자로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나. 보조인력의 적정 배치와 질 제고

특수교육보조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의 보조인력 유무도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일정한 연수를 마친 특수교육보조원을 초중등학교 우선으로 배치를 하고 그 다음 국공립유치원에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 2007년 8월부터 여성가족부에서는 반나절 정도의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장애아 보육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으며, 280명 정도의 인력을 180군데 시설에 지원

하고 있다. 장애아 보육도우미는 시설 상황에 따라 장애 영유아에게 직접 도움을 주기도 하고 보육시설 전반에 있어 청소나 빨래, 차량운행 보조 등 보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처럼 보조인력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특수교육보조원처럼 일정한 연수를 마치고 장애 영유아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보조인력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무원과 같이 청소나 배식 등 교사의 잡무를 경감해 주거나 현장 학습시 휠체어 밀기 등 영유아의 안전지도 보조 역할을 하여 교사가 장애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력이다.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보조인력 배치보다는 전문인력 배치가 우선이다. 실제로 보조인력 배치에 대한 요구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장에서 보조인력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의 방안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보조인력과 관련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조인력이 있는 기관이 29%에 불과하였으며, 있는 경우에도 교육청이나 시군구청이 지원하는 인력보다 자원봉사자나 친인척, 학부모나 기관이 고용한 인력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함.
- 현장의 교사들은 보조인력을 활동참여 보조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활동지도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문제행동 발생시와 행사참여시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남. 이는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보조인력이 필요하며, 또한 특별한 행사 시에도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보조인력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보조인력의 배치와 질 제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문 보조인력 배치와 지원

장애 영유아가 학급에 배치된 경우에는 장애 영유아에게 수시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보조인력이 절실하며, 특히 독립보행이 안 되거나 신변처리가 안 되는 장애 영유아의 경우에는 1 대 1의 보조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10학급당 3학급 정도만 보조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보조인력의 자질과 태도 및 전문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았다. 이를 근거로 전문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보행이 안 되거나 신변처리가 안 되는 장애 영유아의 경우에는 하루 일과 중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1 대 1의 보조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 영유아 통합기관에는 최소한 독립보행이 안 되거나 신변처리가 안 되는 장애 영유아를 제외한 장애 영유아 3명당 1명 정도의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셋째, 통합학급의 전문 보조인력은 배치 전 일정기간 심도 있는 연수, 예컨대 50시간 정도의 교육이나 3학점 정도의 장애 영유아 이해 과목을 수강한 인력으로 배치한다. 통합학급의 전문 보조인력의 경우 장애 영유아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인력이기 때문에 이들의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식은 장애 영유아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에 있어 지나친 도움을 삼가고 적절한 비계설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전문 보조인력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일정한 연수나 관련 과목을 수강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배치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전문 보조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장애 영유아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한 학급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2) 일반 보조인력 배치와 지원

일반 보조인력은 학급 내의 일과 운영 중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조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주 업무는 청소나 교실 정리 정돈 등 교사의 잡무와 차량운행 보조를 해 줌으로써 교사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력이다.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 보조인력에 대한 현장의 요구는 높다. 일반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보조인력은 장애 영유아 통합기관 우선으로 배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단순히 장애 영유아가 많이 배치된 기관을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장애 영유아가 배치되어 있는 기관의 인력구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만들고 점차적으로 통합기관당 1인 이상의 일반 보조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 보육시설 사무원 인력 보조 사업도 배치의 우선순위를 장애 영유아 통합기관에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 보조인력은 지역자원봉사센터나 대학교의 자원봉사자나 사회복지무원

등 사회적인 인프라를 활용한다. 이들을 통합기관에 배치할 때는 최소한 하루 정도의 통합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하여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를 하지 않더라도 이들을 대할 때의 태도 정도는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일반 보조인력의 통합기관 연결과 이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가 담당하도록 한다.

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 하향화

일반학급과 마찬가지로 통합학급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또한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일반학급은 연령과 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규정이 다르다. 유치원의 경우 지역마다 달라 한 학급당 유아 수를 25~35명 정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체로 만 5세 한 학급당 30명을 원칙으로 한다.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이 만 0세 1 대 3, 만 1세 1 대 5, 만 2세 1 대 7, 만 3세 1 대 15, 만 4, 5세 1 대 20이다. 통합학급도 이에 준하여 장애 영유아가 배정이 되는데,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에는 한 학급에 4명의 장애 영유아가 배정되며, 연령에 따라 일반학급(원적학급)에 통합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대개 장애 영유아도 일반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한 학급의 전체 인원내 포함되어 배치된다.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장애 영유아 3명당 1명의 통합지원 교사가 배정되어 통합학급의 정원과 별도로 배정이 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과 관련된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연령과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교사들은 특수교사 대 장애 영유아의 비율을 1 대 2 정도로 해 주길 원하고 있으며, 일반교사 대 일반아의 비율은 1 대 15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음. 또한 장애 영유아 1인당 일반아 5명을 줄여주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교사 대 영유아 비율에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며, 만 4세의 경우 이상적인 비율을 교사 2명, 일반아 15명, 장애아 2명이라고 생각함. 유치원 만 5세 학급의 경우에도 장애아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일반 유아 수를 20명 정도로 줄여주기를 희망함.
- 전문가들은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오히려 장애 영유아 통합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하며, 교사의 역량에 따라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이 현행 1 대 3이나 4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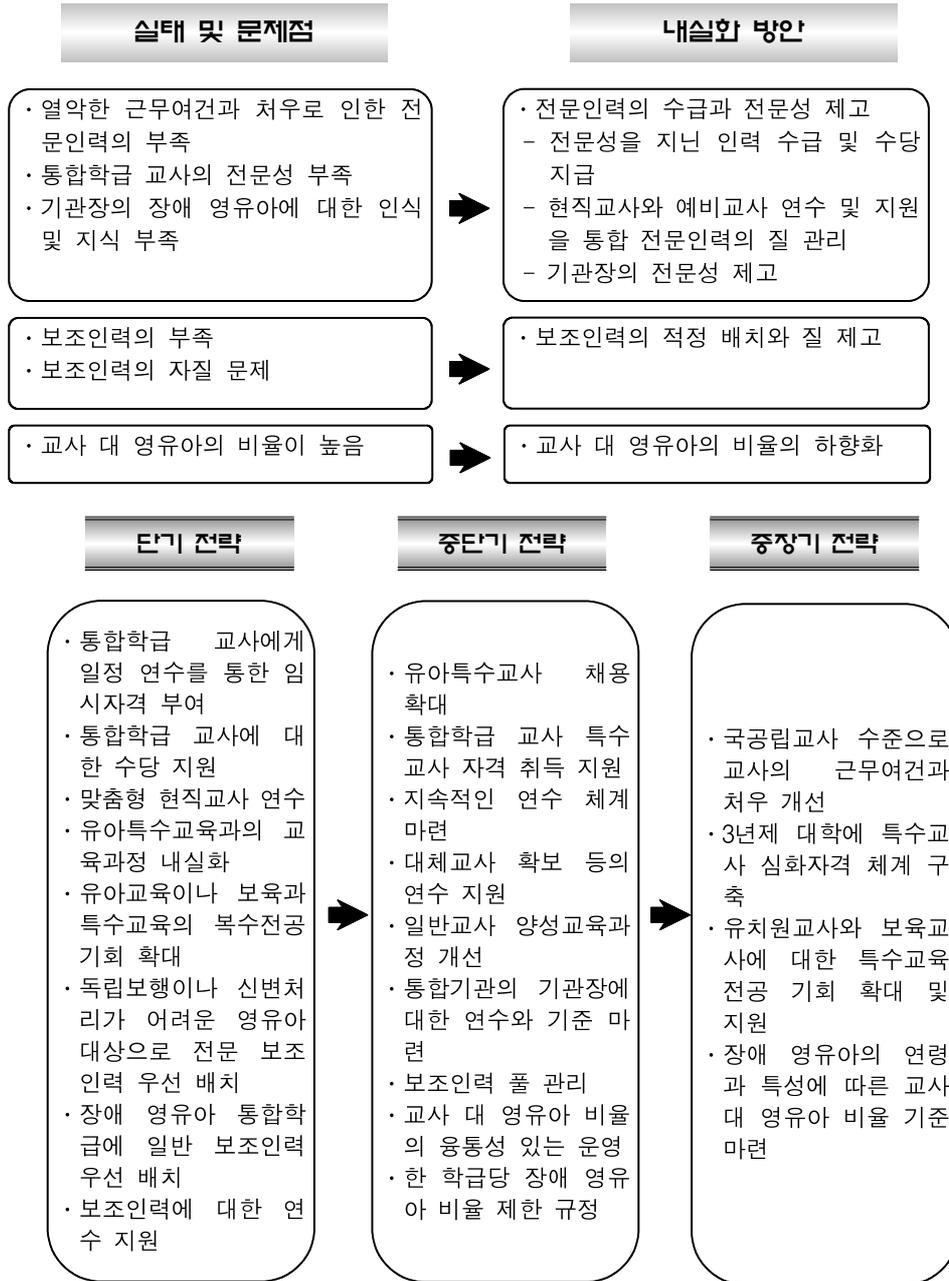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되어 있는 장애 영유아의 연령, 장애 특성이나 정도에 따라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장애 영유아의 연령,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일반아를 2명~5명 정도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적용은 특수교육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 전문가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유치원에 장애 유아가 통합되어 있을 경우 일반아의 수를 장애 정도에 따라 줄여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제도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쉽지 않은 작업이겠지만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의 담당자들이 협의를 하여 영유아의 연령, 장애 특성, 정도에 따른 대부분의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한다.

둘째, 통합학급의 장애 영유아는 최대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10% 정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통합학급에 장애 영유아의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장애 영유아들이 일반 영유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 보육시설의 만 4세 학급에 일반아 21명과 장애아 6명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 교사가 3명이 배치되어 운영의 융통성은 있으나 일반아와 장애아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미 통합보육시설의 장애아는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었으나 해석이 모호하게 되어, 2008년도에는 일반시설의 장애 영유아가 전체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적정 통합 인원 준수를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본 연구 1차 자문회의 결과). 그러나 전체 인원보다는 장애 영유아들이 실제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통합학급의 인원을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장애 영유아로 인해 학급의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 조정을 할 경우 기관의 수입이 감소하므로, 이를 위한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이상의 인적 환경의 질 제고를 위한 전략 로드맵은 <그림 V-1-1>과 같다.



[그림 V-1-1] 인적 환경의 질 제고를 위한 전략 로드맵

2. 물리적 환경 개선

가. 편의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환경적 배려

‘편의시설’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항). 편의시설 등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배려는 장애 영유아들이 시설과 환경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이 또래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통합에 이르게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

편의시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모든 기관에서 점진적으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장애 영유아가 있는 모든 기관에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하면 이상적이겠으나,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모든 기관을 지원하기는 어렵다. 또한 모든 장애 영유아가 편의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다른 장애를 가진 영유아들이 기관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물리적 환경 중 편의시설 및 그 밖의 환경적 배려와 관련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기관이나 학급에서의 물리적 환경 배려에 대한 응답은 기관장의 경우 배려를 안 한다는 응답이 59.4%로 배려를 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배려를 하는 기관 중 편의시설을 배려한다는 응답은 75.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기관장이 물리적 환경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장애의 특성상 불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제외하고 인력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예산부족이라는 응답이었음.
- 교사의 경우는 물리적 환경을 배려한다는 응답이 58.0%로 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 42.0%보다 높게 나타남. 물리적 환경을 배려하는 교사 중 장애 영유아가 이동하기 편하도록 교실이나 보육실 공간을 구성한다는 비율이 36.3%정도임. 물리적 환경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장애 특성상 불필요하다는 응답을 제외하고는 정보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인력부족, 예산 부족 순이었음.

- 기관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관장과 교사 모두 30% 정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서는 특별히 편의시설이나 장비 등에서 배려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었음.
-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는 만족이 72.1%, 보통이 23.8%, 불만족이 4.1%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 A 어린이집은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은 없었으나 손잡이,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수전과 문의 손잡이 등에서 장애 영유아를 위한 배려가 있었음. 교사들은 학급에서 집단 활동시의 자리배정 등에서 장애 영유아를 위해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었음.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장기적으로는 모든 기관이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경과조치로서 다음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편의시설을 필요로 하는 장애 영유아가 있을 경우 기관 내에서 적은 재정과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점차적으로 각 통합기관이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둘째, 일정 시간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별도의 개별 공간을 확보한다. 가능하면 현재 기관에 있는 공간 중 일부를 활용한다.

셋째, 대도시의 경우 지역 단위별로 교통이 편리하고 일반 교육과 보육 수준이 훌륭한 기관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한다. 최근 실시되고 있는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와 시범 실시되고 있는 유치원 평가와 연계하여 일정 수준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장애 영유아를 위한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편의시설이 필요한 장애 영유아의 경우 이러한 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배치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영유아를 위한 모든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이 편의시설을 갖추어 집에서 가깝고 부모들이 원하는 곳에서 장애 영유아가 교육받고 보육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농촌이나 작은 소도시의 경우에는 전담기관이건 통합기관이건 기관 자체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지원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 영유아가 통합되어 교육을 받거나 보육을 받을 경우 장애 영유아가 불편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정도의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장애 영유아 전담교육기관과 전담보육시설에서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전담시설과 통합시설의 경계를 없앤다. 결과적으로 장애 영유아들이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일반 영유아들과 함께 생활하며 사회적 통합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

나. 보조공학기기¹⁴⁾ 대여 및 관련 연수

보조공학기기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기능적 역량을 증진시키거나 개선하는데 사용되어지는 품목, 장비, 또는 제품으로 일상생활, 의사소통, 착석, 이동, 학습 등을 지원하는 보조기구가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 4항은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아 교육을 위한 설비를 명시하고 있다.

보조공학기기와 관련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장애 영유아를 위해 물리적 환경을 배려한다는 기관장과 교사 중 각각 7.9%와 8.5%만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한다고 응답함. 이러한 배려를 못하는 이유는 인력부족, 정보부족, 예산부족임.
-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 A 유치원은 특수이자가 있음에도 창고에 넣어놓고 활용하지 않고 있었고, S 어린이집은 바퀴가 달린 특수이자를 자체 제작하여 잘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 경사로 책상,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구, 보조젓가락, 특수가위 등의 보조공학기기를 갖추고 있었음.

보조공학기기는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장애 영유아가 필요로 하는 모든 보조공학기기를 갖추는 것은 사실 어렵다. 그러나 장애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시급하고 활용도가 높은 보조공학기기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유목화하고 장애 영유아가 기관에 들어왔을 경우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준다. 해마다 다른 유형을 가진 장애 영유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반납하고, 새로운 기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새로 대여한다.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하는 역할은 지역마다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에서 담당하여 관리한다.

둘째,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교사연수를 실시한다. 현장의 교사들은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서 대체의사소통기

14) 최근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보조공학기기가 관련서비스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장애 영유아의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물리적 환경의 한 요소로 다루었음.

기 등을 구입하고도 누구에게 필요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 선반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본 연구 2차 자문회의). 따라서 장애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소개하고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교사연수가 필요하다.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 장애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우선순위를 주도록 한다.

셋째, 교사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보조공학기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에 보급함으로써 교사들이 필요할 경우 간단한 재료로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컨대 본 연구 사례조사에서 A 어린이집은 일반 유아용 의자 양쪽에 나무판자를 덧대어 뇌병변 장애 유아가 떨어지지 않고 앉을 수 있도록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다. 교재교구 및 제작 매뉴얼 보급

교재교구는 영유아들의 발달을 지원하는 매개체로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는 특히 수업자료로서의 교재와 자유선택활동의 놀이 자료로서의 교구가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장애 영유아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들의 수준에 맞는 교재교구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 영유아들의 발달을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재교구와 관련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물리적 환경은 장애 영유아 교육을 위한 교재교구였으며, 기관장들도 개별 공간 확보에 이어 두 번째로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교사들이 교재교구를 포함한 물리적 환경을 배려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정보부족을 들고 있음.
-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 A 유치원의 경우 통합학급에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에서의 배려가 없었으며, 장애 영유아가 사용하는 교재는 대부분 특수교사가 별도로 준비한 것들이었음. A 어린이집의 경우는 통합학급에 장애 영유아의 수준을 생각하여 유아 학급에도 영아용 놀잇감을 비치하고 있었음.

현장에서 장애 영유아 교육을 위한 교재교구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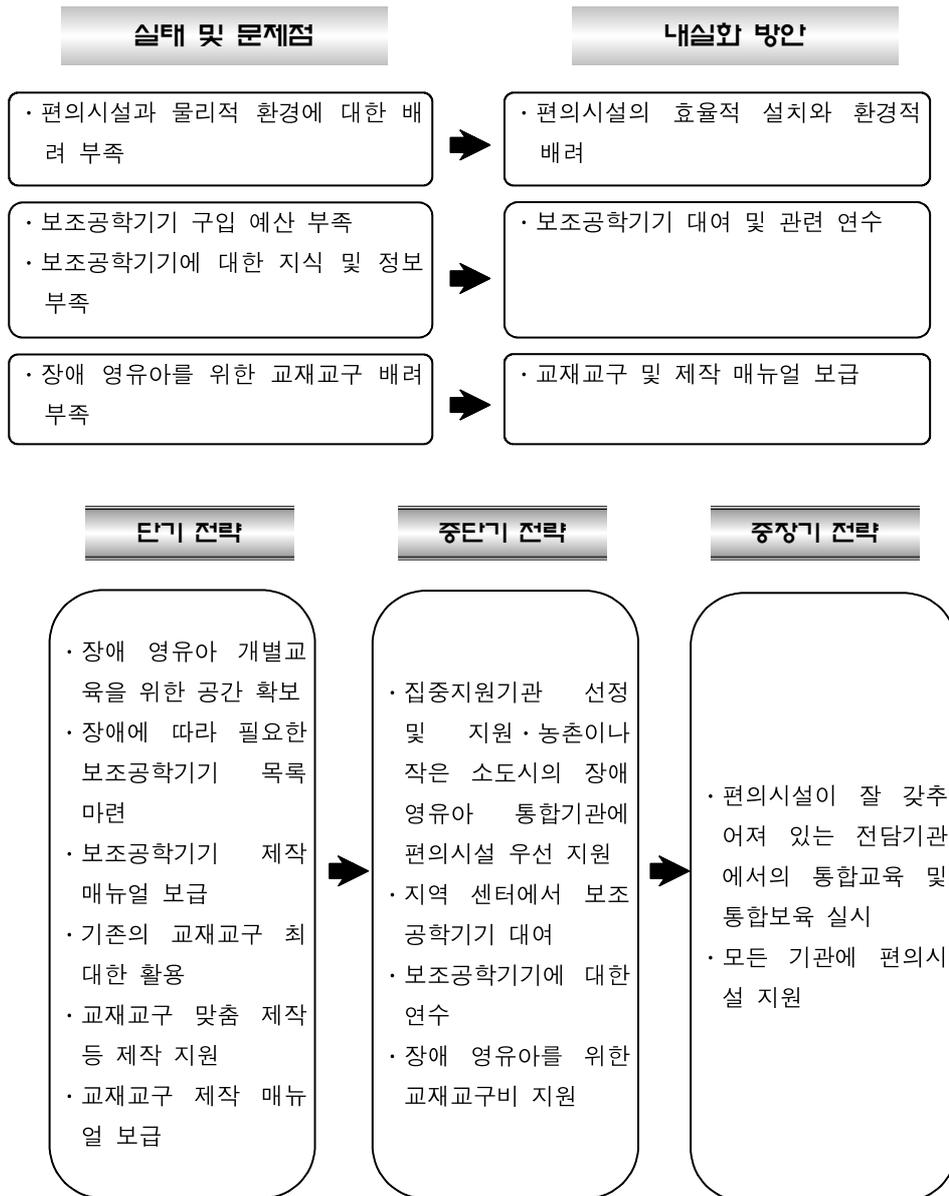
첫째, 기존의 교재교구를 최대한 활용한다. 단순히 난이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기관의 연령이 낮은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교재교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사용방법이 어려운 경우는 사용방법을 단순화하며,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경우에는 약간의 수정을 하여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

둘째, 장애의 유형에 따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교구를 지원한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장애 영유아 발달을 위한 장애 유형별 교재교구를 해당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기관과 보육시설 현장에 공급한다. 아울러 현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재교구를 맞춤 제작하여 공급하도록 한다. 예컨대 2007년 서울시에서 일용직 인력을 보육정보센터에 배치해서 현장에 요구에 따라 교재교구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했던 것처럼, 인력지원을 통해 교사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장애 영유아에게 꼭 필요한 교재교구를 의뢰했을 때 맞춤 제작해 줄 수 있다.

셋째, 장애 영유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재교구 제작 매뉴얼을 현장에 보급함으로써 교사들이 이러한 정보를 참고하여 장애 영유아들을 위한 교재교구를 손쉽게 제작하거나 제작을 의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현재 장애 영유아 통합 보육시설에 일부 지원하고 있는 교재교구비를 현실에 맞게 증액한다. 또한 장애 영유아가 통합되어 있는 기관에는 어디든지 일정액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여 필요시 구입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을 마련해 준다.

이상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 로드맵은 <그림 V-2-1>과 같다.



[그림 V-2-1]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 로드맵

3. 적정한 배치 및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은 진단-선별-배치-교육적 지원 등 일련의 과정하고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되면 장애 영유아 배치를 비롯하여 내실 있는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가정하면서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통합교육의 질을 고려한 적절한 배치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육하는 기관은 학부모가 원하면 장애 영유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학부모가 원해도 통학 거리로 인해 다니지 못하거나 기관의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장애 영유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 유아 교육이 의무교육이 되고 장애 영아 교육이 무상교육이 되면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서 장애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육하게 될 것이다.

장애 영유아 배치와 관련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장애 영유아의 기관 입학 결정 방법은 기관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허용하는 비율이 2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운영자 결정 17.2%, 교육청 배치 11.5%, 교사회의 결정 10.7% 순이었음.
- 장애 영유아의 선발기준으로는 장애 유형이라는 응답이 63.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문제행동 정도 42.5%, 보행가능성 29.4%, 자조기술 26.7% 순이었음.
- 기관에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이나 통합보육을 하게 된 계기는 기관의 설립취지인 경우가 46.9%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 요청이 36.3%로 그 다음이었음. 그러나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에 따라 편차가 심하여 보육시설은 설립취지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설립취지보다는 학부모의 요청으로 받게 된 경우가 더 많았음.
- 교사가 장애 영유아 학급을 담당하게 된 계기는 본인 희망이 34.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원장 권유 21.4%, 학부모 요청 14.6% 순이었음. 교

사의 응답도 기관·설립 유형에 따라 편차가 커서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요청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어쩔 수 없는 기타 상황과 원장 권유가 각각 23.7%, 23.3%였고, 본인 희망에 의해 담당하게 된 경우는 10%도 채 되지 않음.

- 기관의 통합 형태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모두 통합해서 운영하는 완전통합의 형태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통합의 형태는 오히려 완전통합의 형태가 56%~71%로 현재의 상태인 80%보다 더 낮게 나타났고, 시간제 부분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7%~38%로 나타나 13%~17%인 현실에 비해 시간제 부분통합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음. 시간제 부분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교사가 가장 높았음. 이러한 결과는 완전통합을 추구하는 사회적 동향과 조금 다른 결과임.
-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 S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입급 심사를 하지만 형식적이고 대개 선착순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유치원의 교사는 유치원과 가정의 거리가 멀 경우 등원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급 심사 시 거리를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를 함. S 유치원에서의 통합학급 교사선정은 상황에 따라 결정함. 한편 A 어린이집에서는 3배수의 아동을 대기 순서대로 면접하여 선정위원회가 입소를 결정함. 이때 기존의 장애와 다른 장애를 가진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함. 통합지원교사 선정은 전공이나 교사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함.

장애 영유아 부모가 원하면 기관에서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러 가지 조건과 절차에 의해 장애 영유아의 입학결정을 결정한다. 따라서 무조건 장애 영유아를 받으라는 행정적 조치에 앞서서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과 여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미 장애 영유아들이 배치되어 있다면 그들을 위한 최선의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학 및 학급구성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장애 영유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특정한 편의시설을 필요로 하거나 이동이나 신변처리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지역마다 선정된 집중지원기관에 배치한다.

둘째, 장애 영유아 배치시 특수교육이나 장애 영유아 통합 관련 교육을 받은 교

사가 근무하는 기관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여 장애 영유아가 통합의 상황에서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수 경험이 없는 교사가 장애 영유아를 담당하게 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집중 교육을 받도록 한다.

셋째, 장애 영유아 배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에서 담당한다. 지역에 위치한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기관 중 접근성, 기관 및 교사의 특성, 장애 영유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 영유아를 적절하게 배치한다.

넷째, 장애 영유아의 장애 유형과 특성 및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기관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별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 기관의 배치를 고려한다.

나.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관련 서비스 지원

좋은 인적환경과 물리적 환경에서 운영되는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영유아는 교육의 혜택을 받고 긍정적인 통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적환경만큼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도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장애 영유아 통합을 하는 기관은 프로그램의 질이 보장된 기관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치원 평가¹⁵⁾에서 인정받은 유치원과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이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모든 기관이 인증을 받아 어느 기관에 가더라도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현장에서는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가 실시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네 기관 중 한 기관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교육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실시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2.5%, 시간부족이라는 응답이 10.6%였음.
- 장애 영유아 교육에 있어 핵심적 요소인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은 작성을

15) 유치원 평가는 2007년 공사립유치원 100개원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했으며, 2008년부터 2010까지 1주기(3년) 평가가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가수준의 유치원 평가의 기본 계획과 추진 방향만 제시하고, 실제적인 평가시행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게 됨.

하는 경우가 작성을 안 하는 경우보다 조금 더 많았으나, 기관유형에 따라 보육시설은 10개 시설 중 7개의 시설이 작성을 하고 있었고, 유치원은 10개원 중 3개원만 작성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사립유치원은 10개원 중 1개원 정도만 작성하고 있어 집단 간 차이가 큼.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기관유형, 기관·설립유형, 지역에 상관없이 전문인력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작성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교사들이 장애 영유아를 위해 교육적 배려를 하는 것은 또래들과의 놀이 및 사회적 지도가 8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신변처리 및 기본생활습관지도 58.6%, 일반 영유아들의 태도 및 수용도 증진 45.1%, 의사소통과 관련된 지도 39.8% 순으로 나타남. 반면에 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 영유아의 발달 기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응답은 거의 모든 발달에 있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육할 때에도 특정한 발달에 편중하기보다는 일반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전인발달을 지향해야 할 것임을 시사함.
-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참여도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았고, 치료지원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50% 이하로 가장 낮게 나타남. 기관장에 따라서는 치료지원까지는 통합기관의 역할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있으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치료지원이 절실하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이외에도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기관에서 해 주기를 기대함¹⁶⁾.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의 시행

장애 영유아 주변 사람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통합의 질과 관련이 있다. 장애 영유아 학급의 일반 또래 영유아와 장애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뿐만 아

16)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2007년 12월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안) 제 28조 1항에는 치료지원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치료, 심리·행동치료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라, 기관장의 태도, 기관 구성원들의 태도, 부모들의 태도는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모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이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연중 프로그램과 자료를 장애 영유아 통합기관에 보급하고 활용을 위한 기관장과 교사 대상 연수를 실시하여, 기관장과 교사들이 학부모와 또래 유아, 기관에 근무하는 다양한 인력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곧 보급될 예정이다. 이러한 자료 보급이 중앙정부 부처를 떠나 장애 영유아가 있는 기관 어디든지 보급이 되고, 보급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 연수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가 중심이 되어 기관장과 교사, 부모와 일반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이 때 특히 일반 부모와 일반국민들의 감성을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부모와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고 장애 영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당연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각 장애 영유아에 맞도록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재구성함으로써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영유아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관련 심층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장애 영유아에 맞게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한다.

둘째, 많은 인력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애 영역별로 예시자료가 방대하게 제시되어 있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이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우선은 현재 개발되어 있는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위한 매뉴얼을 모든 기관에 보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 2006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기초한 활동지도집의 내용에 근거하여 유치원 통합교육 활동 자료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보육시설의 경우 2007년 여성

가족부에서 장애 유형과 연령별 보육활동 수정 예시가 제시되어 있는 장애아보육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매뉴얼은 개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에 상관 없이 모든 장애 영유아 통합기관에 보급하고 이에 대한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현장의 교사들이 담당 영유아에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위한 매뉴얼에 대한 연수를 따로 실시할 수도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제 7차 유치원교육과정 연수 등 앞으로 실시할 전국 규모의 연수를 활용하여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작성에 대해 일정 시간 배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지역단위의 멘토 제도를 통해 장애 영유아 통합 관련 전문인력이 그 지역 통합교육을 하는 유치원과 통합보육시설 교사의 멘토가 되어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작성을 비롯하여 통합 프로그램 운영시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의 대학교수, 특수교육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의 전문가, 장애 영유아 전담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의 전문가가 멘토가 되어 지원할 수 있다.

넷째,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은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전인적 발달을 지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치료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 제 2항은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하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치료지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장애 영유아의 특성상 그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는 다른 기관보다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이 이루어지는 기관 내에서 치료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일 것이다. 따라서 통합기관 내에서 장애 영유아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되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지역별 집중지원기관에는 일정규모의 치료실과 치료교사를 배치하여 장애 영유아들이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적절한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통합교육을 하는 일반 유치원과 통합보육시설에는 현실을 감안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별 혹은 소집단으로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가 주축이 되어 순회치료사 제도를 운영한다. 이 때 지역별 집중지원기관이나 장애 영유아 전담 유아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의 치료교사 인프라를 활용할 수도 있다.

다. 전문가 지원 체계 및 자문 사이트 구축

현장의 교사들이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문가 지원 체계가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전문가 지원과 관련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교사들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활동 계획시 참조하는 것은 특수교육관련 교재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동료교사 자문 26.5%, 인터넷 22.8% 순이었고, 외부자문을 받는 경우는 4.9%로 아주 낮았음.
-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 교사들은 담당하고 있는 장애 영유아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된 정보제공 사이트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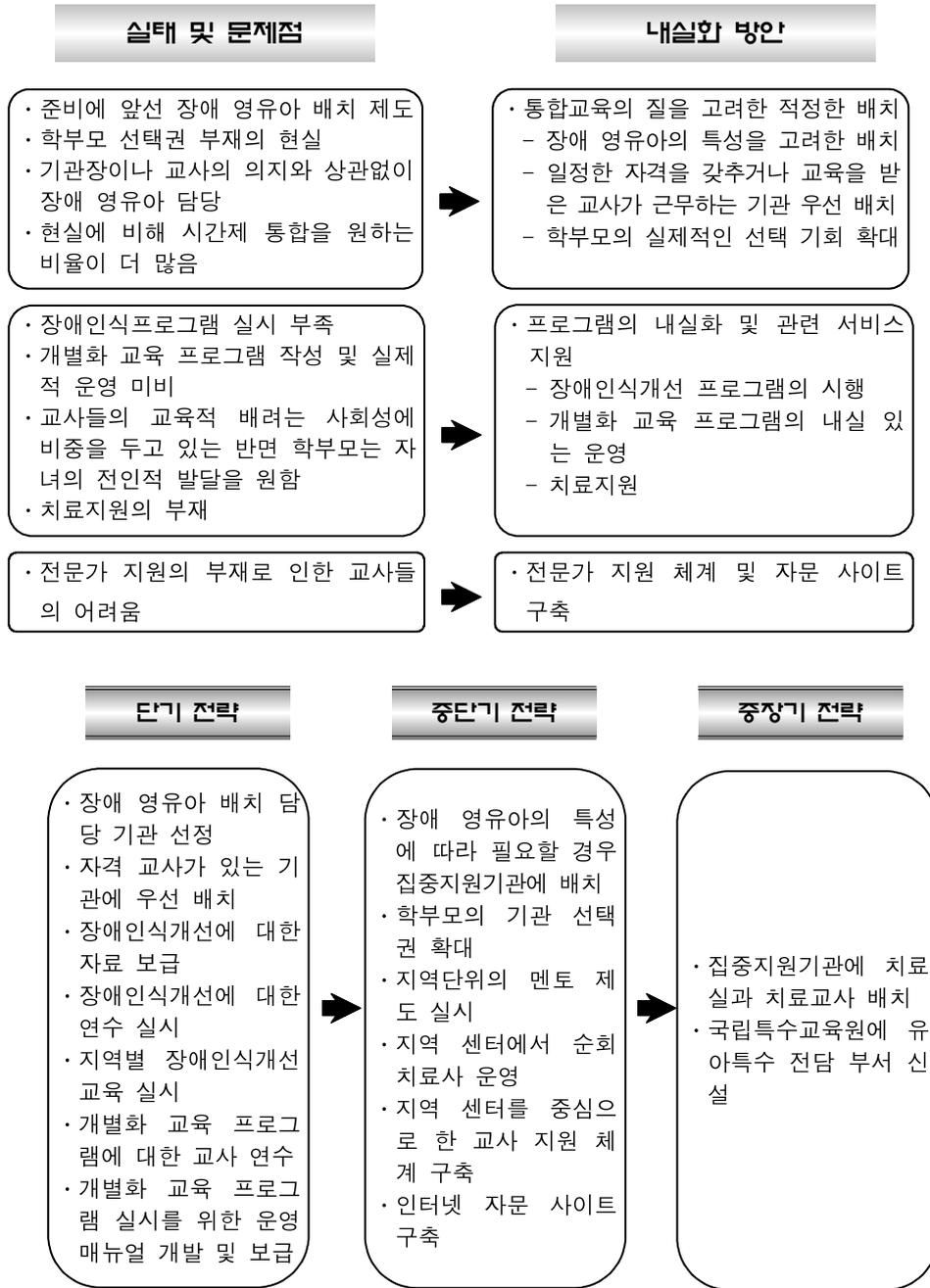
교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장애 영유아 통합학급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각 지역의 대학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의 전문가들을 십분 활용하여 이들이 지속적으로 교사들을 지원하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에 장애 영유아 전담 전문인력이 우선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을 통해 교사가 필요할 때 정보를 수집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통합 관련 자문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립특수교육원이 주축이 되어 통합관련 자문 사이트를 구축하고 관리하며, 지역별로 연결 사이트를 구축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가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센터에 배치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관련 전문가 1인이 전담하여 관리하도록 하되 지역의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이버 교사 연수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국립특수교육원에 유아특수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가 전문가 지원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인력관리와 더불어 다방면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상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략 로드맵은 <그림 V-3-1>과 같다.



[그림 V-3-1]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략 로드맵

4. 가정과의 연계 및 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가. 긴밀한 가정과의 연계 및 가족 지원 체계 구축

모든 교육이 그러하지만 기관과 가정과의 연계는 교육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 정도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더하다. 이러한 원리는 장애 영유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교사-부모 간의 협력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장애 영유아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가정과의 연계와 관련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기관에서는 장애 영유아 부모들의 요구가 부담스럽고, 부모들은 기관의 요구가 부담스럽거나 기관장이나 교사들의 태도에 섭섭함을 느낌.
- 기관에서 장애 영유아 가족에게 교육 프로그램 참여 요구를 하는 경우는 활동 계획시, 활동시, 평가시 70% ~ 75% 정도이며, 실제로 참여하는 경우는 67% ~ 73%임.
- 가정과의 의사소통 방식은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68.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기관 홈페이지 54.0%, 가정방문 53.8%, 가정통신문 39.3% 순이었음.
- 가정과의 의사소통 내용은 장애 영유아의 기관에서의 생활이 7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부모협조사항 57.8%, 자녀의 성장발달 54.2%, 문제행동 대처방법 49.3%, 교육(보육)과정과 활동 38.9% 순이었음.
- 장애 영유아 부모들은 기관과의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 만족하나 더 많이 의사소통하기를 원하고 있음.
- 학부모들의 기관과 가족과의 연계에 대한 만족도는 부모교육 및 상담 영역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71.2%였고, 부모참여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56.7%였음.

기관장과 교사들의 부모에 대한 생각과 부모들의 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요구를 기초로 기관과 가정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애 영유아 통합기관에 대한 정확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관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부모교육을 통해 장애 영유아 부모들이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부모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 부모들이 인식개선을 통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장애 영유아 통합기관에서는 장애 영유아에 대해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와 좀 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부모와 가족들이 상담을 필요로 할 때 상담을 해 주고, 필요할 경우 상담 기관을 연결시켜 주어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 실행, 평가에 학부모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넷째, 개별화 가족서비스를 내실화하여 가족을 지원하고 가족이 장애 영유아 교육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기관과 지역 센터가 연계하여 가족상담을 진행하고 각종 재정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족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지원을 한다.

나. 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장애 영유아의 발달을 증진하기 위한 교사와 관련 서비스 전문가와의 협력은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장애 영유아들은 유치원과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 등록하여 치료지원 등을 받는다. 따라서 장애 영유아 통합기관과 다른 기관과의 연계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에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장애 영유아가 기관에 오기 전에 다녔던 기관과의 연계 또한 같은 맥락에서 중요하다.

타 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통합을 위한 공식적인 자문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사회단체나 복지기관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가 1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의 지원 14.8%, 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의 도움 12.3% 순이었음.
- 외부 자문을 받는 내용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3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교사 연수 30.0%, 치료교육 15.6%, 진단 및 검사 13.3%, 가족상담 4.2% 순이었음.
- 현장에서 통합관련 기관이나 장애 영유아 담당자 목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 기관장과 교사가 공통적으로 연계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관은 의료 기관으로 각각 38.1%, 32.6%였으며, 두 번째로 기관장은 외부 전문가라고 응답한 반면(34.6%), 교사는 정규 일과 후 장애 영유아 담당기관이라고 응답함(31.5%).
- 타 기관에 대한 협조 여부에 대한 응답에서 서로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비교적 협조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협조가 안 되는 경우, 그 이유로 공식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상의 실태 및 문제점을 기초로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 차원에서 장애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관련된 중앙정부지원 기관의 목록을 만들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이 하나의 팀으로서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특히 장애 영유아 전담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기관이 지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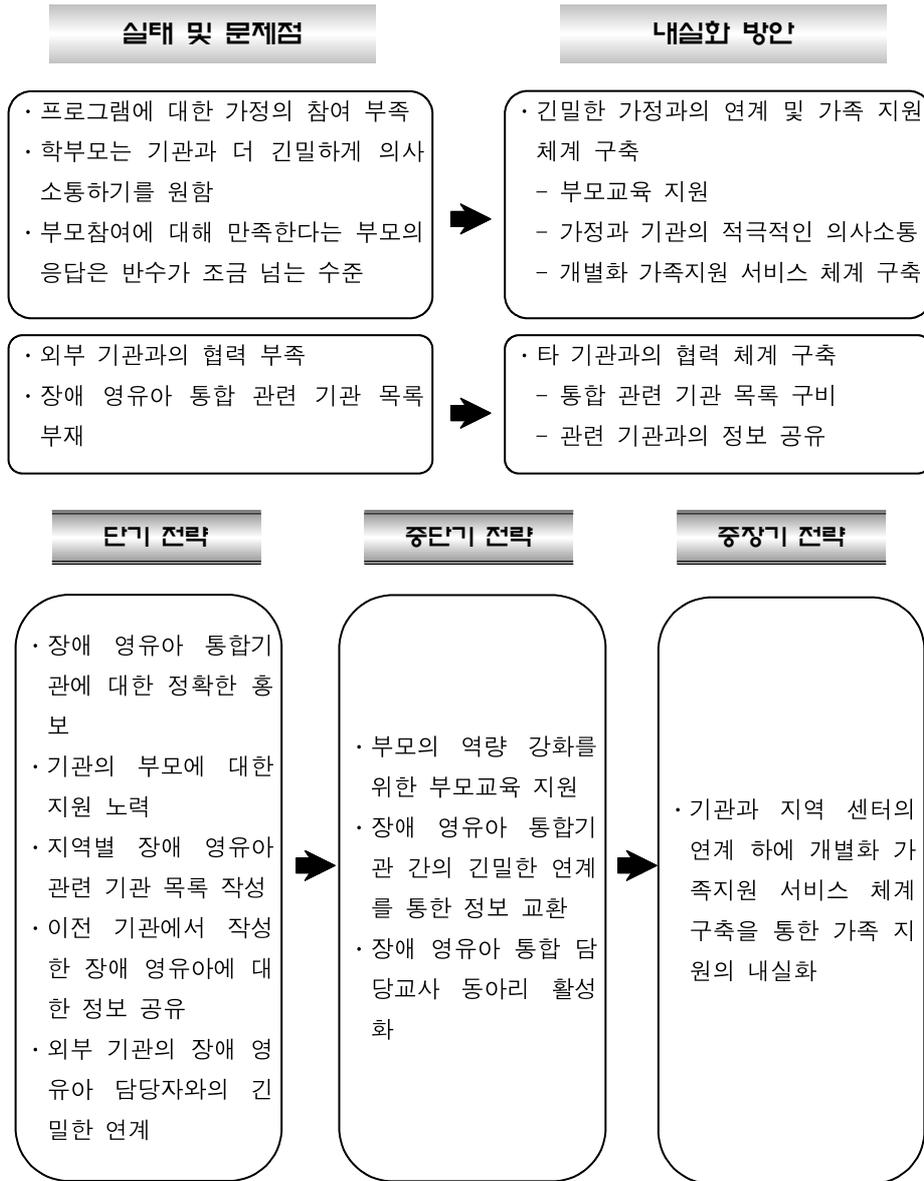
둘째, 장애 영유아 통합기관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장애 영유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기관에 대한 목록과 그 지역 사설기관의 목록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하고 부모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해 준다.

셋째, 장애 영유아가 기관에 처음 들어올 때 그 동안 거쳤던 기관과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전 기관에서 작성한 장애 영유아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함께 공유하도록 한다.

넷째, 장애 영유아가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외의 기관을 이용할 경우, 장애 영유아 담당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적극 협조한다.

다섯째, 장애 영유아를 통합하고 있는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기관을 공개하고 통합교육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전문성을 높인다. 하나의 방법으로 자율장학회 등 지역별 조직을 활용하여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을 하는 교사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중앙정부가 이러한 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사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가정 및 타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전략 로드맵은 <그림 V-4-1>과 같다.



[그림 V-4-1] 가정 및 타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전략 로드맵

5. 정책 지원

본 절에서는 정책 지원으로 지역 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프로그램 지원을 제도적인 측면과 연결하여 제안을 하고 이후에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방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가. 지역 센터 활성화를 통한 프로그램 지원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내실화를 위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 등 지역 센터가 해야 할 역할이 상당히 많다. 실제로 지역 센터를 활성화하여 센터들이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 주기만 한다면 현재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많은 문제들이 동시에 해결되고 장애 영유아들이 통합 환경에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수교육 대상학생 지원을 위해 2001년 26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범 설치·운영 이후 이를 점차 확대하여 2007년 현재 전국에서 182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발견 정보관리, 진단·평가, 선정·배치, 특수교육활동 지원 등이다. 2005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그 기능을 다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각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사나 치료교육교사 등의 전담 전문인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전담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의 보육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2007년 12월 현재 중앙보육정보센터를 비롯하여 전국에 38개의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의 목적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일반주민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육시설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보육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보육정보센터 설치의 주목적은 아니지만 센터의 기능 중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실제로 장애아 보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별화 보육계획안 등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으며, 장애아 보육시설 검색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보육정보센터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2007년 12월 현재 전국에 아직 38개소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어 절대적으

로 그 수가 부족하고 장애 영유아 관련 전문인력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역할만을 담당하는 전담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전국 시군구에 모두 설치되어 있고, 영아기 진단부터 시작하여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원을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 영유아에게 특성화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아직 시군구 차원의 센터는 모두 설치되지 못한 상태에 있고, 그 이후의 연계가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서 지역 센터를 중심으로 장애 영유아와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지원을 위한 센터의 역할과 인적자원 배치에 대한 방안을 구상해보고자 한다.

1)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위한 지역 센터의 역할 규정 강화

200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법 제 11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고, 2007년 12월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있는 중이다. 특수교육법 제 11조 1항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발견부터 활동과 관련 서비스 지원, 교원 연수까지 특수교육센터의 역할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제정될 특수교육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이러한 역할이 보다 상세하게 규정될 것이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 7조에서 시도지사는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 13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으로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들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수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등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의 역할 중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받고 있는 장애 영유아를 지원하는 역할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07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영유아 건강검진 시스템과

연계하여 장애 영유아를 선별하고 그들에 대한 전문 진단팀의 진단을 통해 지역사회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배치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장애 영유아 담당교사가 장애 영유아와 관련하여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전문가 지원의 역할을 한다. 센터 소속 영유아 통합교육과 보육 전문가가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학급 교사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멘토 제도를 운영하여 교사가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예컨대 장애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 동료 교사와의 팀티칭 방법,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상담 등 교사가 장애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육하면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자문을 해 주고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 도움을 준다. 동시에 교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료를 찾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자문을 위한 사이트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자문 사이트는 장애 영유아 전담 전문인력이 운영을 담당한다.

셋째,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배치된 장애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위해 순회교사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순회교사는 지역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돌며 담당교사와 협조하여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등 장애 영유아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한다.

넷째,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소속된 장애 영유아들이 필요한 치료를 순회치료사를 통해 치료지원의 역할을 한다. 학기 초에 치료사가 장애 영유아가 배치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각 장애 영유아에게 필요한 치료지원 스케줄을 작성하고, 스케줄에 따라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치료지원을 한다. 필요한 경우 센터에서 치료지원을 할 수도 있다.

다섯째, 기관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와 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한다. 기관장과 현직교사의 요구에 맞는 연수를 실시하고, 예비교사가 수강할 수 있는 장애 영유아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이러한 연수는 일정 부분 사이버 강의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 강의에 대한 관리도 센터에서 담당한다.

여섯째, 교사와 기관장, 보조인력,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을 하는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현장에 보급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와 성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보조인력을 교육, 배치,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 영유아 배치에 따라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필요한 전문 보조인력과 일반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이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여덟째, 장애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교재교구를 관리하고 대여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 장애 영유아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들 교육과 보육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목록화하고 대여한다. 뿐만 아니라 보조공학기기 소개와 사용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교재교구는 구입하여 대여하거나 현장의 요구에 따라 사회복지무원 등을 활용하여 맞춤 제작 해준다. 또한 중앙정부 부처나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통해 제작한 장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위한 매뉴얼이나 자료, 교재교구를 보급하는 역할도 한다.

아홉째, 가족상담 등 개별화 가족지원을 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 영유아 가족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최대한 모든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지원을 해 준다. 필요에 따라 가정방문을 할 수도 있으며,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의 집단 상담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열째, 지역에 있는 장애 영유아 교육 및 보육과 관련된 중앙정부 산하 기관의 목록을 관리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이 연계가 되어 장애 영유아 개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장애 영유아 담당 전담 전문인력 배치의 제도화

전체 교육 체계에서 보면 영유아가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은 유아교육보다는 고등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에서 유아교육의 위치나 인적 자원의 배치, 재정적 지원에서 항상 순위 밖으로 밀려나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만은 영유아 지원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보육정보센터는 보육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거나 관련 연수를 받은 전문요원이 배치된 곳이 거의 없고, 결과적으로 장애 영유아와 관련된 지원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에 장애 영유아를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되어 장애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육하는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진단과 평가, 연수, 장애이해 교육, 보조인력 관리, 보조공학기구나 교재교구 관리, 부모지원,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대상연령과 상관없이 각각의 특성에 따른 전담부서를 설치하더라도 최소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학

급 교사를 지원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통합된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은 장애 영유아 전담 부서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성화된 전문가가 현장에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 기술한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규모나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시군구에 센터가 있다고 가정할 때 센터 1곳당 최소 3명의 장애 영유아 전담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장 교사들의 멘토가 되고 자문 사이트를 관리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인을 비롯하여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지원인력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나. 중앙정부의 형평성 있는 재정지원

본 연구를 통해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결과는 기관 간 중앙정부 지원이 다르고 결과적으로 장애 영유아가 배치된 기관에 따라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이 무척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것처럼 3-5세 장애 유아 교육이 의무교육이 되고 0-2세 장애 영아 교육이 무상교육이 된다면 그러한 상황이 조금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지원과 관련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교육과 관련하여 10개 중 7개의 기관이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지원 내용은 교사인건비, 교재교구비, 장애 영유아 교육비 및 급식비, 보조인력, 기관운영비 순이었음. 기관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보육시설이 유치원에 비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보육시설은 교사인건비 지원이 유치원에 비해 훨씬 많았고, 유치원은 아동당 교육비와 급식비 지원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나 내용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임.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교육과 관련하여 10명 중 3명의 교사가 관련 혜택을 받고 있었으며, 교사가 받는 지원은 특별수당과 보조인력 지원 등임. 교사가 받는 혜택도 기관유형에 따라 보육시설이 유치원에 비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보육시설은 특별수당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 반면, 유치원은 보조인력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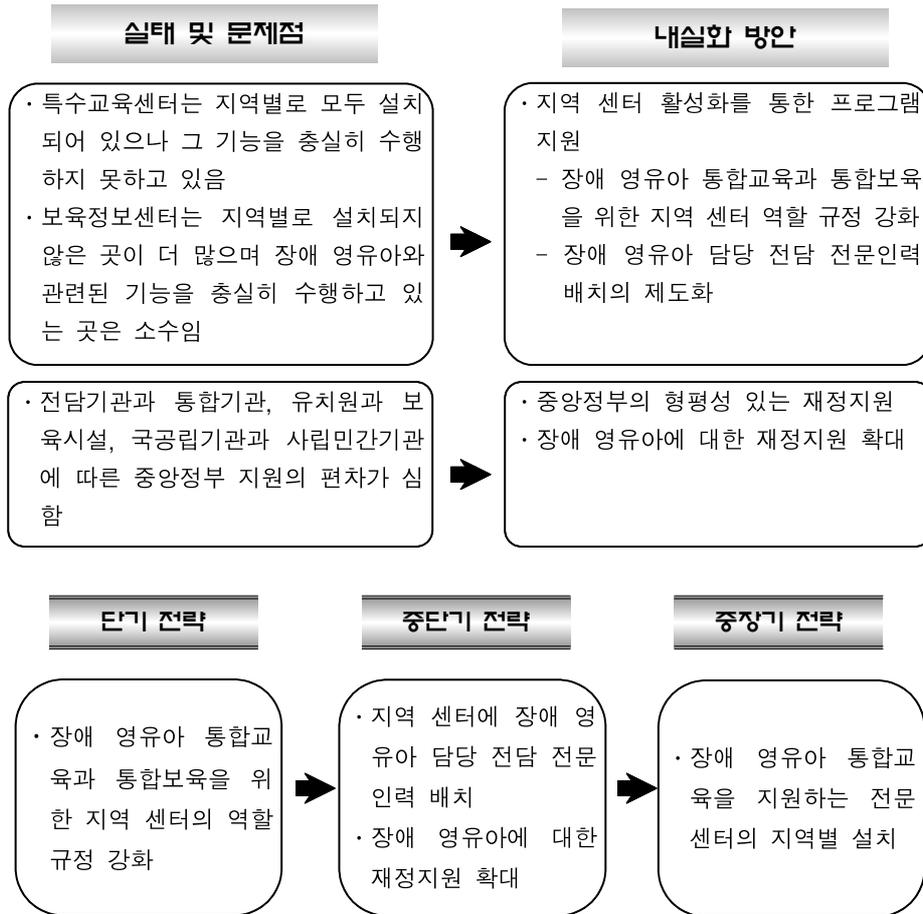
이상의 실태와 연구결과를 기초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담기관 우선의 재정지원을 재고해야 한다. 현재의 추세는 통합이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통합교육을 하는 일반 유치원이나 통합보육시설에 보내기를 원한다. 실제로 장애 영유아 전담기관은 영유아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 해에도 장애 영유아가 입학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유아특수학교나 특수학교의 유치부에서는 교사를 정규 임용하지 못하고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본 연구 2차 자문회의). 한편 학부모는 통합을 원하면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거나 편의시설 때문에 전담기관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장애 영유아가 배치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지원을 해주되, 일정 기준을 갖춘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기관으로 선정하여 통합기관에는 전담기관과 동일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보육시설의 경우 장애 영유아를 3명 이상 보육하고 장애아 통합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교사 인건비 80%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좀 더 보강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같이 적용하고 통합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립이나 민간 기관에 대해서도 국공립 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교사의 인건비, 운영비, 시설개선비 등의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도 재정지원의 우선순위가 있고, 교육이나 보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국공립 기관 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의 경우는 초중등 학교와는 다르게 사립유치원이나 민간보육시설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들이 훨씬 많아 그 역할이 크고, 장애 영유아 교육이나 보육도 사립이나 민간 기관에서 일정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을 갖추고 장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에도 국공립 기관 수준의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셋째,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나 영유아가 배치된 기관이 어디이든 어느 정도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주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연령의 영유아라 할지라도 기관 배치에 따라 지원이 상당히 다르다. 국공립유치원은 초중등 학교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전무하다. 반면에 보육시설은 국공립과 법인 시설뿐 아니라, 통합을 한다는 견지에서 민간보육시설에도 어느 정도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상관없이 장애 유아 1인당 교육비나 보육료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함께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정책 지원을 위한 전략 로드맵은 <그림 V-5-1>과 같다.



[그림 V-5-1] 정책 지원을 위한 전략 로드맵

현재는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원하고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장애 영유아에 대해서 만큼은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숙(2007). 장애 학생의 질적 통합을 위한 관련변인 고찰. 한국교육, 34(1), 119-157.
- _____ (2005). 미국, 캐나다, 영국의 특수교육과정 국제비교. 현장특수교육 5-6 월호. 경기: 국립특수교육원.
- _____, 강영택, 김성애, 정동일(2002). 특수교육 보조원제 운영방안 연구.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_____, 권택환, 김수연, 김은주(2000). 세 학교의 통합교육 운영 사례.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강은주(2003). 유아교육기관 장애아 통합교육의 현대적 동향. 총신대 논총, 274-303.
- 교육인적자원부(2007). 특수교육실태조사서.
- 국립특수교육원(2001). 특수교육요구아동 출현율 조사 연구.
- 김경옥(2003). 유아교육기관의 통합교육 실태 및 인식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병하(2001).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개선 연구. 발달장애 학회지, 5(1), 65-84.
- 김승국(1999).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김은주, 권택환, 김정균, 박현옥(2003). 통합학급 운영 실태 분석 연구.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박승희(2003). 한국 장애 학생 통합교육: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관계 재정립. 서울: 교육과학사.
- 손상희(2005). 특수학급 아동의 교육적 통합을 위한 방법론. 특수교육연구, 6, 71-187.
- “시범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로 장애 학생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2007. 3. 7). 경기교육소식.

- 신진숙(2000). 통합교육의 문제점과 전제 조건 탐색. 특수교육학연구, 34(3), 49-67. 특수교육학회.
- 안수경, 김성애, 김성은, 김종무(2003). 장애 영유아 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관 연계 방안.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양천장애인복지관, 장애아통합보육지원센터 운영”. (2007. 1. 24). 위드뉴스.
- 여성가족부(2007). 2007년도 보육관련 지방정부 특수시책사업 현황.
- 여성가족부(2007). 2007 보육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07). 2007년도 6월 기준 보육통계.
- 오유정, 강경숙, 조윤경, 박재국, 최병갑(2006).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실태조사 연구.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우정환, 김성애, 윤광보(2005). 통합교육 효율화를 위한 웹기반 교사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원종례(2007). 장애 유아의 성공적인 통합교육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에 대한 원장 및 교사들의 인식: 통합교육 지원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장애 유아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발표회, 2007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95-132.
- _____, 이소현(2006). 교사 간 협력을 통한 활동-중심 삽입교수 중재가 발달장애 유아의 활동 참여와 발달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41(2), 121-143.
- 이소현(2006a). 장애 영유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질적 구성요소: 정책적 제도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6(2), 83-107.
- _____(2006b). 장애 영유아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 및 포괄적 지원 모형 개발. 국회위원 나경원 의원실.
- _____(2005). 장애 유아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 고찰. 유아교육연구, 25(6), 277-305.
- _____(2003). 장애 유아의 사회적 통합 촉진을 위한 사회-의사교통 능력 증진. 언어청각장애연구, 8(10), 300-325.
- _____(1996).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의 동향 및 과제. 인간발달연구, 25, 71-91.
- _____, 박은혜(2006). 특수아동교육. 서울: 학지사.

- _____, 부인영(2004). 장애 유아의 유치원 통합교육 현황 및 프로그램 지원 욕구. *특수교육학연구*, 39(1), 189-212.
- _____, 조윤경, 최윤희, 이수정, 원종례, 김수진(2006). 장애 유아 통합보육 프로그램의 시작과 실행에 대한 시설장 및 교사들의 인식: 통합 프로그램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1(1), 253-281.
- 장선철(2002). 특수유아의 이해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정계숙(2001).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따른 통합학급 내 상호작용 특징 연구,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선실, 박승희(2001). 통합교육 실시를 위한 원적학급 일반교사의 지원 요구. *초등교육연구*, 14(2), 319-34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 Abraham, M. R., Morris, L. M., & Wald, P. J. (1993). *Inclusive early childhood education*. Tucson, AZ: Communication Skill Builders.
- Bowe, F. G. (2000). *Birth to five: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nd ed.). Albany, NY: Delmar.
- Bricker, D. D. (1995). The challenge of inclusion.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19, 179-194.
- Cross, A. F., Traub, E. K., Hutter-Pishgahi, L., & Shelton, G. (2004). Elements of Successful Inclusion for Children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TECSE*, 24(3), 169-183.
- Dunst, C. J., & Trivette, C. M. (1996). Empowerment, effective helping practice and family-centered care. *Pediatric Nursing*, 22, 334-337, 343.
- European Agency for Development in Special Needs Education(2003). *Special Needs Education in europe*.
- Engelbrecht, P., Oswald, M., Swart, E., Kitching, A., & Eloff, I. (2004). Parents' Experiences of Their rights in the Implementation of Inclusive Education in south africa.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6(4), 459-477.

- Etscheidt, S. (2006). Least Restrictive and Natural Environments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 Legal Analysis of Issues. *TECSE*, 26(3), 167-178.
- Giangreco, B. F., Prelock, P. A., Reid, R. R., Dennis, R. E., & Edelman, S. W. (2000). Role of related service personnel in inclusive schools. In R. A. Villa & J. S. Thousand (Eds.), *Restructuring for caring and effective education: Piecing the puzzle* (pp. 360-388). Baltimore: PH Books.
- Meijer, C., Soriano, V., & Watkins, A. (2007). Inclusive Education Across Europe: Reflection Upon 10 Year of Work from the European Agency for Development in Special Needs Education. *Childhood Education*, 83, 6: ProQuest Education Journals, 361-365.
- Nielsen, J., & Cooper-Martin, E. (2002). Evaluation of the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assessment program: Kindergarten and grade I reading report. Rockville, MD: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 Odom, S. L. (2000). Preschool Inclusion: What we know and where we go from here.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0(1), 20-27.
- Peters, S. J. (2007). Education for All?: A Historical Analysis of International Inclusive Education Policy an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18(2), 98-108.
- Pivik, J., McComas, J., & Laflamme, M. (2002). Barriers and facilitators to inclusive education. *Exceptional Children*, 69(1), 97-107.
- Smith, T. C., Polloway, E. A., Patton, J. R., & Dowdy, C. A. (2001). *Teaching students with special needs in inclusive settings*.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Stecher, B. M., & G. W. Bohrnstedt (Eds.) (2000). *Class size reduction in California: The 1998-99 evaluation findings*. Sacramento, CA: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 United National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2002). *EFA: Is the world on track?* Paris: Author.

부 록

- 부록 1.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 배경
- 부록 2.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 목록
- 부록 3. 설문지 구성의 근거
- 부록 4. 기관장 대상 설문지
- 부록 5. 교사 대상 설문지
- 부록 6. 학부모 대상 설문지
- 부록 7. 설문조사 추가 분석표

<부록 1>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 배경

<부표 1-3-1>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 유치원장 배경 특성

	A-1	A-2	A-3	A-4	A-5	A-6	A-7
시설유형	사립법인	국공립 단설	사립법인	사립개인	국공립 병설	국공립 병설	국공립 단설
나이	40대	50대	40대	60대	50대	40대	40대
최종학력	박사	석사	석사	석사	대졸	석사	석사
최종학교 전공	유아교육	유아교육	유아교육	유아교육	유아교육	유아교육	유아교육
총 교육경력	16년 11개월	27년 1개월	17년 2개월	40년	25년 7개월	17년	26년 2개월
원장(원감) 경력	9년	11년	5년 2개월	20년 3개월	8년 3개월	3년	1년 2개월

<부표 1-3-2>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 보육시설장 배경 특성

	B-1	B-2	B-3	B-4	B-5	B-6	B-7
시설유형	국공립	민간개인	국공립	국공립	국공립	기타법인	민간개인
나이	40대	40대	40대	40대	50대	40대	30대
최종학력	석사	대졸	대졸	석사	박사 과정	석사	전문대졸
최종학교 전공	사회복지	유아교육	유아교육	사회복지	특수교육	사회복지	유아교육
총 교육경력	12년 8개월	19년 2개월	12년	19년 3개월	15년	10년 6개월	16년 3개월
원장(원감) 경력	12년 8개월	11년 8개월	4년 1개월	10년	4년 9개월	7년 2개월	7년 2개월

<부표 1-3-3>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 유치원교사 배경 특성

	C-1	C-2	C-3	C-4	C-5	C-6
담당학급	통합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급	통합학급	통합학급	통합학급
나이	30대	20대	20대	20대	20대	30대
최종학력	대졸	대졸	대졸	대졸	대졸	대졸
최종학교 전공	유아교육	유아 특수교육	특수교육	유아교육	유아교육	유아교육
총 교육경력	10년 6개월	3년 2개월	2년 2개월	4년 3개월	4년 3개월	11년 3개월
통합교육 경력	1년	3년 2개월	2년 2개월	2개월	2년 3개월	3년 3개월

<부표 1-3-4>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 보육교사 배경 특성

	D-1	D-2	D-3	D-4	D-5	D-6	D-7
담당학급	통합학급	통합학급	통합학급	통합학급	통합학급	통합학급	통합학급
나이	30대	20대	30대	20대	30대	20대	20대
최종학력	대학원 재학	대졸	대졸	대졸	전문대졸	대졸	전문대졸
최종학교 전공	유아교육	아동복지	가정, 특수교육	사회복지	유아교육	유아 특수교육	유아교육
총 교육경력	12년 3개월	1년 9개월	5년 3개월	4년 10개월	9년 2개월	5년	6년 1개월
통합교육 경력	5년 3개월	1년 3개월	1년 3개월	4년 10개월	6년 2개월	5년	4년 1개월

<부표 1-3-5>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 유치원 학부모 배경 특성

	E-1	E-2	E-3	E-4	E-5	E-6	E-7
나이	30대	30대	30대	40대	30대	30대	40대
가계소득(만원)	400~600	200~300	200~300	100~200	300~400	300~400	600 이상
교육정도	대졸	고졸	대졸	고졸	대졸	대졸	대학원졸
자녀수	3명	2명	2명	1명	1명	1명	3명
자녀 연령	6세	6세	6세	5세	6세	5세	6세
장애를 안 시기	3세	2세	10개월	1세 8개월	1세 5개월	4세	1개월
장애 유형	리씨 증후군	발달장애	뇌병변 장애	발달장애	발달장애	발달장애	정신지체
등록유무	X	O	O	O	X	X	O
등록 시기	-	5세	3세 7개월	5세 3개월	-	-	5세
장애명, 등급	-	발달장애, 1급	뇌병변, 1급	발달장애, 1급	-	-	정신지체, 2급

<부표 1-3-6>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 보육시설 학부모 배경 특성

	F-1	F-2	F-3	F-4	F-5	F-6	F-7
나이(세)	40대	30대	30대	30대	30대	30대	20대
가계소득(만원)	200~300	200~300	200~300	400~600	200~300	300~400	200~300
교육정도	대졸	전문대졸	전문대졸	대졸	고졸	대졸	대졸
자녀수(명)	2	2	2	2	2	2	2
자녀 연령(세)	6	7	6	4	8	6	5
장애를 안 시기	4세	2세	0세	2세	2세	4세	0세
장애 유형	정신지체	발달장애	발달장애	언어장애	발달장애	정신지체	정신지체
등록유무	X	O	O	O	O	등록 예정	O
등록 시기	-	4세	5세	4세	5세	-	2세
장애명, 등급	-	발달장애 2급	발달장애 1급	정신지체 3급	발달장애 2급	-	정신지체 1급

<부록 2>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 목록

기관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 영유아를 기관에서 맡아 교육(보육)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2.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보육)을 하시면서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3.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보육)을 하시면서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 운영, 교사, 부모 관련 등 4. 질 높은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보육)을 위해서 무엇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인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5.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보육)의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보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 영유아를 맡아 교육(보육)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2.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보육)을 하시면서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3.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보육)을 하시면서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 운영, 교사, 부모 관련 등 4. 질 높은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보육)을 위해서 무엇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인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5.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보육)의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보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부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2. 자녀를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내시면서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3. 자녀를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내시면서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 통학, 교사, 프로그램 등 4. 질 높은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보육)을 위해서 무엇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인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5.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보육)의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보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p>* 자녀를 위해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라고 생각하십니까?</p>

<부록 3>

설문지 구성의 근거

1. 기관장 설문지 구성의 근거

일반 현황 3-1번 문항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원래 집은 부산이거든요. 2005년 12월에 아이 치료 때문에 서울에 왔어요. 수도권이 지방보다는 치료가 더 잘 되었으니까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있으니깐 이쪽에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한 1년 정도 생활을 하니깐, 저희 집이 장애아가 1명 있다 보니 온 가족이 해체가 되었어요.....(F-4-4)

인적환경 5번, 5-1번 문항

제가 특수교육에 보조원이라고...유치원에 있으면서 보수도 그다지 많지 않으면서, 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교사의 역할도 도와주면서...일반 유치원, 사립유치원에는 전혀 저희처럼 명성이 있는 통합학급이 있는 유치원에는 전혀 차례가 안 와요.....(A-1-6)

.....자활훈련기관의 경우는 특수학교에서 신청하면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노동부에서 인건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A-7-7)

.....자원봉사제도라던가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에 대한 것, 자활훈련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 올해 시작돼서... 중고령 여성 지원되기 시작했지요?.....(A-7-8)

인적환경 6번 문항

.....보조가 따로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애를 견학 가는데 너는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데리고 가야 되는데 누군가 그 아이를 전적으로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A-5-14)

프로그램 운영 9번 문항

.....저희 유치원에 그때는 뭐 장애아라고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발달이 좀 늦은 아이 이렇게 장애아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장애 아이를 입학시켰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너무 일반아동하고 다르더라고요.....저희 대학이 기독교 대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든지 그런 것을 실천하는 기관이니까....어떤 부모님이 저희 유치원에 방문을 해서 아이를 받아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이가 장애아동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그런 어려움을 겪는 아이는 한 번 우리가 맡아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 원장 선생님과... 교사들과 함께 의논해 본 결과 그래도 한 번 맡아서 한 번 교육을 해 보겠다고 그래서.....(A-1-1)

.....공립유치원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장애를 가진 유아들이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업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A-2-1)

.....그 특수학급 선생님하고 교실 조건이 양쪽이 서로 통하게 되어 있었어요. 교실 2개가. 그리고 그 통하는 교실 2개가 사용했던 특수학급 선생님들이랑 반일 반 선생님들이 뜻이 맞아서 통합을 한 번 해보자 라고 그래서 완전통합을 하게 되었어요.....(A-5-1)

.....병설유치원에 있다 보니까...저희는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갔을 때 특수학급 있는 곳에 서는.....(A-6-1)

.....서류상으로 심사 배치를 현재 하고 있어요....이 아이들에 장애등급이라던가 현재 상황을 적어서 교육청 보내면 교육청에 특수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과연 특수학급에서 교육활동이 가능한가를 서류상으로 하는데,이 애를 특수학급에 배치한다고 통보를 받으면 그 아이를 그 때부터 특수학급에.....(A-7-17)

.....지역이 저소득층을 벗어났으므로 다른 쪽에 초점을 맞춰 어린이를 모집해야겠다 했고, 그 때 장애아동에 대해 얘기가 나왔고 2001년 구로구 처음으로 통합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일반 어린이집에서 유형 전환하면서 기존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법인 이사장님이 강력하게 유형 전환을 지지하면서 일부는 나가게 되고 괜찮다고 동의한 사람만 남아 통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B-6-1)

.....어린이집 개원하면서 장애아 부모가 와서 이전 유치원에서 거부를 당했는데 그 유치원 원장 소개로 찾아오게 된 것을 계기로 현재는 6명의 장애아를 교육하고 있고.....(B-7-1)

2003년 통합을 시작을 했는데, 98년 개원하였는데 재단이 장애학교이다 보니 막연한 생각과 함께 통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B-3-1)

프로그램 운영 10번 문항

.....96년 어린이집 개원 시 특수아동, 일반아동의 개념 없이 장애아동을 받아주었습니다.....(B-2-1)

.....막연히 우리 보고만 무조건 오면 말아라만 할게 아니라 하는 우리가 말아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말아라! 어떻게 좀 이런 것이 조금 와야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A-5-14)

.....학부형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애가 있는데 너희 유치원에 특수반이 있다고 하더라! 나 다니고 싶다 그러셔요....일주일에 3일은 심장투석을 하러 가야한데요. 그리고 거동이 안 되네요....그 아동을 위해서는 의료적인 서비스가 더 필요한 거지 교육의 서비스가 아닌 거 같더라!.....(A-2-3)

프로그램 운영 13번 문항

.....완전통합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리인 거예요. 반일 반 선생님이 특수아에 대한 지식이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참 어려워요.....(A-5-1)

프로그램 운영 14번 문항

.....한 아이가 정말 언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그 아이는...기운 없이 앉아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앉아 있어? 기운이 없어?” 개한테 말을 했더니 “외로워” 그러더라고요....통합을 하면서, 어떤 애가 그랬어요. “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외로워? 슬퍼?” 그랬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그 말을 저한테 쓴 거예요.....(A-5-10)

일반 유아교육과정에 반편견 교육이 있는데 통합교육을 하고나니 그러한 교육 필요 없이 문화, 인종에 대한 편견까지 없어지게 됩니다.....(B-5-2)

.....어린이집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집 아이에게 장애아를 같이 생활하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편견을 없애게 해준 것이 가장 좋은 점. 몸은 힘들지만 이것이 교사의 역할이라는 만족감을 주게 한 것이 큰 업임인 것 같습니다. (B-7-2)

.....요즘 외동아이가 많은데 학부형들은 외동아이를 어떻게 인간답게 만드냐 하는 고민이 있는데 내 아이가 누구를 도와주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굉장히 만족합니다.....(B-2-2)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교사가 변화하게 된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일반 아이들도 장애아동 못지않게 사고뭉치 아이가 있는데 사람인지라 쥐어박기도 할텐데 그런 부분이 통합반 교사들의 모습을 보고 신입 교사들이 많이 변합니다.....(B-3-2)

.....마라톤 대회 때 눈물 겪었던 일이 항상 일등을 하던 아이가 왜소증 아이가 뒤에 오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결승점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고 박수치라고 하는 등 저희보다 배려하는 등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변화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들끼리도 아이의 개별성을 존중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고, 그로 인해 서로 융화가 잘 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원이 생동감 있게 돌아가는 모습 작은 것에 감사해하는 모습 등이 좋았습니다. (B-4-2)

가정 및 타 기관 연계 19번 문항

병설 유치원은 수업연구 교사제가 있거든요....특수학급교사도 수업연구를 하자...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고사를 해서 올해는 못하고요, 그런데 이 특수학급 교사들도 아직 자신이 안 서는 거예요. (A-6-4)

.....교육부에서 교육우선 투자지역으로 선정된 한 기관에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4년간 하고 있는데 한 어린이집은 교육부 차원으로 대학에 연구비를 주어 대학의 아동심리센터가...박사과정 학생들을 어린이집에 파견하고 있습니다.....이런 지원이 있을 때 그 어린이 집의 경우...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B-2-7)

정책 지원 20번, 20-1번 문항

.....특수아가 들어오는 학급일 경우에는 교사한테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넣어 주시면,.....기준이라도 있으면 그 자체로도 덜 미안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27명에 대한 계획을 하면서, 이 교사가 하나의 업무를 떠맡은 것이거든요.....(A-5-14)

.....국공립에 대한 지원혜택도 못 받고요, 그렇다고 어린이집도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지원혜택도 못 받아요....어린이집은 장애아가 3명만 있어도 특수학급이 없어도 지원교사가 나와요. 그리고 병설은 단독은 특수학급이 있으니까 당연히, 장애아동이 1명이건 2명이건 특수교사가 지원이 되요.....(A-1-4)

정책 지원 21번 문항

.....과잉 행동 장애 아이들이 점차 늘고 있고, 과거보다 학급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ADHD아이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루는데, 일반교사들이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이런 아이들을 다루는 데에 통합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A-5-7)

.....통합교육에 신물이 난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부모님들의 지나친 요구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의 요구가 어렵고 얼마만큼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B-5-3)

.....심지어 야간교육도 하고 10시까지 아이를 맡기면서 그런 학생의 부모님들이 오히려 요구가 많습니다....학부모들의 요구가 다양각색인데 특수아동 부모의 당연하다는 듯한 지나친 요구가 슬프게 하고 통합을 왜 하나 하는 생각이 들게도 합니다.....(B-2-3).

.....지역별로 어린이집끼리 모여 이러한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얘기를 나눌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관장들이 통로 역할을 해주면 좋는데 그러한 통로가 막혀있는 점이 아쉽게 생각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B-1-1)

정책 지원 22번 문항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아이들에게 치료 하는 게 사교육으로 하고 있잖아요. 부모가 돈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에는 장애아동의 치료가 공교육으로 넘어가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F-4-5)

.....외부의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고 보수교육, 직무교육 등이 필요한데 교사들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필요로 하는 것, 어느 부분이 힘들어하는지 통합에 대해 깊이 있게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B-4-4)

.....국가가 통합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이런 시스템처럼 교사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같이 따라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B-4-5)

.....장애 아동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픈 아이들보다 부모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B-7-3)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족모임을 해보면 장애아 부모든 비장애아 부모든 부모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B-7-4)

정책 지원 23번 문항

.....그 아이가 금년에 학교를 갈 나이인데 학교를 안 갔어요. 안 가고 1년을 한 번 더 했는데 국가 보조 없대요,.....(A-4-1)

.....우리가 보기에 교사가 판단하기에 통합교육은 적당하지 않다. 차라리 그럼 치료교육을 열심히 받아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런 걸 권할 수가 없고 다니지 마라 하는 것은, 절대 안 돼지! (A-7-15)

.....저희가 상당히 통합이 잘 되는 곳이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반쪽자리 밖에 안 돼요.....시급하게 저희는 6, 7세반이 생겨서 통합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F-4-5)

2. 교사 질문지 구성의 근거

인적 환경 5-1번 문항

특수학교 교사들도 좀 오픈을 하고, 자기네가 어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좀 이렇게 보여 주어야 되는데 특수학급 교사들도 상당히 특수 엄마들처럼 약간의 피해 의식이 너무 많아요.....(A-6-7)

.....저희는 IEP도 나와야 하고 저런 것도 해야 하니깐, 저희가 많이 집중해야할 시간에 다른 일해야 하고, 정작 해야 할 일은 집에 가서 해야하는 게 힘들어요.....(D-4-3)

저희는 업무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가 일반교사보다 일이 적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D-6-5)

.....일과 중에 다 하는 것 힘들 거예요. 집에 가져가서 하고 밀릴 경우 밤새고 주말에 하긴 하는데 솔직히 전 잘 몰랐죠.....(D-7-4)

인적 환경 6번 문항

.....교사 1명당 4명이기 때문에, 4명을 혼자서 다 커버를 못하니까 통합교사하고 보조원도 배치가 되요.....(C-6-3)

인적 환경 7-2번 문항

.....IEP 짜고, 평가하고..그런 일들을 어린이집 일과 내에서 전혀 할 수 없고 퇴근 후 따로 해야 해서 힘들다.....“선생님 재 왜 이래요? 재는 왜 다른 거 갖고 공부를 해요?” 아이들이 물어봤을 때 적절하게 대답해 주고 아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응할 수 있게끔 이해시켜줄 수 있는 교사의 노하우들이 필요하더라고요. (D-3-3)

인적 환경 8번, 8-1번 문항

.....자기 학급에 배치된 특수 유아에 대해서 다루지 못하고 거의 방치상태로 아이를 다루던 선생님이 저희 유치원에 와서 어쩔 수 없이 통합을 하겠다는 상황에서는, 특수교사가 특수 아이를 다루고 집단 활동이나 소그룹활동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보시면서 저절로 장애 이해교육이 됐고, ...cross-license를 획득을 해라 전공을 취득해라...그게 여의치 않으면 60시간 직무연수라도 꼭 받아라. 그게 저의 요구죠. (A-7-2)

.....통합교사가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부모에 대해 배운 것이 적기 때문에 현재 1:1로 만나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하지만 뭔가 교육 쪽으로 다가가지는 못해요.....(D-2-4)

.....교사가 관심이 있어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고 싶은 교육이 없거나, 휴가 중에 가야하기 때문에 1년 미만 된 교사 분들은 원내 규정에 따라 휴가도 없고 못가기 때문에, 교사의 교육적인 부분이 아직은 많이 열악한 것 같아요. (D-6-7)

인적 환경 9번 문항

.....일반교육과정에서 이거에서 장애아동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잘 파악을 해서 관찰해서 교육을 맞춰주는 프로그램을 같이 짜다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통합교육 하고 있는 유치원 지원을 받는 일반 유치원에 개별화 교육을 하라고 공지를 많이, 지침서가 많이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A-1-3)

인적 환경 10번, 11번 문항

.....저 같은 경우 아이들이 세 명이고 좀 많기 때문에 부모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에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하는데 그게 어머니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다른 보조교사라든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D-4-6)

물리적 환경 12번, 12-2번 문항

.....저희 원은 발달지체아만 받다가 이번에 지체부자유 아동을 받게 되었는데,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거나 하는 큰 시설들은 불편하지 않은데, 막상 어린이집에 그 아이 위해 준비된 시설이 전혀 없어요. 휠체어도 없고, 그 아이가 뇌병변이라 강직성이 강한 아이인데, 그런 특별한 의자도 없고, 휠체어도 없고, 어머니에게 해오세요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어린이집에서 하자니 한 달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 예산에 부담되기도 하고, 경제적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D-6-10)

물리적 환경 12-1번 문항

.....주사위를 돌려서 50까지 가는 사다리 타기의 경우에 교구인데 그 아이가 10까지도 셀 수 없는 아이라면 그 교구는 일반 아이를 위한 교구이지 통합교육을 위한 교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교사가 만들어준 제 2수준에 교구가 있다면, 특수 아이를 위해서 1수준이나 3수준을 만들어내라 저의 요구죠.....(A-7-2)

프로그램 운영 14번 문항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해서 특수학급교사로...... 특수학급에 유아들이 오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아들이 4명이 있고, 또 오후에 이제 특수 edu-care라는 게 올해 시범으로 운영 돼서 오후에 올해 처음으로 특수 edu-care가 게 시범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입니다. (C-2-1)

저도 학부에서 유아특수 전공했고, 발령은 특수학급으로 만나서 하고 있는데요....(C-3-1)

.....장애통합에 관심이 있는 교사를 뽑는다는 공고 난 것 보고 지원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D-2-1)

.....보육교사로 일하다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하고 원하는 쪽도 통합 쪽이어서 통합 어린이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D-3-1)

사회복지 전공을 하게 되었고, 장애아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공부를 하다보니깐 일반 어린이집에 통합되는 세팅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세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D-4-1)

.....여자 친구가 뇌병변 1급 그리고 청각장애 2급에 복합장애 2급 판정을 받고 다른 어린이집을 이렇게 다녀 보셨던 어머니께서 굳이 유치원에 보내시기를 원하셨어요.....(C-1-1)

.....처음에는 장애아라고 말은 안 하고 조금 늦되다는 이유로 데리고 오시면서 받게 되어서 장애 영유아를 맡게 되었습니다. (D-1-1)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은 남자아이이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6세 반이 2클래스가 있는데 한 클래스의 교사가 초임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반으로 아이가 와서 지내고 있고.....(C-4-1)

.....저희 유치원은 통합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해마다 장애 아이들이 있고요.....(C-5-1)

.....저희는 유치원은 인천 공립 완전통합유치원이에요.....(C-6-1)

유아특수교육과를 졸업을 했는데 첫째부터...첫 직장을 통합으로 오게 되어서, 한번 통합을 하다보니깐 계속해서 통합 쪽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D-6-1)

.....원장님 갖고 계신 생각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가리지 않고 받아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요, 2001년도 개원 시부터 장애아가 꼭 있어왔어요.....(D-7-1)

프로그램 21번 문항

.....한 아이가 발달장애였고, 어머니가 인정하지 않고 들어왔을 때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 당황스러워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벌써 그 아이에게 적응하고 이 아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알면서그 아이의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교사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반성되고 그러더라고요.....(D-1-3)

장애아 통합을 하면서 장애 아동의 문제 행동이 나타날 때 그 점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반아동에게 문제가 나타날 때에도 배운 내용을 그 아이들에게 접하면서 효과를 보고, 저 스스로에게 공부가 되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D-2-2)

.....또래 친구들이 주는 자극들을 보면서 모델링도 되고...일반 아이에게도...나와 다른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정서적인 면에서 도움을 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D-3-2)

.....굉장히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요.....(C-3-3)

.....일반 아동과 같이 생활할 때 더 빨리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 같아요. 모방도 할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일방적이라기보다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더라고요.....(D-6-2)

제일 처음에 맡았던 친구는 복합적이었어요. 귀도 잘 안 들리고 언어도 전혀 안되고 정신지체도 심한 편이었고요, 다리도 불편해서 잘 움직이지 못하던 아이였는데...저는 다른 아이들이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그 친구를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그런 모습을 보면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D-1-2)

가정 및 타 기관 연계 23번 문항

.....저희가 IEP를 거의 완성했는데, 그 과정에서 목표 진술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기준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이것이 객관적인 것인지, 아이에게 맞는 것인가 싶고요....그런 것을 조율할 때,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 ...보육정보센터에 IEP를 올려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수님을 찾아뵈면서 질문을 모아서 묻고 그랬는데, 또 질문을 간접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잘못 전달되고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증폭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전문가적인 자문이 필요하더라고요. (D-1-5)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보육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는데, 일반 선생님들과 상담하기 보다는 통합선생님과 얘기를 나누고 지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오셨을 때 일반선생님들도 같이 함께 얘기해보는 시

간을 가지면 열외로 보내고 두려워하던 선생님도 아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5-4)

한일유치원 원감님하고 같이 배화 장애 유아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아마 산학협동 인가 봐요. 그쪽 어린이집에서 완전통합으로 장애 유아교육 수업을 했거든요, 1년에 걸쳐서 계속 하는 거니까, 거기서 정말 이렇게 못하면서 통합을 한다고 소리를 한 게 참 양심이 가책을 느낄 정도로 수업을 참 잘했어요. 그 쪽에서. 그래서 보고 많이 배워왔거든요.....(A-5-14)

가정 및 타 기관 연계 24번 문항

...진료 받거나 할 수 있는 기관끼리의 연계가 전혀 없어서 저희가 알 수 없더라고요. 어머니들은 서로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여기가 좋다 이런 식을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어머니께서 교사에게 물을 때 잘 몰라서 못 말해주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D-6-11)

.....저희가 장애아를 접하다 보니까 사회 복지적 혜택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까지도 장애가 있어서 가정이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교사가 인근의 복지관이나 인맥을 통해 알아보지만 한도가 적고 인맥도 넓지 못하니깐 쉽지 않더라고요....복지적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루트가 뚫려 있어서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D-3-5)

정책 지원 27번 문항

.....26~27명의 일반 아이들에게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항상 그 아이는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물론 주의집중 시간이 짧기도 하지만 바닥을 구르고 있다든지 주위에서 배회하고 있다 던지 그 아이는 실제로 수업 내용에서 소외되고 있거든요.....(C-4-3)

.....어머니께서 이제 요구조건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요구조건 면에서 교사로서 이제 물론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어머니 나름대로는 계속 보고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요구사항 면에서 교사가 이야기를 하는 게 매일 매일 반복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C-3-4)

.....제가 한 아이를 데리고 활동을 할 때 다른 친구들이 거의 방치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세 명을 한꺼번에 데리고 활동하기도 힘들고 그런 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 (D-2-3)

.....통합도 좋지만 일반아가 피해받는 건 아닌가 더 손길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D-5-3)

정책 지원 28번 문항

.....통합학급에 대해 다양한 연수들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연수가 이론적인 연수만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상황에서 이럴 때는 어떤 활동을 수정해 주고 그런 구체적인 case by case...정원문제가 조금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C-2-3)

.....아이가 장애아일 경우 특히 1 대1 관계를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는 느낌을 받아요..... 전담보조교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요.....(C-4-3)

.....장애이해프로그램에 대한 교구나 다르게 아이들이 이제 좀 더 그런 장애의 접근하는 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구적인 것을 많이 교육청에서 많이 제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C-5-5)

.....통합교육하고 그런 교사들이 관심이 더 높잖아요. 특수교육에서. 그랬을 때 대학원든 어떤 뭔가를 배우는 기관에서 그런 사람들을 우대를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C-6-8)

.....특수학교에 있는 유치부에서도 그런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호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특수학교에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화된 프로그램으로 하고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가지고 하게 되기는 하지만 서로 간에 교류가 없으면 이제 저희가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도 도움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상호교류를 통한 그런 서로 간에 도움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C-5-8)

.....일반아동의 수가 통합반에서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지금 유아반 같은 경우 1:20으로 되어 있는데, 교사가 세 명이면 세 모둠으로 나눠서 한 모둠씩 봐줘야하는데 섞어서 갈 때 비율이 좀 낮아진다면 우리아이들을 충분히 보살펴주면서 일반 아이들도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D-3-4)

정책 지원 30번 문항

.....어린이집은 12살 까지 지원을 받고 유치원은 1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준다 그런 상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지원이 서로 다릅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유치원교사 입장에서는 드릴 수 있는 답은 뻔한 것이고, 그런 부분.....(C-1-4)

3. 학부모 질문지 구성의 근거

일반 사항 7번 문항

.....워낙에 중복장애가 많고 하기 때문에, 원하시는데 순회치료 교사가 오는 시간에 한계가 있고, 일대일 개별 상담이 아니라 집단 상담이기 때문에, 집단 치료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야말로 치료교사가 와서 그나마 해주니까 치료센터 하나는 안 가도 된대 이런 정도지 흡족하고 이것만 받으면 다 되고 그것도 아니에요.....(A-7-12)

일반 사항 8번, 8-1번 문항

.....유치원에 통합교육을 한다고 해서 우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받아주고는 있는데 전화로 가장 많이 전화로 하는 이야기가, ...보행이 가능합니까? 그거예요, 보행이 불가능합니다 하면 아 저희 유치원은 안 됩니다. 왜냐면 보행이 가능한 아이들은 일단 손이 덜 가거든요. 근데 휠체어를 타거나 이런 아이들은 남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탔다고 하면 일단 거부를 해요.(E-1-3)

일반 사항 10번 문항

.....저는 원래 집은 부산이거든요. 2005년 12월에 아이 치료 때문에 서울에 왔어요. 수도권이 지방보다는 치료가 더 잘 되었으니까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있으니까 이 쪽에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한 1년 정도 생활을 하니깐, 저희 집이 장애아가 1명 있다 보니 온 가족이 해체가 되었어요.....(F-4-4)

.....제가 우연찮게 어제 강동구 통합부모회 숙제가 있어서 통계자료를 냈는데,..강동구에 구립 어린이집이 총 19개예요. 통합하는 어린이집이 8개 밖에 안 되더라구요.(F-7-4)

.....장애 아동 3명당 1명이 들어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2명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맞춰서 되어있는 곳도 별로 없었고, 8군데 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엄마들 사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구립 어린이집에서 매 해년 마다 장애 아동을 뽑는다 해서 대기 순서 중에 몇 명을 뽑잖아요, 그러다 보면 엄마들끼리 치열해져요. 간혹 싸우는 경우도 생기세요.....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 구립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통합 아동을 받는 걸로 의무화가 되었으면...(F-7-4)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만족도 11번 문항

.....대학에서 어느 정도의 공부를 그러니까 학점이 필수과목이 적더라도 선택이 아니고 할 수 있게 그런 게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E-5-4)

.....보조 선생님이 계셔도 가르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도와준다는 개념, 위험한 것 못 만지게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땐 일반 선생님도 그렇고 보조 선생님도 그렇고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좀 많이 교육을, 교육이나 인지상태를 인식위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F-3-2)

.....1년에 한두 번 정도 동영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한다거나 장애체험 프로그램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메시지를.....(E-5-3)

.....부모들 지원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어린이집에 들어가 소속이 되면 그 안에서 엄마들한테 이런 장애 아이들에 대한 말이나 설명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같이 교육을 다니는 엄마 중에 1명 아이가 다운이예요. 저희 공덕동에는 다운 복지관이 있는데 그 복지관에서 그 아이 학교에 관장님이 나가셔서 이 아이에 대한 설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그러니까 아이들도 조금 바뀌면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도 조금 바뀌면서 그 아이가 생활하기가 더 편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F-2-2)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만족도 12번 문항

.....대소변 문제나 신변처리 문제나 아니면 규칙 같은 것 줄서기라든지, 아니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게 제가 한 24개월부터 꾸준히 치료실도 다니고 가르쳤는데 저 혼자서 할 때는 진짜 오래 걸리고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통합 어린이집 가서는 그게 한 3개월 만에 혼자 스스로 하더라고요.....(F-3-2)

..... 아이들하고 대화도 되고 그 사이에 끼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통합교육이라는 게 아이가 선생님이 10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못 얻는 게 아니라 일반 아이들이 하는 것의 1/100이나 1/10만 보고 듣고 오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나이만큼은 뒤쳐지지만 의미 있고 통합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F-5-2)

..... ‘네가 나를 물어서 많이 아파서 마음이 아팠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아이가 저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상상 외로 저희 아이는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음으로 해서 아이가 스스로 느끼고 그 아이한테나 다른 친구들한테는 크게 해코지 하지 않고 지금은 너무 잘 지내고 있거든요..... (F-7-1)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단어들 예를 들면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와 같은 것,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느끼기에 좋은 점이에요. (F-4-2)

가족 연계 13번 문항

.....근데 어린이 집에서 체계적으로 뭔가를 하는 편이거든요. IEP라던가 아이들 계획표 라든가 아이들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부모교육하거나 장애 부모모임 있을 때 선생님 들이 가져와서 꺼내서 보여주세요. 애들 하나별로 나눠주는데 그게 파일별로 몇 개씩 되거든요. 그걸 보면 엄마들이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되요. (F-5-4)

정책 지원 18번 문항

.....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유치원에 이 아이가 5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2시간 은 개별 교육을 좀 해주세요.....(E-1-3)

정책 지원 20번 문항

.....특수교육 전공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의무 배치를 했으면 좋겠 어요.....(E-1-4)

.....우리 아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유치원을 찾았고 1:1로 보조교사 붙었으면 좋겠더라고요.....(E-1-5)

.....아외나 소풍갈 때도 저희 애들은 선생님들이 커버하기에는 조금 힘들고 그리니깐 저희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따라가시는데, 자원봉사가 계시면 그렇지만 안 계실 때는 정말 힘들기에 이런 부분 도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F-3-3)

.....맞벌이 하시는 엄마들도 있으실 수 있고, 동생이 있어서, 아이 동생의 보육문제로 못 가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나가기 힘들실 때 보조 선생님이 계셨으면 좋겠는 데 그게 안 계실 경우에는 굳이 엄마가 가야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F-7-3)

.....통합을 하든 안하든 통합을 하는 원장님들이 장애를 가진 어떤 아이가 우리 원에 올 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 애가 왔을 때 그 애의 수준을 보고 받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되게 우습지 않나 싶었어요. 원장님들의 마인드를 고치려면 그런 지원을 많이 자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F-6-4)

.....유치원 측에서 몇 회를 정해서 정말로 부모교육을 확실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유치 원의 취지라던가 이런 것을 조금 알려야하는데.....(E-3-3)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선생님들이 미술치료도 하셨었고 체육도 하시고 이렇게 하 셧었는데 그 수업을 선생님들이 담당하다보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많 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F-3-4)

정책 지원 23번 문항

.....애들 장애에 맞추어서 시설이나 이런 것을 확충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F-3-4)

정책 지원 24번 문항

.....지어놓고 예산부족으로 운영을 못한다면 저는 그게 제일 문제가 있다고 봐요.....(E-3-6)

.....아이들 치료실에 데리고 다니다 보면 너무 많이 지치거든요. 그런데 치료를 함으로 끝이 아니라 집에서 연계를 계속 해 줘야 하는데 연계하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1주일에 2번이라도 가사도우미를 이런 집에는 엄마가 엄청 힘드니까 그렇다고 아빠가 해주는 부분도 어느 부분 밖에 안 되니까 그걸 좀 정확하게 정해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저희 부담이 훨씬, 그리고 다른 말보다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F-6-6)

.....약값은 의료보험 되지만 아이들은 정신과 상담료가 상당히 비싸거든요....장애 진단을 그야말로 돈이 없어서 장애 진단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검사비용이 말도 못하게 비싸요. 제일 싼 데가 50만원, 80만원 하는 곳도 있고.....그런 비용들이 국가에서 조금도 지원이 안 되면서 너네들이 알아서 해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 줄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장애 등록을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없어요.....커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렸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지금 아이들이 유치원일 때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F-5-8)

정책 지원 25번 문항

.....자원봉사자들을 필히 대학교에서도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실습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더욱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F-6-3)

학기 초에 많이 산만하거든요 3, 4월에 많이 힘들게 하다가 5월부터 잡히기 시작하는데 그 때 정도는 일반 애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 환경이 바뀌니까 저희 애들은 저희 애들대로 힘들어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때 참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 때 정도 즈음에는 보조 선생님이나, 인력적으로 교육된 분이 가서 애들을 해주고 그리고 애들에 대한 설명을 해 줄 수 있었으면(하시더라고요). (F-3-6)

봉사자 질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하는 어떤 제도적인 면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봐야 할 거라고 생각 합니다. (F-7-5)

작년 이맘 때 여성부 산하 ***라는 곳에서 설문을 받았어요.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3

회에 걸쳐 설문지 받아 가시고 전화 통화하고 이랬는데 작년이었는데 올해까지 아무런, 뭐가 어떻게 되었다든가 이런 연락이 온 게 없었어요.....서면적으로만 받지 말고 전화 상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듣고 우리 얘기를 듣고 도와달라는 말씀, 물질적인 게 아니어도 되고 정말 말 한마디를 듣더라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F-2-5)

<부록 4>

기관 번호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시·도 번호	지역 번호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일련번호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를 위한 실태와 요구 조사 (기관장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현장에서 애 쓰시는 원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는 그동안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각각 보육과 유아교육으로 분산되어 수행하였던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의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2007년도 연구과제의 하나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장애 영유아를 통합하여 교육·보육하고 있지만, 장애 영유아의 물리적 통합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 영유아의 통합적 접근이 교육적, 사회적 통합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지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기관장님을 대상으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7년 6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이 옥

연구자: 김은영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이소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유은영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원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10층 팩스: 02)730-3319
육아정책개발센터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팀」
유은영 연구원 ☎ 02)733-2337, e-mail: eyyoo@kicce.re.kr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 주소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동·읍·면

▷ 모든 질문의 응답시점은 2007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음을 읽고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보기와 같이 해당하는 것을 □안에 한 가지만 골라 √표를 하시거나 ()에 답을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일반 현황

1. 귀 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1) 국공립 단설 유치원 2) 국공립 병설 유치원 3) 사립법인 유치원 4) 사립개인 유치원
 5) 국공립 보육시설 6) 법인 보육시설 7) 민간개인 보육시설 8) 가정 보육시설
 9) 기타(무엇?)
2. 귀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생활 정도는 어느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상상 2) 상하 3) 중상
 4) 중하 5) 하상 6) 하하
3. 귀 기관의 학급 수, 영유아 수, 교사 수, 해당 자격증 소지자 수를 해당 ()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급 수		영유아 수		교사 수		자격증 소지자 수*			
완전통합 학급 수	()학급	장애 영유아 수	()명	완전통합학급 교사 수	()명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수	()명		
특수 학급 수	시간제 부분통합 ()학급	미등록 장애 영유아 수	()명	특수학급 교사 수	시간제 부분통합 ()명	특수교사 인정 교사 수		()명	
	통합 안 함 ()학급					통합 안 함 ()명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수	물리	()명
								작업	()명
						언어	()명		
						행동	()명		
						미술	()명		
일반학급 수	()학급	일반 영유아 수	()명	일반학급 교사 수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 수		()명	
				보조 교사 수 (특수교육보조원포함)		()명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수		()명
				기타 ()		()명	기타 ()		()명
현 학급 수	()학급	전체 유아 수	()명	전체 교사 수	()명	전체 자격증 소지자 수	()명		

*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실을 학급의 단위로 계산하여 기재(방과 후는 제외)
 * 통합학급: 장애 영유아와 일반 영유아가 함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급
 일반학급: 일반 영유아들만으로 구성된 학급
 특수학급: 장애 영유아들만으로 구성된 학급
 * 미등록 장애 영유아란 장애가 있다고 시설장, 부모, 교사가 생각하지만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영유아를 말함
 *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했을 경우에는 기관에서의 주 역할과 관련된 자격증에만 표시

3-1. 장애 영유아 중 귀 기관 이용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왔거나 통학하고 있는 영유아가 있습니까?
 1) 있음 ()명 2) 없음

13. 귀 기관의 현재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의 형태는 무엇이며, 바람직한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의 운영 형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 기관의 통합 형태	항 목	바람직한 통합 형태
<input type="checkbox"/> 1)	1) 일반 학급과는 별도로 운영하는 장애 영유아들만을 위한 특수학급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2) 일반 학급과 시간제로 부분통합하는 장애 영유아들만을 위한 특수학급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3) 일반 영유아들과의 완전통합	<input type="checkbox"/> 3)

14.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귀 기관의 가장 큰 강점과 취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 점: ()번 취약점: ()번	<input type="checkbox"/> 1) 교사들의 전문성	<input type="checkbox"/> 2)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input type="checkbox"/> 3) 보조인력의 확보	<input type="checkbox"/> 4) 통합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구비
	<input type="checkbox"/> 5) 통합교육·보육 프로그램의 질	<input type="checkbox"/> 6) 치료 활동
	<input type="checkbox"/> 7)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	<input type="checkbox"/> 8) 교육·보육 프로그램 운영시간
	<input type="checkbox"/> 9)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조	<input type="checkbox"/> 10) 기타()

가정 및 타 기관 연계

15. 귀 기관에서는 장애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다음의 정보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의 해당 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 분	1) 충분	2) 보통	3) 불충분	4) 잘 모름
1) 장애의 원인과 특성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2) 가정 내에서의 장애 유아 문제행동 대처 방법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3) 장애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4) 장애 유아로 인한 가족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5) 장애 관련 치료기관 소개 및 이용 방법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16. 장애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연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관과 서비스 분야는 무엇입니까?

- 1) 장애 발견 후 적절한 조치를 위한 의료기관과의 연계
- 2) 정규 일과 이후 영유아를 담당하는 기관과의 연계
- 3) 양질의 통합교육·보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대학 등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
- 4) 보조인력 지원기관과의 연계
- 5) 기타()

17. 귀 기관에서는 통합교육·보육을 위해 공식적인 외부자문을 받고 있습니까?

- 1) 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음
- 2) 인터넷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음
- 3) 사회단체나 복지기관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음
- 4)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통합)보육정보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음
- 5) 기타()
- 6) 받지 않고 있음

17-1. 주로 어떤 면에서 도움을 받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2) 교사 연수 <input type="checkbox"/> 3) 진단 및 검사 <input type="checkbox"/> 4) 치료교육 <input type="checkbox"/> 5) 가족상담 <input type="checkbox"/> 6) 기타()
--

18. 귀 기관에서는 인근 지역이나 장애 영유아가 다니는 다음 기관의 연락처나 장애 영유아 담당자 목록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1) 장애 통합 실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 2) 보건소
- 3) 병원
- 4) 행정기관(동사무소, 구청, 교육청 등)
- 5) 장애인 복지관
- 6) 관련 서비스 제공 시설 치료실이나 교육센터
- 7) 특수교육기관
- 8) 일반초등학교
- 9) 기타()

19. 통합의 질을 높이기 위해 타 기관과의 상호협조 관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 분	귀 기관이 타 기관에 협조 요청 시	타 기관이 귀 기관에 협조 요청 시
<input type="checkbox"/> 1) 적극적으로 협조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대체로 협조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대체로 협조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전혀 협조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해당 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5)

19-1. 협조가 되는 경우(1, 2번에 답한 경우) 귀 유치원과 다른 기관과의 협조 내용은 무엇입니까?

- 1) IEP 개발 참여
 - 2)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의견 교환(전화상담 포함)
 - 3) 기타 ()
- * IEP란 한 유아의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교육목표, 교육실시 및 평가를 포함한 주요 정보가 담겨져 있는 문서를 말함

19-2. 협조가 안 되는 경우(3, 4번에 답한 경우) 귀 기관과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 자체가 시급하지 않아서
- 2) 공식적인 협력체계가 없어서
- 3) 기관 내 업무만 처리하기에도 벅차므로
- 4) 상대 기관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해서
- 5) 원아모집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 6) 기타 ()

정책 지원

20. 귀 기관에서는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과 관련하여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 21번으로)

20-1. 있을 경우 다음 중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1) 교사 인건비 (월 _____ 원)
- 2) 시설 개선비 (연 _____ 원)
- 3) 기관 운영비 (월 _____ 원)
- 4) 교재·교구비 (월 _____ 원)
- 5) 간식비 지원 (월 _____ 원)
- 6) 보조인력 지원 (몇 명? _____ 명)
- 7) 기타 (무엇? _____ 얼마? _____ 원)

21.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교사 확보 등 인적자원 관리의 어려움
- 2) 시설, 설비와 교재교구 등 물리적 환경의 부족
- 3) 프로그램 운영에서의 어려움
- 4) 장애 영유아의 문제행동 지도의 어려움
- 5)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 6) 재정적 어려움
- 7) 기타 ()

22.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순위: ()번
2순위: ()번
3순위: ()번 | <input type="checkbox"/> 1) 기관 내 특수교사나 치료교사 배치 | <input type="checkbox"/> 2) 보조인력 지원 |
| | <input type="checkbox"/> 3) 교사, 기관장 연수 | <input type="checkbox"/> 4) 시설, 설비 개선 및 보조공학기기 구입 |
| | <input type="checkbox"/> 5) 기관 내 교육 시스템(멘토 등) | <input type="checkbox"/> 6) 외부 전문가 지원 |
| | <input type="checkbox"/> 7)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 <input type="checkbox"/> 8) 교사 대 영유아 비율 하향 조정 |
| | <input type="checkbox"/> 9) 통합실시 기관 간의 정보 교환 | <input type="checkbox"/> 10) 가정이나 관련 기관과의 연계 |
| | <input type="checkbox"/> 11) 기타 () | |

23.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보육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에 관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사항

24. 원장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자
- 2) 여자

25. 원장님의 연령은 만으로 얼마입니까? 만 () 세

26. 원장님의 학력(졸업기준)은 무엇입니까?

- 1) 고등학교 졸업
- 2) 3년제 이하 대학 졸업
- 3)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 4) 대학원 졸업 이상

27. 원장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복수전공시에는 주 전공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 1) 유아교육학
- 2) 보육 관련학
- 3) 특수교육학
- 4) 유아특수교육학
- 5) 아동학
- 6) 사회복지학
- 7) 일반교육학(초중등 포함)
- 8) 기타(_____)

28. 원장님의 경력은 몇 년 정도 됩니까?

- 총 교육 관련 경력 ()년
- 원장 경력 ()년
- 장애 영유아를 교육·보육해 본 경력 ()년

◆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하지 않으신 문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

<부록 5>

기관 번호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시·도 번호	지역 번호	① 매도지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일련 번호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를 위한 실태와 요구 조사 (교사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현장에서 애 쓰시는 선생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포함합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는 그동안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각각 보육과 유아교육으로 분산되어 수행하였던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의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2007년도 연구과제의 하나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장애 영유아를 통합하여 교육·보육하고 있지만, 장애 영유아의 물리적 통합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 영유아의 통합적 접근이 교육적, 사회적 통합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지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학급 선생님을 대상으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의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7년 6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이 옥

연구자: 김은영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이소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유은영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원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10층 팩스: 02)730-3319
육아정책개발센터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팀」
유은영 연구원 ☎ 02)733-2337, e-mail: eeyoo@kicce.re.kr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 주소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동·읍·면		

▷ 모든 질문의 응답시점은 2007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음을 읽고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보기와 같이 해당하는 것을 □안에 한 가지만 골라 √표를 하시거나 ()에 답을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일반 현황

1. 선생님께서 소속된 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1) 국공립 단설 유치원 2) 국공립 병설 유치원 3) 사립법인 유치원 4) 사립개인 유치원
 5) 국공립 보육시설 6) 법인 보육시설 7) 민간개인 보육시설 8) 가정 보육시설
 9) 기타(무엇?)

2. 선생님께서 담당하는 학급의 유아는 몇 세입니까?
 1) 만 0세 2) 만 1세 3) 만 2세
 4) 만 3세 5) 만 4세 6) 만 5세
 7) 영아반(만 0-2세) 혼합반 8) 유아반(만 3-5세) 혼합반 9) 기타()

3. 선생님께서 담당하는 학급의 장애 영유아의 배경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해당 사항 관련 보기가 없을 경우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아동 구분	성별	생년월일	기관이용 기간	기관 이용시간	주 장애종류	장애등급
	①남 ②여	연도와 월 기록	개월 수로 환산	일 기준 으로 작성	①시각장애 ②청각장애 ③정신지체 ④지체장애 ⑤정서·행동장애 ⑥자폐성 장애 (발달장애) ⑦의사소통장애 ⑧건강장애 ⑨기타()	①1급 ②2급 ③3급 ④4급 ⑤5급 ⑥6급 ⑦미등록*
1	()번	()년 ()월	()개월	()시간	()번	()번
2	()번	()년 ()월	()개월	()시간	()번	()번
3	()번	()년 ()월	()개월	()시간	()번	()번
4	()번	()년 ()월	()개월	()시간	()번	()번

* 미등록 장애이란 장애가 있는 아동이라고 시설장, 부모, 교사가 생각하지만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을 말함.

4. 선생님께서 담당하는 학급 교사들의 배경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해당 사항 관련 보기가 없을 경우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교사 구분	성별	역할	자격*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 경력
	①남 ②여	①전담교사 ②보조교사 ③자원봉사자	①유치원교사 ②보육교사 ③특수교사 ④특수교사 인정	⑤사회복지사 ⑥치료사 ⑦기타() ⑧모름	개월 수로 환산
1(본인)	()번	()번	()번	()번	()개월
2	()번	()번	()번	()번	()개월
3	()번	()번	()번	()번	()개월
4	()번	()번	()번	()번	()개월

* 자격이 중복될 경우 모두 기록

인적 환경

5. 선생님께서 소속된 통합학급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 1) 1개 반을 일반교사 1인이 담당
- 2) 1개 반을 일반교사 또는 특수교사 1인이 담당
- 3) 2개 반(일반 유아 1학급, 장애 영유아 1학급)을 통합하여 일반교사 2인이 함께 담당
- 4) 2개 반(일반 유아 1학급, 장애 영유아 1학급)을 통합하여 일반교사 1인과 특수교사 1인이 함께 담당
- 5) 일반교사가 담당하는 학급 2개 이상을 특수교사 1인이 지원
- 6) 기타()

* 통합학급이란 장애 영유아와 일반 영유아가 함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급을 말함.

5-1. 선생님 학급에서 교사 간의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1) 아주 그렇다
- 2) 대체로 그렇다
- 3) 그렇지 못하다

5-2.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을 위해 각 교사의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계획 및 수행하고 있습니까?

- 1) 각 학급별 회의 → 월 평균 ()회
- 2) 시설 내 전체 회의 → 월 평균()회
- 3) 비정기적인 협의
- 4) 협의 없이 개인적으로 결정

6. 선생님께서 소속된 통합학급의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은 어떠하며, 이상적인 비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비율	이상적인 비율
특수교사 () : 장애 영유아 ()	특수교사 () : 장애 영유아 ()
일반교사 () : 일반 영유아 ()	일반교사 () : 일반 영유아 ()
교사 () : 영유아 ()	교사 () : 영유아 ()

7.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부모 상담
- 2) 교육 프로그램 선정 및 계획
- 3) 수업 준비
- 4) 수업 진행
- 5) 생활지도
- 6) 기타 (무엇?)

7-1. (일반교사만 응답) 특수교사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2가지만 우선순위를 따라서 기입해 주십시오.

- 1순위: ()번 1) 장애 영유아의 특성 파악 2) 장애 영유아의 활동 계획 및 평가
- 3) 장애 영유아 교수법 4) 장애 영유아에 대한 기본생활 지도 방법
- 2순위: ()번 5) 장애 영유아의 문제 행동 중재 방법 6) 장애 영유아의 부모 상담 및 부모교육 방법
- 7) 기타()

7-2. (특수교사만 응답) 일반교사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1) 일반 영유아의 특성 파악
- 2) 일반 영유아에 대한 교수법
- 3) 통합학급에서의 장애 영유아의 또래 관계에 대한 정보
- 4) 기타 ()

8. 선생님께서는 특수교육 혹은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관련 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 9번으로)

8-1.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언제 교육을 받아보셨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시 특수교육 관련 과목 수강함
 2) 직무연수나 자격연수에서 특수교육 혹은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관련 연수를 받음
 3) 통합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특수교육 혹은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관련 연수를 받음
 4) 원장님이나 주변의 권유로 특수교육 혹은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관련 연수를 받음
 5) 현재 특수교육 혹은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관련 학위과정을 공부하고 있음
 6) 기타()

9. 통합교육·보육을 위한 교사 교육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특수교육의 이해 2) 장애아 진단 및 평가
 3)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개별화교육 4) 장애아 교수방법
 5) 통합교육·보육의 이해 6) 통합교육·보육을 위한 환경 관리
 7) 생활지도 방법 8) 부모 상담
 9) 기타 (무엇?)

1순위: ()번
 2순위: ()번

* IEP란 한 유아의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교육목표, 교육실시 및 평가를 포함한 주요 정보가 담겨져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10. 선생님 담당 학급에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조인력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 11번으로)

10-1. 보조인력이 있을 경우 보조인력은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 1) 장애 영유아 옆에 항상 있으면서 활동 참여 보조 2) 장애 영유아의 문제 행동에 대처
 3) 장애 영유아에게 필요한 교재나 수업 준비 보조 4) 장애 영유아의 개별 교수
 5) 기타 (무엇?)

11. 장애 영유아 통합학급에서 보조교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 1) 활동 지도시 2) 장애 영유아의 문제 행동 발생시
 3)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재나 수업 준비시 4) 기본생활 지도시
 5) 현장학습 등의 행사 참여시 6) 기타 (무엇?)

물리적 환경

12. 선생님께서는 장애 영유아를 위해 학급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 1) 한다 2) 안 한다 (☞ 12-2번으로)

12-1. 하는 경우 다음 중 무엇에 대해 배려하고 있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 1) 장애 영유아를 위해 특별히 교재교구를 제작하거나 기존의 교재교구 수정
 2)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조공학기기를 찾아보고 제작이 가능한 경우 제작
 3) 장애 영유아가 이동하기 편하도록 교실이나 보육실 공간을 구성
 4) 기타 (무엇?)

12-2. 안 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장애의 특성상 필요치 않아서 2)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3)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4) 잘 모르기 때문에
 5) 기타(무엇?)

23. 장애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연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관과 서비스 분야는 무엇입니까?

- 1) 장애 발견 후 적절한 조치를 위한 의료기관과의 연계
- 2) 정규 일과 이후 유아를 담당하는 기관과의 연계
- 3) 양질의 통합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대학 등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
- 4) 보조인력 지원 기관과의 연계
- 5) 기타()

24. 선생님께서는 인근 지역이나 영유아가 다니는 다음 기관의 연락처나 장애 영유아 담당자 목록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1) 장애 통합 실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 2) 보건소
- 3) 병원
- 4) 행정기관(동사무소, 구청, 교육청 등)
- 5) 장애인 복지관
- 6) 관련 서비스 제공 사설 치료실이나 교육센터
- 7) 특수교육기관이나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 8) 일반초등학교
- 9) 기타()

정책 지원

25. 선생님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월~토요일 근무시간 더함)은 몇 시간입니까? _____ 시간

26.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받는 혜택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 27번으로)

26-1. 있을 경우 다음 중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1) 특별수당
- 2) 보조인력 지원
- 3)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소
- 4) 공동 업무 경감
- 5) 기타()

27.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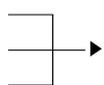
- 1) 교사 간 갈등
- 2) 시설, 설비와 교재교구의 부족
- 3)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 4) 전문가 지원 부재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 5)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 6) 기타 ()

28.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순위: ()번
2순위: ()번
3순위: ()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1) 기관 내 특수교사나 치료교사 배치 <input type="checkbox"/> 2) 보조인력 지원 <input type="checkbox"/> 3) 교사, 기관장 연수 <input type="checkbox"/> 4) 시설, 설비 개선 및 보조공학기기 구입 <input type="checkbox"/> 5) 기관 내 교육 시스템(멘토 등) <input type="checkbox"/> 6) 외부 전문가 지원 <input type="checkbox"/> 7)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input type="checkbox"/> 8)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 <input type="checkbox"/> 9) 통합실시 기관 간의 정보 교환 <input type="checkbox"/> 10) 가정이나 관련 기관과의 연계 <input type="checkbox"/> 11) 기타 () |
|-------------------------------------|--|

29. 선생님께서는 통합교육·보육을 위해 통합학급 일반 영유아 수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1) 매우 필요
- 2) 조금 필요
- 3) 보통
- 4) 필요 없음
- 5) 기타()



29-1. 통합학급 영유아 수의 경감이 필요하다면 장애 아동 1명당 일반 영유아 몇 명을 경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 1명	<input type="checkbox"/> 2) 2명
<input type="checkbox"/> 3) 3명	<input type="checkbox"/> 4) 4명
<input type="checkbox"/> 5) 5명	<input type="checkbox"/> 6) 기타()

30.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보육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에 관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인적 사항

3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자
- 2) 여자

32. 선생님의 연령은 만으로 얼마입니까? 만 () 세

33. 선생님의 학력(졸업기준)은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고등학교 졸업 | <input type="checkbox"/> 2) 3년제 이하 대학 졸업 |
| <input type="checkbox"/> 3)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 <input type="checkbox"/> 4) 대학원 졸업 이상 |

34. 선생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복수전공시에는 주 전공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 | | |
|---|---------------------------------------|
| <input type="checkbox"/> 1) 유아교육학 | <input type="checkbox"/> 2) 보육 관련학 |
| <input type="checkbox"/> 3) 특수교육학 | <input type="checkbox"/> 4) 유아특수교육학 |
| <input type="checkbox"/> 5) 아동학 | <input type="checkbox"/> 6) 사회복지학 |
| <input type="checkbox"/> 7) 일반교육학(초중등 포함) | <input type="checkbox"/> 8) 기타(_____) |

35. 선생님의 교육·보육 경력은 몇 년 정도 됩니까?

총 경력()년
 = 장애아 전담교육·보육()년 + 장애아 통합교육·보육()년 + 일반교육·보육()년

◆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하지 않으신 문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

<부록 6>

기관 번호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시·도 번호	지역 번호	① 시도지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일련번호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를 위한 실태와 요구 조사 (학부모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녀 양육에 애 쓰시는 부모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는 그동안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각각 보육과 유아교육으로 분산되어 수행하였던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의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2007년도 연구과제의 하나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장애 영유아를 통합하여 교육·보육하고 있지만, 장애 영유아의 물리적 통합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 영유아의 통합적 접근이 교육적, 사회적 통합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지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시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의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7년 6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이 옥

연구자: 김은영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이소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유은영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원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10층 팩스: 02)730-3319
육아정책개발센터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팀」
유은영 연구원 ☎ 02)733-2337, e-mail: eeyoo@kicce.re.kr

이용 기관명	
기관 주소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동·읍·면

▷ 모든 질문의 응답시점은 2007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음을 읽고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보기와 같이 해당하는 것을 □안에 한 가지만 골라 √표를 하시거나 ()에 답을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일반 사항

1. 자녀가 다니는 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1) 국공립 단설 유치원 2) 국공립 병설 유치원 3) 사립법인 유치원 4) 사립개인 유치원
 5) 국공립 보육시설 6) 법인 보육시설 7) 민간개인 보육시설 8) 가정 보육시설
 9) 기타(무엇?)

2. 자녀가 기관에 등원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1) 보육시설 차량 이용 (_____ 분) 2) 자녀 혼자 걸어서 (_____ 분)
 3) 부모(가족)와 걸어서 (_____ 분) 4) 부모(가족)와 대중교통으로 (_____ 분)
 5) 부모(가족)와 자가용으로 (_____ 분) 6) 기타 (_____)

3. 자녀의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시간과 통합교육이나 통합보육을 받는 시간은 대개 얼마나 됩니까?
 오전 _____ 시 ~ 오후 _____ 시 / 총 _____ 시간 / 통합 시간 _____ 시간

4. 자녀의 어머니께서는 직장을 다니고 계십니까?
 1) 직장이 있다 2) 직장이 없다 3) 해당사항 없음(모 부재)

- 4-1. 직장이 없는 경우(2번이라고 답한 경우)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신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임신을 해서 2) 자녀가 장애아로 판명되어서
 3) 적합한 양육기관을 찾지 못해서 4) 자녀 교육에 전념하려고
 5) 기타 (무엇?) 6) 해당사항 없음

5. 특수교육대상 자녀(들)의 장애 관련 사항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해당 사항 관련 보기가 없을 경우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성별	생년월일	이용기관	재원기간	기관 이용시간	주 장애종류	장애등급	
자 녀 구 분	①남 ②여	연도와 월 기록	①유치원 ②보육시설 ③초등학교	개월 수로 환산	일 기준 으로 작성	①시각장애 ②청각장애 ③정신지체 ④지체장애 ⑤정서·행동장애 ⑥자폐성 장애 (발달장애) ⑦의사소통장애 ⑧건강장애 ⑨기타(_____)	①1급 ②2급 ③3급 ④4급 ⑤5급 ⑥6급 ⑦미등록*	
	1	()번	()년 ()월	()번	()개월	()시간	()번	()번
	2	()번	()년 ()월	()번	()개월	()시간	()번	()번
	3	()번	()년 ()월	()번	()개월	()시간	()번	()번

* 미등록 장애 영유아란 장애가 있다고 시설장, 부모, 교사가 생각하지만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영유아를 말함.

6. 현재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 자녀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이외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1) 있다 →

2) 없다

6-1. 다니고 있는 프로그램의 유형과 월별 소요 비용을 ()에 기입하여 주십시오(중복응답 가능).	
<input type="checkbox"/> 1) 복지관 조기교실	월 ()만원
<input type="checkbox"/> 2) 사설 조기교실	월 ()만원
<input type="checkbox"/> 3) 사설 치료실	월 ()만원
<input type="checkbox"/> 4) 병의원 치료실	월 ()만원
<input type="checkbox"/> 5) 기타()	월 ()만원
총 액	월 ()만원
6-2.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이외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1)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프로그램 외의 부족한 부분의 보충적 교육을 위해	
<input type="checkbox"/> 2) 발달을 위한 관련 서비스(각종 치료 포함)가 필요하므로	
<input type="checkbox"/> 3) 기타()	

7. 귀택에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 자녀에게 지출하는 총 비용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1)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월 ()만원
2) 조기교실이나 치료실	월 ()만원
3) 의료비(약물비 포함)	월 ()만원
4) 기본적인 양육비	월 ()만원
5) 기타()	월 ()만원
총 액	월 ()만원

8. 이전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입학에 거부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

2) 없다

8-1. 입학에 거부당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1) 장애는 경하지만 보행이 불가능해서	<input type="checkbox"/> 2) 장애가 너무 심해서
<input type="checkbox"/> 3) 입학정원을 초과해서	<input type="checkbox"/> 4) 타 학부모들의 거부로
<input type="checkbox"/> 5) 나이가 너무 어려서	<input type="checkbox"/> 6) 나이가 너무 많아서
<input type="checkbox"/> 7) 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input type="checkbox"/> 8) 기타 ()

9. 이전에 아동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 둔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

2) 없다

9-1. (가장 최근에 그만 둔 곳 중심으로) 기관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1)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input type="checkbox"/> 2)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input type="checkbox"/> 3) 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input type="checkbox"/> 4)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input type="checkbox"/> 5) 비용이 많이 들어서	<input type="checkbox"/> 6)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input type="checkbox"/> 7) 아이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input type="checkbox"/> 8) 너무 멀어서
<input type="checkbox"/> 9) 다니던 기관이나 가정의 이사로	<input type="checkbox"/> 10)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input type="checkbox"/> 11) 기타 ()	

10. 현 거주지에 자녀를 보낼만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칸에 각각 √표하여 주십시오.

구분	1) 충분	2) 보통	3) 불충분	4) 잘 모름
1)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2)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3) 장애전담교육기관(유아특수학교, 특수학교 유치반)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4)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통합교육 · 보육 만족도

11. 현재 자녀가 다니는 통합교육 · 보육 실시 기관의 다음 사항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항 목	1) 매우 만족	2) 만족하는 편	3) 보통	4) 불만족하는 편	5) 매우 불만족
1) 원장 자질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2) 교사 자질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3) 주변 환경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4) 시설 및 설비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5) 프로그램 운영시간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6) 통합교육 · 보육 프로그램 내용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7) 치료지원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8) 부모참여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9) 부모교육 및 상담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10) 일반 영유아들의 태도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11) 일반 영유아 부모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12) 영유아의 프로그램 참여 정도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13) 건강·안전·영양 등의 관리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12. 자녀를 통합 기관에 보내시면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기대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또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기대 수준				항 목	만족도			
1) 매우 기대	2) 조금 기대	3) 거의 기대 안함	4) 전혀 기대 안함		1) 매우 만족	2) 조금 만족	3) 거의 만족 못함	4) 전혀 만족 못함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1) 장애증상의 완화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2) 다른 장애 발생 예방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3) 건강, 영양 관리 등의 보호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4) 언어 능력의 발달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5) 수, 도형 개념 등 인지 발달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6) 사회성(친구 사귀기 등) 발달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7) 신체 기능 발달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8) 신변처리 기능 학습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가족 연계

13.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다음의 항목들에서 어느 정도 가족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또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해당 칸에 각각 √표 하여 주십시오.

참여 요구도				항 목	참여 정도			
1) 많이 요구함	2) 조금 요구함	3) 거의 요구안함	4) 전혀 요구안함		1) 적극 참여	2) 조금 참여	3) 거의 참여안함	4) 전혀 참여안함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1) 교육프로그램 활동 계획시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2) 교육프로그램 활동시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3) 교육프로그램 평가시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14.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의 주된 의사소통 내용은 무엇입니까? 더욱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해당 칸에 각각 √표 하여 주십시오.

현재 의사소통 정도				항 목	추가 의사소통 요구 정도			
1) 많이 함	2) 조금 함	3) 거의 안 함	4) 전혀 안 함		1) 많이 요구됨	2) 조금 요구됨	3) 거의 필요없음	4) 전혀 필요없음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1) 자녀의 성장발달 관련 내용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2) 가정에서의 장애아 양육법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3)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 방안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4) 자녀의 문제행동 대처 방법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5) 교육(보육)과정 및 교육(보육) 활동 관련 정보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6) 자녀의 기관에서의 생활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7) 부모 협조 사항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8) 장애 관련 기관 소개 및 이용법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9) 기타 (무엇?)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15. 현재 재원 중인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다음의 가정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소개받으셨을 경우 참여하셨습니다가? 2007년을 기준으로 지금까지(2007년 3월~6월까지 4개월 간) 몇 회나 경험해 보셨으며, 얼마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소개 여부		참여 여부		빈 도	
	1) 있음	2) 없음	1) 참여함	2) 참여 안함	참여 횟수	희망 횟수
1) 부모 오리엔테이션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회	()회
2) 통합신입아동 가족 나들이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회	()회
3) 적응기간 안내 및 적응기간 평가서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회	()회
4) 계획된 가정방문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회	()회
5) 장애 영유아에 맞는 교육계획 및 부모의 실행 협조 요청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회	()회
6) 연락장(알림장, 부모교환 노트)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회	()회
7)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회	()회
8) 기타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회	()회

16. 귀택의 특수교육대상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가족 이외에 가장 많은 조언을 구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 1) 친구
- 2) 다른 장애아 부모
- 3)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원장이나 교사
- 4) 복지관 상담 직원
- 5) 의사나 치료사
- 6) 장애 관련 다른 사설기관 교사
- 7) 종교 성직자
- 8) 기타 ()
- 9) 없음

17. 자녀의 출생 후, 현재까지 가장 심각하게 정보의 부족, 서비스의 부족을 느꼈을 때는 언제입니까?

- 1) 나의 자녀가 장애아동인지 아닌지를 알고자 할 때
- 2) 자녀 교육을 위한 정보를 찾고자 할 때
- 3) 자녀에게 적합한 교육기관이나 치료센터를 찾을 때
- 4) 자녀를 돌봐줄 곳을 찾을 때
- 5)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을 때
- 6) 기타()
- 7) 없음

정책 지원

18.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의 현재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의 형태는 무엇이며, 바람직한 통합교육·보육의 운영 형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 기관의 통합 형태	항 목	바람직한 통합 형태
<input type="checkbox"/> 1)	1) 일반 학급과는 별도로 운영하는 장애 영유아들만을 위한 특수학급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2) 일반 학급과 시간제로 부분통합하는 장애 영유아들만을 위한 특수학급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3) 일반 영유아들과의 완전통합	<input type="checkbox"/> 3)

19. 자녀를 통합 기관에 보내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점은 무엇입니까?

- 1) 인력지원 부족으로 인한 수업 활동에의 빈번한(지속적인) 참여의 어려움
- 2)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통학의 어려움
- 3) 일반 부모의 인식과 태도
- 4) 교사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 5) 특수 치료 서비스 부재로 인해 다른 기관에서 추가로 치료를 받아야 함
- 6) 기타 ()

20.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순위: ()번
2순위: ()번
3순위: ()번 | <input type="checkbox"/> 1) 기관 내 특수교사나 치료교사 배치 <input type="checkbox"/> 2) 보조인력 지원
<input type="checkbox"/> 3) 교사, 기관장 연수 <input type="checkbox"/> 4) 시설, 설비 개선 및 보조공학기기 구입
<input type="checkbox"/> 5) 기관 내 교육 시스템(멘토 등) <input type="checkbox"/> 6) 외부 전문가 지원
<input type="checkbox"/> 7)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input type="checkbox"/> 8)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조정
<input type="checkbox"/> 9) 통합실시 기관 간의 정보 교환 <input type="checkbox"/> 10) 가정이나 관련 기관과의 연계
<input type="checkbox"/> 11) 기타 () |
|-------------------------------------|--|

21. 효율적인 통합보육을 위해 통합교육 담당교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교사의 전공 2) 교사의 인성
- 3) 교사의 의사소통 능력 4) 기타 ()

22. 영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통합학급 구성 시 한 학급에 교사, 장애 영유아, 일반 영유아의 비율은 어떤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사: 장애 영유아: 일반 영유아 = _____ : _____ : _____

23. 특수교육대상 자녀를 위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설이나 장비, 교재교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24. 장애 영유아의 양육 및 교육·보육을 위해 어떤 가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순위: ()번 | <input type="checkbox"/> 1) 장애 영유아의 교육의 기회 및 질 향상 | <input type="checkbox"/> 2)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
| 2순위: ()번 | <input type="checkbox"/> 3) 직업 기회의 제공 | <input type="checkbox"/> 4) 여가 활동 지원 |
| 3순위: ()번 | <input type="checkbox"/> 5) 교통수단 지원 | <input type="checkbox"/> 6) 가사 보조 지원 |
| | <input type="checkbox"/> 7) 정서적 지원 | <input type="checkbox"/> 8) 재정지원 |
| | <input type="checkbox"/> 9) 기타 () | |

25. 중앙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에 관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 사항

26. 양육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자녀와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 1) 부 2) 모 3) 조부모 4) 기타()

27. 학부모님의 연령은 만으로 얼마입니까? 만 () 세

28. 학부모님의 학력(졸업기준)은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고등학교 졸업 미만 | <input type="checkbox"/> 2) 고등학교 졸업 |
| <input type="checkbox"/> 3) 3년제 이하 대학 졸업 | <input type="checkbox"/> 4)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
| <input type="checkbox"/> 5) 대학원 졸업 이상 | |

29. 가정의 생활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월 수입() 만원

◆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하지 않으신 문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

<부록 7>

설문조사 추가 분석표

다.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이나 통합보육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한 응답은 <부표 IV-1-1>과 같다. 전체적으로 설립 취지라는 응답이 46.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학부모 요청이라는 응답이 36.3%로 높게 나타났다. 교사회에서 결정하거나 장애여부를 모른 채 받게 된 원아도 소수 있었다. 기타 응답에는 특수학급 설치, 교육청 결정, 건물 설립 당시 구에서 지정, 구청의 제안, 시의 권유, 사회적 흐름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4)=135.8, p<.001$), 기관·설립유형($\chi^2(12)=145.8, p<.001$), 지역($\chi^2(8)=145.8,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설립 취지라고 응답한 보육시설은 72.0%로 유치원 30.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학부모 요청, 장애 여부를 모른 채 받은 원아 때문, 교사회의 결정이라는 응답은 유치원이 더 높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설립취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73.1%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18.6%로 가장 낮았다. 학부모 요청이라고 응답한 기관은 사립유치원이 56.1%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6.2%로 가장 낮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규모가 커질수록 설립 취지라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학부모 요청이라는 응답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부표 IV-1-1>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이나 통합보육을 하게 된 계기: 기관장

단위: %(응답수)

구분	설립취지	학부모요청	기타	장애 모른 채 받은 원아	교사회의	계
전체	46.9(314)	36.3(243)	11.3(76)	3.4(23)	2.1(14)	100.0(670)
기관유형						
유치원	30.8	52.1	10.3	4.6	2.2	100.0(409)
보육시설	72.0	11.5	13.0	1.5	1.9	100.0(261)
$\chi^2(df) = 135.8(4)***$						

구분	설립취지	학부모요청	기타	장애 모른 채 받은 원아	교사회의	계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18.6	43.4	26.4	7.0	4.7	100.0(129)
사립유치원	36.4	56.1	2.9	3.6	1.1	100.0(280)
국공립보육시설	73.1	6.2	18.5	-	2.3	100.0(130)
민간보육시설	71.0	16.8	7.6	3.1	1.5	100.0(131)
$\chi^2(df) = 145.8(12)^{***}$						
지역						
대도시	50.8	30.9	13.2	2.2	2.8	100.0(317)
중소도시	47.0	37.1	11.2	3.6	1.2	100.0(251)
읍면지역	34.3	51.0	5.9	6.9	2.0	100.0(102)
$\chi^2(df) = 145.8(8)^{***}$						

주: *** p < .001

교사가 장애 영유아 학급을 담당하게 된 계기는 <부표 IV-1-2>와 같다. 전체적으로 본인의 희망이라는 응답이 34.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원장의 권유 21.4%, 기타 18.3%, 학부모 요청 14.6%, 교사회의 결정 11.1% 순이었다. 기타 응답에는 특수교사이기 때문, 통합학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역사회 여건으로 1학급 구성, 장애 유아의 연령(연령별 반 편성) 때문, 복지관의 권유, 장애 유아가 원서를 접수하여서 등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4)=211.4$, $p<.001$), 기관·설립유형($\chi^2(4)=282.9$, $p<.001$), 지역($\chi^2(4)=35.9$,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보육시설 교사는 본인의 희망과 원장의 권유라는 응답이 각각 50.0%, 27.9%로 유치원 19.3%, 13.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유치원교사는 학부모의 요청이나 교사회의 결정이라는 응답이 각각 26.1%, 13.3%로 보육시설 3.1%, 9.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본인의 희망이라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59.1%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9.4%로 가장 낮았다. 원장의 권유라는 응답은 민간보육시설이 28.8%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4.2%로 가장 낮았다. 기타 응답과 교사회의 결정이라는 응답은 이라는 응답은 각각 사립유치원이 29.8%, 14.0%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각각 7.0%, 5.8%로 가장 낮았다. 학부모 요청이라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30.8%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1.2%로 가장 낮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규모가 커질수록 본인의 희망이라는 응답은 높아지고 학부모 요청이라는 응답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원장의 권유라는 응답은 중소도시

가 25.6%로 가장 높았고, 교사회의 결정이라는 응답은 읍면지역이 15.6%로 가장 높았다.

〈부표 IV-1-2〉 장애 영유아 학급을 담당하게 된 계기: 교사

단위: %(응답수)

구분	본인 희망	원장 권유	기타	학부모 요청	교사회의	계
전체	34.6(333)	21.4(206)	18.3(176)	14.6(141)	11.1(107)	100.0(963)
기관유형						
유치원	19.3	13.9	26.5	26.1	13.3	100.0(483)
보육시설	50.0	27.9	10.0	3.1	9.0	100.0(480)
$\chi^2(df = 211.4(4))^{***}$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31.6	4.2	29.8	20.5	14.0	100.0(215)
사립유치원	9.4	23.3	23.7	30.8	12.8	100.0(266)
국공립보육시설	59.1	26.8	7.0	1.2	5.8	100.0(257)
민간보육시설	39.6	28.8	13.5	5.4	12.6	100.0(222)
$\chi^2(df = 282.0(12))^{***}$						
지역						
대도시	40.8	19.3	17.4	11.8	10.7	100.0(476)
중소도시	31.5	25.6	18.4	14.5	10.0	100.0(359)
읍면지역	20.3	17.2	21.1	25.8	15.6	100.0(128)
$\chi^2(df = 35.9(8))^{***}$						

주: *** p < .001

장애 영유아를 위한 활동 계획시 참조하는 자원에 대한 교사의 응답은 <표 IV-1-3>와 같다. 전체적으로 특수교육관련 교재를 사용하여 활동을 계획한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동료교사 자문 26.5%, 인터넷 22.8% 순이었다. 기타 응답에는 일반 유아교육 관련 도서, 유아관련 교재, 월간 교수자료, 원장님 자문, 부모 상담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5)=52.5$, $p<.001$), 기관·설립유형($\chi^2(15)=83.7$,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 보육시설은 특수교육 관련 교재, 인터넷, 외부자문을 참조한다는 응답이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유치원은 동료교사 자문, 기타, 해당사항 없다는 응답이 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특수교육관련 교재, 외부자문을 참조한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각각 47.5%, 6.9%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은 각각 24.4%, 3.3%로 가장 낮았다. 동료교사의 자문을 참조한다는 응답은 국공립유치원이 35.1%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17.2%로 가장 낮았다. 인터넷을 참조한다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26.9%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13.8%로 가장 낮았다.

〈부표 IV-1-3〉 장애 영유아를 위한 활동 계획시 참조 자원

단위: %(응답수)

구분	특수교육 관련교재	동료교사 자문	인터넷	외부자문	기타	해당사항 없음	계
전체	37.5 (373)	26.5 (263)	22.8 (227)	4.9 (49)	4.3 (43)	3.9 (39)	100.0 (994)
기관유형							
유치원	30.4	33.0	21.1	3.6	6.6	5.4	100.0(503)
보육시설	44.8	19.8	24.6	6.3	2.0	2.4	100.0(491)
	$\chi^2(df) = 52.5(5)^{***}$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38.2	35.1	13.8	3.6	7.1	2.2	100.0(225)
사립유치원	24.4	31.3	26.9	3.3	6.2	8.0	100.0(275)
국공립보육시설	47.5	17.2	24.9	6.9	1.9	1.5	100.0(261)
민간보육시설	41.7	22.8	24.1	5.7	2.2	3.5	100.0(228)
	$\chi^2(df) = 83.7(15)^{***}$						
지역							
대도시	39.0	25.9	22.8	4.4	5.3	2.6	100.0(495)
중소도시	36.1	27.8	23.4	5.5	3.0	4.1	100.0(363)
읍면지역	36.0	25.0	21.3	5.1	4.4	8.1	100.0(136)
	$\chi^2(df) = 12.3(10)$						

주: *** p < .001

통합학급 활동 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대한 교사의 응답은 <표 IV-1-4>와 같다. 전체적으로 장애아의 발달 적합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응답이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일반아의 발달 적합성 35.1%, 활동의 단순성 7.3% 순이었다. 기타 응답에는 장애아와 일반아들이 서로 융합이 되어 도와가면서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많았고, 모든 아동의 발달의 적합성, 일반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장애아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것, 생활적용 프로그램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4)=56.9$, $p<.001$), 기관·설립유형($\chi^2(12)=81.7$,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 유치원은 일반아의 발달 적합성, 특수기자재가 적게 요구되는 활동에 대한 응답이 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보육시설은 장애아의 발달

적합성, 활동의 단순성에 대한 응답이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장애아의 발달 적합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62.8%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35.3%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일반아의 발달 적합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50.6%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21.5%로 가장 낮았다. 활동의 단순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은 민간보육시설이 1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립유치원이 3.3%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특수기자재가 적게 요구되는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1.9%로 가장 높았고, 민간보육시설은 하나도 없었다. 사립유치원 교사가 일반아의 발달 적합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사립유치원에서는 대부분 일반학급에 장애 유아가 한두 명 통합되고 이에 따라 일반아 중심의 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표 IV-1-4〉 통합학급 활동 선택시 중요 고려 요소

단위: %(응답수)

구분	장애아의 발달의 적합성	일반아의 발달의 적합성	활동의 단순성	기타	특수 기자재가 적게 요구됨	계
전체	49.7(489)	35.1(345)	7.3(72)	6.8(67)	1.1(11)	100.0(984)
기관유형						
유치원	41.3	45.1	4.7	7.1	1.8	100.0(494)
보육시설	58.2	24.9	10.0	6.5	0.4	100.0(490)
$\chi^2(df) = 56.9(4)^{***}$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48.6	38.3	6.3	5.0	1.8	100.0(222)
사립유치원	35.3	50.6	3.3	8.9	1.9	100.0(269)
국공립보육시설	62.8	21.5	7.7	7.7	0.4	100.0(261)
민간보육시설	52.9	29.1	12.8	5.3	-	100.0(227)
$\chi^2(df) = 81.7(12)^{***}$						
지역						
대도시	48.8	36.3	5.9	8.0	1.0	100.0(490)
중소도시	50.7	33.4	8.1	6.7	1.1	100.0(359)
읍면지역	50.4	34.8	10.4	3.0	1.5	100.0(135)
$\chi^2(df) = 8.1(8)$						

주: *** p < .001

라. 가정 및 타 기관 연계

부모를 대상으로 기관에서 기본생활습관 기르기, 장애 관련 치료 기관 소개, 가정에서의 문제행동 대처방법, 장애의 원인과 특성, 가족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관련된 정보 제공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부표 IV-1-5>, <부표 IV-1-6>과 같다.

기본생활습관 기르기에 관련된 정보 제공은 전체적으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충분 36.2%, 불충분 15.0%, 잘 모름 2.0%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3)=9.3$, $p<.05$), 기관·설립유형($\chi^2(9)=36.0$,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 기본생활습관 기르기에 관련된 정보 제공 정도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보육시설이 42.4%로 유치원의 32.3%보다 높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기본생활습관 기르기에 관련된 정보 제공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47.7%로 가장 높았으며, 사립유치원이 24.9%로 가장 낮았으며,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20.5%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6.9%로 가장 낮았다.

장애 관련 치료기관 소개에 대한 정보 제공 정도 역시 전체적으로 보통이라는 의견이 45.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불충분 25.0%, 충분 23.7%, 잘 모름 5.4%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유형($\chi^2(3)=16.6$, $p<.01$)과 기관·설립유형($\chi^2(9)=32.9$,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 장애 관련 치료기관 소개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보육시설이 27.7%로 유치원 21.0%보다 높았으며,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유치원이 27.8%로 보육시설 20.7%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장애 관련 치료기관 소개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민간보육시설이 32.1%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18.9%로 가장 낮았으며,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32.8%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17.7%로 가장 낮았다.

가정에서의 문제행동 대처방법에 대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는 정도 역시 전체적으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48.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불충분 31.1%, 충분 17.0%, 잘 모름 3.3%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설립유형($\chi^2(9)=34.8$,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가정에서의 문제행동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24.6%로 국공립유치원이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11.0%로 가장 낮았으며,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39.9%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16.9%로 가장 낮았다.

장애 원인과 특성에 관련된 정보 제공은 전체적으로 보통이라는 의견이 46.3%로 가

장 높았고 그 다음은 불충분 34.8%, 충분 13.7%, 잘 모름 5.2%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설립유형($\chi^2(9)=46.2,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장애의 원인과 특성에 관련된 정보제공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국공립유치원이 25.8%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7.2%로 가장 낮았으며,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44.1%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17.4%로 가장 낮았다.

가족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은 전체적으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44.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불충분 41.1%, 충분 9.8%, 잘 모름 5.1%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3)=16.2, p<.01$)과 기관·설립유형($\chi^2(9)=34.8,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 가족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유치원이 11.3%로 보육시설 7.5%보다 높았고,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보육시설이 43.7%로 유치원 39.5%보다 높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가족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정도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국공립유치원이 18.5%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7.3%로 가장 낮았으며,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민간보육시설이 45.3%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29.2%로 가장 낮았다.

〈부표 IV-1-5〉 부모 대상 정보 제공 정도 I

단위: %(응답수)

구분	기본 생활습관				계	장애관련 치료기관 소개				계	문제행동 대처방법				계
	충분	보통	불충분	잘 모름		충분	보통	불충분	잘 모름		충분	보통	불충분	잘 모름	
전체	36.2 (239)	46.8 (309)	15.0 (99)	2.0 (13)	100.0 (660)	23.7 (154)	45.9 (299)	25.0 (163)	5.4 (35)	100.0 (651)	17.0 (112)	48.6 (320)	31.1 (205)	3.3 (22)	100.0 (659)
기관유형															
유치원	32.3	48.9	16.1	2.7	100.0 (403)	21.0	43.5	27.8	7.6	100.0 (395)	15.4	47.9	32.5	4.2	100.0 (403)
보육시설	42.4	43.6	13.2	0.8	100.0 (257)	27.7	49.6	20.7	2.0	100.0 (256)	19.5	49.6	28.9	2.0	100.0 (256)
$\chi^2(df)$	9.3(3)*					16.6(3)**					4.7(3)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47.7	43.1	6.9	2.3	100.0 (130)	25.4	50.8	17.7	6.2	100.0 (130)	24.6	53.8	16.9	4.6	100.0 (130)
사립유치원	24.9	51.6	20.5	2.9	100.0 (273)	18.9	40.0	32.8	8.3	100.0 (265)	11.0	45.1	39.9	4.0	100.0 (273)
국공립보육시설	45.6	41.6	12.8	-	100.0 (125)	23.2	52.8	23.2	0.8	100.0 (125)	16.1	54.8	28.2	0.8	100.0 (124)
민간보육시설	39.4	45.5	13.6	1.5	100.0 (132)	32.1	46.6	18.3	3.1	100.0 (131)	22.7	44.7	29.5	3.0	100.0 (132)
$\chi^2(df)$	36.0(9)***					32.9(9)***					34.8(9)***				

지역															
대도시	39.6	46.0	12.5	1.9	100.0 (313)	20.8	48.4	25.6	5.2	100.0 (308)	17.5	49.0	30.9	2.5	100.0 (314)
중소도시	34.3	46.8	17.7	1.2	100.0 (248)	25.1	43.2	26.7	4.9	100.0 (243)	14.7	49.8	31.4	4.1	100.0 (245)
읍면지역	30.3	49.5	16.2	4.0	100.0 (99)	29.0	45.0	19.0	7.0	100.0 (100)	21.0	44.0	31.0	4.0	100.0 (100)
$\chi^2(df)$	8.0(6)				5.7(6)				3.4(6)						

주: * p < .05, *** p < .001

〈부표 IV-1-6〉 부모 대상 정보 제공 정도 II

단위: %(응답수)

구분	장애의 원인과 특성				계	가족의 스트레스 대처방법				계
	충분	보통	불충분	잘모름		충분	보통	불충분	잘모름	
전체	13.7 (90)	46.3 (303)	34.8 (228)	5.2 (34)	100.0 (655)	9.8 (64)	44.0 (287)	41.1 (268)	5.1 (33)	100.0 (652)
기관유형										
유치원	15.1	43.5	35.3	6.0	100.0 (402)	11.3	41.8	39.5	7.5	100.0 (400)
보육시설	11.5	50.6	34.0	4.0	100.0 (253)	7.5	47.6	43.7	1.2	100.0 (252)
$\chi^2(df)$	4.5(3)					6.2(3)**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25.8	51.5	17.4	5.3	100.0 (132)	18.5	46.9	29.2	5.4	100.0 (130)
사립유치원	10.0	39.6	44.1	6.3	100.0 (270)	7.8	39.3	44.4	8.5	100.0 (270)
국공립보육시설	7.2	55.2	34.4	3.2	100.0 (125)	7.3	50.0	41.9	0.8	100.0 (124)
민간보육시설	15.6	46.1	33.6	4.7	100.0 (128)	7.8	45.3	45.3	1.6	100.0 (128)
$\chi^2(df)$	46.2(9)***					34.8(9)***				
지역										
대도시	12.9	45.3	36.2	5.5	100.0 (309)	8.2	42.2	43.5	6.2	100.0 (306)
중소도시	13.9	49.0	33.1	4.1	100.0 (245)	10.2	45.1	40.2	4.5	100.0 (246)
읍면지역	15.8	42.6	34.7	6.9	100.0 (101)	14.0	47.0	36.0	3.0	100.0 (100)
$\chi^2(df)$	2.8(6)					6.0(6)				

주: ** p < .01, *** p < .001

연락장, 부모 오리엔테이션, 이메일이나 전화상담, 적응기간 안내와 평가, 교육계획 및 실행 협조 요청, 원아 가족 나들이, 계획된 가정방문 등의 가정 연계 프로그램의 소개 여부, 참여 여부, 최근 4개월 간 참여와 희망 횟수에 대한 응답은 다음 <부표 IV-1-7>, <부표 IV-1-8>, <부표 IV-1-9>, <부표 IV-1-10>과 같다.

연락장에 대한 소개여부는 소개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이 80.5%로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 19.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참여 여부 역시 참여 한다는 응답이 82.6%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 17.4%보다 높았다. 참여 횟수는 7.6회로 나타났다, 희망 횟수는 8.0회로 참여 횟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소개 및 참여 여부 모두 기관유형($\chi^2(1)=21.5, p<.001, \chi^2(1)=18.4, p<.001$), 기관·설립유형($\chi^2(3)=27.6, p<.001, \chi^2(3)=32.4, p<.001$), 지역($\chi^2(2)=7.4, p<.05, \chi^2(2)=17.5,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연락장을 소개받았다는 응답은 보육시설이 86.2%로 유치원 73.3%보다 높았으며, 실제 참여 여부 역시 보육시설이 87.9%로 유치원 75.3%보다 높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연락장을 소개 받았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88.8%로 가장 높았으며, 국공립유치원이 71.5%로 가장 낮았다. 참여 여부 역시 국공립보육시설이 참여한다는 응답이 92.0%로 가장 높았으며, 국공립유치원이 68.9%로 가장 낮았다. 지역에 따라서 연락장에 대한 소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대도시가 83.5%로 가장 높았고, 읍면지역이 72.0%로 가장 낮았다. 실제 연락장 참여 여부 역시 참여 한다는 응답이 대도시가 86.7%로 가장 높았고, 읍면지역이 67.8%로 가장 낮았다.

부모 오리엔테이션에 대해 소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79.8%로 없다는 응답 20.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모 오리엔테이션 참여 여부에 대하여는 실제로 참여한다는 응답은 70.6%로 불참한다는 29.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제 참여 횟수는 1.2회였으며 희망하는 횟수는 2.7회로 실제 참여 횟수보다 높았다. 부모 오리엔테이션의 참여 여부는 기관·설립유형($\chi^2(3)=88.1,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부모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다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75.0%로 가장 높았고, 민간보육시설이 61.8%로 참여율이 가장 낮았다.

이메일과 전화 상담에 대하여 소개 받았는지의 여부는 전체적으로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78.6%로 소개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 21.4%보다 높게 나타났다. 참여 여부 역시 참여 한다는 응답이 78.9%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21.1%보다 높았다. 참여 횟수는 6.1회로 나타났으며, 희망 횟수는 5.1회로 참여하는 횟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소개 여부와 참여 여부 모두 기관유형($\chi^2(1)=21.6$, $p<.001$, $\chi^2(1)=21.8$, $p<.001$), 기관·설립유형($\chi^2(3)=28.2$, $p<.001$, $\chi^2(3)=21.3$,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 이메일 및 전화 상담을 소개 받았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소개 받았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유치원이 86.0%로 보육시설의 72.4%보다 높았으며, 실제 참여율 역시 유치원이 87.1%로 보육시설의 72.0%보다 높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이메일 및 전화 상담에 대하여 소개 받았다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이 88.6%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69.3%로 가장 낮았다. 이메일 및 전화상담의 실제 참여 여부 역시 사립유치원이 88.7%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70.9%로 가장 낮았다.

적응기간 안내 및 평가에 대해 소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63.9%로 소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 36.1%보다 높았다. 실제 참여 여부 역시 참여한다는 응답이 63.3%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36.7%보다 높았으며, 실제 참여 횟수는 0.9회, 희망 횟수는 1.4회로 희망 횟수가 실제 참여 횟수보다 많았다. 이러한 응답은 소개 여부와 참여 여부 모두 기관유형($\chi^2(1)=14.1$, $p<.001$, $\chi^2(1)=14.4$, $p<.001$), 기관·설립유형($\chi^2(3)=16.1$, $p<.001$, $\chi^2(3)=19.1$, $p<.001$), 지역($\chi^2(2)=6.5$, $p<.05$, $\chi^2(3)=6.7$,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계획 및 실행 협조 요청 여부에 대하여 요청 받았다는 응답은 62.5%로 요청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 37.5%보다 높았다. 실제적으로 참여했다는 응답은 68.2%로 참여 하지 않았다는 응답의 31.8%보다 높았다. 참여 횟수는 1.7회로 참여 희망 횟수 1.7회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소개 및 참여 여부 모두에서 기관유형($\chi^2(1)=37.3$, $p<.001$, $\chi^2(1)=10.2$, $p<.01$)과 기관·설립유형($\chi^2(3)=53.1$, $p<.001$, $\chi^2(3)=32.1$,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지역에 따라서는 참여 여부($\chi^2(2)=6.4$, $p<.05$)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관유형에 따라서 살펴보면, 교육계획 및 실행 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응답은 보육시설이 71.9%로 유치원의 50.4%보다 높았다. 또한 실제 참여 여부 역시 보육 시설이 73.4%로 유치원의 61.0%보다 높았다. 기관·설립유형별로는 교육계획 및 실행 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73.6%로 가장 높았으며, 사립유치원이 42.2%로 가장 낮았다. 실제 참여 여부에도 국공립보육시설이 77.4%의 가장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으며, 사립유치원이 51.7%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 소개 여부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참여 여부는 참여 했다는 응답 이 대도시가 72.6%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가 62.1%로 가장 낮았다.

원아 가족 나들이에 대한 응답은 소개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6%로 소개하지 않는다는 응답 36.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원아 가족 나들이 참여 여부는 불참한다는 응답이 66.4%로 참여한다는 응답의 33.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참여 횟수는 0.5회이고, 희망 횟수는 1.4회로 참여 횟수보다 높았다. 이러한 응답은 관련 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관유형에 따라 적응기간 안내 및 평가에 대한 소개 여부는 소개 받았다는 응답이 보육시설이 69.8%로 유치원의 56.8%보다 높았으며, 참여 여부 역시 보육시설이 69.9%로 유치원의 54.7%보다 높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적응기간 안내 및 평가에 대한 소개 여부는 소개를 받았다는 응답이 국공립보육시설이 71.8%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53.4%로 가장 낮았으며, 참여 여부는 참여한다는 응답이 국공립보육시설이 72.0%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이 46.1%로 가장 낮았다. 지역에 따라 적응기간 안내 및 평가에 대하여 소개받았다는 응답은 대도시가 67.0%로 가장 높았고, 읍면 도시가 53.4%로 가장 낮았다. 실제 참여 여부 역시 대도시가 67.1%로 가장 높았고, 읍면 도시가 51.3%로 가장 낮았다.

계획된 가정방문에 대한 소개여부는 소개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79.6%로 소개받았다는 응답 20.4%보다 높았다. 실제 가정방문의 여부 역시 불참이 71.6%로 참여 28.4%보다 높았으며, 참여 횟수는 0.4회, 희망 횟수는 0.6회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소개 여부, 참여 여부 모두 기관유형($\chi^2(1)=30.2$, $p<.001$, $\chi^2(1)=20.1$, $p<.001$), 기관·설립 유형($\chi^2(3)=36.0$, $p<.001$, $\chi^2(3)=23.1$,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 계획된 가정방문에 대하여 소개 받았다는 응답은 보육시설이 27.5%로 유치원의 11.6%보다 높았으며, 실제 참여 여부 역시 보육시설이 35.8%로 유치원의 18.0%보다 높았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 계획된 가정방문에 대하여 소개 받았다는 응답은 국공립보육시설이 30.2%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8.8%로 가장 낮았다. 실제 참여 여부 역시 국공립 보육 시설이 38.9%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16.2%로 가장 낮았다.

〈부표 IV-1-7〉 가정 연계 프로그램의 소개 및 참여 여부와 참여 희망 횟수 I

단위: %(응답수), 회

구분	연락장								부모 오리엔테이션							
	소개여부		계	참여여부		계	빈도		소개여부		계	참여여부		계	빈도	
	있음	없음		참여	불참		참여	희망	있음	없음		참여	불참		참여	희망
전체	80.5 (657)	19.5 (159)	100.0 (816)	82.6 (566)	17.4 (119)	100.0 (685)	7.6 (218)	8.0 (122)	79.8 (666)	20.2 (169)	100.0 (835)	70.6 (540)	29.4 (225)	100.0 (765)	1.2 (536)	2.7 (285)
기관유형																
유치원	73.3 (359)	26.7 (129)	100.0 (359)	75.3 (359)	24.7 (119)	100.0 (288)	4.3 (21)	9.8 (50)	78.8 (373)	21.2 (102)	100.0 (373)	71.8 (348)	28.2 (133)	100.0 (348)	1.3 (62)	1.5 (73)
보육시설	86.2 (457)	13.8 (72)	100.0 (457)	87.9 (457)	12.1 (62)	100.0 (397)	10.8 (54)	6.2 (31)	80.5 (462)	19.5 (103)	100.0 (462)	69.5 (341)	30.5 (151)	100.0 (417)	1.1 (54)	1.2 (60)
	$\chi^2(df = 21.5(1)***$				$\chi^2(df = 18.4(1)***$				$\chi^2(df = 0.4(1)$				$\chi^2(df = 0.5(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 유치원	71.5 (123)	28.5 (50)	100.0 (123)	68.9 (123)	31.1 (56)	100.0 (103)	4.5 (23)	7.7 (40)	74.8 (123)	25.2 (45)	100.0 (123)	68.4 (114)	31.6 (59)	100.0 (114)	1.1 (56)	1.7 (91)
사립 유치원	73.5 (219)	26.5 (120)	100.0 (219)	79.7 (219)	20.3 (94)	100.0 (172)	4.3 (21)	5.5 (28)	81.8 (231)	18.2 (87)	100.0 (231)	75.0 (216)	25.0 (75)	100.0 (216)	1.4 (70)	1.4 (70)
국공립 보육시설	88.8 (294)	11.2 (37)	100.0 (294)	92.0 (294)	8.0 (26)	100.0 (262)	11.1 (37)	11.3 (37)	82.5 (297)	17.5 (58)	100.0 (297)	73.8 (267)	26.2 (89)	100.0 (267)	1.1 (56)	1.2 (63)
민간 보육시설	84.5 (129)	15.5 (23)	100.0 (129)	77.7 (129)	22.3 (34)	100.0 (112)	11.0 (37)	7.4 (25)	77.9 (131)	22.1 (36)	100.0 (131)	61.8 (123)	38.2 (78)	100.0 (123)	1.1 (56)	1.4 (70)
	$\chi^2(df = 27.6(3)***$				$\chi^2(df = 32.4(3)***$				$\chi^2(df = 4.1(3)$				$\chi^2(df = 88.1(3)**$			
지역																
대도시	83.5 (411)	16.5 (81)	100.0 (411)	86.7 (411)	13.3 (65)	100.0 (354)	11.8 (58)	9.9 (48)	82.5 (418)	17.5 (85)	100.0 (418)	73.7 (388)	26.3 (129)	100.0 (388)	1.2 (60)	1.2 (60)
중소도시	79.5 (298)	20.5 (78)	100.0 (298)	82.0 (298)	18.0 (68)	100.0 (244)	8.9 (43)	5.7 (27)	77.4 (310)	22.6 (87)	100.0 (310)	67.9 (105)	32.1 (105)	100.0 (105)	1.3 (63)	1.5 (75)
읍면지역	72.0 (107)	28.0 (40)	100.0 (107)	67.8 (107)	32.2 (44)	100.0 (87)	7.8 (37)	6.7 (31)	75.7 (107)	24.3 (33)	100.0 (107)	66.0 (97)	34.0 (47)	100.0 (97)	1.2 (60)	1.6 (77)
	$\chi^2(df = 7.4(2)*$				$\chi^2(df = 17.5(2)***$				$\chi^2(df = 4.1(2)$				$\chi^2(df = 3.8(2)$			

주: ** p < .01

〈부표 IV-1-8〉 가정 연계 프로그램의 소개 및 참여 여부와 참여 희망 횟수 II

단위: %(응답수), 회

구분	이메일 / 전화 상담								적응기간 안내/평가								
	소개여부		계	참여여부		계	빈도		소개여부		계	참여여부		계	빈도		
	있음	없음		참여	불참		참여	희망	있음	없음		참여	불참		참여	희망	
전체	78.6 (620)	21.4 (169)	100.0 (789)	78.9 (508)	21.1 (136)	100.0 (644)	6.1 (161)	5.1 (95)	63.9 (493)	36.1 (278)	100.0 (771)	63.3 (372)	36.7 (216)	100.0 (588)	0.9 (384)	1.4 (205)	
기관유형																	
유치원	86.0	14.5	100.0 (358)	87.1	12.9	100.0 (294)	6.1	5.3	56.8	43.2	100.0 (347)	54.7	45.3	100.0 (256)	0.8	1.5	
보육시설	72.4	27.6	100.0 (431)	72.0	28.0	100.0 (350)	6.1	4.8	69.8	30.2	100.0 (424)	69.9	30.1	100.0 (332)	1.0	1.2	
			$\chi^2(df = 21.6(1)***$										$\chi^2(df = 14.1(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 유치원	80.0	20.0	100.0 (120)	84.2	15.8	100.0 (101)	5.9	6.4	53.4	46.6	100.0 (118)	46.1	53.9	100.0 (89)	0.7	1.4	
사립 유치원	88.6	11.4	100.0 (220)	88.7	11.3	100.0 (177)	5.7	4.9	58.4	41.7	100.0 (211)	60.0	40.0	100.0 (155)	0.9	1.5	
국공립 보육시설	69.3	30.7	100.0 (274)	70.9	29.1	100.0 (223)	2.9	2.9	71.8	28.2	100.0 (273)	72.0	28.0	100.0 (214)	1.1	1.3	
민간 보육시설	81.6	18.4	100.0 (125)	76.0	14.0	100.0 (104)	11.9	8.8	65.8	34.2	100.0 (120)	64.6	35.4	100.0 (96)	0.9	0.8	
			$\chi^2(df = 28.2(3)***$										$\chi^2(df = 16.1(3)**$				
지역																	
대도시	77.3	22.7	100.0 (388)	77.3	22.7	100.0 (321)	4.5	3.7	67.0	33.0	100.0 (382)	67.1	32.9	100.0 (304)	1.5	1.3	
중소도시	78.8	21.2	100.0 (292)	77.7	22.3	100.0 (238)	8.4	6.1	63.6	36.4	100.0 (286)	62.0	38.0	100.0 (208)	1.7	1.3	
읍면지역	82.6	17.4	100.0 (109)	88.2	11.8	100.0 (85)	6.4	6.8	53.4	46.6	100.0 (103)	51.3	48.7	100.0 (76)	1.7	1.3	
			$\chi^2(df = 1.4(2)$										$\chi^2(df = 6.5(2)'$				

주: *p < .05, **p < .01, ***p < .001

〈부표 IV-1-9〉 가정 연계 프로그램의 소개 및 참여 여부와 참여 희망 횟수 III

단위: %(응답수), 회

구분	교육계획 및 실행 협조 요청								원아 가족 나들이							
	소개여부		계	참여여부		계	빈도		소개여부		계	참여여부		계	빈도	
	있음	없음		참여	불참		참여	희망	있음	없음		참여	불참		참여	희망
전체	62.5 (485)	37.5 (291)	100.0 (776)	68.2 (408)	31.8 (190)	100.0 (598)	1.7 (295)	1.7 (167)	36.4 (289)	63.6 (505)	100.0 (794)	33.6 (201)	66.4 (398)	100.0 (599)	0.5 (419)	1.4 (502)
기관유형																
유치원	50.4	49.6	100.0 (339)	61.0	39.0	100.0 (249)	1.2	2.0	33.1	66.9	100.0 (359)	35.8	64.2	100.0 (260)	0.5	1.5
보육시설	71.9	28.1	100.0 (437)	73.4	26.6	100.0 (349)	2.1	1.4	39.1	60.9	100.0 (435)	31.9	68.1	100.0 (339)	0.5	1.1
	$\chi^2(df) = 37.3(1)^{***}$		$\chi^2(df) = 10.2(1)^{**}$						$\chi^2(df) = 3.0(1)$		$\chi^2(df) = 1.0(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 유치원	67.8	32.2	100.0 (118)	76.3	23.7	100.0 (93)	2.4	2.8	35.5	64.5	100 (124)	30.2	69.8	100.0 (96)	0.6	1.1
사립 유치원	42.2	57.8	100.0 (204)	51.7	48.3	100.0 (145)	0.7	1.5	31.7	68.3	100 (218)	39.3	60.7	100.0 (150)	0.6	0.9
국공립 보육시설	73.6	26.4	100.0 (288)	77.4	20.6	100.0 (230)	1.4	1.4	37.7	62.3	100 (281)	34.3	65.7	100.0 (210)	0.5	0.8
민간 보육시설	65.5	34.5	100.0 (119)	60.8	39.2	100.0 (97)	1.8	1.6	40.2	59.8	100 (122)	28.3	71.7	100.0 (106)	0.6	1.0
	$\chi^2(df) = 53.1(3)^{***}$		$\chi^2(df) = 32.1(3)^{***}$						$\chi^2(df) = 3.1(3)$		$\chi^2(df) = 4.1(3)$					
지역																
대도시	65.6	34.4	100.0 (390)	72.6	27.4	100.0 (307)	3.2	1.8	38.3	61.7	100 (389)	33.0	67.0	100.0 (303)	0.6	0.7
중소도시	58.5	41.5	100.0 (282)	62.1	37.9	100.0 (214)	2.3	1.5	34.6	65.4	100 (298)	34.0	66.0	100.0 (215)	0.6	1.0
읍면지역	61.5	38.5	100.0 (104)	67.5	32.5	100.0 (77)	2.3	2.0	34.6	65.4	100 (107)	34.6	65.4	100.0 (81)	0.6	1.4
	$\chi^2(df) = 3.6(2)$		$\chi^2(df) = 6.4(2)^*$						$\chi^2(df) = 1.2(2)$		$\chi^2(df) = 0.1(2)$					

주: *p < .05, **p < .01, ***p < .001

〈부표 IV-1-10〉 가정 연계 프로그램의 소개 및 참여 여부와 참여 희망 횟수 IV

단위: %(응답수), 회

구분	계획된 가정방문							
	소개여부		계	참여여부		계	빈도	
	있음	없음		참여	불참		참여	희망
전체	20.4 (161)	79.6 (629)	100.0 (790)	28.4 (150)	71.6 (379)	100.0 (529)	0.4 (329)	0.6 (191)
기관유형								
유치원	11.6	88.4	100.0(353)	18.0	82.0	100.0(222)	0.2	0.6
보육시설	27.5	72.5	100.0(437)	35.8	64.7	100.0(307)	0.5	0.5
	$\chi^2(df = 30.2(1)***$			$\chi^2(df = 20.1(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16.8	83.2	100.0(119)	21.3	78.7	100.0(75)	0.4	0.5
사립유치원	8.8	91.2	100.0(217)	16.2	83.8	100.0(136)	0.2	0.4
국공립보육시설	30.2	69.8	100.0(285)	38.9	61.1	100.0(203)	0.6	0.7
민간보육시설	21.0	79.0	100.0(119)	27.1	72.9	100.0(85)	0.4	0.6
	$\chi^2(df = 36.0(3)***$			$\chi^2(df = 23.1(3)***$				
지역								
대도시	21.2	78.8	100.0(391)	30.3	69.7	100.0(274)	1.1	0.6
중소도시	17.9	82.1	100.0(291)	24.2	75.8	100.0(186)	1.1	0.5
읍면지역	24.1	75.9	100.0(108)	31.9	68.1	100.0(69)	1.5	0.7
	$\chi^2(df = 2.2(2)$			$\chi^2(df = 2.5(2)$				

주: *** p < .001

기관과의 내용별 의사소통 유무에 대한 학부모의 응답은 <부표 IV-1-11>, <부표 IV-1-12>와 같다.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방안을 제외하고 모든 내용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는 비율이 의사소통을 안 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가 기관과의 의사소통을 가장 많이 하는 내용은 자녀의 기관에서의 생활로 96.0%였고, 그 다음은 자녀의 성장발달 관련 내용 94.7%, 부모협조사항 91.8%, 교육/보육과정 및 활동 관련 정보 87.5%, 자녀의 문제행동 대처방법 87.3%, 가정에서의 장애아 양육법 81.7%, 장애관련 기관 소개 및 이용법 56.7%,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방안 49.5% 순이었다.

내용별 의사소통 유무는 기관유형, 기관·설립유형,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었다. 가정에서의 장애아 양육법에 대한 기관과의 의사소통은 기관유형($\chi^2(1)=4.7$, $p<.05$)과 기관·설립유형($\chi^2(3)=10.2$,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 보육시설이 가정에서의 장애아 양육법에 대해 기관과 의사소통을 한다는 응답은 84.3%로 유치원 78.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유치원이 8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립유치원이 7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장애 관련 기관 소개 및 이용법에

대해 기관과 의사소통을 한다는 응답은 기관·설립유형($\chi^2(3)=12.0, p<.01$)과 지역($\chi^2(2)=12.3,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장애 관련 기관 소개 및 이용법에 대해 기관과 의사소통을 한다는 응답은 국공립유치원이 67.2%로 가장 높았으며, 사립유치원이 52.0%로 가장 낮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이 72.22%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가 53.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표 IV-1-11〉 기관과의 내용별 의사소통 유무 1: 학부모

단위: %(응답수)

구분	자녀의 기관 생활			자녀의 성장발달			부모협조사항			교육(보육) 과정 및 활동		
	의사 소통 함	의사 소통 안함	계	의사 소통 함	의사 소통 안함	계	의사 소통 함	의사 소통 안함	계	의사 소통 함	의사 소통 안함	계
전체	96.0 (817)	4.0 (34)	100.0 (851)	94.7 (820)	5.3 (46)	100.0 (866)	91.8 (771)	8.2 (69)	100.0 (840)	87.5 (742)	12.5 (106)	100.0 (848)
기관유형												
유치원	96.3 (382)	3.7 (34)	100.0 (382)	94.2 (382)	5.8 (46)	100.0 (394)	91.5 (394)	8.5 (69)	100.0 (377)	87.3 (377)	12.7 (106)	100.0 (379)
보육시설	95.7 (469)	4.3 (34)	100.0 (469)	95.1 (469)	4.9 (46)	100.0 (472)	92.0 (469)	8.0 (69)	100.0 (463)	87.6 (463)	12.4 (106)	100.0 (469)
$\chi^2(df)$	0.2(1)			0.4(1)			0.1(1)			0.0(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 유치원	93.8 (128)	6.3 (34)	100.0 (128)	94.7 (128)	5.3 (46)	100.0 (132)	91.9 (128)	8.9 (69)	100.0 (124)	84.1 (124)	15.9 (106)	100.0 (126)
사립 유치원	97.9 (234)	2.1 (34)	100.0 (234)	93.8 (234)	6.2 (46)	100.0 (242)	91.9 (234)	8.1 (69)	100.0 (234)	88.8 (234)	11.2 (106)	100.0 (233)
국공립 보육시설	96.3 (301)	3.7 (34)	100.0 (301)	95.7 (301)	4.3 (46)	100.0 (300)	91.9 (301)	8.1 (69)	100.0 (298)	89.7 (298)	10.3 (106)	100.0 (301)
민간 보육시설	94.7 (133)	5.3 (34)	100.0 (133)	93.4 (133)	6.6 (46)	100.0 (137)	91.7 (133)	8.3 (69)	100.0 (133)	81.2 (133)	18.8 (106)	100.0 (133)
$\chi^2(df)$	4.5(3)			1.3(3)			0.1(3)			7.6(3)		
지역												
대도시	95.6 (428)	4.4 (34)	100.0 (428)	95.8 (428)	4.2 (46)	100.0 (431)	91.7 (428)	8.3 (69)	100.0 (422)	87.4 (422)	12.6 (106)	100.0 (429)
중소도시	96.8 (310)	3.2 (34)	100.0 (310)	93.4 (310)	6.6 (46)	100.0 (319)	91.2 (310)	8.8 (69)	100.0 (307)	86.9 (307)	13.1 (106)	100.0 (306)
읍면지역	95.6 (113)	4.4 (34)	100.0 (113)	94.0 (113)	6.0 (46)	100.0 (116)	93.7 (113)	6.3 (69)	100.0 (111)	89.4 (111)	10.6 (106)	100.0 (113)
$\chi^2(df)$	0.8(2)			2.3(2)			0.7(2)			0.5(2)		

주: *p < .05

〈부표 IV-1-12〉 기관과의 내용별 의사소통 유무 II: 학부모

단위: %(응답수)

구분	자녀의 문제행동 대처 방법		계	가정에서의 장애인 양육법		계	장애 관련 기관 소개 및 이용법		계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 방안		계
	의사소통함	의사소통안함		의사소통함	의사소통안함		의사소통함	의사소통안함		의사소통함	의사소통안함	
	전체	87.3 (737)	12.7 (107)	100.0 (844)	81.7 (685)	18.3 (153)	100.0 (838)	56.7 (456)	43.3 (356)	100.0 (822)	49.5 (411)	50.5 (420)
기관유형												
보육시설	86.2	13.8	100.0 (377)	78.5	21.5	100.0 (390)	57.1	42.9	100.0 (364)	50.9	49.1	100.0 (375)
유치원	88.2	11.8	100.0 (467)	84.3	15.7	100.0 (460)	56.3	43.7	100.0 (458)	48.2	51.8	100.0 (456)
$\chi^2(df)$	0.8(1)			4.7(1)*			0.1(1)			0.6(1)		
기관·설립유형												
국공립 유치원	84.1	15.9	100.0 (126)	86.1	13.9	100.0 (122)	67.2	32.8	100.0 (119)	56.8	43.2	100.0 (125)
사립 유치원	88.4	11.6	100.0 (232)	75.5	24.5	100.0 (233)	52.0	48.0	100.0 (227)	49.1	50.9	100.0 (232)
국공립 보육시설	89.3	10.7	100.0 (299)	84.9	15.1	100.0 (299)	52.6	47.4	100.0 (293)	45.5	54.5	100.0 (292)
민간 보육시설	85.7	14.3	100.0 (133)	84.2	15.8	100.0 (133)	63.6	36.4	100.0 (132)	55.3	44.7	100.0 (132)
$\chi^2(df)$	2.8(3)			10.2(3)*			12.0(3)**			6.2(3)		
지역												
대도시	88.5	11.6	100.0 (425)	83.0	17.0	100.0 (424)	54.7	45.3	100.0 (415)	50.4	49.6	100.0 (419)
중소도시	86.6	13.4	100.0 (307)	78.1	21.9	100.0 (306)	53.8	46.2	100.0 (299)	47.7	52.3	100.0 (302)
읍면지역	84.8	15.2	100.0 (112)	87.0	13.0	100.0 (108)	72.2	27.8	100.0 (108)	50.9	49.1	100.0 (110)
$\chi^2(df)$	1.3(2)			5.2(2)			12.3(2)**			0.6(2)		

주: *p < .05, **p < .01, ***p < .001

부모가 자녀 양육과 관련해 조언을 구하는 대상에 대한 응답은 다음 <부표 IV-1-13>과 같다. 전체적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해 조언을 구하는 대상은 기관 원장 및 교사라는 응답이 34.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다른 장애인 부모 27.5%, 의사 및 치료사 22.5% 순이었고, 나머지는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chi^2(8)=15.6,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 자녀 양육과 관련해 기관 원장 및 교사나 의사 및 치료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비율은 유치원이 각각 35.4%, 24.3%로 보육시설 각각 32.9%, 20.9%에 비해 높았고, 다른 장애아 부모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응답 비율은 보육시설이 31.0%로 유치원 23.3%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표 IV-1-13〉 자녀양육 관련 조언을 구하는 대상

단위: %(응답수)

구분	기관 원장/ 교사	다른 장애아 부모	의사/ 치료사	사실 기관 교사	친구	복지관 상담 직원	없음	종교 성직자	기타	계
전체	34.0 (304)	27.5 (246)	22.5 (201)	5.1 (46)	3.6 (32)	2.9 (26)	1.7 (15)	1.5 (13)	1.2 (11)	100.0 (894)
기관유형										
유치원	35.4	23.3	24.3	5.2	3.7	3.4	0.7	2.0	2.0	100.0(407)
보육시설	32.9	31.0	20.9	5.1	3.5	2.5	2.5	1.0	0.6	100.0(487)
	$\chi^2(df) = 15.6(8)^*$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43.4	21.1	20.6	2.2	4.4	2.9	0.7	2.2	1.5	100.0(136)
사립유치원	31.2	24.0	26.0	6.8	3.6	3.6	0.8	1.6	2.4	100.0(250)
국공립보육시설	29.9	34.4	22.2	5.5	3.5	1.6	2.3	0.3	0.3	100.0(311)
민간보육시설	40.3	25.2	15.8	4.3	3.6	4.3	3.6	2.9	-	100.0(139)
	$\chi^2(df) = na$									
지역										
대도시	31.2	29.7	23.8	4.7	3.4	2.5	2.0	1.1	1.6	100.0(445)
중소도시	34.3	28.9	20.8	6.0	3.3	20.7	1.5	1.8	0.6	100.0(332)
읍면지역	43.6	15.4	22.2	4.3	5.1	5.1	0.9	1.7	1.7	100.0(117)
	$\chi^2(df) = na$									

주: * $p < .05$, ** $p < .01$, *** $p < .001$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연구보고 2007-07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

발행일 2007년 12월

발행인 이 옥

발행처 육아정책개발센터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15-8 93330